

保寧의 洞祭



大川文化院

保寧의 洞祭

大川文化院

발 간 사

우리 보령 지방은 푸른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요로운 땅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많은 문화유산을 남겨 놓았습니다. 300여 기의 고인돌, 보령 전역에 분포하는 청동기 시대 유적·유물, 많은 성곽, 절터 등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유형의 문화유산만 관심을 가지고 각종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자취는 유형의 문화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명, 민속, 전설 등 무형의 문화유산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령 지방은 이런 무형의 문화유산도 우리 나라 어느 지방보다 풍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전해줄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천문화원에서는 「보령의 洞祭」를 조사 단행본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 전에만 조사했어도 더 많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조사가 이루어져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는 무형의 문화유산도 돌아보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마을의 어른들과 수 년동안 조사하는 데 수고해 주신 황의호 선생님, 그 외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 12월 30일

대천문화원장 윤 병 배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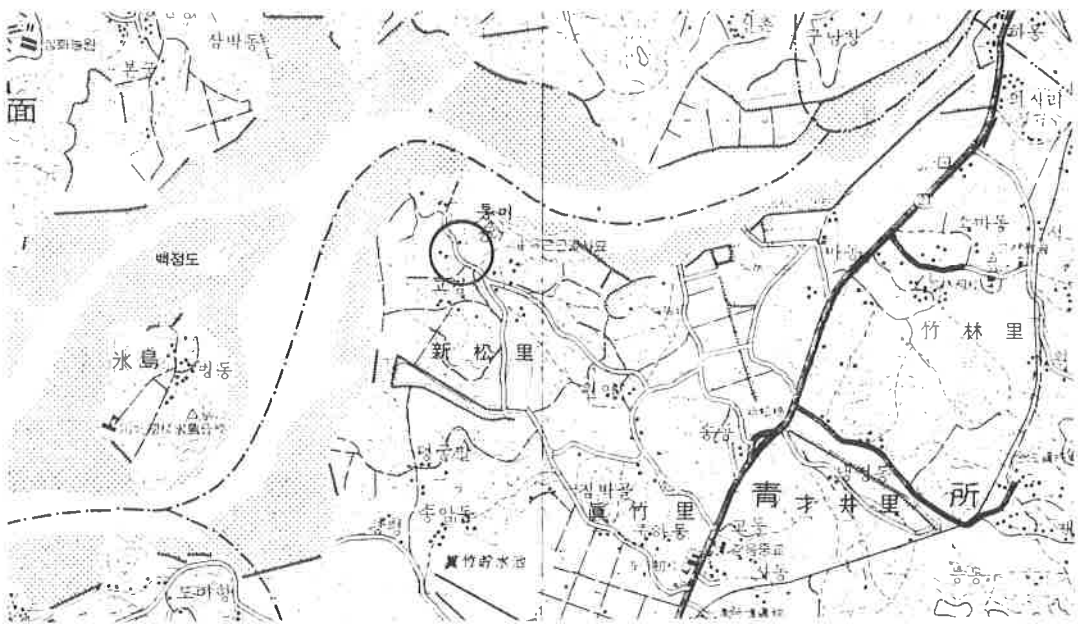
1. 고잠 마을 당제(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1
2. 쉼바탕이 마을 동제(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1
3. 칩머리 마을 고목제(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38
4. 대천동 동제(보령시 대천동)	49
5. 새터 마을 독제(보령시 대천동)	64
6. 고리굴 마을 괴목제(보령시 화산동)	70
7. 오얏굴 마을 산신제(보령시 화산동)	78
8. 녹문 마을 동제(보령시 내항동)	87
9. 갸발 마을 동제(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98
10. 임척굴 마을 동제(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111
11. 먹방 마을 동제(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21
12. 성주5리 동제(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40
13. 성주7리 산제(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59
14. 성주8리 산신제(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68
15. 지계굴 마을 동제(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75
16. 지석굴 마을 동제(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195
17. 조잠 마을 동제(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219
18. 가라티 마을 동제(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234
19. 마차울 마을 동제(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252
20. 안성굴 마을 동제(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260
21. 한내 마을 동제(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269
22. 청석다리 마을 동제(보령시 웅천읍 금암리)	277
23. 샷갯재 마을 단오제(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95

1. 고잠 마을 당제

1.마을의 개관

고잠 마을은 청소면 신송리 서북쪽 끝에 위치한다. 청소면 소재지인 진죽리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재정리와의 경계 지역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통해 들어간다. 이곳 주변은 시대 미상의 편마암 분포 지역으로 심층 풍화되면서 낮은 구릉을 이루고, 구릉 사이를 바다가 만입(灣入)한다. 따라서 마을의 북쪽·서쪽·남쪽은 모두 바다이며, 예부터 소규모의 간척 사업을 벌여 농토를 조성하였다. 간척지에서의 벼농사, 구릉지에서의 밭농사, 염전, 주변 조간대에서 맨손 어업 등으로 생업을 영위하던 마을이었다.

대규모의 간척지는 마을의 남쪽에 있다. 마을 남쪽의 큰 만을 상부부터 여러 차례 간척하여 마을이 확대되었다. 최초의 간척지를 이룩한 마을은 원안 마을이고 점차 서쪽으로 마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지역인 고잠 마을은 일제 시대 간척된 대규모 간척지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일제 시대 이전에는 주변에 작은 간척지를 조성하여 벼농사를 짓고, 구릉에서 밭농사를 짓고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제 시대에 대규모의 간척지를 만들면서 인구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고잠 마을 지형도(1:50000)



고잠 마을 지형도(1:5000×0.82)

이 마을은 遼安 이씨 집성촌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안 이씨가 15C 중엽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제 시대 대규모 간척 사업의 결과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 현재는 여러 성씨가 거주한다. 연도별 성금 내역서에 의한 성씨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씨별 분포

연도	총원	김	이	최	조	라	고	경	곽	서	손	박	차	전	원
1979	58	23	20	3	3	2	1	1	1	1	1	1	1		
1981	62	28	15	3	5	2	1	1	1	1	1	2	1	1	
1983	61	27	16	4	4	2	1	1	1	1	1	2	1		
1984	59	26	16	4	3	2	1	1	1	1		2			
1986	58	28	17	3	3	2		1	1	1		2			
1989	59	26	17	3	3	1	2	2	1	1		2			1
1991	54	26	15	3	3	1	1	1	1	1		1			1

(자료: 山祭憑簿)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고잠 마을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성씨는 김씨이고, 다음으로 이씨, 최씨, 조씨, 박씨 등이다.

이 마을의 산제가 수안 이씨의 입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수안 이씨가 주도적으로 산제를 지냈다고 전해지나 1969년부터 2002년까지 34년간의 당주 명부에 의하면 김씨가 23회, 이씨가 8회, 조씨 1회, 임씨 1회, 최씨 1회 당주를 맡았다.

마을로 통하는 작은 고개인 솔고개와 원안 마을로 통하는 성황당에 장승과 솟대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모두 없어졌다. 솟대는 수안 이씨가 과거에 합격한 뒤 세웠다고 전한다. 현재 50여 호가 거주하며 교회에 다니는 집은 1집이다.

2.당제의 유래

마을에서는 수안 이씨가 고잠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 지냈다고 전한다. 매년 새로 만드는 축문책의 표지에 堂紀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1999년의 경우

堂紀 五百五十一年) 1449년부터 지낸 것으로 보여지나 처음부터 축문책에 당기를 표기한 것이 아니고 후세에 선조들이 낙향한 해를 기점으로 당기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잠 마을이 수안 이씨의 집성촌이고 당제를 수안 이씨가 주도한 사실을 말해준다.

당집 안의 왼쪽 벽에 걸려 있는 유래기에도 수안 이씨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당제를 지냈다고 써어있다.

얼마 전에 3~4년 동안 당제를 지내지 않아 마을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다시 지냈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1970년대 암자를 정리할 때도 마을 주민의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보존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당집에서 발견된 당주명부와 축문책에 의한 역대 당주는 다음과 같다.

1. 이철희 乙酉年(1969) 堂紀 五百二十一年
2. 김돈제 庚戌年(1970) 堂紀 五百二十二年
3. 김동협 辛亥年(1971) 堂紀 五百二十三年
4. 김각제 壬子年(1972) 堂紀 五百二十四年
5. 조영희 癸丑年(1973) 堂紀 五百二十五年
6. 김남용 甲寅年(1974) 堂紀 五百二十六年
7. 이기홍 乙卯年(1975) 堂紀 五百二十七年
8. 김동필 丙辰年(1976) 堂紀 五百二十八年
9. 김구제 丁巳年(1977) 堂紀 五百二十九年
10. 김창덕 戊午年(1978) 堂紀 五百三十年
11. 임홍섭 乙未年(1979) 堂紀 五百三十一年
12. 김홍섭 庚申年(1980) 堂紀 五百三十二年
13. 이철희 辛酉年(1981) 堂紀 五百三十三年
14. 이기홍 壬戌年(1982) 堂紀 五百三十四年
15. 김창덕 癸亥年(1983) 堂紀 五百三十五年
16. 김창덕 甲子年(1984) 堂紀 五百三十六年
17. 김동학 乙丑年(1985) 堂紀 五百三十七年
18. 김동일 丙寅年(1986) 堂紀 五百三十八年
19. 이순호 丁卯年(1987) 堂紀 五百三十九年

- | | | | | |
|--------|-----------|----|--------|-----------------|
| 20.김동룡 | 戊辰年(1988) | 堂紀 | 五百四十年 | |
| 21.이태현 | 己巳年(1989) | 堂紀 | 五百四十一年 | |
| 22.김인환 | 庚午年(1990) | 堂紀 | 五百四十二年 | |
| 23.김동룡 | 辛未年(1991) | 堂紀 | 五百四十三年 | |
| 24.김동성 | 壬申年(1992) | 堂紀 | 五百四十四年 | 당주를 말으려는 사람이 없어 |
| 25.이정웅 | 癸酉年(1993) | 堂紀 | 五百四十五年 | 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함 |
| 26.김동일 | 甲戌年(1994) | 堂紀 | 五百四十六年 | |
| 27.김동일 | 乙亥年(1995) | 堂紀 | 五百四十七年 | |
| 28.이기상 | 丙子年(1996) | 堂紀 | 五百四十八年 | |
| 29.김동룡 | 丁丑年(1997) | 堂紀 | 五百四十九年 | |
| 30.김동학 | 戊寅年(1998) | 堂紀 | 五百五十年 | |
| 31.김복룡 | 己卯年(1999) | 堂紀 | 五百五十一年 | |
| 32.김동국 | 庚辰年(2000) | 堂紀 | 五百五十二年 | |
| 33.김동일 | 辛巳年(2001) | 堂紀 | 五百五十三年 | |
| 34.최명식 | 壬午年(2002) | 堂紀 | 五百五十四年 | |

3.제일

제일은 원래 정월 초이레였다. 정월 초이틀부터 걸립해서 지냈으나 췌날까지의 날이 너무 길어 부정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월 초사흘로 옮겼다. 정월 초사흘날로 잡고 보니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서 부정을 가릴 수가 없어 명절 세고 모두 돌아간 정월 초닷새로 다시 잡아 지낸다. 옛날 당제 기간 동안 초상이 나 췌날을 옮긴 적이 있다. 부정이 생기면 삼칠일 즉, 21일을 옮긴다.

4.당집

당산이라고 부르는 마을 뒷산의 꼭대기에 블록벽에 기와를 얹은 2 칸의 당집이 있다. 옛날에는 큰 소나무만 있었고 소나무 아래에서 지냈다고 한다. 소나무가 어찌나 컸던지 가지로 나무 절구통을 만들어 마을에 전한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초가 지붕의 당집을 지었고 해방 후 중수하였으며, 30여 년 전에도 중수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91년 보령군의 지원으로 지었다.

왼쪽 방의 북쪽 부분은 시멘트로 30cm 정도의 단을 만들고 그 중앙에 나무로 깎은 신주를 모셔 놓았다. 신주에는 「堂山神 神位」라고 써어있다. 왼쪽 벽에는 유리 액자에 당산제의 유래를 적어 놓았다. 방안에는 큰 나무 상자를 놓았는데 그 속에는 매년 읽은 산제축문(山祭祝文), 산제빙부(山祭憑簿), 기복록(祈伏錄)이 들어 있다. 제를 지낼 때에는 상자를 밖에 내어놓았다가 제를 지낸 후 들여놓는다. 상자 안에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물이 들어가 훼손되고 너무 많아 30여 년 전 소각하고 지금은 그 이후 것이라고 한다. 비닐자리 2장도 보관하여 제 때 사용한다.

오른쪽 공간은 부엌으로 부뚜막이 작게 만들어져 있고 2개의 아궁이가 있다. 부엌에는 제기와 솥, 시루, 솥 담그는 작은 웅기, 물통 2개, 물지게 1개를 보관한다. 제기는 몇 개의 접시와 사발, 작은 그릇인데 거의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집의 동쪽 당너머에는 작은 당샘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당제 전에 품고 덮어놓았으며, 반드시 이 물을 길어다 목욕재계하고 제물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근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크게 키워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뚝통을 닦는 등 더러운 일이 많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당굿집 수돗물을 사용한다.

당집 옆에는 말처럼 생긴 바위인 ‘말바위’가 있어 신령이 타는 말이라고 믿는다.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한다.

옛날부터 당집 주변은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 상여가 얼씬도 못했고 주민들도 나무를 꺾거나 자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신수로 위해지던 소나무가 베어지고 산이 다른 마을 사람의 소유로 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어떤 사람이 땀감으로 쓰기 위해서 당집 근처에서 삭정이¹⁾를 잘랐는데 금세 코피가 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근래에도 당집 뒤에 교통사고로 죽은 총각의 묘가 있었는데, 묘를 쓴 뒤 그 집에도 별로 좋지 않아 최근 파묘하여 화장했다고 전하고, 옛날 어느 임산부가 당집 앞을 지나 뒷마울로 갔는데 결국 그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전설도 있다.

60대의 마을 노인이 기억하는 일로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어린 아이의 머

1) 산 나무에 달려있는 마른 나뭇가지

리가 자꾸 커지는 병이 생겨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얻어 당산에서 세 명이 기도를 드렸다. 밤에 기도를 드리는데 당집 옆에 호랑이가 불을 켜고 꿈쩍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고 한다.

5.제의 준비

섣달 28~29일에 마을 원로들이 모여 당주와 부당주를 뽑고, 축관, 소지관을 정한다.

당주는 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목욕재계하고 부정의 방지에 힘쓰며 옛날 제에 쓸 음식을 준비하고 제 다음날 약간의 음식을 낸다.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부정을 막는 일인데 부부 생활도 금하고 외출도 절대 삼가며 누구를 만나지도 마을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다. 당주는 당제를 지낸 후에도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어 1년 내내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다음은 필자가 당굿집을 찾아가면서 대화한 내용이다.

“아주머니 이 마을에 오늘 당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당굿집이 어디지요?”

“아 그집 저긴디 그집이는 아무도 알썬도 못하는디요.”

노인회관에서는

“당굿집에 갔다가 당제 지내는데 참여해 보고 싶은데요”

“아 거기 가는 사람은 목욕해야 하는디 선생은 목욕했어?” 일동 웃음.

또 옛날에 목욕을 하지 않고 거짓말로 했다고 하고 떡시루를 지고 올라가는데 떡시루를 지게에 올리자마자 시루가 갈라져 버렸다고 전한다.

부당주는 당주를 돕는 사람으로 당굿집에 마을 기를 세우고 황토를 놓으며, 당집을 청소하고 금줄을 매고, 제에 쓸 물건을 구입해 오기도 한다. 부당주도 당주와 같이 매일 목욕재계한다. 화장실만 갔다와도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축관은 축을 준비하여 읽는다. 축관도 매일 목욕재계한다.

소지관은 당제 때 소지를 올린다. 1999년의 경우 그 전날부터 목욕하고 속옷을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제의 비용은 걸립을 해서 충당한다. 옛날에는 정월 초이틀부터 풍물을 치고 마을을 돌면서 걸립을 했고 주민들은 첫 방아를 찧은 쌀을 따로 보관했다가 내놓았다고 전한다. 요즈음은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생겨 쌀 3되로 정하였고 그것도 현금으로 내도록 하였다. 1999년의 경우

7000원씩을 부담하였다. 1998년의 경우 7000원씩 350000원을 거두어 310000원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 기금으로 하였다.

걸립액수(자료: 山祭憑簿)

1979년: 58가구, 2되씩, 합계 11말, 再斗量 통일미 12말 4되.

1981년: 62가구, 2되씩, 백미 再斗量 117.5kg, 현금 7600원, 백미 현물소비분 8말 공제, 여타분 小斗 4말 매각 현금 22200원. 현금 합계 29800원

1983년: 61가구, 2되씩, 再斗量 일반미 6말, 통일미 9말, 백미 8말 현물지출분, 통일미 7말 방매. 현금 35100원. 현금찬조 2000원. 합계 37100원.

1984년: 59가구, 3되씩, 再斗量 일반미 11말, 통일미 10말(80kg), 시판백미대 48900원, 성금 3000원, 총현금 51900원.

1986년: 58가구, 3되씩, 1가마 75kg. 현금 6000원

1989년: 59가구, 3되씩, 쌀 161kg. 현금 12000원.

총계 175000원. 지출 148050원. 잔금 26950원

1991년: 54가구, 3되씩, 백미 147되, 再斗量 150kg(168950). 현금 20000원.

총계 188750원.

제물은 초3일 광천장에서 샀다. 부당주와 이장이 가서 샀는데 미리 살 것을 적어 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산다. 상인한테 당제 지내는 제물이라고 말하면 너무 비싸게 부르지도 않고 깎지도 않는다고 한다. 미리 사면 부정이 있을 수 있어 갯날 가까이 돼서 산다고 한다. 1991년도 山祭憑簿에 의한 지출내역에 의하면 제물 및 물품은 아래와 같다.

제수용품 및 기타 지출 내역(자료:산제병부)

1979년	1984년	1991년
<p>백미지출 내역</p> <p>노기미 1되3홉 제주미 1되3홉 편미 3되3홉 상미 3되3홉 조석미 1말 당주미 2말 부당주미 2말 합계5말9되2홉</p> <p>대추 1홉 300원 밤 1홉 ? 배 4개 520원 사과 4개270원 건시 1곳300원 포 2개 400원 만수향 1갑 100원 사고지 6권반 2600원 각성냥 2갑 50원 산자1봉80원 면장갑 5켢레 750원 양말 5켢레 2000원 싸인펜 1개50원 양초1갑180원 고무신 5켢레 5000원 담배 5갑 750원 백노지 8장 160원 주대 1되 270원 지출소계 13980원</p> <p>당주택에서 소비된 물품 내역</p> <p>두부콩 2되 700원 곡자 1되 300원 장적 1집 700원 입나무 1집 600원 간수 1기 100원 소계 2400원</p> <p>탁주 2되 400원 현금지출총계 16780원</p> <p>백미매출내역 6두4되 대금20480원 잔금3700원(당주,부당주 지급)</p>	<p>백미지출내역</p> <p>노기미 1되3홉 제주미 1되3홉 편미 3되3홉 상미 3되3홉 조석미 1말 당주미 5말 부당주미 5말 소계 11말9되</p> <p>제물 및 물품대 지출내역</p> <p>대추 1홉 500원 밤 1홉 500원 배 4개 1000원 사과 4개 700원 건시 1곳 1000원 포 2미 400원 산자 1봉 300원 만수향 2갑 200원 사고지 7권 5600원 성냥 1갑 10원 면장갑 5켢레 750원 양말 5켢레 2500원 양초 1갑 500원 백노지 8장 400원 담배 6갑 3000원 고무신 5족 6000원 싸인펜 1개 70원 약주 1병 800원 소계 24230원</p> <p>기타 물품대 내역</p> <p>두부 2모 1400원 곡자 1되 600원 장작 1집 1500원 술가지 1집 1500원 교통비 3명 920원 증식대 3명 3600원 소계 9520원</p> <p>행사후 잔금 18140원 결산후 洞財務에게 인계</p>	<p>백미 지출 내역</p> <p>노기미 1되3홉 제주미 1되3홉 편미 3되3홉 상미 3되 조석미 1말 당주미 5말 부당주미 5말 계 11말9되(현금108000원)</p> <p>대추 1홉 밤 1홉 배 4개 사과 4개 건시 2개 포 2개 과 1봉 만수향 사고지 7권 양초 1갑 일괄계산 소계 21600원</p> <p>장갑 5켢레 900원 양말 켢레 7500원 싸인펜 개 50원 신발 5 8500원 약주 1200원 백노지 8 800원 두부 3모 1500원 식대 6000원 교통비 960원 담배 3500원 총계 52510원</p> <p>곡자 1000원 장작 1500원 제석 4000원 총계 59010원 총수입 188750원 총지출 16710원 차인잔액: 21740원 (洞金으로 편입)</p>

6.제의 과정

먼저 선달 그믐날 당집에 가서 제기와 술, 물지게, 술항아리 등을 가져오고 제 전날은 당집 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폭10cm, 길이 50cm 정도의 창호지를 끼웠다. 새끼를 풀 때도 침을 뱉지 않고 마른으로²⁾ 끈다고 한다. 모두 부당주가 준비한다.

당주집에서는 제일 먼저 술을 한다. 당집에서 술을 하는 작은 항아리를 가져와 쌀 1되 3홉을 되어 술을 빚어 안방에 놓는다. 제물로 쓰는 쌀은 항상 홀수 되로 한다. 이때 술항아리 위에는 흰 천을 덮는다. 1999년의 경우는 정월 초하룻날 술을 빚었다. 젓날은 술을 걸러 주전자에 담는다.

다음에는 젓날 쌀 3되 3홉으로 떡가루를 뿜아 준비한다. 옛날에는 절구통에 뿜았으나 1999년의 경우는 당췌집에 절구통이 없어 할 수 없이 방앗간에 가서 뿜아 왔다. 장부로 보아 과거에는 두부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쌀도 1되 3홉을 씻어 솥에 담아두고 탕은 소탕³⁾으로 준비한다. 다른 제물도 빠짐없이 챙겨 광주리나 함지에 담아 준비하여 안방에 둔다.

오후 5시쯤이 되면 제에 참여하는 부당주, 축관, 소지관이 당췌집으로 온다. 1999년의 경우 모두 평상복이었으며 소지관만 한복에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오는 도중에 누구도 앞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다음은 축관이 오다가 있었던 이야기이다.

“아 아까 오ندي ○○○집 아주머니가 택시에서 내리데.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내 앞질을 건너갈까봐 어찌나 조마조마 하던지 급히 건너라고 혼났네”

모두 도착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을 먹는다. 저녁상은 생선이나 고기가 일체 없이 김, 두부, 채소만 놓는다. 저녁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모두 준비한다.

먼저 양말을 벗고, 준비한 새 양말을 신으며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며 흰 고무신을 신는다. 마스크는 정숙하고 음식에 침이 떨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한다. 또 담배 한 갑씩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안방에 있는 제물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2) 물기가 없는 상태로

3) 두부와 무 만으로 만든 탕

먼저 당주가 아무 것도 들지 않고 앞장을 서고, 소지관이 술주전자, 소지종이, 축을 들고 뒤따르며, 뒤에 두 사람이 지계를 지고 따라가고 맨 뒤에 물지계를 지고 간다. 물통은 양철통이고 지계는 3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지계이다. 올라가는 길은 당춧집에서 당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였다. 밭을 지나 산능선을 타고 올라갔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당주 일행이 지나가는 길과 교차되는 길 주변에 지켜서서 당주 일행을 가로지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1999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누가 나타나 길을 가로지르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당산으로 올랐다. 당산으로 오르면서 누구도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올랐다. 당집까지 약 15분 걸렸다.

당집에 도착하면 먼저 불을 놓는다. 옛날 나무가 없던 시절에는 장작 1짐, 잎나무⁴⁾ 1짐을 사서 놓았다고 하는데, 1999년 현재는 당집 주변에 죽은 나뭇가지가 많아 그것을 주워다 놓았다. 당산 신(神)을 모신 방문과 부엌문을 열고 제 준비를 한다. 당산 신을 모신 방에 있는 큰 나무 상자를 밖으로 내놓고 제단에 백노지를 깔고 촛불을 켜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고기, 생선이 일체 없고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떡, 노기(밥), 탕, 쌀, 과, 술, 포, 술, 숟가락, 젓가락이었다.

떡과 밥, 탕은 당집 부엌에서 만든다. 1999년에는 당춧집에서 길어온 물을 솥에 붓고, 시루를 올리고 시루뽕을 붙이고,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아 떡을 찐다. 또 밥물을 적당히 부어 또 다른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올려 놓고 기다린다. 1999년의 경우는 부엌이 좁아 떡만 부엌에서 하고 밥은 당집 앞에서 하였다. 떡은 백무리⁵⁾인데 익히는 데 1시간 30분 가량이 걸렸다. 밥은 떡보다 빨리 되어 밥 냄비를 내리고 탕을 끓였다. 떡, 노구(밥), 탕은 만든 그대로 진설하였다.

포는 명태 2마리를 사용하였고 술은 2잔을 한 번만 올렸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1벌만 사용하였다. 쌀은 “불바지쌀”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당주, 축관, 소지관이 당산신을 모신 방에 들어가 제를 지낸다. 먼저 당주가 분향하고 술을 올리고, 당주가 옆드린 채로 축을 읽는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1985년 축문).

4) 장작이 아닌 풀잎으로 된 나무

5) 쌀가루로만 만든 백색의 떡

維 歲次乙丑一月庚寅朔二日辛卯海東大韓民國忠清南道保寧郡靑所面新松里高岑
洞祭主壬午生金東鶴 敢昭告于 堂山神 伏以天壤之間 萬物之中 惟人最貴 惟神最
靈 以貴敬靈 以靈佑貴 天道之常經 古今之通 誼昔殷湯 禱於桑林 得千里之甘雨
漢之諸葛 祭山得風 神功鬼力 於斯可驗 今我洞人口不圓六畜不富故助我洞人口
謹以清酌庶羞歛 其惟神 尚 饗

(번역문)

해동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 신송리 고잠동 제주 ○○○는 감히
昭에 계신 堂山 신령님에게 고하나이다. 옳드려 헤아리건대 天地의 사이 萬
物の 가운데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고 오직 神이 가장 靈驗한지라 인간은
신령님을 공경하고 신은 사람을 도우니 이는 天道의 떳떳한 經綸이며 古今에
통한 誼라 옛적 殷나라 湯王은 桑林에서 祈雨하여 千里에 단비를 얻었고, 漢
나라 諸葛孔明은 山에 祭祀하고 바람을 얻었으니 神의 功과 鬼神의 威力을 이
에 가히 증명함이라. 지금 우리 洞 人口가 원만치 못하고 六畜이 肥富치 못한
까닭으로 우리 洞 人口를 助佑하여 주십시오. 清酌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
었으니 그 오죽하신 神靈이시어 거두시고 흠향하소서 (박정순 역)

이어서 당주·축관·소지관 모두가 재배한다. 다음에 당주는 옳드리고 소지
관은 서고, 축관이 祈伏錄을 펼쳐 들고 소지 종이를 접어 소지관에게 준다. 소
지 종이는 길게 들고 접힌 부분과 접히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2 :1이 되게 접
고, 3겹으로 길게 접는다. 소지관은 소지 종이를 촛불에 붙여 치켜들고 먼저
당산신을 위한 소지를 올리고, 마을 소지를 마을의 안녕과 축복, 풍년, 무사
등을 말하며 정중하게 올린다. 이어서 당주와 그 가족 하나 하나에 대한 소
지를 올린다. 소지 당사자의 주소 생년육갑과 이름을 부르고 각 개인에 맞는
축원을 한다. 다음부터는 부당주와 그 가족의 소지를 올리고 제에 참여한 사
람들의 소지를 올린다. 이때 자기 소지를 올리면 밖에 있던 사람이라도 들어
와 두 번 절한다. 이어서 기복록에 있는 대로 소지를 올린다. 마을 주민은 대
주(가장) 한사람만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방식은 모두 같다. 이때 당주는 소
지 하나를 올릴 때마다 절을 두 번씩 한다. 따라서 당주는 100번 이상의 절을
하는 것이다.

어떤 주민은 특별히 쌀을 내고 소지를 올려달라고 한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가족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쓴 종이와 함께 초 한 자루, 쌀 5되 정도를

보내왔다. 이것은 소지를 올릴 때 제단 밑에 촛불을 쫓아 놓고 올렸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청년 중에 군대에 간 사람의 소지를 올려 주었다. 애초부터 기복록에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소지를 올리는 중에 잘 오르지 않으면 기복록에 표시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린다. 잘 타고 재가 잘게 부서져 흩어지고, 마지막 불꽃이 잘 올라가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귀배자’라고 하여 소지종이의 귀통이가 타지 않고 조금 남아서 떨어지면 나쁘고, 재가 흩어지지 못하고 하얗게 타면 ‘흰배자’라고 하여 나쁘고, 검게 말려가며 타면 ‘거먹배자’라고 하여 나쁘다고 믿는다. 흰배자가 제일 나쁘고 거먹배자, 귀배자순으로 나쁘다고 믿는다. 두 번째 올려서도 잘 올라가지 않으면 세 번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백지에 명태포 1마리, 떡, 밥, 사과, 대추, 밤, 꽃감, 배 등 제물의 일부를 담아 당집 동쪽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져다 놓는다. 이것을 ‘희식’이라고 한다. 온갖 날짐승들이 먹으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어서 향을 쫓았던 쌀과 탕 등을 사방에 뿌린다. 이렇게 하고 나면 10시쯤 되었다.

이어서 당주와 축관, 소지관과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음복을 한다. 일부는 불을 켜고 일부는 음복을 하고 시간을 보낸 후 11시쯤 산을 내려온다. 남은 물로 불씨를 엮애고 오던 길로 당굿집으로 돌아온다.

옛날에는 농악대도 함께 올라갔다고 한다. 올라갈 때는 농악을 치고 갔지만 내려올 때는 조용히 내려왔다고 한다. 제 지내는 시간을 알려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위하라는 의미였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집집마다 떡을 하여 당제를 지낸 직후 집안에 있는 성주, 조왕, 터주 등 가신(家神)에게 올렸다. 요즘은 별로 하지 않는다.

당굿집에서는 산에서 가져온 약간의 떡, 과일과 국을 먹는다.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12시쯤 헤어지는 것이다.

다음날 마을 주민들이 당굿집에 인사하러 온다. 그러면 술과 약간의 음식을 내고 소지올릴 때 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을 알려준다. 일년 동안 조심하고 개인적으로 위하고 싶으면 위하라는 뜻이다.

제에 사용한 그릇은 깨끗이 닦아 제 다음날 당집에 둔다.

옛날에는 비용으로 당주에게 쌀 3말, 부당주에게 쌀 2말을 주었는데 요즘은 쌀 5말씩 준다.

도움말 주신 분

김창룡(80) 청소면 신송리 423

이봉성(78) 청소면 신송리 466

노인회관 934-9794

김복룡(62) 청소면 신송리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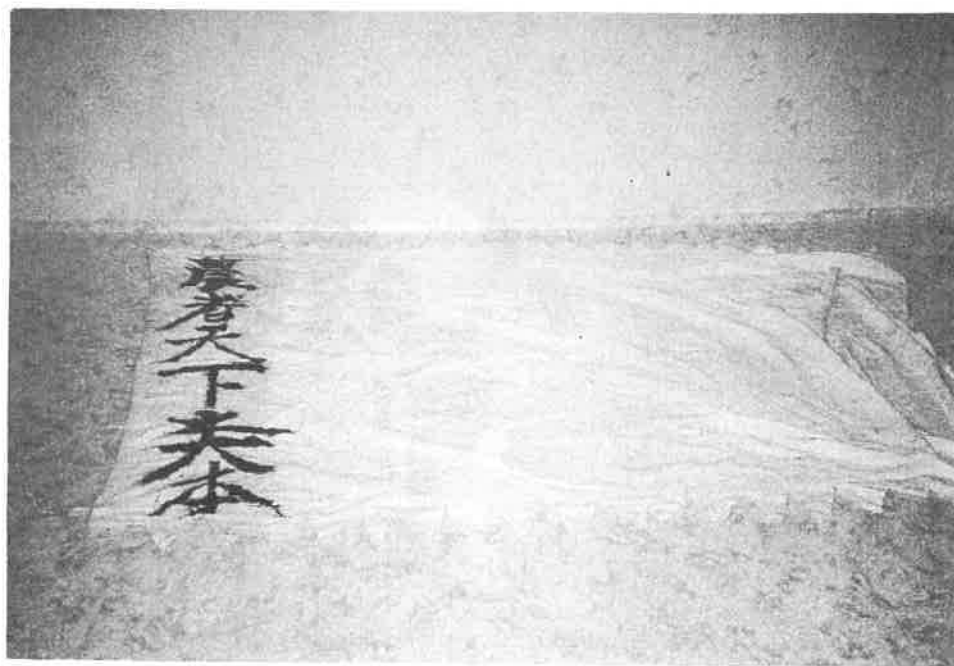
이정웅(68) 청소면 신송리 446



당집(199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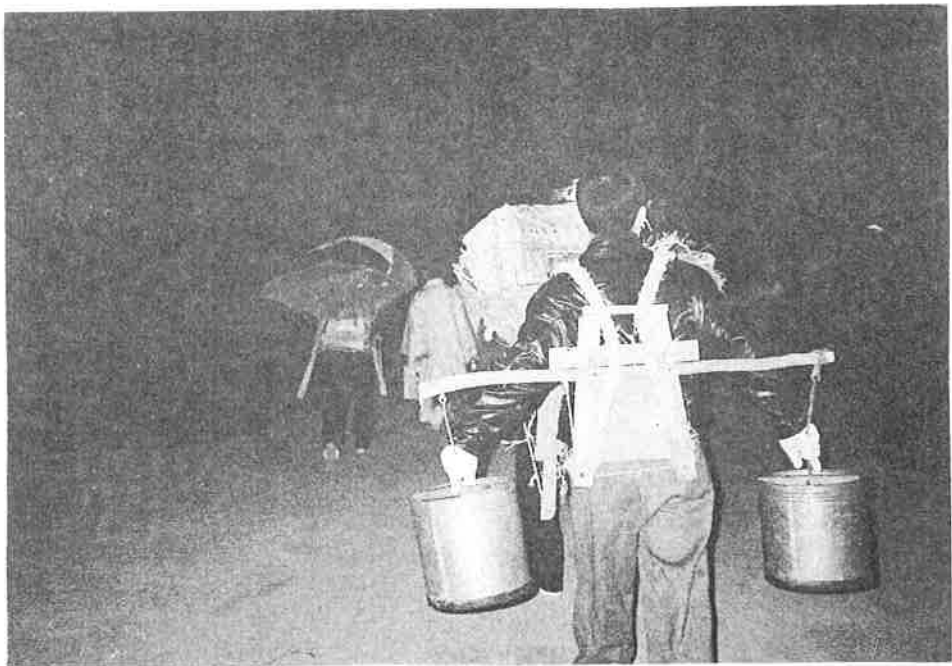
달바위(1996. 1)



마을 대동기(1999. 2. 20)



당곳집 안방의 술 항아리(1999. 2. 20)



당집으로 오르는 모습(1999.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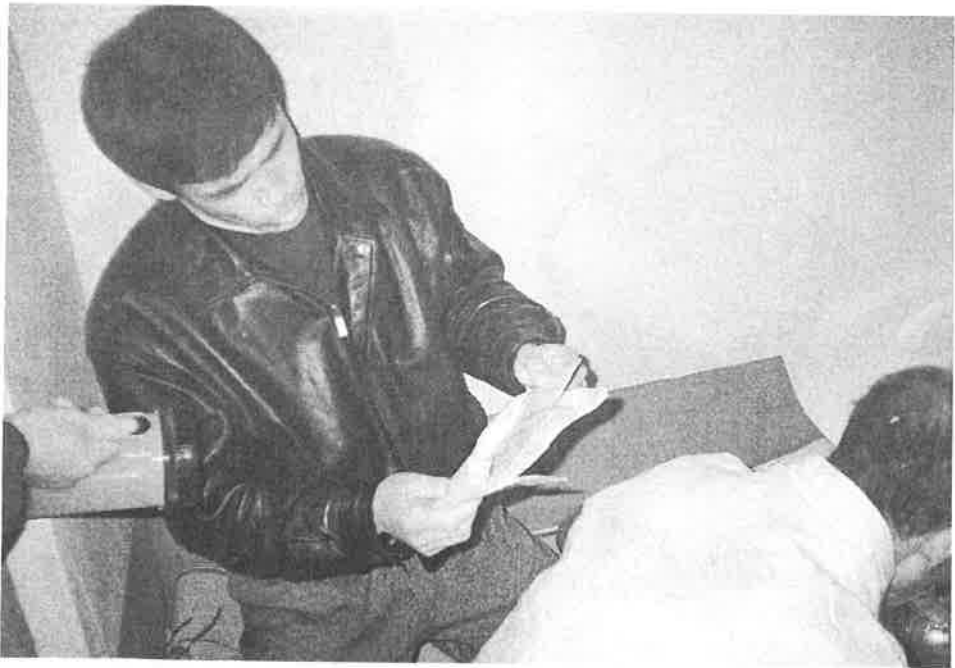
당집 앞에 불 피운 모습(1999. 2. 20)



당집 부엌에서 떡을 찌는 모습(1999.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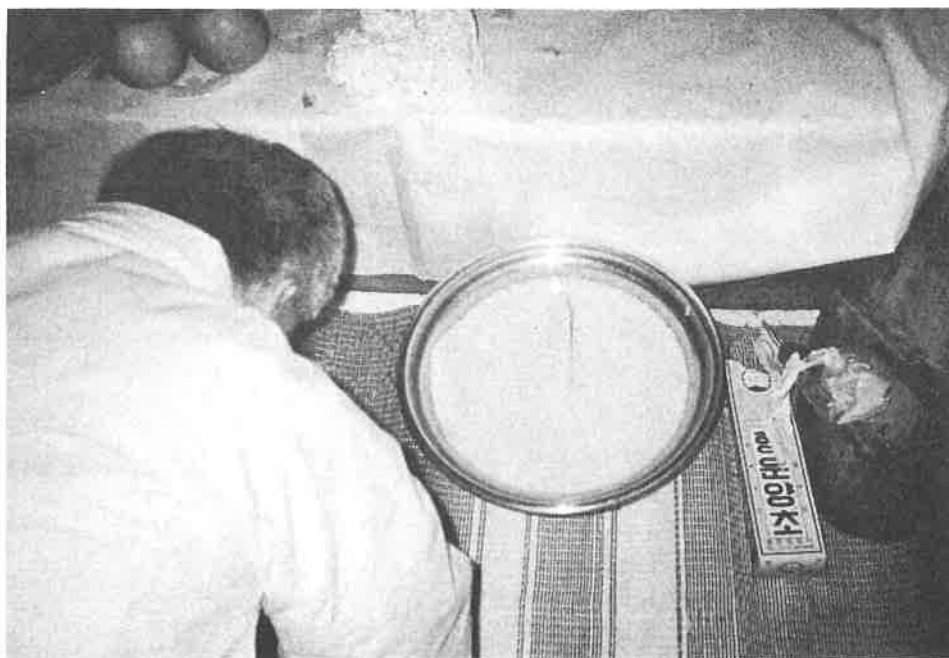
제물의 진설(1999.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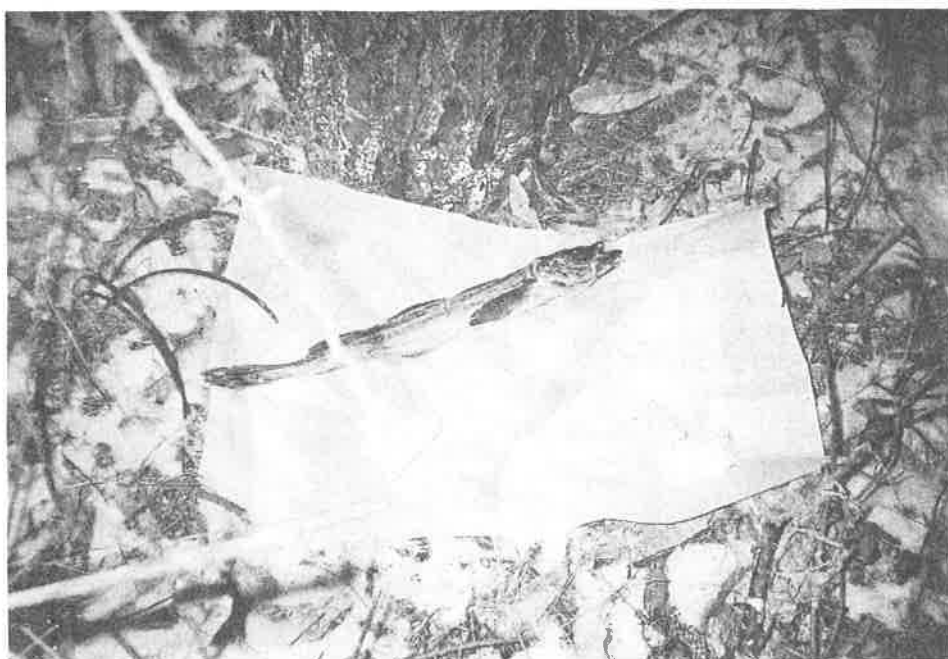
축 읽는 모습(1999. 2. 20)



소지((1999. 2. 20)



주민이 특별히 올린 쌀(1999. 2. 20)



희식 모습(1999.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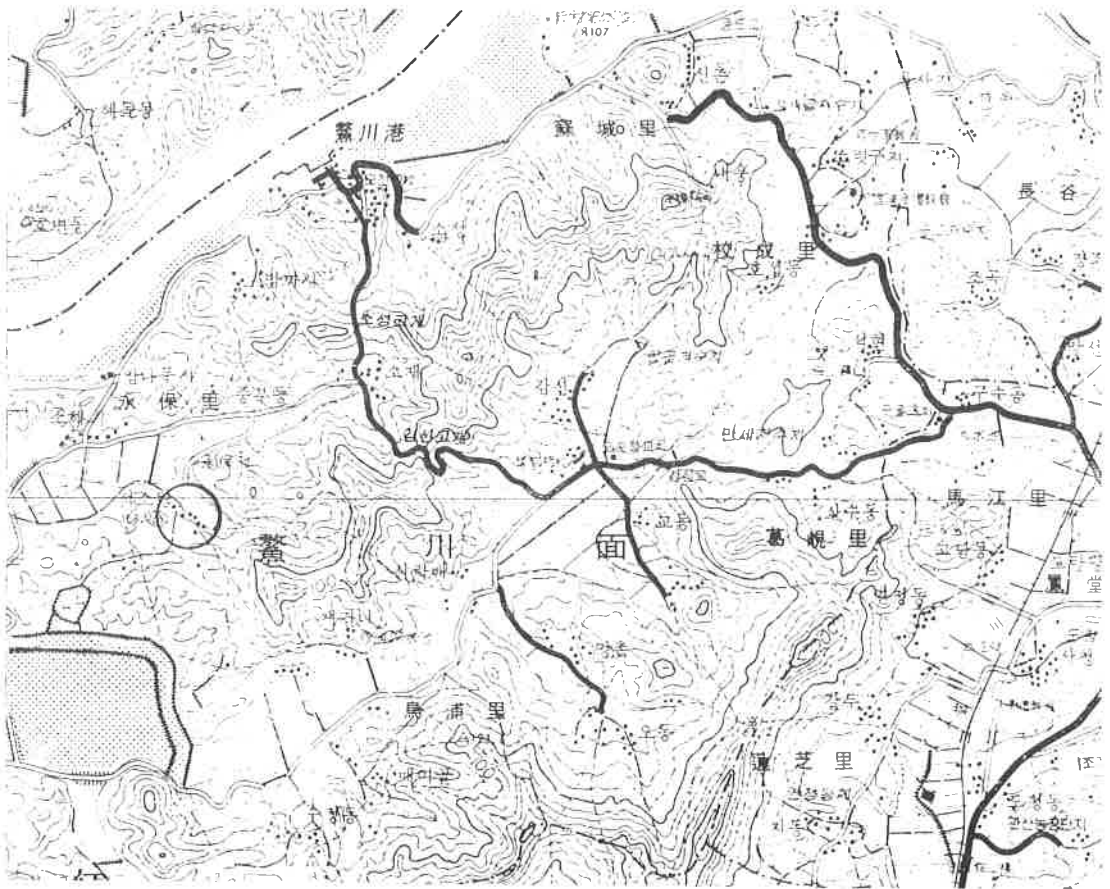
하산하는 모습(1999. 2. 20)

2. 섯바탕이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섯바탕이 마을은 오천면 영보리 영보저수지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령시에서 최고의 오지 마을에 속한다. 과거에는 마을의 남쪽과 북쪽, 서쪽이 모두 바다였었으나 일제 시대 간척사업으로 남쪽·북쪽이 육지화되고 마을 북쪽에는 간척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다.

주변은 100m 내외의 낮은 구릉과 골짜기, 간척농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부터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섯바탕이 마을 지형도(1:50000)



설탁면 마을 지형도(1:5000×0.82)

이 마을에는 현재 12가구가 거주한다. 동래 정씨 3가구, 경주 최씨 5가구, 나주 김씨 2가구, 청주 한씨 1가구, 행주 기씨 1가구, 한양 조씨 1가구이다. 교회에 다니는 집은 1가구이다.

2.동제(洞祭)의 유래

쇳바탕이 마을은 예부터 당제가 있었는데 20여 년 전 5년 동안 당제를 지내지 않았었다. 그랬더니 17~18년 전 어떤 일인지 두 달 동안에 마을의 소 12마리가 이유 없이 죽었다. 일하다가도 죽었고, 멀쩡하게 외양간에서도 죽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당제를 지내지 않아서라고 하였고, 재앙이 짐승 다음에 사람에게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을 노인들이 당제를 다시 지내자고 하여 17~18년 전 당제를 다시 시작하였다.

3.당제

쇳바탕이 마을과 진골 마을 사이에 있는 진골 고개 서쪽에서 지내는데 당집은 없고 신수인 소나무 밑에서 음력 정월 초사흘날 지낸다. 소나무는 산의 8부 능선, 마을 쪽에 있다, 모두 4그루인데 산 위쪽 가장 큰 소나무 밑에 돌 한 줄을 놓아 평평하게 한 곳이 제사를 놓는 자리이다.

과거에는 선달 그믐날 마을 회의를 하여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뽑았다. 당주로 결정되면 매일 목욕재계 하고, 부부생활도 금하고 외부 출입도 금해야 했으며, 누구도 당죽집에 출입할 수 없었다. 집 앞에는 부정을 가리기 위하여 황토를 펴고 금줄을 띠었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숯, 고추, 백지, 술가지를 끼운 것이다. 당샘도 품고 샘에 금줄을 둘렀으며 황토를 놓았다. 1999년 2월 18일의 경우는 반장(쇳바탕이 마을의 대표)이 당주가 되어 반장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였다. 반장 집에 금줄이나 황토는 놓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방문한 집의 70대 할머니는 여전히 부정을 가리고 있었다.

필자와의 대화를 기록한다.

필자: “당주댁으로 가는데 같이 가지지요”

할머니: “아니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필자: “차 타고 가지지요”

할머니: 멋쩍은 표정으로 “목욕하고 가야돼요”

필자: “제에 참여하는 분은 모두 목욕하나요”

할머니: “정성을 들여야 하니까 깨끗이 해야지요”

또 어떤 집은 상가에 갔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여전히 부정을 가리고 있었다.

제의 비용은 가구당 할당하여 부담한다. 할당액은 10000원~15000원이고 쌀 1되씩이다. 쌀은 떡을 하는데 사용하고, 현금은 제물을 사는 데 사용한다.

젯날 아침 마을의 장정들이 당산으로 오르는 길을 낸다. 낮으로 깎고 경사가 급한 부분은 계단을 만들고 갈퀴로 긁어 깨끗하게 한다. 제단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저녁에 태울 나무도 마련해 둔다.

과거에는 풍물을 쳤으나 1999년의 경우는 풍물을 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도 적고 나이가 들어 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제의 주관은 주로 여자들이 하였다. 여자들은 미리 반장 집에 모여 제물을 준비하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 남자들과 함께 당산으로 향하였다. 제물의 운반도 주로 여자들이 하였다. 남자들은 상을 들고 따라가는 정도였다.

당산에 도착하면 남자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이 제물을 진설한다. 사과, 배 등은 현장에서 양끝을 저며 상에 차린다. 제물은 다음과 같다.

술: 약주로 3잔을 올린다.

물: 양푼으로 떠다 놓는다.

떡: 백무리로 시루째 상 옆에 놓는다.

돼지머리: 익혀서 쓰고 실타래를 씌워놓고, 입에는 돈을 물려 놓는다. 돈은 절하는 사람이 각자 생각대로 끼워놓는다. 대개 5000원이나 10000원 지폐이다.

밥: 술째로 놓는다. 당굿집에서 해 가지고 온다.

탕: 무와 두부를 섞어 끓인 탕을 놓는다.

순가락, 젓가락

나물: 무나물

과일: 사과, 배, 밤, 대추, 꽃감, 감, 바나나.

과: 산자 등 각종 과자.

초: 양푼에 쌀을 넣고 쪄는데 양푼 안에 작은 그릇에 쌀을 담아 촛불 1개를 쪼고 큰 양푼에 11개의 초를 쪼는다. 마을의 12가구를 의미한다고 한다. 가운데에 있는 촛불은 당주네 촛불이다.

포: 명태 3마리

먼저 12개의 초에 불을 붙이고 반장이 술잔을 올리고 돼지머리의 입에 돈을 끼워 넣는다. 이어서 남자들이 달려들어 절(제배)을 하고 술잔을 올리기도 한다. 술잔은 3배로 끝나고 비워야 할 술잔은 땅에 붓는다. 남자들이 끝나면 여자들이 절을 하는데 모두 4배를 한다.

축은 없다. 옛날에도 축은 없었다고 전한다. 절이 끝나면 바로 소지를 올린다. 먼저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다. 축원의 내용은 먼저 마을의 주소를 밝히고 마을이 평안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각자 자기 소지를 올리고 제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지도 올린다. 이때도 모두 주소를 먼저 밝힌다. 마지막에 펠자의 소지도 올렸다. 이름, 사는 곳 등을 물어 소지를 올려 주었다. 소지가 끝나면 돼지머리에 있던 실로 명태포를 감아 소나무에 매단다. 1998년의 경우는 비닐 주머니에 담아 소나무에 매달아두었으나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여 직접 소나무에 매달았다. 낮게 매달았는데 짐승이 먹어도 좋다고 하였다. 한편 한 아주머니는 송충 그릇에 떡, 밥, 돼지머리 일부, 각종과일, 파, 탕 등을 섞어 사방에 뿌렸다. 예부터 산신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참석 한 사람이 음복을 하고(술 한잔 정도를 먹음) 내려온다. 내려올 때도 남자들은 수동적이고 여자들이 제물을 이고 당굿집으로 온다.

당굿집 부엌에 도착하면 산에서 가져온 제물은 제쳐두고 새 제물을 준비하여 거리제와 유왕제를 지낸다. 이때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부인 3명씩 조를 짜 한편은 거리제, 한편은 유왕제를 지낸다.

4.거리제

거리제는 마을의 정자나무(팽나무) 밑에서 지낸다. 이곳은 옛날에 장승이 3개 서 있던 곳으로 50여 년 전 없어졌다고 한다. 이곳에는 당제에서 사용하였던 초 12개가 꽂힌 쌀 담긴 양푼을 가져와 촛불을 켜고 새로운 백무리 시루와 탕, 포(명태 1마리)를 준비한다. 이어서 삼거리의 중앙에 벧짚으로 불을 피운다.(교회 다니는 집의 벧짚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기도로 마을의 무사를 비는 축원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대동 소지와 마을 사람 모두의 소지를 올린다. 다음에는 명태포와 떡을 크게 떼어 팽나무 구멍에 넣고, 길가에 집으로 十字를 만들고 그 위에 떡 3덩어리와 탕을 부어 놓는다.

5.유왕제

이어서 유왕제를 지내는데 과거에는 정자나무 북쪽 길 밑에 있던 대동샘에서 지냈으나 현재는 대동샘이 메워져 마을 서쪽 저수지 옆 논둑에서 지낸다. 과거에는 마지막으로 지냈으나 현재는 거리제와 동시에 지낸다. 유왕제에는 세 개의 촛불을 켜고, 밥, 미역국, 명태포 한 마리, 생김을 쓴다. 촛불을 켜고 기도로 축원을 한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대동소지와 가가호호의 소지이다. 이어서 밥 세 덩어리를 김에 싸 저수지 속에 멀리 던진다. 이어서 명태를 던져 넣고, 미역국도 뿌려 넣는다.

6.회식

이상의 제의가 끝나면 당굿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는다. 남자들은 당제를 지낸 후 당주네 집 사랑방에서 기다렸다가 먹고 여자들은 당굿집 안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는다. 옛날에는 풍물을 치고 놀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풍물은 치지 않는다.

조사일: 1999년 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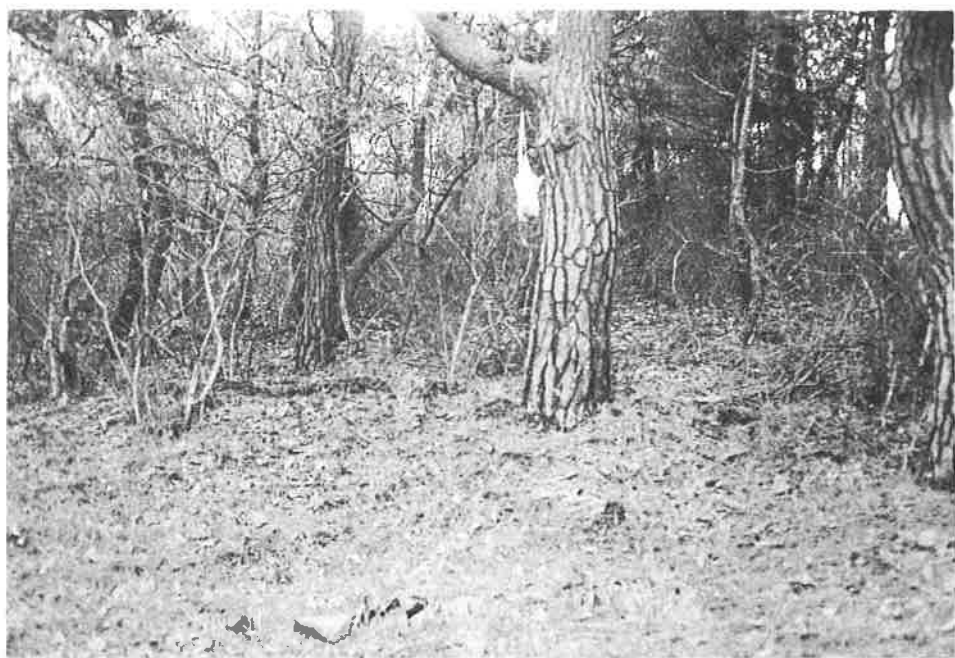
도움말 주신 분

최관용(68) 오천면 영보리 40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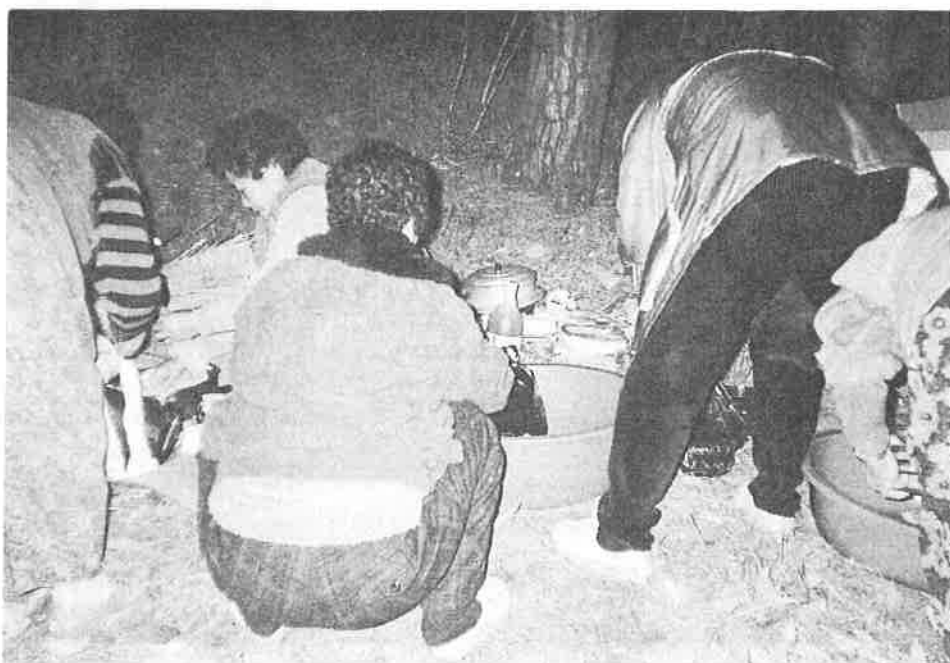
정종모(48) 오천면 영보리 289번지



당산에 오르는 길(1999. 2. 18)



당제 지내는 곳(1999. 2. 18)



당제의 준비(1999. 2. 18)



당제 제물(1999. 2. 18)



당제 계물(1999. 2. 18)



당제-주당의 절(1999. 2. 18)



당제(1999.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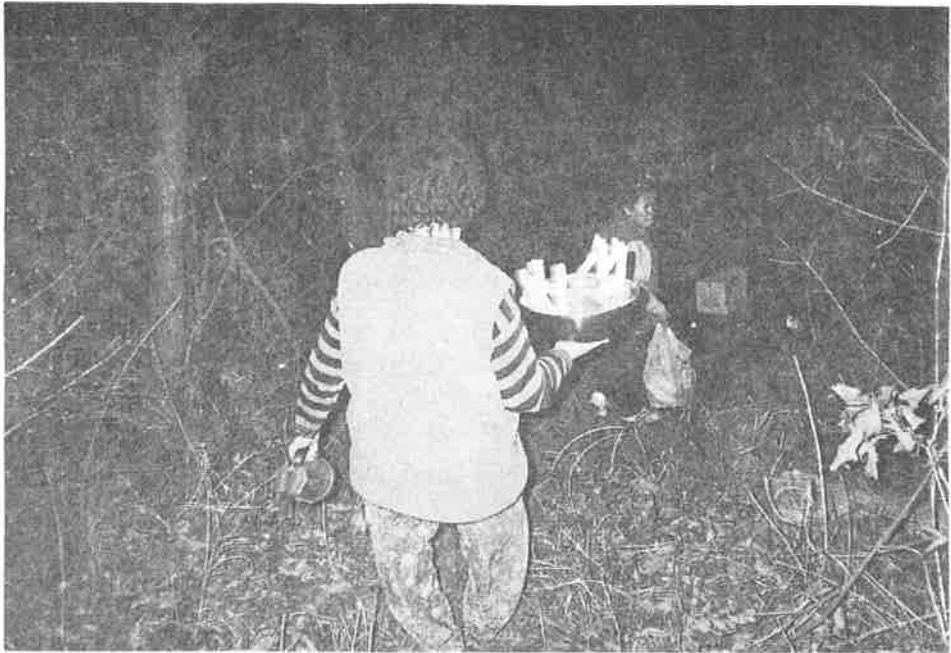
당제-소지(1999. 2. 18)



당제-제물 일부를 사방에 뿌림(1999. 2. 18)



당제-명태를 나무에 매단 모습(1999. 2. 18)



당제-하산(1999.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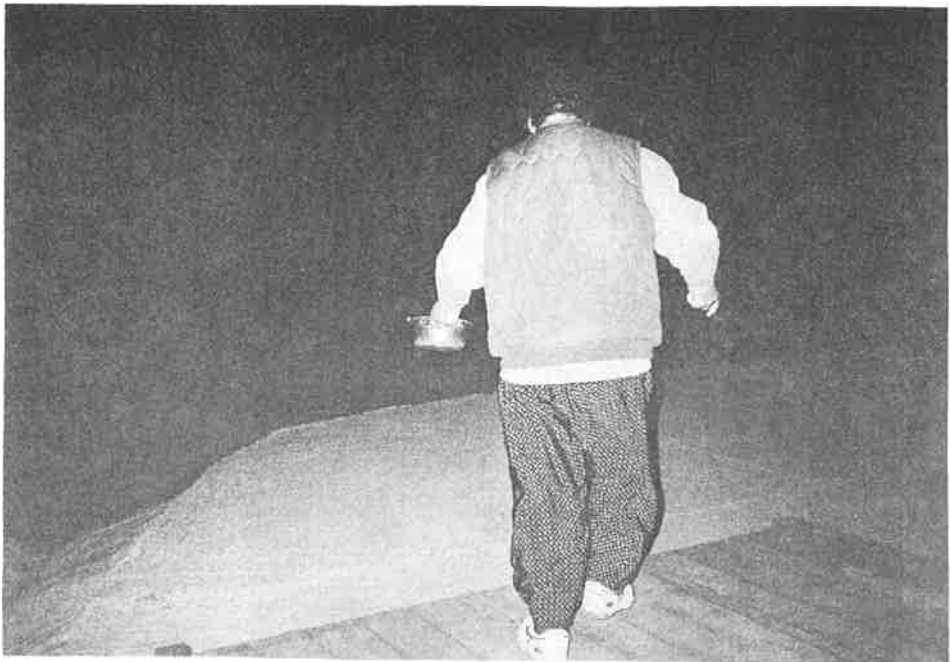
거리제-제물(1999.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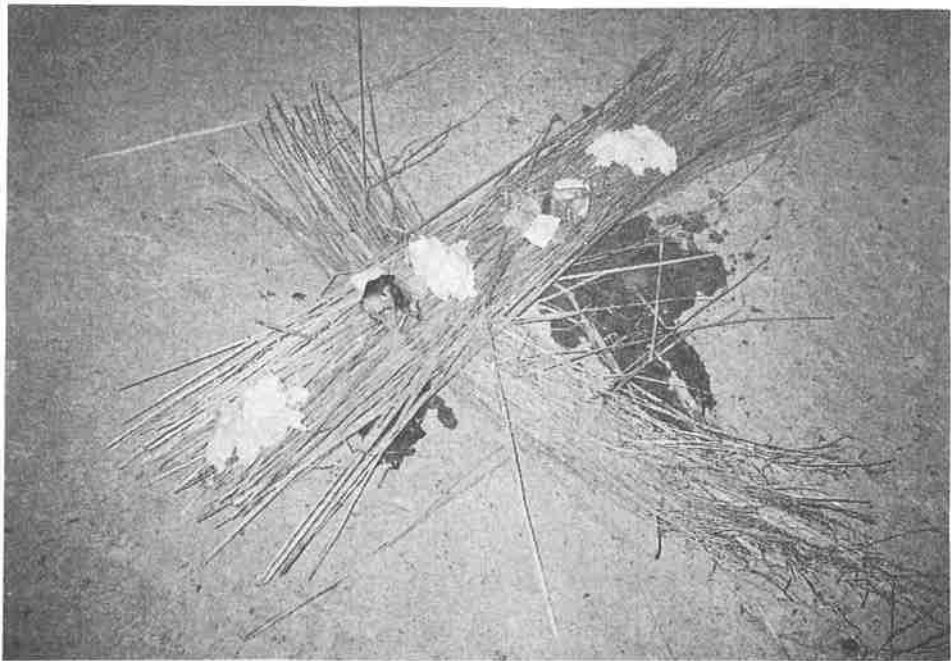
거리제-소지
(1999.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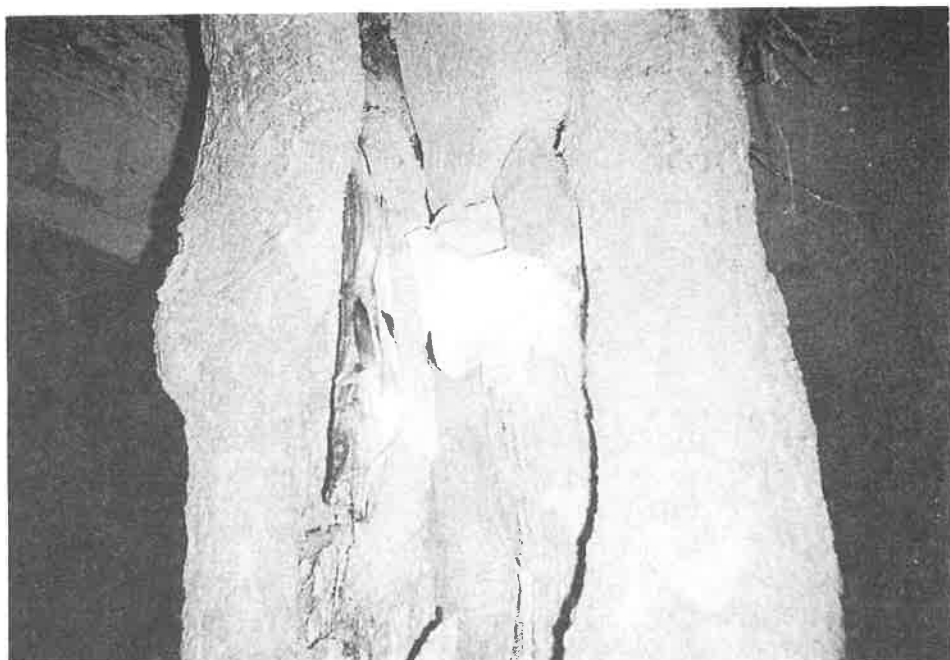
거리제(1999. 2. 18)



거리제-제물 일부를 사방에 뿌림(1999. 2. 18)



거리제-제물 일부를 길에 놓음(1999. 2. 18)



거리제-제물 일부를 정자나무에 끼움(1999. 2. 18)



유왕제-제물(1999. 2. 18)



유왕제-소지(1999. 2. 18)



유왕제-김밥 만들기(1999. 2. 18)



유 왕 제-김 밥-(1999.2.18)



유 왕 제-제 물을 물 에 던 짐 (1999.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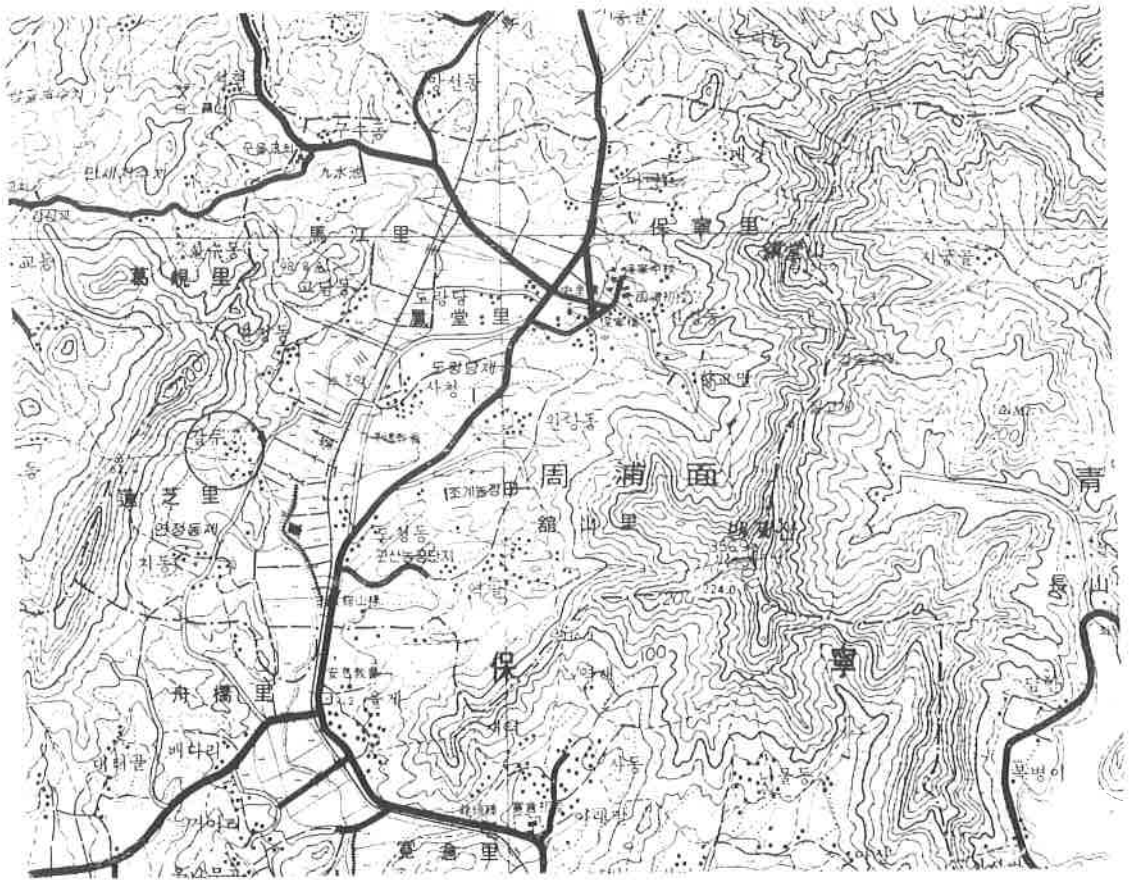
3. 칩머리 마을 고목제

1. 마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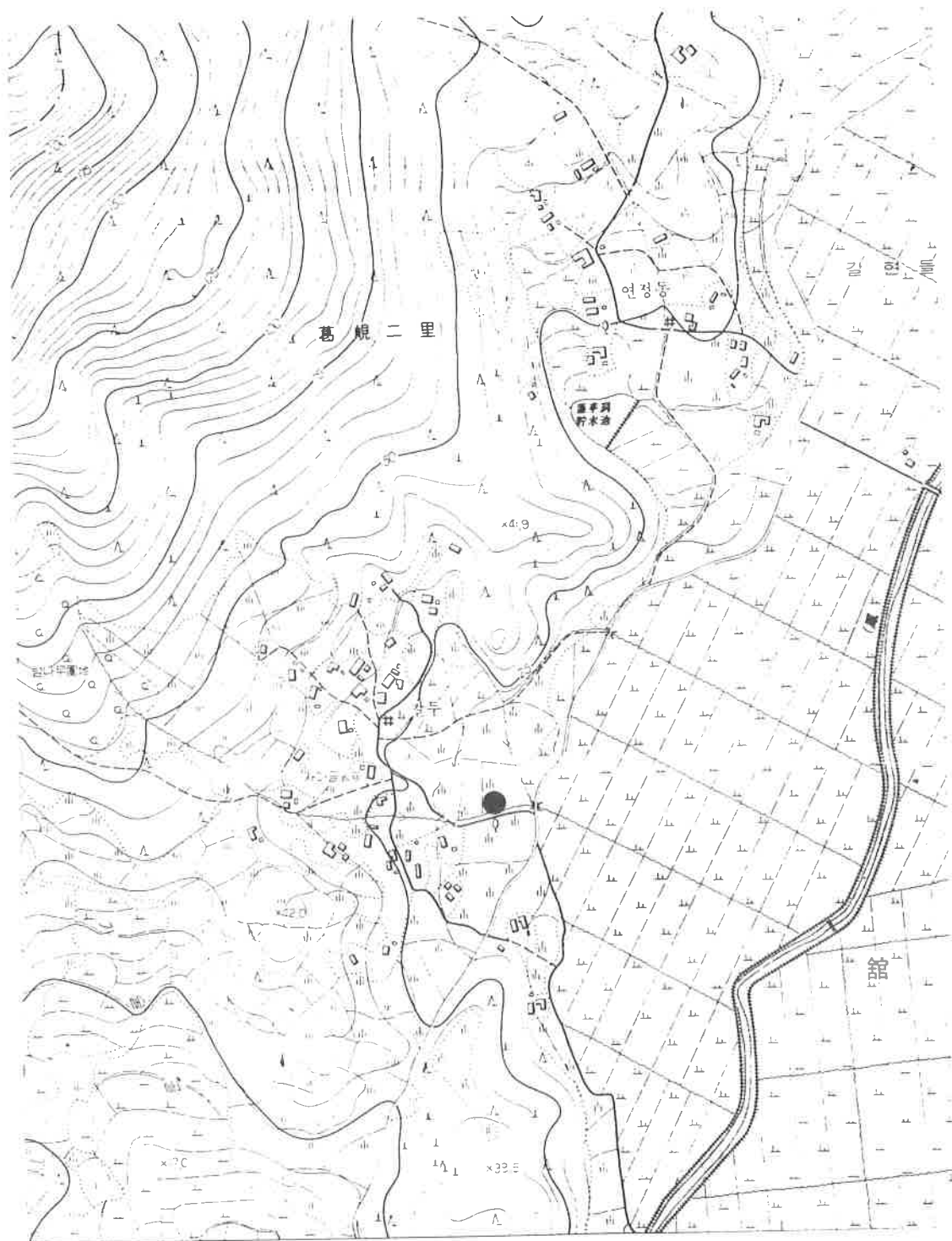
주포면 연지리 칩머리 마을은 주포역에서 철길을 건너 서쪽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서쪽은 태봉산으로 230여m의 산지이고, 동쪽은 하천이 흘러 주변이 넓은 들이다.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마을 입지이며 예부터 농사를 지어왔다.

마을 주변에는 많은 고인돌과 백제 고분(돌방무덤)이 있어 청동기 시대 이후 주민이 거주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마을에는 창령 조씨, 경주 최씨 등 30여 가구가 거주하는데 교회는 없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칩머리 마을 지형도(1:50000)



척머리 마을 지형도(1:5000×0.82)

2.제의 준비

척머리 마을 입구에 있는 둘레 7.8m 수관폭 26m의 느티나무에서 지낸다. 과거에는 정월 초이튿날부터 건립을 하여 초닷새 안에 날을 잡고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정하여 지냈으나 요즈음은 정월 초이튿날 지낸다. 당주도 마을 사람들이 돌려 가며 맡는다.

당주로 결정되면 외부 출입도 않고 부부간에 각방을 써야 되었으며 마을사람 누구도 출입하지 않았다. 제에 사용되는 음식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었다. 요즈음은 금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필자가 지켜 본 1999년 2월 17일의 경우에도 일손을 도우려고 온 마을 아주머니들이 외부의 다른 아주머니들이 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밭마당에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즈음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걸립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이 성의껏 기금을 출연한다.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도 돈을 낸다. 그러면 마을의 반장이 노트에 정리한다(고목제는 연지리 중 척머리 마을만 이루어지고 척머리는 반(班)단위의 공동제임).

설날의 이틀 전 즉 선달 스무 아흐렛날이 되면 마을의 청년들이 정자나무 밑을 청소하고 황토를 놓는다. 정자나무의 앞쪽 골에 넓게 황토를 놓고 뒤쪽으로는 2줄로 3곳씩 황토를 놓고 앞쪽으로는 2줄로 한쪽은 4곳, 한쪽은 5곳을 놓았다. 놓는 수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드문드문 놓는 것으로 보였다.

셋날이 되면 마을 창고에 있는 마을 기를 당주네 집에 쫓는다. 용을 그린 수백 년 된 기가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 있는 기는 1988년 마을 부녀회에서 만든 기이다. 길이가 4~5m 폭 1.5m 정도 되는 큰 기이다. 기에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고 가에는 청색천을 울퉁불퉁하게 대어 장식하였다. 기의 아래에는 청색으로 약 1m의 줄 2개, 50cm의 줄 4개를 늘어뜨렸다. 이것은 용을 상징한다고 한다. 기의 위에는 태극기를 달았다. 깃대는 살아있는 소나무를 잘라 세웠는데 높이는 8m 정도 되었다. 굵기는 가늘고 키가 큰 것을 사용하였다. 맨 위에는 소나무 줄기 끝과 가지를 그대로 두었다. 옛날에는 마른 나무로 만든 깃대가 따로 있었고 끝에는 꿩털로 만든 꿩장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래에 없어졌다고 한다.

당주 집에서는 시장을 보아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든다. 제사 음식은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밥, 미역국, 포(명태), 꽃감, 과, 김, 찻불, 물 등이다. 음식 만

드는 기금은 마을에서 지원한다.

3.고목제

젯날(정월 초이틀) 저녁이 되면 마을에서 방송으로 전 주민이 6시까지 모이도록 한다. 그러나 전 주민이 모이는 것은 아니고 이장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1999년 2월 17일의 경우에는 20여 명이 모였다. 노인회관으로 모인 주민들은 풍물을 꺼내 친다. 모두 장갑을 새 것으로 끼고, 준비된 고깔을 쓰고 농악을 친다. 젊은 사람들은 농악을 칠 줄 몰라 나이든 주민들이 농악을 친다. 농악을 치며 회관에서 당주집으로 향한다. 당주 집에 도착하여 밭마당에 세워둔 마을 기 주위를 농악을 치며 돈다. 이때 당주와 가족들은 제물을 꺼내온다. 제물과 자리, 제상을 준비하여 나오면 농악대가 앞장서 정자나무로 향하여 출발한다.

정자나무에 도착하면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고, 한쪽에서는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정자나무 바로 앞쪽에 떡시루(백무리), 떡 왼쪽에 물 한 양푼, 떡 앞쪽에 제상을 놓는다. 제상에는 첫째 줄에 밥과 미역국, 김(굽지 않은 것으로 썰지 않음),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다음에 촛대 2개, 돼지머리, 조기, 다음 줄에 포, 과, 다음 줄에 과일(대추, 밤, 배, 꽃감, 귤, 사과)을 놓는다.

제 지내는 순서는 우선 당주가 술 한 잔을 올리고 옆드리면 축관이 축을 읽고, 이어서 술을 계속 올린다. 술은 5잔을 올린다. 축관은 어려운 한문을 읽어야 하므로 아무나 할 수 없어 한학을 잘하는 노인이 매년 읽는다. 축관은 한복을 차려 입었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年正月初二日行事 代表○○○

維

歲次某年干支

忠清南道保寧市周浦面蓮芝里葛頭洞

居住代表○○○外大小諸氏人等謹齋沐百拜敢昭告于洞中槐之神伏以英靈精衷受命自天臨我洞中惠被木德四時陽春無聲而聽不言而伸之氣和順五穀豐穰三災消滅百祿無彊父母安樂子孫繁榮疾病癘疫迸諸遠方一年之內安過太平是誰之賜實賴靈伏茲值

元吉報賽禮修敢用菲薄教仲厥由靈共格思庶其佑之 尙
饗

(번역문)

葛頭洞에 거주하는 대표 ○○○ 외 모든 사람들은 삼가 목욕 齋戒하고 百拜
하며 敢히 우리 洞中の 槐木神靈님께 告하나이다. 앞드려 헤아리건대 英靈이
시어 精氣를 天으로부터 命을 받아 우리 洞中에 臨하사 木德의 은혜를 힘입어
四節을 溫和한 봄철과 같이 하여 소리가 없어도 들리고 말이 없어도 퍼지니
氣候가 화순하고 五穀이 풍요롭게 結實하며 三災를 消滅하고 百祿을 강인함이
없게 하고 父母는 安樂하고 子孫은 繁榮하며 질병과 전염병을 홀어 모두 멀리
보내고 일년 내내 편안함과 태평케 함이 이는 누가 주는가 진실로 神靈님의
힘입음이라 그러므로 이 상달吉한 날을 가려 禮로 淨修하여 報賽하고 敢히
菲薄으로 정중히 퍼니 그 신령님으로 말미암아 한가지 格思하오니 그 모든 것
을 도우시고 喜향하소서.

보새(報賽): 빌어서 은혜를 갚음

격사(格思): 같은 생각을 함 (박정순 역)

이어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흰 백지를 태우는데 우선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축원은 다음과 같다.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라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칩머리 마을 소지입
니다. 1999년 한해도 별 일이 없고 농사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정형
화 된 양식은 없고 올리는 사람의 말주변에 따라 축원을 한다. 마을 대동소
지에 이어 당주의 소지를 올린다. 다음에는 마을의 북쪽이나 남쪽부터 차곡차
곡 집집마다 소지를 올린다. 가장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안에 처한 사정에 따
라 축원을 한다. 대개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라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칩머리 마을 ○○○
소지입니다. 집안 모두 편안하고 농사도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올린다. 1999년의 경우 세
사람이 올렸다. 반장이 “누구는 누구 소지를 올리세요” 하면 올리는 것이다.

소지가 끝나면 물을 나무 둘레에 붓고, 떡을 한 덩어리 떼어 나무 곁에 넣
고, 명태 대가리, 과일 한 개씩을 나무 곁에 넣는다. 예전에는 나무에 구멍이
있어서 집어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멘트로 메워 나무 곁에 넣는다.

이어서 양푼에 미역국, 명태포 조각, 과일, 송늬(밥이 들어 있음)을 섞어 정자나무 앞쪽 삼거리에 뿌린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거리제라고 부른다.

이것으로 제는 끝나고 농악을 친다. 농악대는 정자나무를 한바퀴 돌고 당주네 집으로 향한다. 주민들은 자리, 제상, 제물을 들고 농악대를 따른다. 당주 집에 도착하면 농악대는 마을 기 주위를 풍물을 치며 돈다. 뒤따르던 주민들은 기 앞에 상을 놓고 상에 떡시루와 돼지머리를 놓는다(정자나무에서 사용한). 그리고 잔을 놓고 당주가 술을 한잔 붓고 절을 한다. 그러면 농악대는 더 흥겹게 농악을 친다. 한참 풍물을 치면 마을의 여자 노인들도 춤을 추며 농악대를 따른다. 이어서 당주네 집으로 들어가 안마당에서 한바탕 흥겹게 논 후 마을 회관으로 향한다.

4.회식

회관에는 긴 상이 마련되어 있고, 밥과 국, 찌개, 술 등으로 저녁을 먹는다. 마을의 남녀 어른들이 모여 술을 먹고 결산한다. 거출한 금액, 외지 사람이 찬조한 내용 등을 공개한다.

옛날에는 엄숙하고 마을의 전 주민이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제를 지내는 동안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소지를 올려주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앞으로 잘 참여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소지를 올려 주자는 의견 쪽으로 기울어 소지는 올려 주었다.

도움말 주신 분

채철룡(74) 주포면 연지리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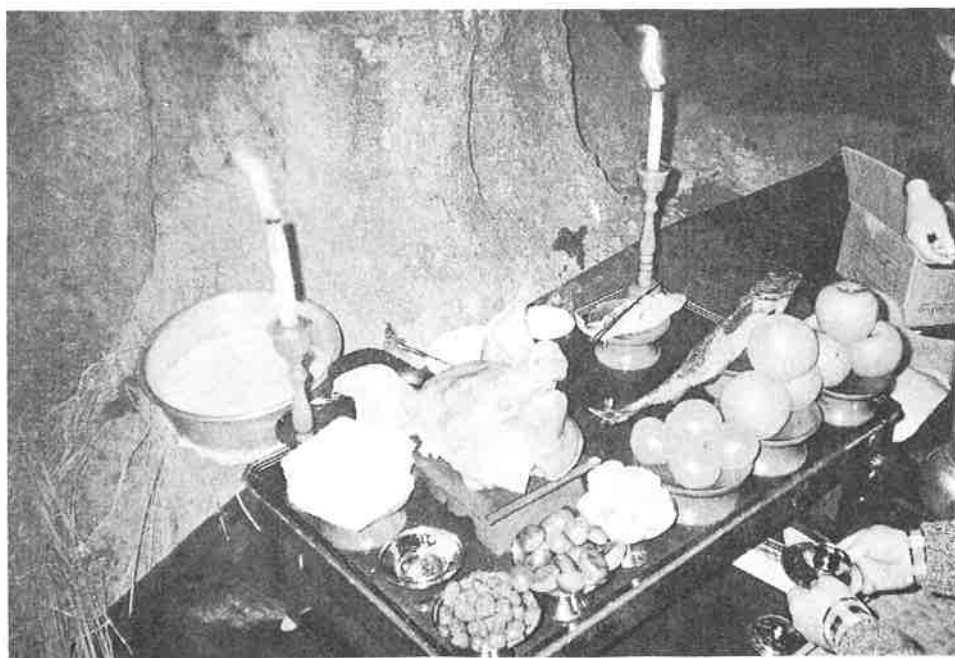
당주집에 걸린 대동기(1999.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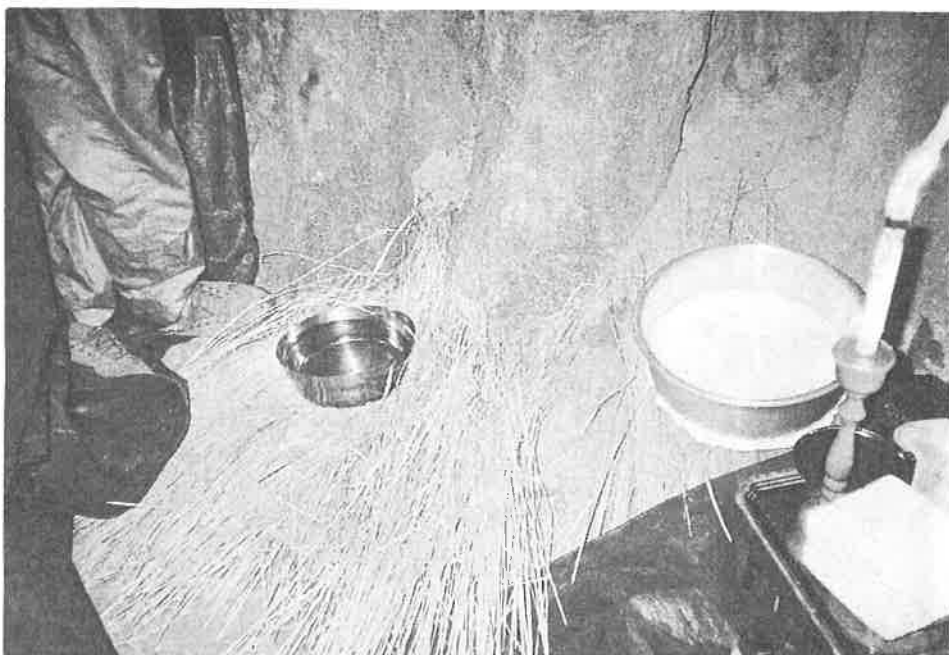
고목제 전에 농악을 치며 정자나무를 도는 모습(1999. 2. 17)



정자나무 옆에 불 피운 모습(1999. 2. 17)



제물(1999.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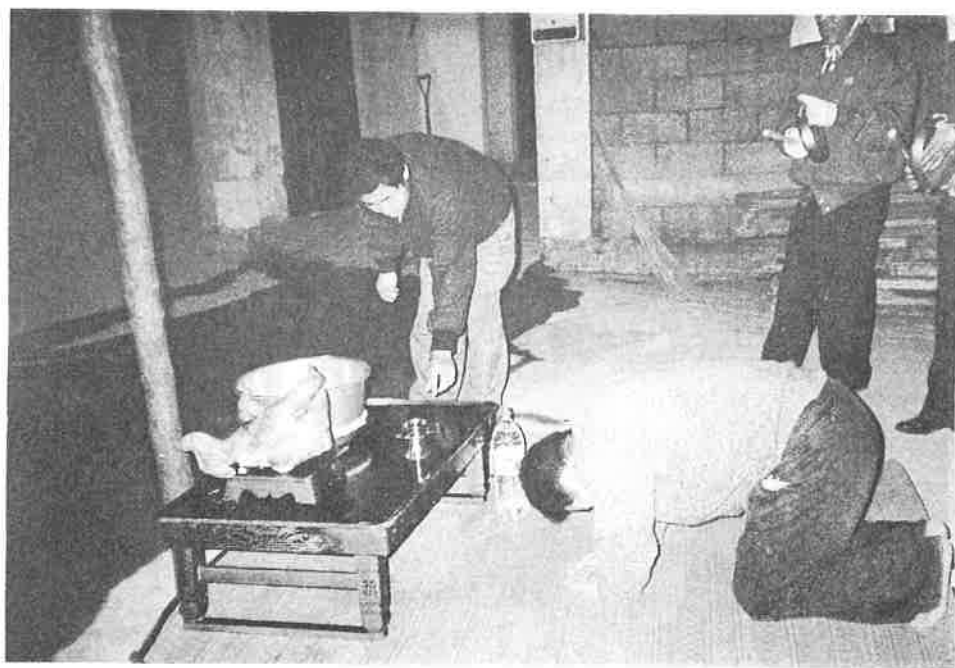
제물-물·떡(1999. 2. 17)



축원기(1996. 2. 20)



소지(1996. 2. 20)



당주집 마당에서 마을기에 절하는 모습(1999. 2. 17)



당주집 마당에서 농악치는 모습(1999. 2. 17)



당주집 마당에서 어우러져 즐기는 모습(1999.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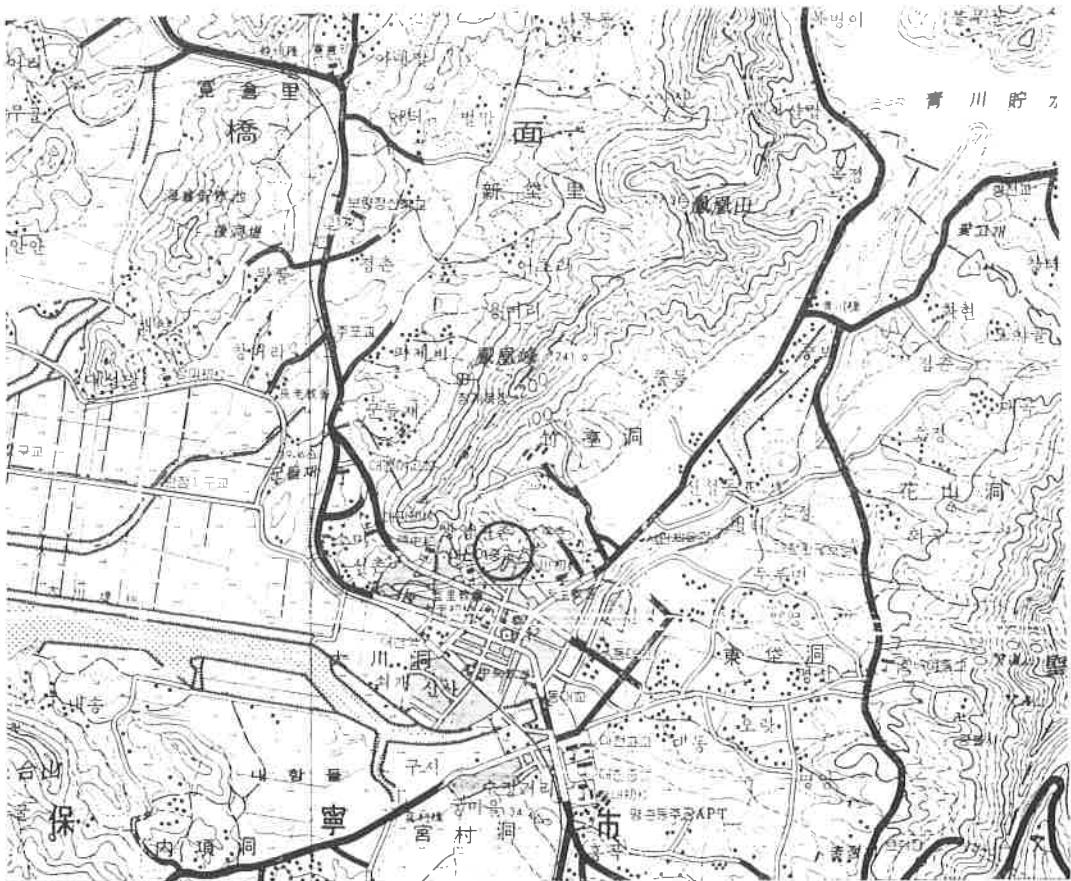
4. 대천동 동제

1. 마을의 개관

대천동 지역은 현재 도시화되었으나, 과거에는 봉황산 밑 산자락에 농사짓는 주민들이 사는 갈머리 마을과 한내장(현 구시) 마을이 있었다.

한내장(현 구시) 마을은 주변의 농산물이 모이고, 섬 지역에서 셋개(구시 옆에 있던 옛 포구)를 통하여 해산물이 모여 예부터 큰 시장을 이루었었다.

일제의 침략 후 1914년 보령군, 남포군, 오천군이 통폐합되고 군청이 대천동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대천동은 보령시의 행정, 교통, 상업,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는 시장도 새롭게 발전하고 수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변모하였다.



대천동 지형도(1:50000)

2. 유래

대천동 즉 대천 시가지 주민들이 지내는 동제이다. 대천동 산 28번지 수청구지에 산제당이 있다. 이 제의 시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70년대 초에 없어진 용대기에 甲午(1894년)라는 제작 연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894년 이전부터라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제를 대천 시장 상인들이 주관했던 것 같다. 동제의 역대 회장 명단에 있는 성호영은 1933년 원홍주등육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 대천임소(大川任所)의 한산도공원(閑散都公員)이었으며, 1940년에 부접장(副接長)에 올랐고, 최칠성은 1943년에 대천 임소 한산도공원에 있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¹⁾. 상무사의 대천 임소가 없어진 후 제는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지내졌다.

대천동 동제 역대 회장 명단

오병선(일명 하익), 박영삼, 최용보, 한춘원, 성호영(일명 공원), 박용준, 이희규, 최장열, 이정복, 전동수, 최칠성, 구종서, 박원식(현)

산제당은 과거에는 돌담 흙벽 3평의 초가였다가 6.25 사변 무렵에 없어지고 제(祭)도 지내지 않다가 1970년 4월 시멘트 블록 기와 4평으로 현재의 제당 모습을 갖추었다. 산제당 속의 神體는 과거에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알 수가 없고, 1970년 새로 지을 때 이창호 화백이 그린 산신도를 모셨으나 훼손되어 없어지고 현재는 인쇄된 산신도가 붙여져 있다. 또한 제당 속에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대형 용대기 2개와 소형 용대기 1개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현재의 것은 근래 다시 만든 것이다.

3. 제의 준비

동제의 절차는 먼저 덕망이 있는 주민 중에서 生氣福德을 보아 主當家를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선출된 주당가에는 다음 날부터 대형 용대기에 農商工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기를 대문 앞에 꽂아 놓는다. 그리고 대문에는

1. 원홍주등 육군 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 청금록(靑衿錄)에서 확인

원새끼줄에 숯, 백지, 소나무가지를 쫓은 금줄을 늘어 놓고 대문 밖에는 양쪽으로 황토 세 무더기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주당가로 지정되면

가)제사 7일 전부터 부부가 집에서 찬물로 목욕재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부정한 장소를 가지 않으며, 보거나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부부생활도 일체 금한다.

라)마을 사람들도 자기가 부정하면 출입하지 않는다.

다음은 生氣福德을 보아 제관과 유사를 뽑는다.

제사 비용을 위하여 걸립을 하는데, 걸립은 정월 초나흘부터 실시한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온 시내를 家家戶戶 방문하여 지덕을 다져 주면 집집마다 쌀을 내고, 돈을 내고, 술과 밥을 내어 대접하고, 풍물패는 술이 거나하여 더욱 흥을 돋우게 된다. 이때 내는 돈과 쌀은 유사가 장부에 기입하고 모두 거두어 제 비용으로 쓰고 남으면 동네 사업에 쓴다.

요즈음은 걸립을 하지 않는다. 몇 년 전 한 번에 많은 돈을 걸립하여 1000여 만원을 예치 이자로 제를 올린다.

제 전날인 정월 열 사흘에는 아침 일찍 회장과 유사가 모여 제물을 준비하고 산제당을 청소하며, 당샘과 산제당 밑에 있는 샘을 깨끗이 품어 내고 그 주변을 청소한다. 이어서 당샘은 저녁 늦게 뚜껑을 덮는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누구도 떠가기 전에 주당자의 집에 물을 길는다. 이날 인근 주민들은 아침 일찍 물을 길어가지 않는다.

산제당 북서쪽 50여m 지점 골짜기에 있는 산제샘은 작은 시멘트 통을 묻고 벽돌로 3방향을 쌓고, 지붕을 하였다.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음각되어있다.

左補處沙伽羅龍王

南無三州護法韋馱天神

右補處和修吉龍王

4. 산신제

제일인 정월 열 나흘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회장과 유사는 용대기를 선두로 풍물패를 앞세워 성금을 내준 家家戶戶를 찾아 지덕을 눌러 준다. 온종일 시내를 누비고 다니면 여러 집에서 술과 음식을 내주어 풍물패는 더욱 흥이 난다. 그러다가 오후 4시경이 되면 당산에 올라 먼저 당샘에 가서 풍물을 치고 산제당 앞에 대형 용대기를 꽃아 놓고 장작불을 피우고 한바탕 농악을 울린다.

한편 제관과 축관은 산제당 북쪽의 샘에 가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욕재계를 하고, 산제당 앞에서 몸을 녹인 후 한복으로 갈아입고 제례 준비를 한다. 이때 주당자 집에서는 정성껏 차린 제물을 지게에 저 올려 온다.

제물 진설은 제관들이 하는데 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첫째 줄에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은행, 호두, 굴 등 과일

나)둘째 줄에 채, 부침개, 산자 등

다)셋째 줄에 생선, 조기, 민어포, 마른명태 등

라)넷째 줄에 삼탕

마)다섯째 줄에 시저와 잔 대를 놓는다.

이때에 메와 국은 부정을 막기 위하여 산제당 옆의 산제샘에서 물을 길어다 지어 제상의 맨 뒤 산신 위패 바로 앞에 놓는다. 또 산신을 향하여 왼편에는 쇠머리를 통째로 익혀 올리고 오른쪽에는 백설기를 시루째 올린다. 제주와 퇴주 그릇을 준비하고 촛대, 향로, 향합을 준비하고 축관과 소지 뭉치를 준비한다.

다음에는 祭禮儀式이 시작된다. 먼저 축관이 촛불을 켜고 뒷벽의 미닫이를 열어 산신도가 보이도록 한다. 다음에 초헌관에게 제를 시작하도록 알린다. 제관들은 이때 산제당 오른쪽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서고 반대편에는 집례가 서서 홀기를 읽어 제를 진행시킨다.

홀기(笏記)

*초헌관은 세숫물에 손을 씻으시오.

*초헌관은 신위전에 부복하시오.

*축관은 향을 받들고 헌관은 받아 향로에 피우시오.

*헌관은 잔을 받아 술 부어 잔을 가시어 올리시오.

- *초헌관 이하 모든 제관들은 강신 재배하시오.
- *축관은 잔을 받들고 헌관은 잔에 술을 가득 채워 산신전에 올리시오.
- *축관은 개를 열고 입시하시오.
- *초헌관 이하 모든 제관은 꿇어앉은 채로 머리 숙이시오.
- *축관은 독축하시오.

祝文

維歲次 ○○ 正月 ○○ 朔 十四日 ○○ 幼學 ○○○ 敢昭告于 山神之位
名山鎮北 揚靈降祥 實賴默祐 宜我農商 鼓潤以時 毆邦禳禳 舟車利涉 民
物俱昌 盈止寧止 來福無量 上元極煙 庶歆射觴

(번역문)

幼學 ○○○ 敢히 山神之位에 告하나이다. 山名은 鎮北이니 靈驗을 發揚하
시어 吉祥을 내려주시고 진실로 묵묵히 도와주시어 마땅히 우리들의 농사와
상업을 때때로써 어루만지고 운택케 하고 국가에 명성을 거양케 하며 舟運과
車輶이 利롭게 다니게 하고 백성과 만물이 다 창달하며 성실과 안녕을 유지
하고 복 받음을 한이 없이 되기를 이 上달에 분향하고 여러 가지와 잔을 올
리오니 흠향하소서 (박정순 역)

- *초헌관은 재배하시오.
- *초헌관은 잔을 비우고 나오시오.
- *아헌관은 세숫물에 손 씻으시오.
- *축관은 잔을 받들고 헌관은 잔에 술을 채우시오.
- *아헌관은 재배하시오.
- *아헌관은 잔을 비우고 나오시오.
- *중헌관은 산신전으로 입실하여 제상 앞에 앉으시오.
- *축관은 잔을 받들고 헌관은 잔에 술을 채우시오.
- *중헌관은 재배하시오.
- *헌관은 나오시오.
- *축관은 시저를 내리고 개를 덮으시오.
- *초헌관 이하 모든 제관은 재배하시오.
- *음복례를 올리겠습니다.
- *초헌관은 산신전으로 입실하시오.

*축관은 잔을 내려 초헌관에게 드리오.

*헌관은 술을 드시고 안주 드시오.

*초헌관과 축관은 축판을 들고 나와 축문을 소각하시오.

*소지 올리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초헌관은 산신전 앞에 大洞都燒紙 즉 대천의 전 동민의 안녕과 만사 형통함과 천재지변에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다. 제관 자신들의 소지는 각자가 올리고 다음은 각 기관 순서로 소지에 써어있는 대로 올린다. 그리고 절립 때 성금을 내 준 주민이 적혀 있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린 후 제물을 거두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부는 거리제에 가지고 간다.

5.거리제

거리제는 쇠머리 등 제물과 특히 쌀죽 한 동이를 쭈어 가져간다. 동대교에서 지내는데 그곳까지 용대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면서 이동한다. 도착하면 짚을 十字로 깔고 가져간 제물을 진설한 후 제를 지낸다. 이때는 일정한 격식이 없이 대략 진설한다. 이때 회장은 온 마을에 재앙, 역질, 악귀, 부정 등이 들어오지 말라는 간절한 주문을 외우고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절을 한다. 이때 유사는 사방으로 고시례를 외치면서 죽을 던진다.

거리제를 지낸 후 용대기를 말아서 들고 풍물을 치면서 제물을 차린 주당자 집으로 가서 음복을 하고 제를 결산하며 남은 돈이 있으면 마을 공동 재산으로 예치하여 공동기물도 장만하고 산제당도 수리한다.

도움말 주신 분

박원식(75) 보령시 대천동 19-8



대천동 산신당(1993. 2)



대천동 산신당 산신도(1993. 2)



마을 돌기(1988. 1. 14-음)



마을 돌기-시청(1988. 1. 14-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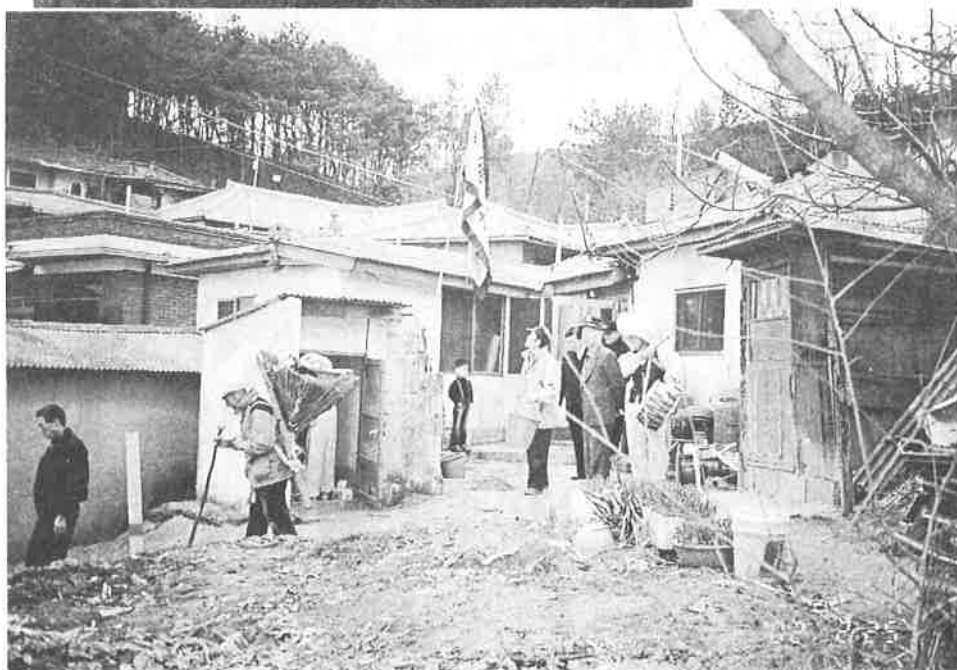
대동샘(2002. 2. 25)



산제샘(200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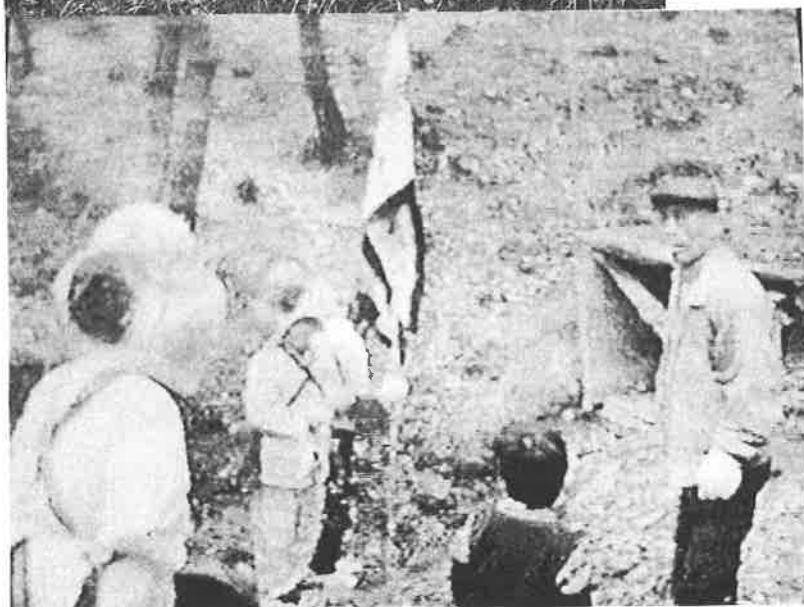
산제섬의 글씨(2002. 2)



산신제 출발(2002. 2. 25)



산제당에서의 풍물
(2002. 2. 25)



산제샘의 풍물(1988. 1. 14-음)



산제당에서의 밥짓기(2002. 2. 25)



산신제의 상차림(2002. 2. 25)



소지(2002. 2. 25)



거리제(2002. 2. 25)



거리제 소지(2002.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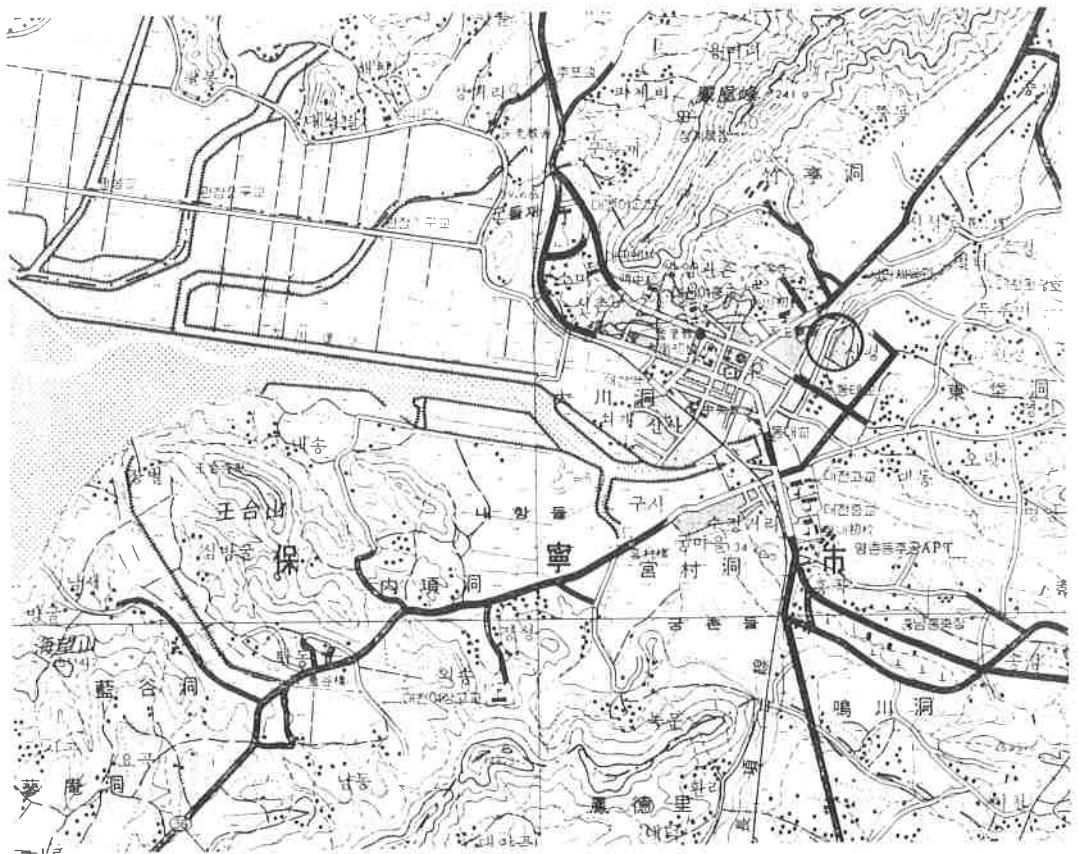
거리제 후 제물의 뿌림(2002. 2. 25)

5. 새터 마을 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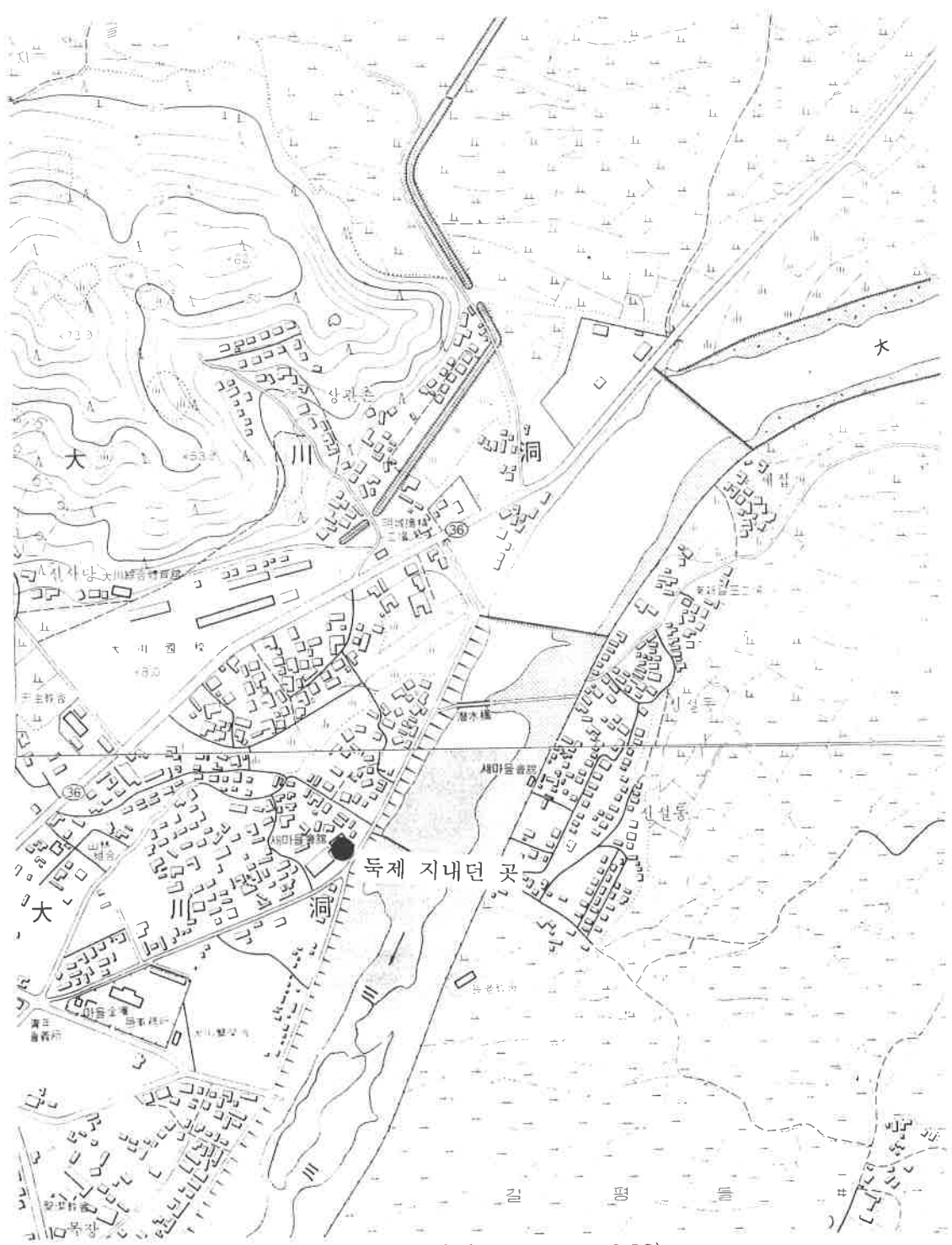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새터 마을은 대천초등학교 앞 마을이다. 1970년대 초 대천천의 북쪽을 메립하기 전에는 대천천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이었고, 마을의 북쪽 즉 대천초등학교 앞이 낮아 홍수 때는 섬처럼 고립되는 마을이었다. 따라서 홍수의 피해가 자주 있었던 마을이다.

새터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자연조건이 좋지 않아 윗갈머리 보다는 늦게 생겨난 마을인 것 같다. 여러 성씨들이 농사를 지으며 모여 살았었으나 현재는 도시화되어 인구 밀집지역이 되었다.



새터 마을 지형도(1:50000)



새터 마을 지형도(1:5000×0.82)

2. 독제

새터 마을의 넷독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독제(또는 路祭, 堂祭)라고 불리는 동제가 있었다.

祭의 장소는 현 대천동 신평노인회관이 있는 자리이다. 이곳에는 약 두 아름쯤 되는 미루나무가 4 그루 있었는데 이 미루나무를 神樹로 하여 그 밑에서 제를 지냈다. 祭日은 특정한 날이 없었고 정월 보름 안으로 날을 잡아 거행하였다.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월 초하루부터 마을을 돌면서 걸립을 하였다. 걸립은 집집마다 풍물패가 다니면서 풍물을 치는 것으로 각 가정의 안마당, 부엌, 장독대를 돌면서 쳤는데 이것은 터주, 조왕 등 집안에 있는 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종의 安宅행사였다. 풍물패가 들어오면 집에서는 상에 쌀을 부어 놓고, 촛불을 켜고 사발을 그 위에 올려놓으며, 실도 올려놓는다. 실은 가족의 명이 길으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렇게 2-3일 동안의 걸립 행사가 끝나면 (1968년 제사 비용 9,000원),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제관과 축관을 뽑는다. 제관이 결정되면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큰 용대기를 제관 집 앞에 꽂고 제일 이 되면 祭堂 앞에 꽂았다. 이 용대기의 끝에는 수평의 꼬리털을 한 다발 묶어 달았는데 현재도 마을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제관 축관은 1주일 전부터 부정한 것을 행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했기 때문에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뿔으며 모든 일을 삼갔다(부정은 시신, 상제, 가족의 도살, 불, 월경, 피, 출산 등이다). 목욕은 넷물에서 하였다. 넷물의 얼음을 깨고, 제주 부부가 모두 목욕을 했는데 그렇게 춥게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젯날이 되면 풍물패가 온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고 제당을 꾸몄다. 4개의 미루나무를 기둥 삼아 광목으로 둘러쳐 임시 천막집을 만들고 둘레에 흰 새끼줄로 한 바퀴 돌려 부정을 막는다. 그리고 천막의 앞에는 붉은 황토를 파다가 3열로 놓아 부정을 막았다. 낮에 이런 준비가 끝나면 풍물을

계속 치고 놀다가 밤 12시가 되면 제를 시작한다. 제는 제관과 축관 외에 몇 명의 주민이 참석하였고, 부정 때문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특히 여자의 참석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물은 돼지를 잡아 쓰다가 나중에는 돼지 대가리만 사서 썰고 떡은 시루째 사용하였으며, 기타 제물은 일반 유교식 제사와 비슷하였다. 모든 제물은 제기(祭器)에 놓아 썰는데 堂祭 전용 제기가 있었다. 이 제기는 지금도 마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바, 모두 거친 사기 그릇으로 되어 제(祭)의 역사를 말해 준다. 주민들의 기억과 1968년 대천국교 趙南文 선생님의 조사에 의하면 제상은 6개였다고 한다. 축문에 보이는 오방지신과 도로지신에게 제물을 따로따로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음복을 한 후 제물은 제주 집으로 가져왔고,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풍물을 치고 놀았다.

祝文

保寧 木忠面 新坪 路祭 祝文

維

歲次庚寅正月壬寅朔初十日辛亥 海東朝鮮國忠清南道保寧郡木忠面新坪里居閑良 金萬東焚香再拜敢昭告于 五方之神河海山川道路之神 伏以烏棲山麓 西海之濱 大川之上 大路之邊 有此新坪 村衢有神 一村居民 家家戶戶 生拾長拾 男女老少 父慈子孝 夫唱婦隨 維神保佑 無疾無災 農業資生 各食其力 春種夏耘 秋收冬藏 男耕女織 衣食豐足 維神保佑 豐年穰穰 風不爲厄 蟲不爲災 川澤灌溉 水不爲災 閭閻櫛比 火不爲災 無事無慮 官災消滅 吉神入門 子女煩吉 魍魎不侵 癘疫不入 盜賊莫近 虎豹遠逐 牛馬鷄犬 六畜繁盛 百事如意 家給人足 一村太平 時和年樂 維神保佑 祝辭如享 物薄誠淺 所望則大 神其默佑 庶歆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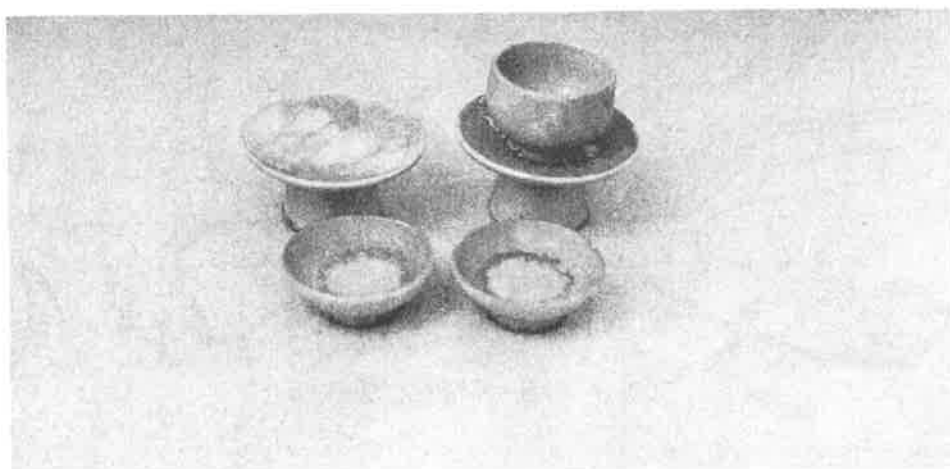
饗

(번역문)

新坪里에 居住하는 閑良 ○○○는 敢히 焚香再拜하고 五方의 神과 河海 山川 道路의 神靈님께 告하나이다. 앞드려 해야리건대 烏棲山 기슭 서쪽 해변 大川 위 큰 道路 가에 이 新坪이 있으니 마을 거리에도 神이 있어 한 마을에 居住하는 百姓들이 家家戶戶마다 生長에 안호하고 男女老少가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들은 孝하며 지아비는 앞장서고 지어미는 따름은 오직 神靈님이 保佑하심이요. 疾病이 없고 火災가 없으며 농사 풍부히 生産하여 각각 그 힘으로 먹으며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며 남자는 밭을 가꾸고 여인은 길쌈하여 의식이 풍부함은 오직 신령님이 保佑함이라. 풍년들어 五穀이 잘 여물며 風厄과 蟲災가 없고 川澤에는 灌溉가 잘 이루어 水魔의 災害가 없게 하고 마을에 모든 일이 순조로우며 變事가 없으며 官災를 消去하고 吉神이 入門하며 자녀의 吉事가 많으며 도깨비가 침범치 못하게 하고 전염병이 들지 못하게 하며 盜賊을 없애고 맹수를 멀리 쫓으며 牛馬雞犬 六畜을 번성케하고 百事를 뜻과 같이하며 家戶에 人口를 더하고 一村이 太平케하며 歲和하고 年豊함이 오직 신령님이 保佑하사 祝文과 같이 누리며 제물은 薄하고 誠意는 淺弱하나 所望하는 것은 크니 神靈이시어 묵묵히 도우시고 여러 가지를 歆饗하시고 應感하소서. (박정순 역)



새터 마을 대동기의 평장목(1994. 1)



새터 마을 독제에 사용된 제기(1994. 1)

6. 고리굴 마을 괴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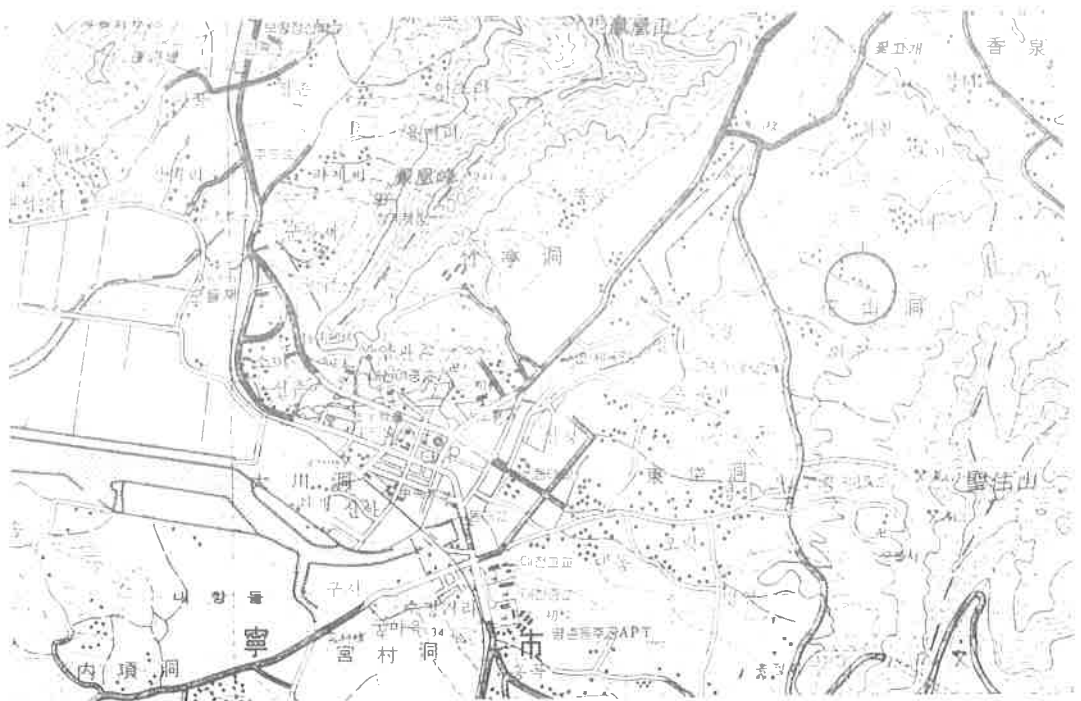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성주산 서쪽 사면에 고리굴 마을이 있다. 이곳은 해발 50~60m의 성주산록으로 낮은 언덕과 작은 골짜기가 교차하는 곳이다. 예부터 계곡 물을 이용해 논농사를 짓고 능선에서 밭농사를 지어왔던 전형적인 농촌이다.

주변 성주산은 중생대 퇴적암 지대로 예부터 청석을 이용하여 벼룻돌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현재 마을에는 26가구가 거주하는데 밀양 박씨 13가구, 평산 신씨 5가구 등이다. 집성을 이루는 밀양 박씨는 광해군 때 영의정인 박승중¹⁾의 둘째 아들로 반정으로 낙향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여 규암에 내려왔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 교회는 없고 교회에 다니는 가구는 3가구뿐이다.



고리굴 마을 지형도(1:50000)

1) 제보자인 박정순 선생의 13대조

마을의 모든 행사는 이웃인 소쟁이 마을과 함께 한다. 옛날에도 함께 제를 지냈으며, 두레, 상여, 농악을 함께 한다. 현재 반(班)은 다르지만 한 마을인 것이다.

2. 괴목제의 유래

고리굴 마을의 중심 언덕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 원래는 장정 4~5아름이나 되었는데 30년 전 속에 불이 나고, 25년 전 한 가지가 부러져 현재는 한 가지만 속이 빈 채로 남아있다.

이 나무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주민들은 모르지만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한말 일제가 침략해 올 때 항일운동하던 인사들이 밤에 정자나무 밑에 모여 항일운동 모의를 하곤 하였다. 한일합방 후 이 사실을 안 일본인들이 정자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제단으로 이용하던 돌²⁾도 다리를 놓아 없애버려 제가 없어졌다’고 한다. 다만 당시의 축문만이 전해온다고 한다.

일제가 물러가고 6. 25사변 직후 병술년에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뒤 괴목제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월 14일 밤에 약간의 제물로 제를 올렸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제에 참석하는데 밤에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음력 정월 보름 낮 10시에 지내는 것으로 하였다. 제관도 과거에는 생기복덕을 보아서 뽑고, 목욕재계하는 등 여러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켰으나 근래에는 외지에서 온 동장, 농협조합장 등이 헌관을 맡는다.

3. 제의 준비

제를 지내기 위해서 정월 초에 풍물을 치고 다니면서 걸립을 하였다. 현재는 풍물을 칠 사람이 없어 젊은이들 몇 명이 쌀포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쌀을 걷는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에 필요한 만큼만 걷는다. 제물을 사는 현금은 마을 기금으로 쓴다. 다만 떡에 사용하는 쌀만을 걷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구 당 1되씩 거두었더니 3-4말이나 모아져 1말은 떡쌀로 쓰고 나머지는 매각하여 마을 기금으로 하였다. 요즈음은 작은 그릇으로 1그릇씩 거둔다.

과거에는 당굿집에서 음식을 장만하였으나 근래에는 생기복덕이 달아도 할만한 사람이 없어 마을 회관에서 아주머니들이 공동으로 준비한다. 마을 회

2) 현재 마을 회관 옆에 세워진 애향경로탑입

관에는 제사에 필요한 목기, 향로 등 일체를 준비해 놓았다.

4. 괴목제

젯날이 되면 먼저 정자나무 주변을 청소하고 주변에 황토를 깔고 나무에 왼 새끼줄을 감는다. 새끼줄에는 가운데에 길게 南無樹君之神이라고 써 달고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써 단다. 이어서 나무를 돌면서 풍물을 치고, 제상을 진설한다. 제상은 일반 제사상과 같이 놓는데 떡을 시루째 쓰고, 돼지머리를 놓는 것이 다르다. 밥은 올리지 않는다.

진설이 끝나면 풍물을 그치고 제관들이 들어와 제를 올린다. 제관은 초헌, 아헌, 삼헌, 대축, 집례, 좌우집사 등 7인이다. 헌관은 동장, 농협조합장, 문화원장 등이 참석하면 먼저 시키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이 한다.

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초헌관이 잔에 약간의 술을 부어 가시어 올린 뒤,

○헌관 이하 제관은 큰절을 두 번 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묵념한다.

○축관이 축을 읽음

축문은 아래와 같다.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六年歲次癸酉一月甲辰朔十五日戊午後學○○○敢昭告于南無樹君之神 奉一千年史 神其最靈 能威能猛 消災降福 有求皆遂 加護妙力 是以 淨餅 供饗五方諸神 下意同參 常逢吉慶 福壽增延 子孫榮顯 五穀培盛 六畜潤長 遠祛三災八難 不逢官災 洞民仰願 病弱者 即得快愈 職務者 隨分成就 謹具敢告 百拜千祈 樹君尊靈 歆於尙

饗

(번역문)

後學 ○○○ 敢히 樹君 神靈님께 告하나이다. 一千年을 받든 神의 큰 영험이 能威와 能猛으로 재앙은 消去하고 福은 下降하시며 求하는 것은 다 이루게 하고 妙力을 加護하시니 이로써 淨餅과 供饗로 五方 모든 神靈이 내려 뜻을 같이 참여 하사 항상 吉慶을 맞이하게 하고 福壽를 增延하며 子孫들을 榮顯케 하시고 五穀을 培盛케 하며 六畜을 潤長케 하고 三災와 八亂을 멀리 보내며 官災 없게 하시기를 洞民들은 우리러 바라오며 病弱한 자는 곧 快癒를 얻게 하고 職務者는 隨分하여 성취케 하시기를 삼가 갖추어 감히 고하고 百拜祈하오니 樹君尊靈이시어 응감하고 흠향하소서. (박정순 역)

- 하헌관 잔을 올림, 절.
- 종헌관 잔을 올림, 절.
- 초헌관 첨작, 절.
- 사신, 일동이 절을 두 번 함.
- 음복례

다음에 농악을 치고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흥을 돋운다. 이어서 마을 회관에서는 음식상을 차리고 제관과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여 먹는다. 흥겨운 하루가 된다.

도움말 주신 분

朴丁淳(75) 보령시 화산동 316번지



고리굴 마을 정자나무-느티나무 (1994)



과거 피목제 제단으로 이용되던 돌(1994. 1)



정자나무에 감을 원세끼 꼬는 모습(1994. 2. 24)



풍물치는 모습(1994. 2. 24)



괴목제의 준비(1994. 2. 24)



괴목제 모습(1994.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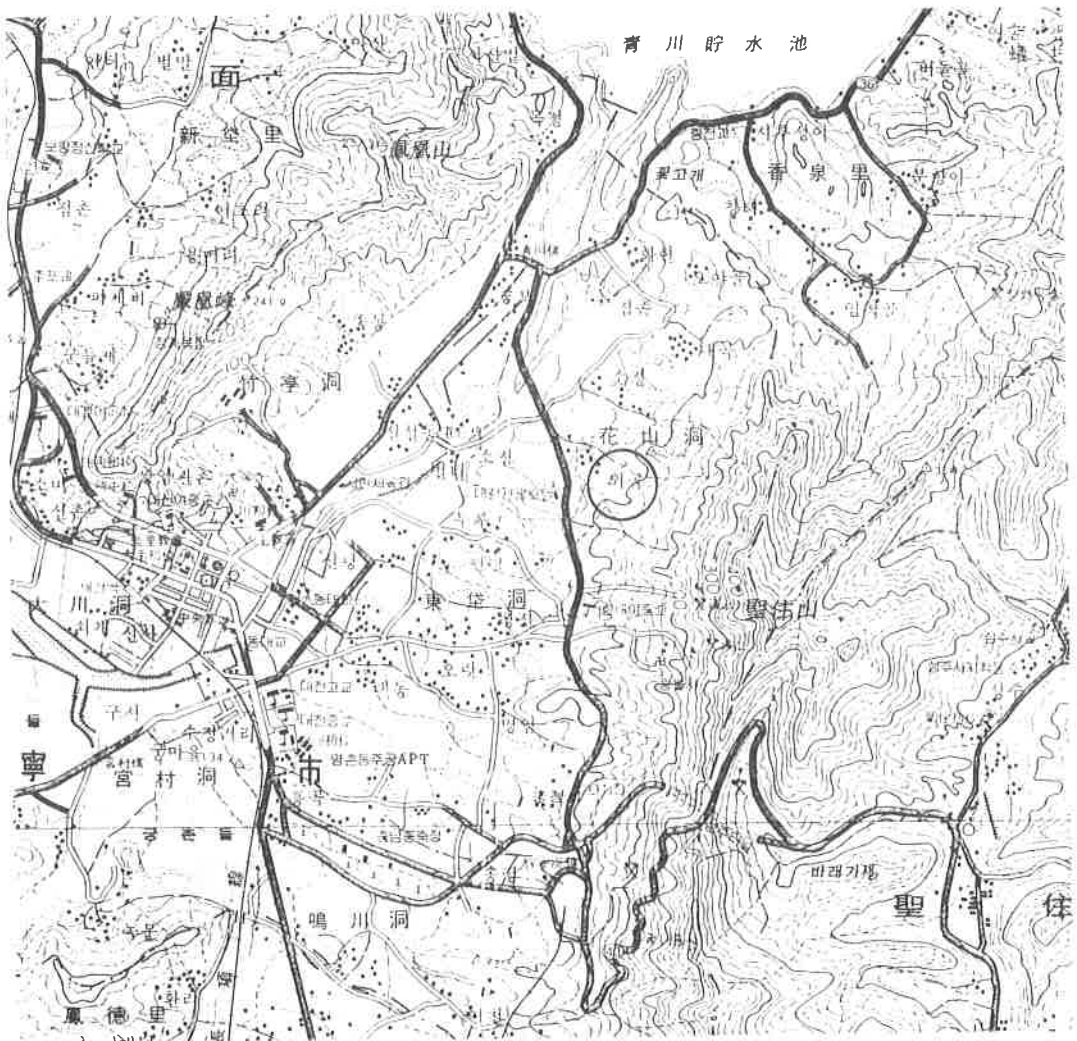
괴목제에 참여하는 주민 모습(1994. 2. 24)

7. 오얏굴 마을 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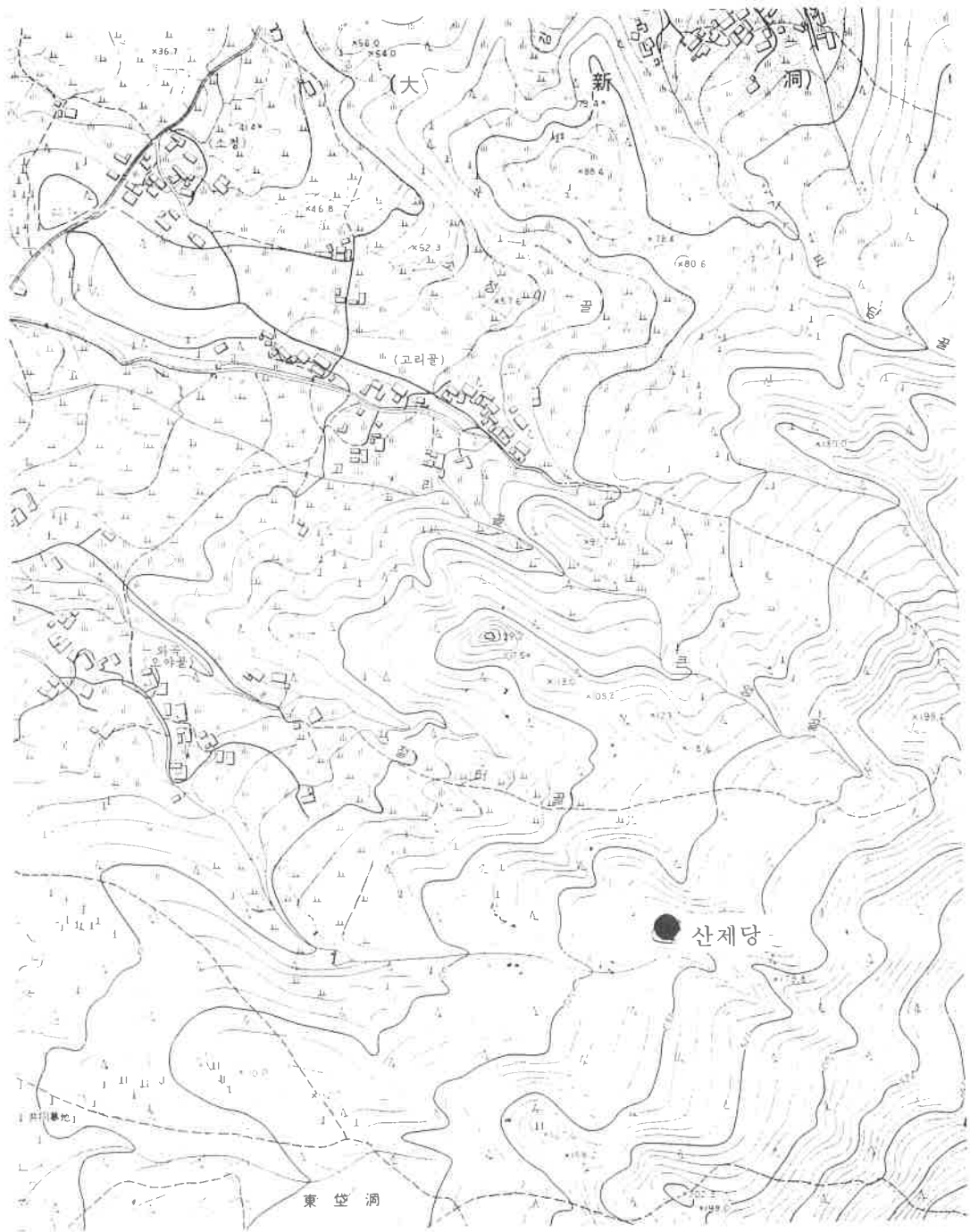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보령시 화산동 오얏굴 마을은 청천교에서 한내여중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이곳은 성주산의 산록완사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환경사지이며 작은 골짜기에서는 논농사, 구릉에서는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현재 평산 신씨, 은진 송씨, 남포 백씨 등 30여 가구가 거주하는데 어떤 성씨가 집성을 이루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평산 신씨가 많이 거주하였다.



오얏굴 마을 지형도(1:50000)



오얏굴 마을 지형도(1:5000×0.71)

2. 산제당

산제당은 오얏골 동쪽의 성주산 산록에 있는데 神木으로 위해지는 10여 개의 왕소나무로 둘러 싸여 있다.

소나무 숲 속에 둘레 25m쯤 되는 4각형의 제당이 만들어져 있다. 돌로 1.6m 높이로 쌓았는데 지붕은 없으며 지붕이 있었던 흔적도 없다. 문은 마을 방향으로 나 있으며, 돌을 쌓지 않았을 뿐 어떤 시설도 없다. 제당의 동쪽에는 산꼭대기 방향으로 자연석 제단이 있다. 제단은 대략 2×1.5×1m로 원래 자연 상태로 있던 돌인 것 같다. 이 제단 뒤에는 이곳에서 가장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主 神木인 셈이다. 크기는 밑 둘레가 2.4m이다. 산제당의 동북쪽에는 작은 개울이 있고 이 개울가에 당샘이 있어 산제 때 반드시 이 물을 사용한다. 2002년에는 당샘이 말라 마을에서 샘물을 길어다 사용하였다.

3. 산신제

제는 먼저 절립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초에 온 마을을 농악패와 함께 다너 걸립을 한 후, 날을 잡아 제를 지냈으나 요즘에는 정월 초이틀로 정하여 제를 지낸다. 젓날이 결정되면 당주, 제관, 축관을 뽑는다. 제관 축관은 7일 동안 부정을 가려 많은 금기 사항을 지켰다. 음식은 당춧집에서 장만하는데 부정 때문에 익혀서 쓰는 제물은 모두 산제당에서 만든다.

젓날이 되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 제당 주변과 당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무를 준비해 놓는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제를 지내러 올라간다. 이때 부정 때문에 제관 축관 등 소수 인원이 올라간다. 남자들만이 쌀, 고기 등과 일반 유교식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올라가 당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당 안에서 밥을 하고 고기를 익힌다. 밥이 다 되고 고기가 익으면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내는데, 제물의 진설과 제 절차는 유교식 제사와 비슷하다. 2002년의 제물은 다음과 같다.

밥, 떡
 초, 술, 초,
 김, 탕, 조기,
 돼지머리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산자

축문은 아래와 같다.

오얏골 산신제 축문

大川市 花山洞(瓦洞 一名 東山) 오얏골 山祭祝文

維歲次 ○○正月 ○○朔 ○○日 ○○ 堂主 ○○○敢齋沐百拜 祝願于
 主山之神曰 天地肇判 山岳爲鎮 神以佑人 巍彼聖山
 最貴者人 最靈者神 人以依神 維洞之鎮
 民俱爾瞻 日有尊神 所求者多 日有尊神 所願者成 伏惟
 尊靈 昭格于下 調順風雨 遠祛水火 瘟疫不犯 虎豹奔走
 稼穡比登 墻堵咸寧 魅魍晦蹤 盜賊遁藏
 五穀蕃熟 戶口殷富 神其明矣 神其靈矣
 六畜茁長 老少咸寧 何所不行 何事不成
 茲值孟春 日吉辰良 戒心浴誠 淨掃壇場
 奠牲于俎 崇酒于觴 隨事祝願 宜應如響
 今此東山 賴以永昌 謹以 菲薄尊具 薦此祝事 尙

響

堂主 ○○○는 감히 沐浴齋戒하고 百拜하고 主山 神靈님께 祝願하나이다.
 天地가 비로소 열리매 가장 貴한 것은 사람이요, 山岳을 진압하는데 가장 신
 령스러운 것은 神이라. 신은 사람을 돕고 사람은 신을 의지하니 높은 저 聖
 山이여 오직 우리 洞을 진호하사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날로 존엄하신 神靈
 님이 있음으로 求하는 바 많고 願하는 바 이루게 하소서. 앞드려 헤아리건대
 존엄하신 神靈님이시어 아래 소에 이르소서 風雨를 고르고 순하게 하사 가색
 을 비등케 하고 水魔와 火災를 멀리 보내며 담장과 울번을 無隙케 하고 전염

병이 범하지 못하게 하며 惡鬼는 자취를 감추게 하고 盜賊을 숨어 감추게 하며 野獸를 멀리 달아나게 하고 五穀이 번창하고 성숙케 하며 六畜을 肥長케 하고 戶口를 더하며 富하게 하고 老少가 다 安寧케 하사 神의 밝음으로 무엇인들 行하지 못할 바며 神의 영험으로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리오. 이 孟春에 이르러 吉한 날과 좋은 日辰에 마음을 경계하고 誠心으로 沐浴하여 정히 壇과 場을 淸掃하고 犧牲을 祭器에 올리고 술을 잔에 올리오며 일에 따라 祝願하오니 마땅히 應하시기를 影響같이 하사 지금 이 동산에서 길이 창성함을 힘입기를 삼가 菲薄으로 차려 이에 받들어 축사하오니 흠향하소서

무극(無隙): 틈이 없어 도적이 침입하지 못함
영향(影響): 그림자처럼 보답함 (박정순 역)

제의 끝에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백지로 올리는데 미리 이름을 써놓지는 않고 명부를 보고 올린다. 먼저 동네 대동 소지를 올린 후 당주 제관 축관순으로 올린 다음 온 마을 가가호호(家家戶戶)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 후에는 제당 안에서 음복을 한다. 음복 후 남은 제물을 지계에 담아 내려오는데 과거에는 풍물패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산밑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한다. 근래에는 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 풍물패의 마중은 없어졌다. 마을에 내려온 당주 일행은 마을 회관에 제물을 내려놓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풍물을 올리는 등 마을 축제였는데 요즘은 몇 사람만이 참여한다.

도움말 주신분

신재화(76) 보령시 화산동 242



산제당 전경(199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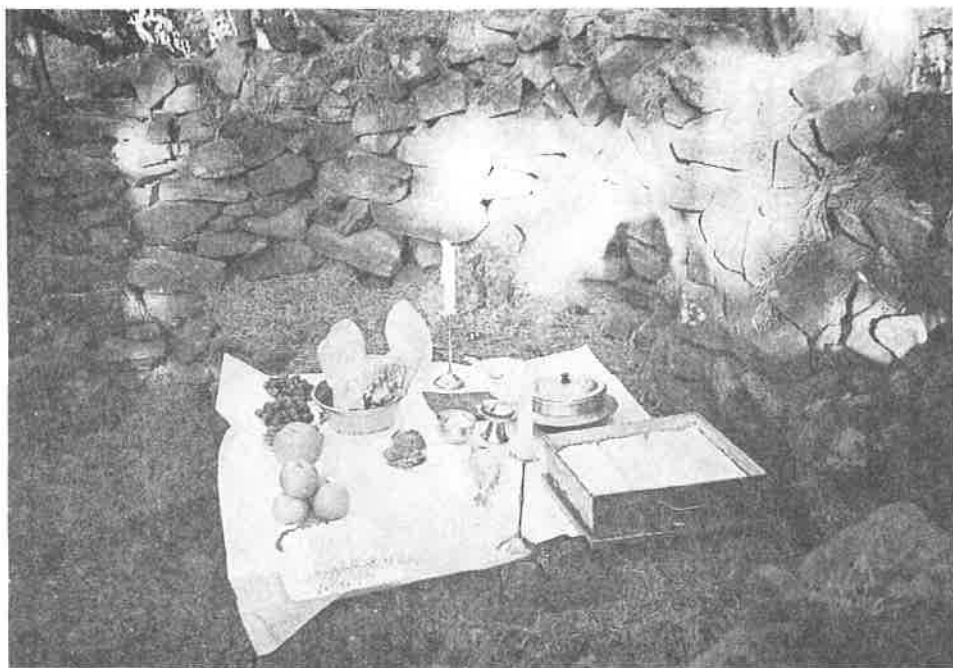
산제당 전경(2002.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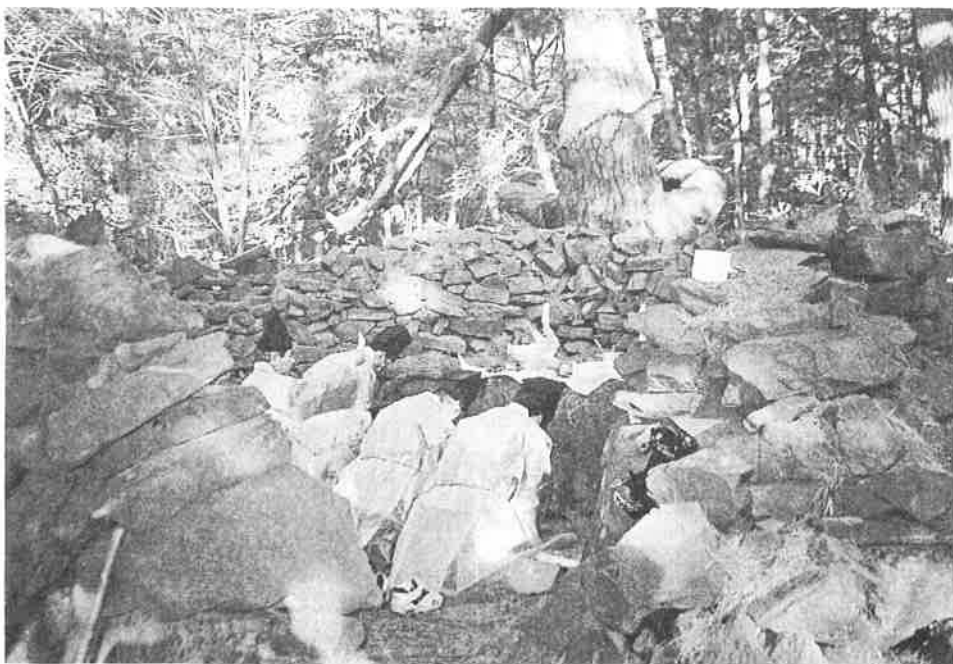
산제샘(2002.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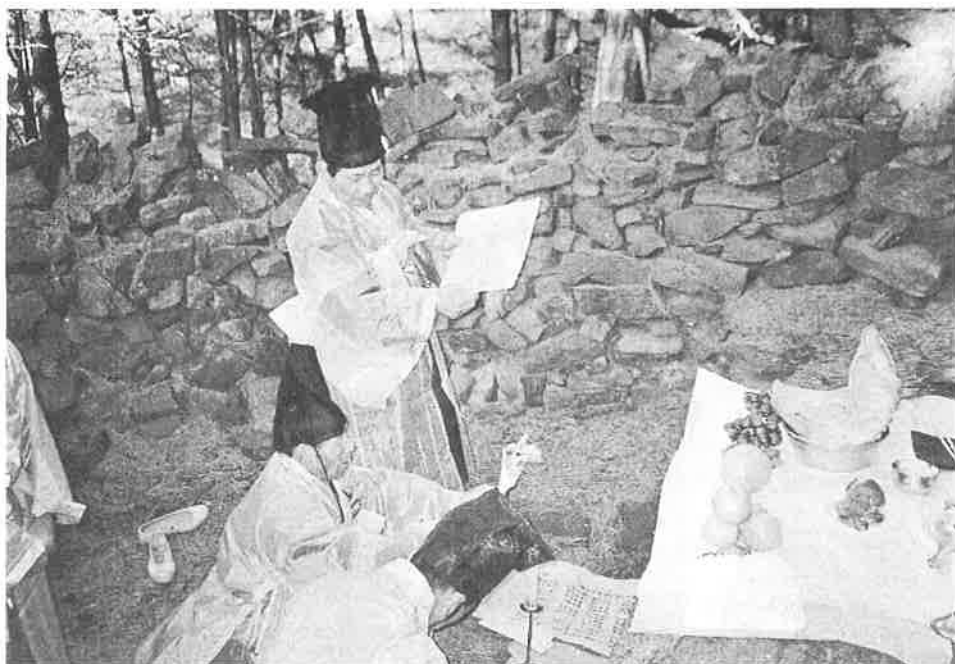
산제당에서 제물 만드는 모습(2002. 2. 14)



제물(2002. 2. 14)



산제 광경(2002. 2. 14)



소지(2002. 2. 14)



음복(2002. 2. 14)

8. 녹문 마을 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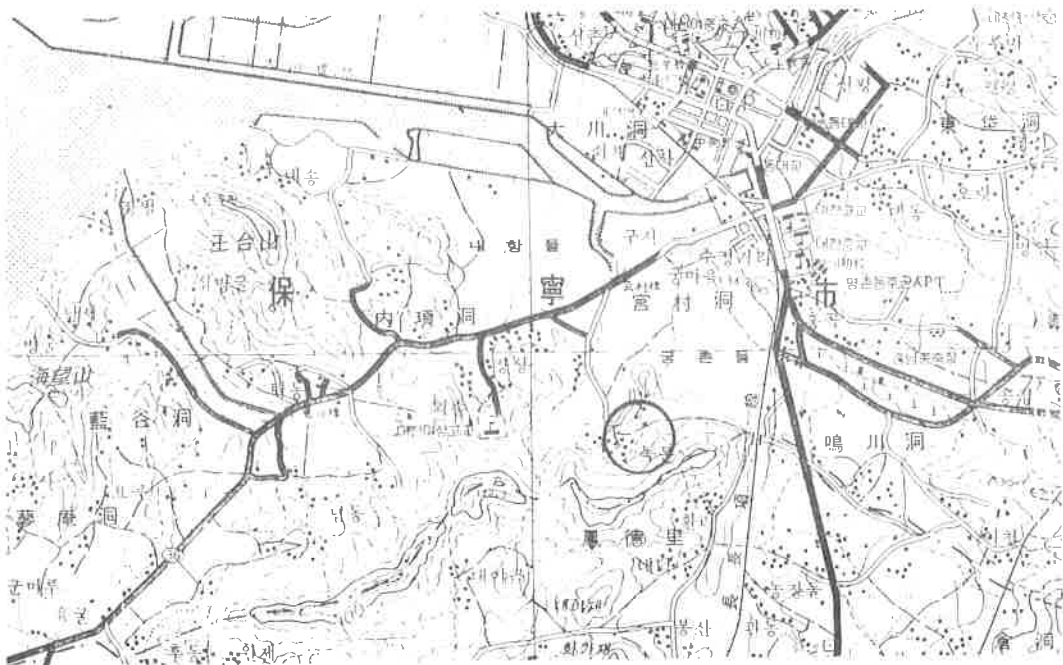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보령시 내항동 녹문 마을은 원래 노루목으로 불리던 마을로 대천 시가지의 남쪽에 있다. 대천해수욕장으로 통하는 36번 국도의 궁촌교에서 남쪽으로 난 길로 들어가는 마을이다. 시가지와 근거리에 있으나 전형적인 농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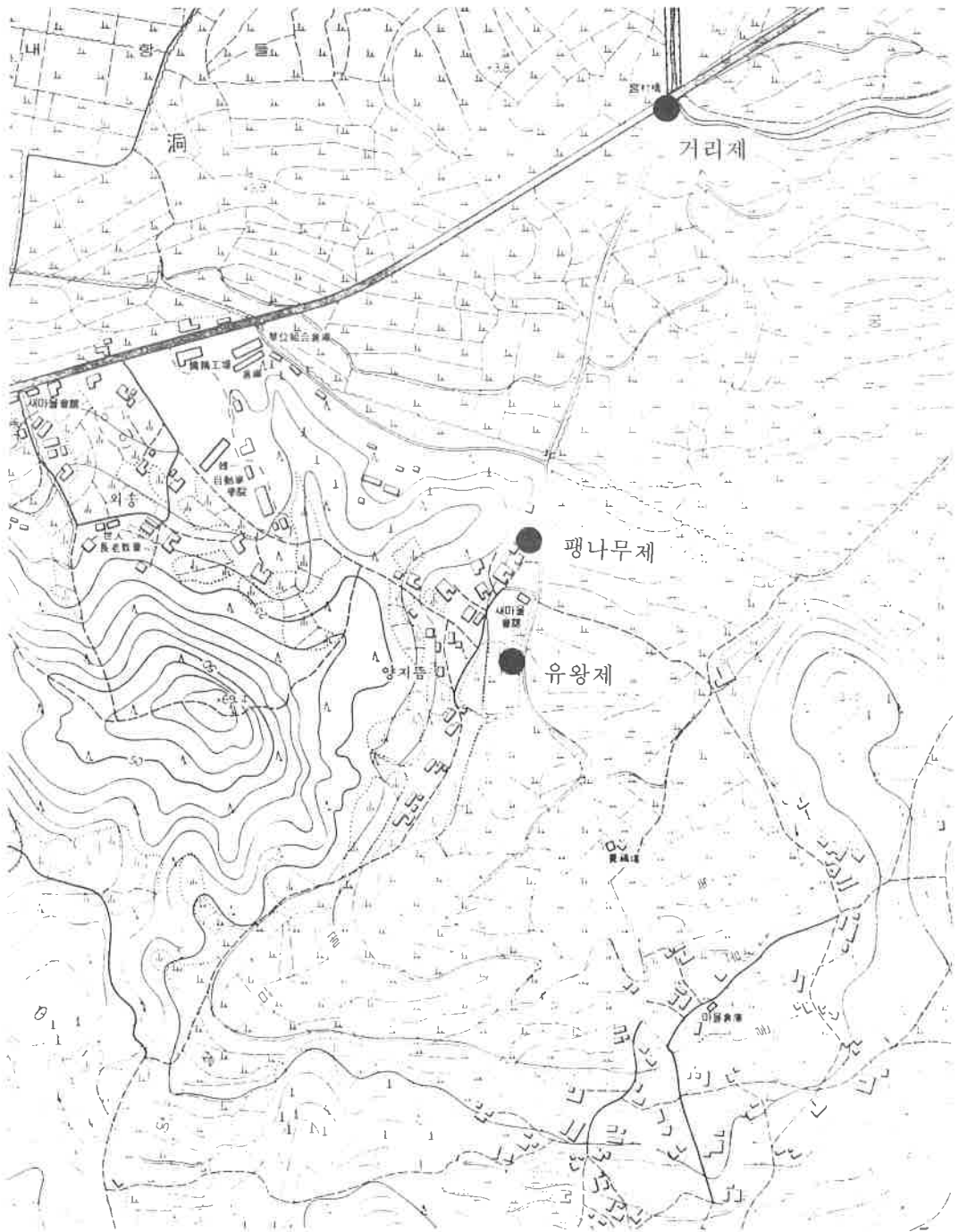
이 마을의 남쪽은 남포면과 접경을 이루는 비교적 높은 산지이고, 북쪽은 넓은 평야이다.

주민은 80여 호가 거주하는데 여러 성씨로 구성되어 집성촌을 이루지 않는다. 전주 유씨가 세거하였고 지금도 6~7가구가 거주한다. 보령 5열사로 유명한 유준근 열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교회에 다니는 가구는 10여 가구로 걸림이나 동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녹문 마을 지형도(1:50000)



낙문 마을 지형도(1:5000×0.82)

2.과거의 동제

녹문 마을에서는 6.25 사변 전까지 옛 방식의 동제를 지냈다. 다음은 6.25 사변 이전의 동제를 주민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1)걸립

매년 정월 초가 되면 동제를 위해 걸립을 하였다. 남자들이 풍물을 치고 (팽과리, 징, 장구, 북, 새납)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들러 마당, 장독대, 부엌 등에서 풍물을 친다. 이것을 ‘지덕누른다’라고 하는데 이래야 1년 동안 편안하다고 믿었다.

각 가정에서는 상 위에 냉수 1그릇과 그릇에 쌀을 담고 촛불을 켜 놓는다. 대개는 쌀 5되 정도, 잘사는 집은 1말 정도 내었고, 살림이 어려운 집은 풍물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밖에서 돈으로 조금 내기도 하였다. 걸립된 기금은 제를 지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 기금으로 하였다.

이때 마을 대동기는 마을의 중심부나 당굿집에 꽂아 놓았다. 기는 가로 4m 세로 3m 정도 되는 큰 기로 여러 색을 사용한 큰 용이 그려져 있었고, 한쪽에 마을 이름을 써 놓았으며 가에는 검은 띠를 둘렀다. 대동기를 매다는 대나무도 대단히 큰 것이어서 한 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기는 근래까지 보관되다가 훼손되어 10여 년 전 불태워 없앴다.

2)서낭제

녹문 마을에는 남포 상보¹⁾쪽으로 통하는 길 옆에 서낭당이 있었다. 이곳에서 제를 올렸는데 제의 자세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없다. 간략하게 지냈다고 한다.

3)팽나무제

마을 입구에 있는 팽나무에 제를 지냈다.

1) 남포면 집경에 있는 보(湫)

4)거리제

녹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이다. 옛날에는 한내돌다리-수청삼거리-궁촌 남쪽-녹문 마을 앞-해수욕장으로 길이 통하였다. 이 도로에서 녹문 마을로 통하는 도로에서 거리제를 지냈다. 녹문 마을로 통하는 길이 양지뜸으로 통하는 길, 위뜸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두 곳에서 지냈다.

3.현재의 동제

녹문 마을은 6.25 사변 후 동제를 지내지 않다가 10여 년 전부터 다시 지내기 시작한다. 제를 지내게 된 이유는 해수욕장으로 가는 36번 국도와 녹문으로 통하는 도로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의 동제는 마을 부녀회에서 주도하여 지낸다.

2001년의 제는 부녀회장과 주민들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2002년에는 참여하여 조사하였다.

1)걸립

정월 초가 되면 부녀회원들이 상의하여 제일을 잡는다.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잡는데 12간지 중 말(午)이 들어 있는 날이 좋다고 한다.

제 전날이 되면 부녀회에서 걸립에 나선다. 농악은 치지 않고 가가호호를 방문하는데 보통 쌀 3-4되를 내고 돈으로는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낸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내지 않고 제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80여 가구 중 10여 가구가 교회에 다닌다.

2001년의 경우 50여 가구가 참여하여 현금 약 40만원, 쌀 60kg 정도가 걸립되어 불바지쌀 1말, 떡쌀을 제외하고 40kg을 매각하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젯날 오전 부녀회장과 총무가 대천 시장에 가서 제물을 사온다. 제물은 삼색 실과, 북어 3마리, 갸신 3컬레, 실 3타래, 삼색 끈(흰색 파랑 빨강) 7자씩, 돼지 머리 한 개·족발 한 벌, 막걸리 한 말, 나물 세 가지(무, 고사리, 시금치), 백지, 초를 산다. 이때 백지와 초는 많이 산다.

제 음식의 준비는 세 집에서 한다. 한 집은 유왕제 제물, 한 집은 팽나무제 제물, 한 집은 거리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물을 준비하는 집은 회장이

부탁하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해주는 사람이 맡는다. 대가는 없다.

2) 팽나무제

제일 먼저 마을 입구 팽나무에 제를 지낸다. 먼저 불을 피우고 부녀회원이 풍물을 치면서 제물을 진설한다. 풍물 소리가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두 30여 명쯤 된다. 팽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쟁반에 밥, 대추, 사과, 배, 북어(실 한 타래로 묶은), 떡(조그만 시루, 위에 팔을 뿌림), 물, 술(막걸리 1병을 바가지에 따라 놓음)을 놓고 팽나무는 삼색 끈으로 두른다.

2002년도 팽나무제 제물은 아래와 같다.

떡, 돼지머리, 막걸리 과일·명태(사과, 배, 귤, 바나나), 불바지쌀, 사탕, 물

돼지머리는 쟁반에 족발 4개와 함께 놓았다. 머리와 족발을 함께 쓰면 돼지 한 마리를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

‘불바지쌀’에는 촛불을 켜는다. 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은 쌀그릇에 촛불을 계속 켜는다.

2002년에는 막걸리 1말 정도를 큰 통에 담아 놓았다.

제물이 준비되면 농악을 그치고 비손²⁾이 제를 진행한다. 두 번 절하고 길게 축원을 한 다음 소지를 올린다. 비손은 마을 대동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소지를 올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각자 돼지머리에 돈을 물리고 개인적으로 축원한다. 대개 천 원 짜리를 물리는데 마을 사람 거의 전부가 참여한다. 이 돈은 모두 비손이 가져간다. 2002년에는 남자 무속인이 제를 진행하였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에 물을 담고 칼로 저어 사방에 뿌리고 나중에는 사방에 칼을 던지기도 하였다.

이어서 막걸리와 물을 나무에 뿌리고 떡 과일 등 제물의 일부를 떼어 나무 밑에 놓는다. 이어서 풍물을 치면서 거리제 지내는 곳으로 향한다.

2) 여자 무속인을 보령지방에서 부르는 이름

3)유왕제

팽나무제와 같은 시각에 유왕제가 이루어진다.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지정된 사람 혼자서 준비도 하고 제도 지낸다. 제물은 썸 덮개에 차리는데 작은 시루(백무리), 미역국, 좃불이다. 제물을 차려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으로 제를 마친다. 제물과 좃불은 거리제를 마칠 때까지 그대로 둔다. 과거에는 떡의 일부를 떼어 썸에 넣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지낼 때는 그릇에 떡을 담아 썸물에 띄우기도 했다고 한다.

4)거리제

팽나무제와 유왕제가 끝나면 거리제를 지낸다. 풍물패와 함께 36호 국도의 궁촌교로 간다. 이곳에는 마을의 남자들도 여러 명 참여하고 부녀회원 모두가 모여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다.

먼저 경운기에 나뭇가지를 실어다 불을 놓고, 팽나무제에 사용한 과일, 돼지 머리 등 제물과 잡곡밥(메밀 팔 콩 수수 보리쌀 쌀), 나물(무 시금치 고사리), 떡 1말(팔으로 세 켄을 둠), 북어포(실 한 타래로 묶어서), 짚신 세 켄레, 양푼에 막걸리 1말, 불바지쌀(1말 정도)을 놓는다. 진설이 끝나면 풍물을 그치고 비손이 주도하여 제를 올린다. 비손이 두 번 절하고 긴 축원을 끝내고 마을 대동소지를 올린다. 이어서 마을 주민이 각자 소지를 올린다.

제를 올리는 중에도 주민들은 불바지쌀 위나 다리 위 길가 등에 소원을 말하면서 좃불을 세워놓고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 곳곳에 향을 피우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불바지쌀을 준비해와 좃불을 켜 놓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오곡밥을 물에 섞어 사방에 뿌리기도 한다. 나쁜 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지가 끝나면 막걸리를 사방에 모두 뿌리고 제물 일부를 떼어 물에 섞어 사방에 뿌린다. 옛날에는 길에 짚을 깔고 떡, 과일, 북어포 등을 놓아 두었는데 요즈음은 가져다 먹는 사람도 없고 지저분하여 사방에 던진다.

2002년의 경우 제가 끝나갈 무렵 승용차를 몰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차에서 내려 다리를 벌리고 서서 “주여! 주여!”하고 소리쳤으나 마을 사람들은 대응하지 않고 철수하였다.

5)제의 결산

제를 마치면 저녁 9시쯤 된다. 제에 참여한 사람 모두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는다. 제에 사용했던 떡, 돼지머리와 함께 술과 찌개(동태)를 준비하여 먹는다.

비손에게는 5~15만원의 사례비를 준다. 마을 사람의 경우 5만원 정도, 다른 마을에서 모셔 오는 경우는 10~15만원을 준다. 이밖에 불바지쌀 몇 말과 돼지머리에 꽂은 돈도 준다.

제 비용을 결산하여 남은 돈은 부녀회 기금으로 하고 끝낸다.

도움말 주신분

이한승(64) 내향동 171

이강희(61) 내향동 171

채미홍(49) 내향동 181



유왕제(2002. 2. 19)



유왕제 제물(2002. 2. 19)



팽나무제(2002. 2. 19)



팽나무제 소지(2002. 2. 19)



팽나무제 제물(2002. 2. 19)



거리제의 장작불(2002. 2. 19)



거리제(2002. 2. 19)



궁촌교에 쫓불 켜 모습(2002. 2. 19)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컵으로 덮음-



거리제 제물(2002.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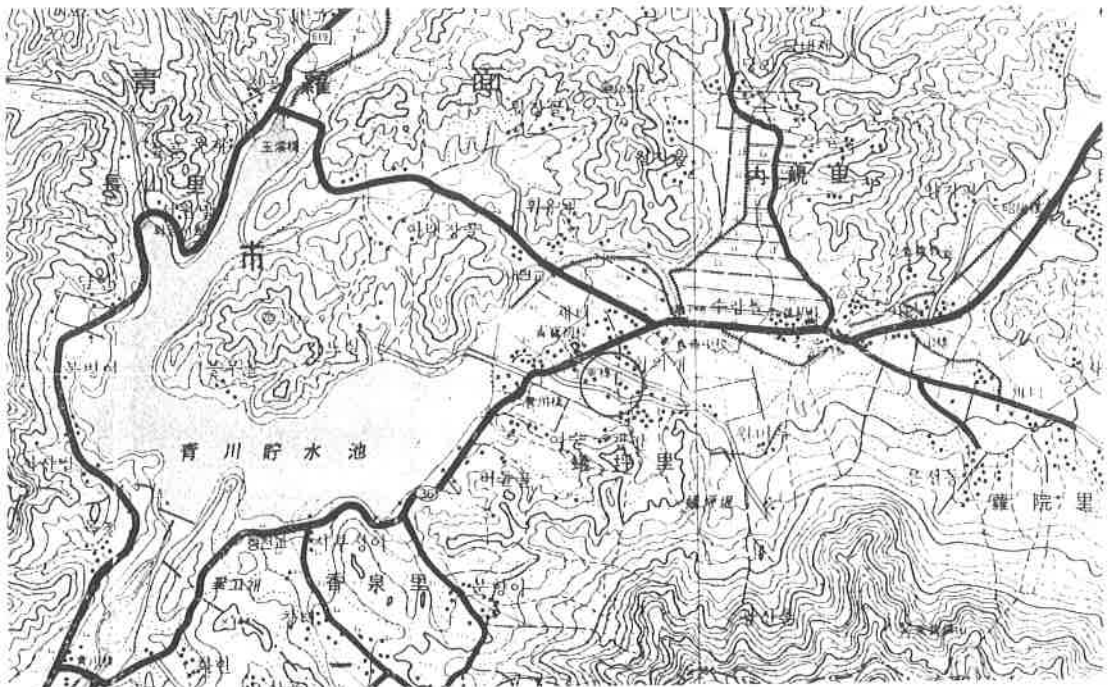
9. 갯발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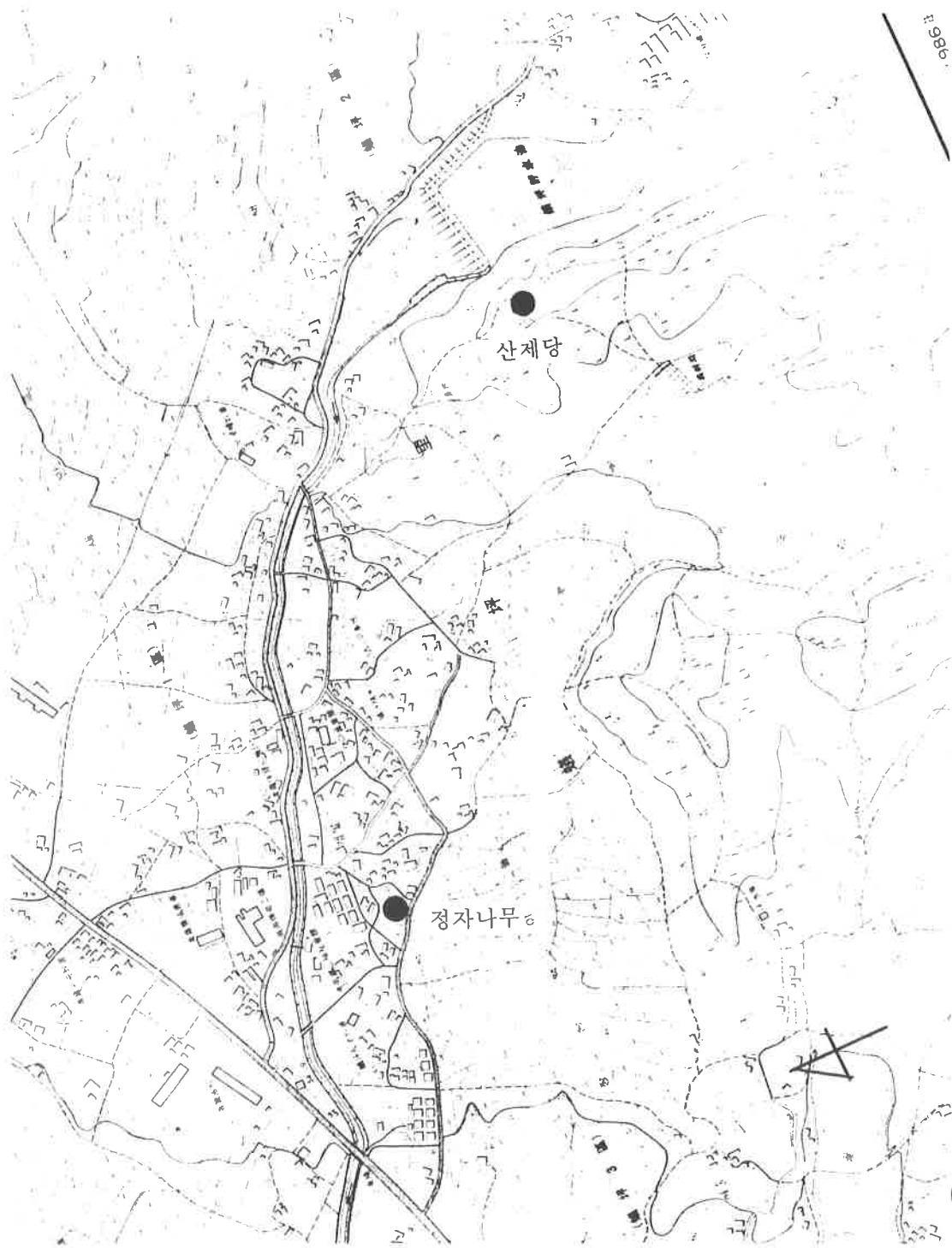
청라면 의평리 갯발 마을은 청보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성주산의 산록완사면에 위치한 큰 마을이다. 해발고도 50~75m의 완경사지에 마을이 입지하며, 마을 주변은 넓은 농경지가 분포한다. 마을 남동쪽의 성주산은 중생대 퇴적암층으로 되어있어 500~600m의 고산지를 이룬다.

석탄광산이 개발된 1960년대 이전에는 농사를 지으며 전주 이씨가 집성을 이루고 살았으나, 1960년대 석탄 광산이 개발되면서 이입(移入) 인구가 급증하였고 광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다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광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없어지게 되었다. 현재 석탄산업과 관련 있는 것은 1개의 연탄공장뿐이다.

현재 마을에는 과거부터 살아오는 주민과 석탄산업 때문에 이주해 왔다가 남은 주민이 함께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총 242 가구로 이씨가 76 가구로 대부분 전주 이씨이고 김씨가 46 가구이다.



갯발 마을 지형도(1:50000)



갨발 마을 지형도(1:5000×0.82)

2. 1960년대 이전의 동제

1) 산제

갸발 마을 동쪽 성주산의 작은 능선 위에서 산제를 지냈다. 산제당은 평평한 곳으로 주변에 소나무가 보호되어 울창하였고, 평상시에는 아무 것도 없이 평평한 채 두었다가 산제 지내기 3일 전 짚으로 떼우적¹⁾을 만들어 사방을 둘러쳐 제당을 만든다. 제당을 영구적으로 만들면 부정이 있을까 두려워 매년 만들었다고 한다. 제를 지낸 후에는 불태워 없앴다.

제일은 정월 보름 안에 길일로 택일하는데 이때 생기복덕을 보아 주당도 함께 정한다. 주당으로 정해지면 그날부터 마을 대동기와 영기 3개를 당춥집에 꽂는다. 마을 대동기는 용을 그리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깃발로 4-5명이 움직이는 큰 깃발이었다. 주당네 샘에는 금줄과 황토를 놓는다. 당샘이 따로 없고 주당네 샘이 당샘이 되는 것이다. 집에도 3줄로 3곳씩 황토를 놓고 금줄을 띠운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백지, 고추, 숯, 술가지를 꽂는다. 마을 사람들도 그 집에 출입하지 않으며 주당도 밖에 나오지 않고 부정을 가린다. 집안에서도 부부가 각방을 써야한다. 만약 마을에 초상이 나든지, 출산이 있든지, 짐승을 잡든지, 큰 사고가 있으면 제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제의 비용은 집집마다 쌀 몇 되씩 걸립하거나 마을 기금을 사용하였다. 제물은 대천장에서 장만하는데 주당과 그의 부인이 준비하였다. 장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깎지 않고 물건을 샀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3탕(어탕, 소탕²⁾, 육탕), 포(북어), 떡(백무리³⁾), 메⁴⁾, 채소, 간장, 초, 쌀, 소지 종이, 향 등이다. 술은 주당집에서 담갔는데 일제 시대에 금지가 심했어도 담가 지냈으며 정성이 지극하여 잘 쉬지도 않았다고 한다. 산제에 사용하는 그릇, 시루 등은 주당집에서 보관하였으며 자리, 상 등은 해마다 사서 사용하였다.

정월 열 나흘 저녁이 되면 제물을 준비했다가 12시가 되면 풍물(쟁과리, 징, 장고, 북, 나발 2명, 세납 2명)을 앞세우고, 제관(주당), 축관, 부정이 없는 일부 주민이 올라간다. 이때 올라가는 사람 모두 찬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이때 마을 기는 마을의 중심지인 정자나무에 꽂아 놓는다.

-
- 1)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짚으로 만들어 두른 거적
 - 2) 두부로 만든 탕
 - 3) 흰 쌀가루로만 만든 떡
 - 4) 밥

제를 지낼 때는 풍물을 멈추고 주당이 주관하여 유교식과 비슷한 제를 올린다. 제의 끝에는 소지를 올린다. 제가 끝나면 음복을 한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

維

歲次庚寅正月癸未朔五日丁亥幼學○○○敢昭告于

聖住山神之靈曰

山名錫佳 儼立導像 巖巖洋洋

稟天之聖 拱抱吉星 鎮我一村

仁以生民 孝悌順信 壽富康寧 禾黍登穰

德以保民 惟靈所導 惟靈所佑 惟靈所助

蓮桂香名 弄璋興汎 福善宥惡 三災八亂

惟靈所賜 惟靈所俯 惟靈所保 放斯敢惟

五勞七傷 居此山下 巖有常祀 載牲以簡

放斯敢肆 影瞻莫報 元正辰良 灌酒以清

恭祝虔告 神既格思

祥雲降靈 人敢射思

伏惟庶歆 尙 饗

(번역문)

幼學 ○○○ 敢히 聖住山 神靈님께 告하나이다. 名山은 錫佳니 장엄히 솟아 있으며 巍巍하고 廣大하니 天이 내려주신 聖山이라 吉星을 抱拱하니 우리 한 마을을 진호하소서. 仁으로써 백성을 생활케 하고 德으로써 백성을 保佑하시고 蓮과 桂의 香名은 오직 神靈님이 賜함이요. 五勞와 七傷을 放逐하고 과감히 베푸사 孝와 悌며 順과 信은 오직 神靈님이 부한 바요, 이 山河에 居住하는 百姓들을 壽하고 富케하고 康寧케 함은 오직 신령님이 도우신지라. 德있는 이를 富 주시고 미운 자를 용서함은 오직 神靈님이 保佑하신지라. 五穀이 熟實함은 오직 신령님이 도우신 바라 弄璋을 多汎케 함은 신령님이 가호한 바라 三災와 八難을 과감히 쫓아 보내고자 岩席에 항상 祭祀 올리기를 희생과 모든 음식으로써 정성으로 상달 좋은 日辰에 淸酒로 따라 공손히 빌고 공경히 고하니 神靈님이시어 이미 格思하사 福運을 降臨하사 과감히 靈思를 주시옵기 었드려 비오니 흠향하시고 應感하소서 (박정순 역)

2) 장승제

산제의 음복이 끝나면 풍물을 치고 마을의 입구로 내려와 장승제를 지냈다. 제물은 주당집에서 가져오는데 간단한 삼색실과와 떡, 주과포, 돼지고기 등이다. 돼지머리를 쓰지 않았다. 제는 마을 밖을 쳐다보고 길 가운데서 지낸다. 축문은 없고 소지를 올렸다. 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사방에 던지며 “고시례”라고 외쳤다. 다음에 음복을 하고 정자나무로 옮긴다.

장승이 있던 곳은 대천에서 청라면 소재지로 통하는 36번 국도에서 갠발마울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옛날 천석꾼인 이석구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길도 넓었고 들어오는 벚가마가 많았다. 성황당도 같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팽나무가 신목으로 위해졌고 주변에 돌무더기도 있었다. 마을 밖에서 보아 왼쪽에 남장승, 오른쪽에 여장승이 있었다. 남장승에는 天下大將軍, 여장승에는 地下女將軍이라고 써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접근하기도 꺼려하였다.

장승은 매년 남녀 각각 한 개씩 세웠다. 산제 지내는 날 낮에 부정 없는 사람이 산제 지내는 산에 올라가 묘하게 생긴(장승 만들기에 적당한) 나무를 골라 베어 지게에 저 온다. 이때 남장승은 양달에서 베고, 여장승은 음달에서 베다. 베어온 장승은 마을의 목수가 사람 얼굴 모양으로 장승을 깎아 세운다. 이렇게 매년 세운 장승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두기 때문에 항상 남녀장승 각각 5개 정도가 있었다.

숫대는 없었다.

3) 정자나무제

장승제가 끝나면 농악대와 함께 정자나무로 향한다. 이때는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날이 밝을 무렵이 된다.

정자나무에는 제 지내기 3일 전에 황토를 놓고 금줄을 둘러 놓는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백지, 솜, 솔가지 등을 꽂아 놓는다. 이때도 주당집에서 제물을 가져온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삼탕, 떡, 술 등 산제와 비슷하다. 축문 없이 지내고 소지를 올린 후 음복하였다.

산제와 장승제, 정자나무제는 1960년대에 마을 이장이던 某씨가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중지하였다고 한다. 그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1989년 정월부

터 정자나무제를 지낸다.

2. 1989년 이후의 동제(정자나무제)

과거부터 있었던 산제, 장승제, 정자나무제는 1960년대에 들어 없어졌다.

1965년부터 마을에 석탄광산이 개발되고, 연탄공장이 생기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1985년경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석탄광산이 폐광되면서 많은 광부들이 떠나고 마을은 옛날보다도 더 황폐화되었다.

1989년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정자나무제를 지내기로 하고 1989년 정월부터 제를 지내게 되었다.

제일은 정월 열 나흘이다. 제의 비용은 마을 기금으로 한다. 기금은 마을 회관 옆 마을소유 건물에서 나오는 100여 만원의 돈과 마을에 초상이 날 때 나오는 돈 등으로 충당한다. 마을사람 50~60명이 모여 제를 지낸다. 제 지내기 전에 정자나무 주변을 청소하고 원새끼줄에 백지, 솔가지 등을 매달아 금줄을 치고, 나무 주변에 약 1m 간격으로 황토를 놓는다.

제물은 대천장에서 사오는데 옛날처럼 부정을 심하게 가리지는 않고 정자나무에서 가까운 집에서 만든다. 1999년 제물은 돼지머리, 대추, 밤, 사과, 배, 과, 쌀, 떡 등이었다. 떡은 3말을 하여 1말만 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옆에 두었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젓날 낮에 청소하면서 통나무를 가져다 놓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놓는다. 불을 피우면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여들어 불을 쪼면서 기다린다.

저녁 8시쯤이 되면 제관과 축관이 농악대를 앞세워 나오고 농악대는 정자나무를 돌면서 흥겹게 논다. 1999년의 경우 마을의 부녀 농악대가 농악을 쳤다. 음식을 만든 집에서 자리, 제상, 제물을 가져온다. 이어서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정자나무 시멘트 위에 떡을 시루째 놓고, 앞에는 제상을 놓는다. 제물은 다음과 같다.

첫줄: 시접, 술잔 1개

둘째 줄: 포, 쌀, 돼지머리, 촛대.

셋째 줄: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과

제관 앞: 향로

제를 지내는 순서는 먼저 향을 피우고 제관이 절을 두 번 한 뒤 빈 잔에 술(약주)을 부어 버리고 두 번 절하고, 술을 가득 부어 올리고 축을 읽는다. 술은 나무 주변에 붓는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 축문은 마을의 이동규씨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維

歲次己卯元正幼學○○○後人○○○敢昭告于

烏聖之間桃花洞心身至誠

伏惟尊靈長盛大木永久榮生

茂實致祥時和年豐

官清民安福祿善慶

謹以清酌庶羞祇薦歲事 尙

饗

(번역문)

幼學 ○○○는 敢히 聖住山과 烏棲山 사이에 居住하는 桃花洞에서 몸과 마음을 지성으로 告하나이다. 엿드려 헤아리건대 존엄하신 神靈님이시어 長盛 大木을 오래도록 영화롭고 생광케 하시어 무성하고 결실하여 상스러움이 이르게 하고 時和年豐하며 관공은 清白하고 民衆은 安樂하며 福祿과 善慶키를 삼가 清酌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써 공손히 받드오니 흠향하소서 (박정순 역)

축을 읽고 제관이 돼지머리의 입에 돈 10000원을 넣고 절한다. 이어서 아헌, 삼헌도 자진해서 하는데 모두 돈 10000원을 돼지머리의 입에 넣었다. 이어서 제관이 대동소지를 올린다. 주민들도 정자나무를 향하여 기도하기도 한다. 이어서 주변에 모인 주민들에게 소지종이를 나누어주면 자기 소지는 자기가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명태포와 대추, 밤, 과일, 떡 등 제물의 일부를 백지에 싸서 정자나무 구멍에 넣고 음복을 한다. 풍물패는 흥겹게 풍물을 치고 몇 여자들은 떡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주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떡과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마을기는 모두 없어졌다.

도움말 주신 분.

정상린(64) 청라면 의평리 104

한상헌(73) 청라면 의평리 142

이윤구(79) 청라면 의평리 277

이동규(62) 청라면 의평리 145

유영애(67) 청라면 의평리 352



정자나무에 금줄 맨 모습(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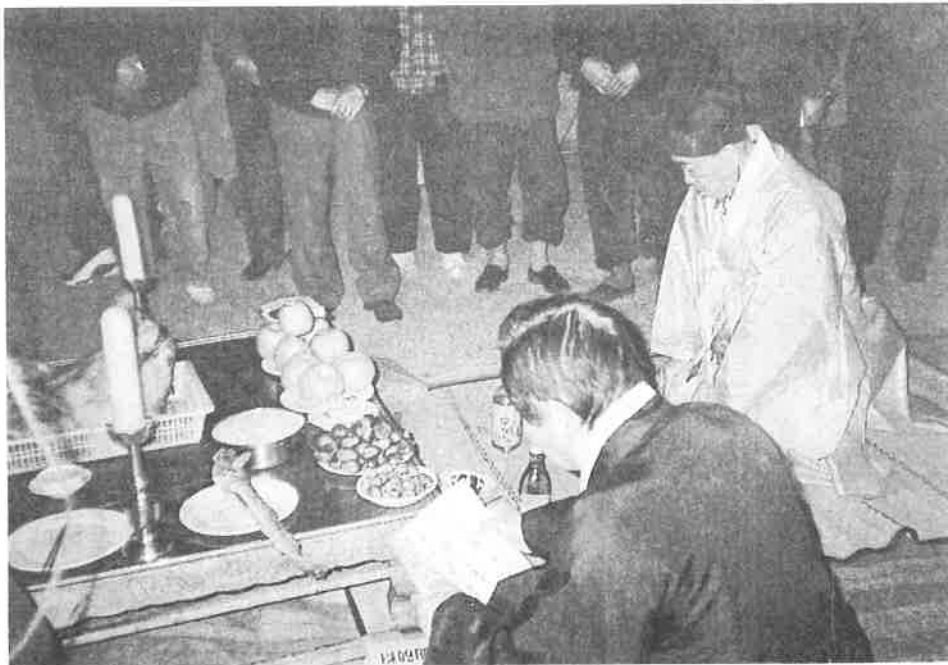
장작불을 피우고 모인 주민(1999. 3. 1)



제 지내기 전의 농악놀이(1999. 3. 1)



제상 모습(1999.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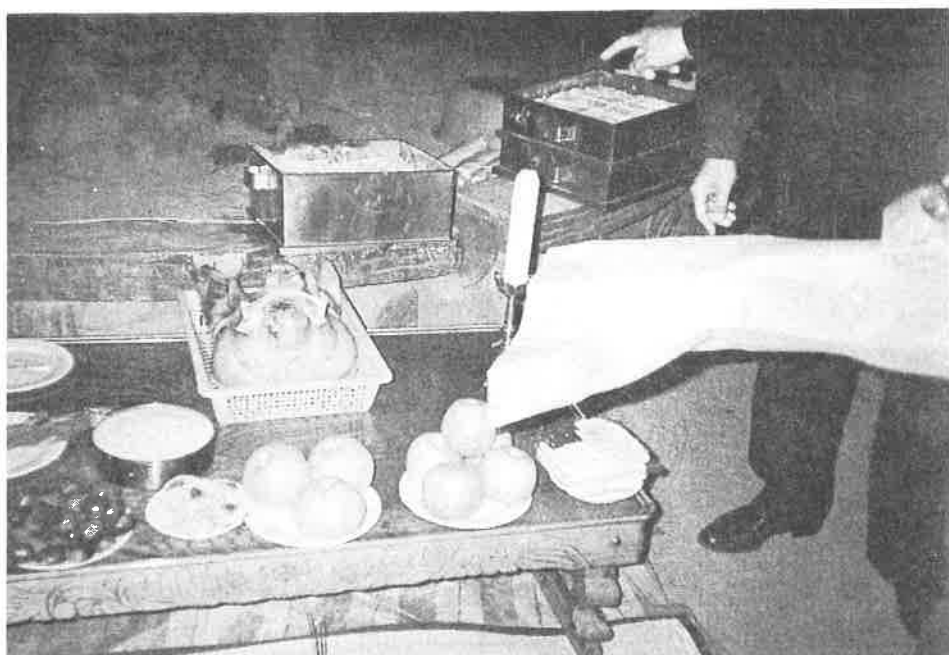
축원기(1999. 3. 1)



마을 대동 소지(1999.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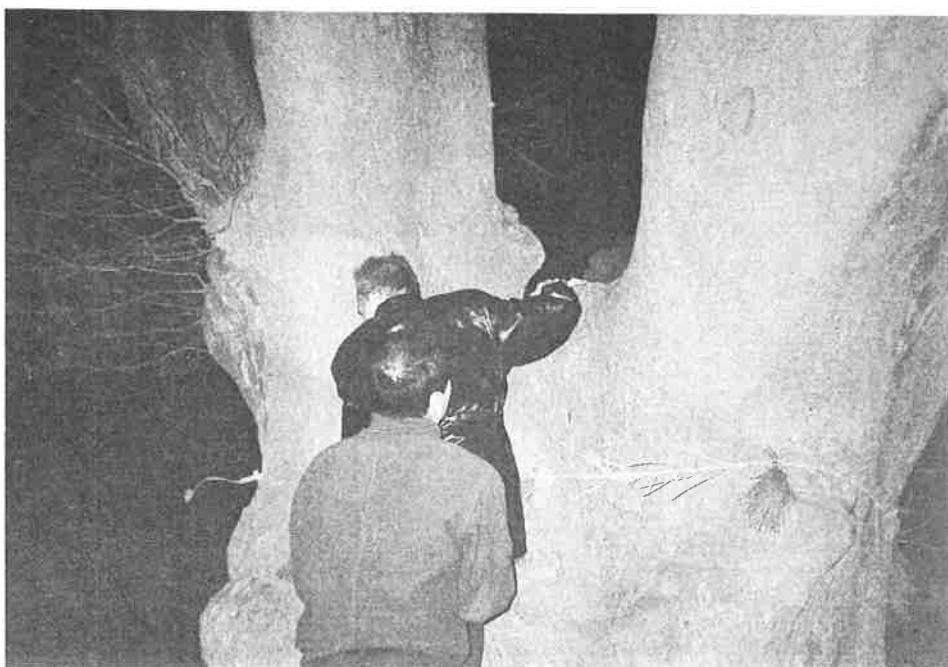
개별 소지(1999. 3. 1)



돼지머리에 돈을 물린 모습(1999. 3. 1)



백지에 음식을 싸는 모습(1999. 3. 1)



나무 사이에 음식을 놓는 모습(1999. 3. 1)



떡의 나눔(1999.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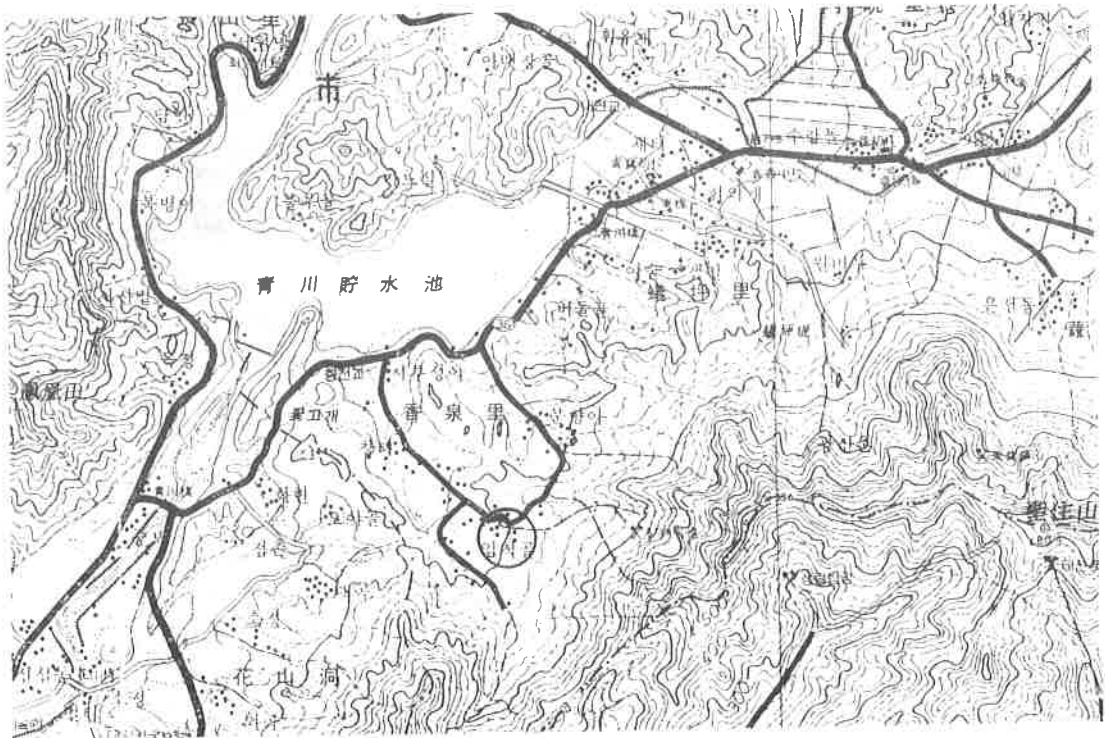
10. 임척굴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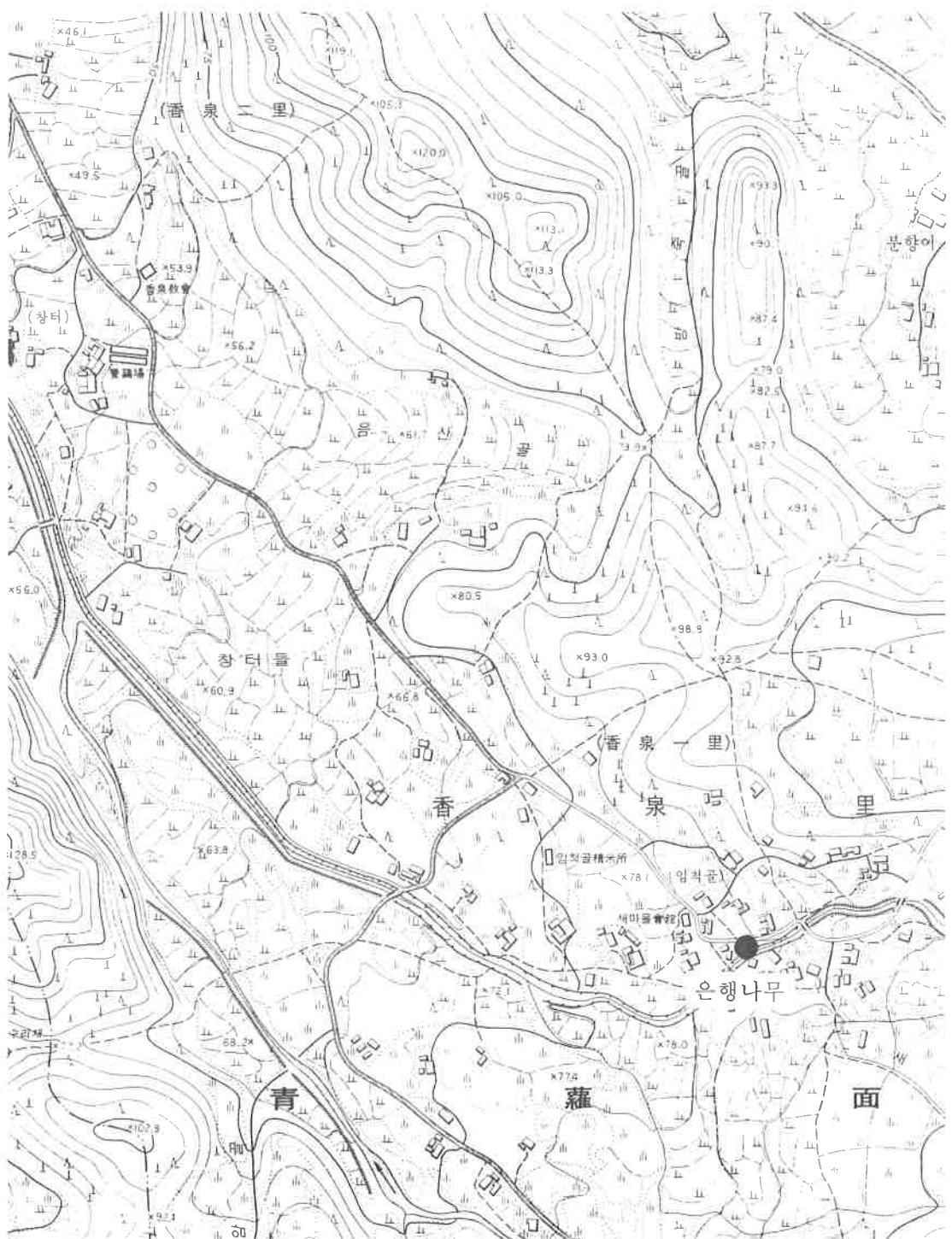
청라면 향천리 임척굴 마을은 향천리 남동쪽 성주산록에 위치한다. 향천리를 구성하는 4개의 자연 마을(시루생이, 창터, 임척굴, 분향이) 중 하나이다. 청천저수지에서 성주산을 향해 뻗은 큰 골짜기를 따라 오르면 먼저 시루생이, 창터 마을에 이르고, 다음이 임척굴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예부터 집성촌을 이루지 않고 여러 성씨가 섞여 살았는데 해방 무렵 56가구 중 안동 김씨 8가구, 한산 이씨 10가구, 한양 조씨 6가구 등 여러 성씨가 어울려 살았다.

마을 안에는 300여 마지기의 논이 있어 예부터 농사를 지어 왔으며, 마을 뒤의 성주산에서 오석이라 불리는 검은암을 채취하여 벼루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임척굴 마을 지형도(1:50000)



임척굴 마을 지형도(1:5000×0.82)

2.은행나무

임척굴 마을 한복판에는 장정 3~4아름이나 되는 큰 은행나무가 있다. 소유는 마을 대동이며 나무가 서 있는 땅 130여 평도 마을 대동 소유이다. 암나무로 속이 약간 비어있을 뿐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많은 은행이 연다. 대개 2가마 정도 수확을 하는데 칠월칠석날 상인한테 입찰하여 팔아 마을 대동 기금으로 쓴다. 1999년에는 15만원, 1998년에는 25만원을 받았다.

이 나무는 옛날 이토정 선생이 물을 먹다가 가시덤불 속에 있는 작은 은행나무를 발견하고 가시덤불을 헤쳐놓아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은행나무 밑에는 근래까지 샘이 있다가 메워졌다.

3.제의 준비

제는 옛날에는 정월 초사흘과 칠월칠석날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월 열나흘과 칠월칠석날 지낸다. 옛날에는 제일 1주일 전쯤 마을의 원로들이 의논하여 당주를 정하였다. 이때 당주는 생기복덕을 보고 정갈한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나이가 너무 많지도 젊지도 않은 사람으로 정하였다. 당주로 결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외출을 삼가며 매일 목욕을 하고 근신하였다.

당주로 결정되면 마을 대동기(용기)를 가져다 당굿집 안마당에 세우고 대문 앞에는 부정을 막기 위해 황토를 양쪽으로 세 무더기씩 놓았다. 대동기(용기)는 길이 10자쯤 되었고 용을 그렸으며,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썼다. 꼭대기에는 평털로 된 평장목을 달았다. 깃대는 큰 대나무로 하였는데 남해안 지역에서 가져온 아주 큰 것을 사용하였다.

제 전날 즉, 정월 초이틀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걸립을 한다. 걸립은 풍물패를 앞세워 마을 가가호호를 돌며 쌀이나 돈을 거두는 것으로 해방 직후에는 쌀 5~6말이 거두어졌다. 걸립한 쌀을 포함한 마을 대동 기금이 제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걸립 후 은행나무 밑을 쓸고 샘을 품는다. 다음에는 은행나무 주변에 황토를 뿌리고 남쪽으로 2줄로 3무더기의 황토를 놓아 제 지낼 곳을 표시한다. 또한 원새끼줄을 꼬아 은행나무를 3번 감은 뒤, 새끼줄에 솥, 백지, 솔가지, 짚을 매단다.

샘 주변에도 황토를 뿌리는데 일단 황토를 뿌리면 제를 지낼 때까지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물을 길어가지 못하였다.

제의 음식 준비는 당굿집에서 한다. 먼저 1말 정도의 술을 담그고, 시장에서 사는 물건을 사온다. 떡은 3되 3홉을 하고, 별도로 흰떡을 빼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밥은 1되 3홉을 하는데 밥과 국을 담은 냄비가 따로 있어서 냄비에 하고, 냄비째 상에 올린다. 국은 미역국인데 간장, 소금 등 아무 것도 넣지 않고 맹물로 끓인다.

4. 은행나무제의 과정

젯날 저녁때가 되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은행나무 밑에서 풍물을 친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나오고 당굿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제를 지낸다. 2000년의 경우는 회관에서 음식을 차렸다.

(2000년 2월 7일의 경우)

젯날 오후가 되면 마을 사람들(남자)이 회관에 모여 제 지낼 준비를 한다. 좀 젊은 사람들이 은행나무 밑을 쓸고 황토를 깐다. 2000년 2월에는 눈을 비로 쓸기만 했을 뿐 황토를 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7월에 깐 황토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오후 5시 30분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풍물패를 앞세워(팽과리, 징, 장구, 북) 마을 사람들이 은행나무 밑으로 간다. 은행나무 밑의 좀 떨어진 곳에 불을 놓고, 한바탕 풍물을 친 후 제물을 진설한다.

먼저 은행나무 남쪽에 상을 펴고 단 아래에 자리를 깐다. 제상에는 맨 위쪽에 1개의 술잔, 다음으로 밥과 국을 놓는다. 밥은 냄비에 직접 만든 것이며, 국은 미역국으로 아무 것도 넣지 않고 맹물로 끓였다. 다음으로는 1시루의 떡을 올려 놓는다. 떡은 떡집에서 만든 것으로 4각형의 철시루에 넣어진 채로 놓는다. 떡은 2시루를 만들어 1시루만 쓰고 1시루는 옆에 놓았다가 회관에 가져가 나누어 먹는다. 포는 명태로 1마리만 쓴다. 그리고 과와 밤, 대추, 사과, 굴 등 삼색과실을 놓는다. 상의 앞에는 조그만 그릇에 쌀을 담고 향을 쫓는다. 향은 시중에서 구입한 만수향이다.

술은 샴페인을 사용하였다. 먼저 잔을 부시어 나무에 뿌린 후 제주가 두 번 절하고 한잔을 가득 부어 놓고 두 번 절을 한다. 이어서 제주는 엎드린 채로 있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제는 제관과 축관 2사람이 올리는데 마을의 원로들이 나와 진행을 돕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丙午正月辛巳朔，十四日甲午，幼學李鳳珪，謹齋伏百拜，敢昭告于。

杏樹之神，伏以。

尊神，司臨宅基，降鑑必靈，伏念，洞人爰居，茲土，惟幸。

神祐恭俟，靈眷今茲，送舊迎新，茲蠲吉日，謹以香醪，庶餅式陳。

明薦伏願，

尊神，降格微誠，俯諧所願，俾洞人，壽考福祿，門戶生色，宅基增光，

且夫，百年三萬六千日之內，興居出入，一動一靜，屏除魔戲，招增吉聲。

千災消滅，萬福自來，宜室宜家，永世康寧，倘諧所願，圓報無窮，

伏惟，

杏樹之神，歆之祐之，百拜告辭，尚

饗。

(번역문)

유학 ○○○는 삼가 齋戒하고 엎드려 百拜하며 감히 杏樹之神에게 告하나이다. 존엄하신 神靈님이시어 司臨하신 宅基에 降臨하사 기필한 영험을 살피소서. 엎드려 생각건대 洞民들이 여기에 居住함은 이 땅이 오직 요행이도 신령님의 도움을 공손히 기다리오니 신령님이시어 지금 이곳을 돌아다 보사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여 이吉한 날을 가려 삼가 香醪와 많은 떡으로써 질서있게 차려 밝히 받드오니 원하옵건데 존엄하신 신령님이시어 작은 정성이나 降格하사 숙여 원하는 것을 和해하고 미흡한 동민들의 壽考와 福祿이며 문호에 빛이 나고 宅과 基地에 더 빛나고 또한 百年 삼만육천일 내내 興居와 出入과 一動과 一靜에 아울러 마귀의 장난을 제거하고 더 좋은 소리를 招來하며 天災를 消滅하고 萬福이 自來케하고 마땅한 家室에 永世토록 강령하며 소원함이 많으나 원만히 報하고 窮함이 없이 해주십시오. 오직 杏樹의 신령이시어 이에 歆饗하시고 이에 도우시기를 百拜하며 告하오니 應感하소서

사림(司臨): 맡아진 위치

향요(香醪): 향과 술

택기(宅基): 지정받은 장소

수구(壽考): 오래 삶

(박정순 역)

축을 읽고 술잔을 한 번 더 올리고 밥냄비와 국냄비의 뚜껑을 열어놓고, 수저를 꽂아놓은 후 3번째 술잔을 올린다. 3번째 마지막 술잔을 올린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백지를 태우는 것인데 먼저 은행나무 소지를 올린다. 제관이 소지를

올리면서 1년 동안 마을에 아무 일도 없고 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축원한다. 이어서 마을 대동소지를 올리고, 축관 본인의 소지를 올리고 소지를 끝낸다. 백지가 잘 타고, 발갛게 탄 재가 하늘높이 올라가야 좋다고 믿는다. 이어서 축관도 자기 자신의 소지를 올렸다. 제관이 축관의 소지를 올려주지 않자 스스로 올렸는데, 제의 과정이 엄숙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축관이 소지를 올리면서

“나도 소지를 올려야지.”

불을 붙여서 백지를 태우며 멋쩍어 하면서,

“올 1년 동안 고스톱할 때 잘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주변사람들이 웃으며,

“그렇게 하면 되나, 일년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주변사람들이 일부는 웃고 웅성거리자 원로되는 노인이

“농담들은 하지말어”하고 조용히 시켰다.

소지가 끝나고 이어서 음복을 하였다. 음복은 마지막 술잔을 제관이 먹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고 이어서 밥, 떡, 국을 백지에 싸서 3덩어리를 만들어 나무구멍에 넣고 명태포도 머리를 잘라 나무 위에 얹는다. 몇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떡도 떼어 먹는다. 이어서 음식을 담아 마을 회관으로 옮기고 농악대는 농악을 치며 회관으로 향한다.

회관에는 몇 명의 여자들이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음식은 제물로 사용하였던 떡과 술, 찌개 정도였다.

제에는 20여 명의 남자들이 참여하였고, 5~6명의 여자들이 옆집에서 지켜보는 정도였다.

5.유왕제

은행나무제에 사용하였던 밥과 국 합한 것을 3덩어리로 만들어 은행나무 밑에 있는 샘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유왕제라고 하는데 당주 혼자서 지낸다. 근래에는 은행나무 밑의 샘이 없어져 유왕제를 지내지 않는다. 유왕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놀았다.

6.제의 결산

제 비용의 결산은 정월 보름날 한다. 이날은 마을 대동계 날로 돼지를 잡거나, 고기를 사다가 안주를 만들고 술을 장만한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해에는 국수를 끓여먹는 정도이다.

7. 칠월칠석제

칠월 칠석날 지내는 제는 정월 초사흘에 지내는 제와 많은 것이 같은데, 제의 시작 시간이 아침 해뜨기 전이다.

답사일: 2000년 2월 7일,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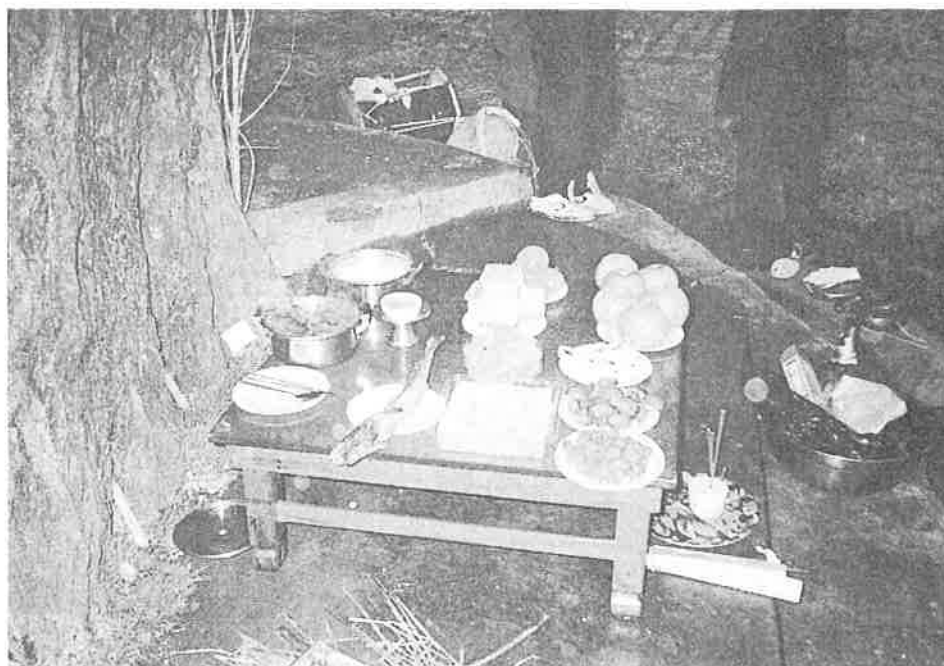
도움말 주신 분: 이봉규(李鳳珪) 청라면 향천리 임척굴 2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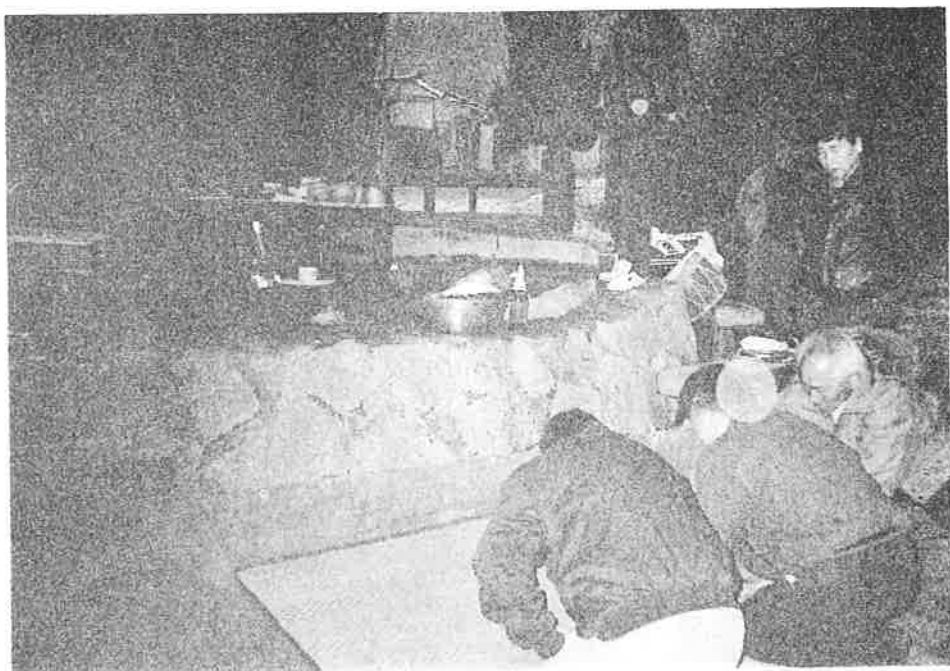
은행나무 밑에서의 풍물-祭前-(2000. 2. 7일)



은행나무제의 준비(2000. 2. 7)



은행나무제-제상-(2000.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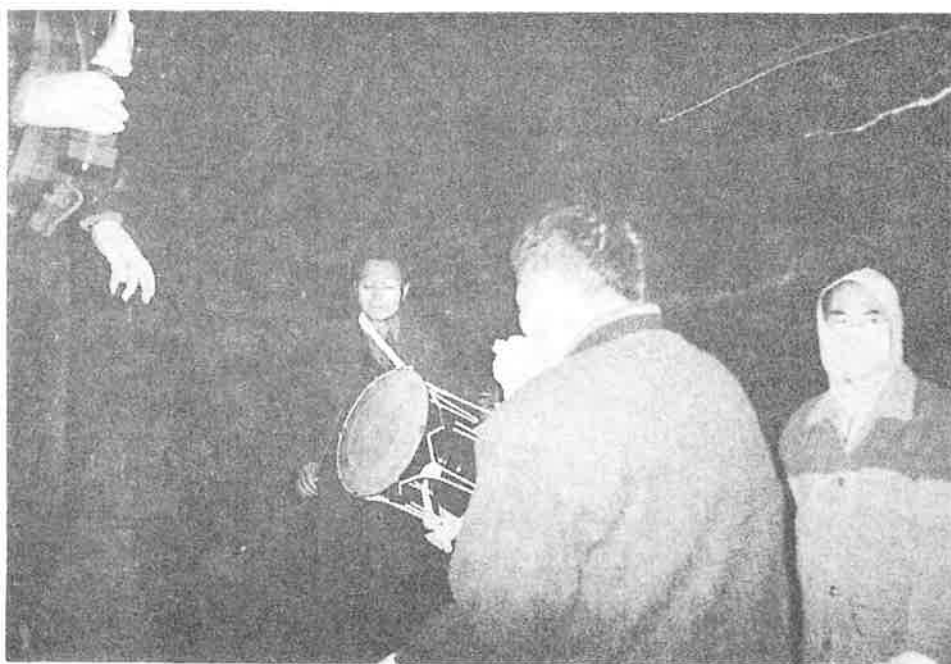
은행나무제(2000. 2. 7)



은행나무제-소지-(2000. 2. 7)



제물의 일부를 은행나무 구멍에 넣은 모습(2000. 2. 7)



은행나무 밑에서의 풍물-祭後-(2000년 2월 7일)

11. 먹방 마을 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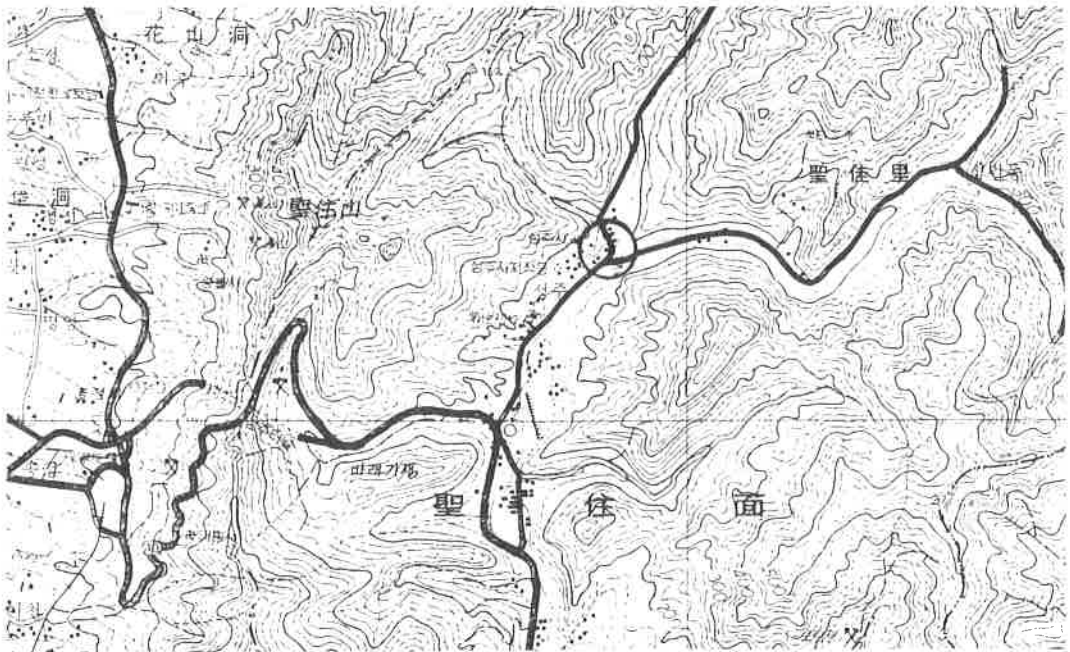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지에서 동북쪽으로 100여m 가면 두 골짜기가 있다. 동쪽으로 난 골짜기는 심연동 계곡이고 북쪽으로 난 골짜기가 먹방골인데, 먹방골 입구에 먹방 마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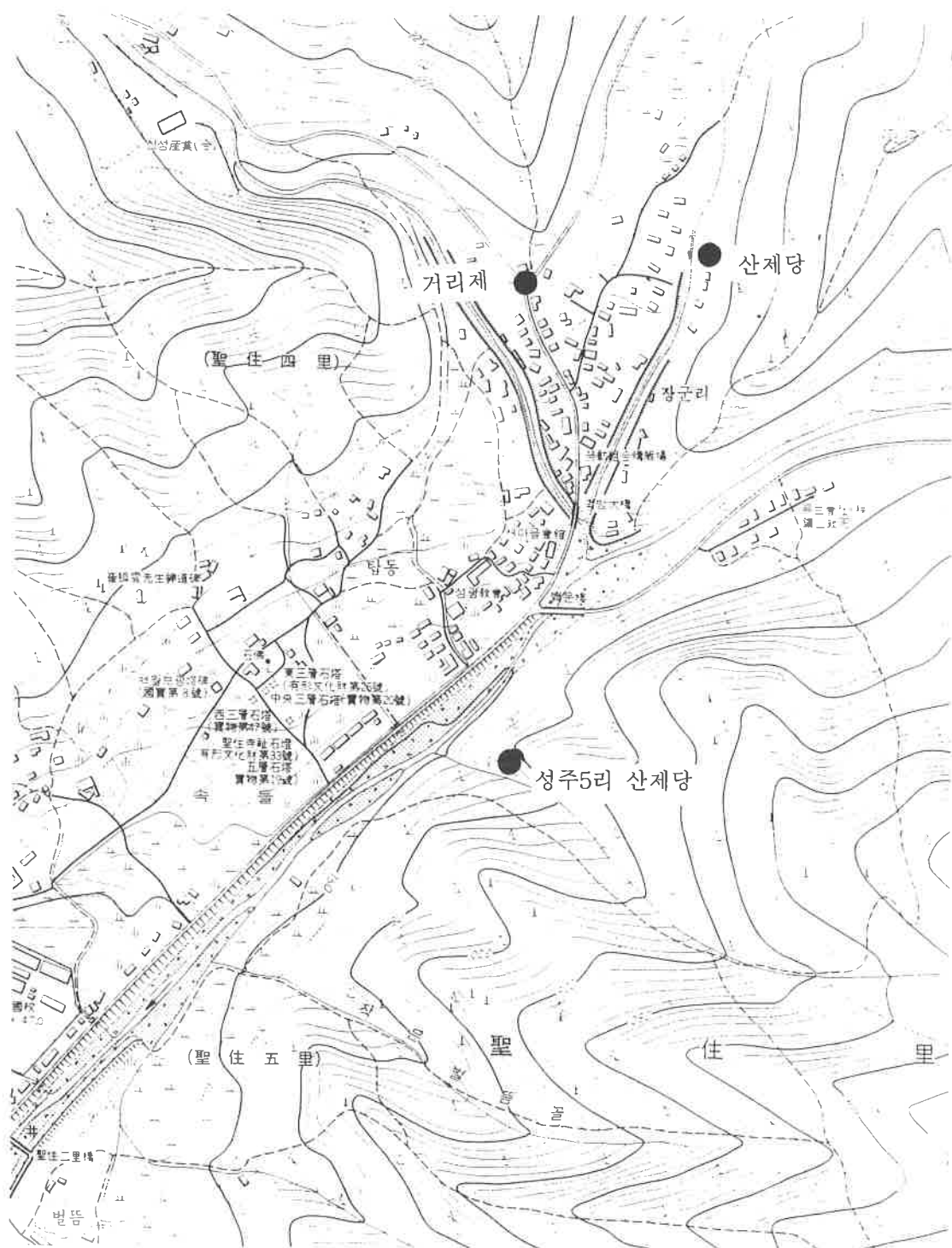
이곳은 500~600m 산지로 둘러싸인 좁은 골짜기의 입구로 농경지는 전혀 없다. 주변이 중생대 퇴적암으로 과거에는 벼룻돌, 비석을 생산하였으며, 석탄이 매장되어 해방이후 개발되었다.

먹방 마을은 석탄산업의 발달로 인구가 급증하여 생긴 마을로 1980년대까지 모두 광산업에 종사하였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광산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은 거주만 하고 외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성주 4리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104가구이나 원 세대는 86세대에 불과하다. 석탄산업의 개발로 전입한 주민이어서, 여러 곳에 고향을 둔 여러 성씨가 거주한다. 교회에 다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3 가량이다.



먹방 마을 지형도(1:50000)



먹방 마을 지형도(1:5000×0.82)

2.동제의 유래

옛날에는 먹방 마을이 벌뜸과 한마을이었기 때문에 벌뜸에 있는 산제당에서 벌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지냈으나 광산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분구(分區)되자 1980년도부터 따로 지낸다. 처음에는 백운사 입구 다리 옆에 있는 바위 앞에서 지냈으나 1985년경부터 먹방 마을 현재의 위치에 블록 벽, 함석지붕으로 된 한 칸의 산제당을 짓고 제를 지낸다.

산제당은 마을 동쪽 하천 옆 산기슭에 있다. 큰 바위 밑의 경사지에 터를 닦아 아주 작게 지었다. 입구의 맞은 쪽에 인쇄된 산신도가 붙여져 있다. 산신도는 지팡이를 들고 수염을 쓰다듬는 노인, 동자,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산신도의 밑에는 시멘트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공간은 세 사람이 들어가도 비좁을 정도이다. 공간 안에는 종이 상자 안에 나무 제기 일체가 준비되어 있다.

3.걸림

제일은 정월 초이레이다. 벌뜸이 정월 초아흐레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고 그 앞으로 정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정월 초이튿날 노인회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와 축관을 정한다. 당주는 해마다 다른 사람으로 정하고 축관은 매년 하던 사람으로 한다. 한자로 된 축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초사흘부터 걸림을 시작한다. 걸림은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도는 것이다. 주관은 이장, 지도자, 반장이 한다. 예전에는 쌀을 많이 내놓았는데 이 쌀을 ‘불바지쌀’이라고 불렀다. 현재는 주로 돈으로 낸다. 대략 10000원 내지 30000원 정도 낸다. 1999년도 걸림 총액은 70만원쯤 되었으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참여하지 않는다.

1999년도 걸림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김철중 30000, 조만영 20000, 김오성 20000, 이기호 10000, 남상현 20000, 이용찬 20000, 이종구 20000, 서광훈 20000, 최영식 5000, 임동성 20000, 최두산 10000, 배상수 10000, 지영병 10000, 김상태 10000, 이장우 10000, 지명석 10000, 이규화 10000, 강현갑 10000, 김석출 10000, 김난영 10000, 백영기 10000, 윤종례 10000, 박영봉 10000., 이상명 10000, 황영우 10000, 유종환 10000, 문승남 20000, 박병구 10000, 지식수 10000, 한찬희 10000,

강진규 10000, 박두석 10000, 정석영 10000, 박종오 20000, 장주석 20000,
이순재 10000, 박종복 5000, 김성룡 10000, 서광수 20000, 송영덕 10000,
최복만 10000, 이인희 10000, 박성훈 10000, 장성곤 10000, 최인관 5000,
노인정 30000, 박기춘 10000, 정상복 10000, 엄희봉 10000, 이후로도 들어와
총 수입금 700,000원

과거 석탄광산 전성기에는 광산을 가진 사장들이 돈을 많이 내놓아 자금이
넉넉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결산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노인
회와 부녀회에 나누어 준다.

4.제의 준비

제물은 정월 초닷새에 산다. 마을의 이장과 지도자, 반장이 주관하여 대천장
에서 산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사는데 산제용이라고 말하고 절대로 깎지는
않는다. 상인들도 비싸게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과 함께 산신제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사는데 국밥용으로 쇠머리를 산다. 쇠머리는 산제
에는 쓰지 않는다.

1999년도 제물과 주민들의 회식용으로 산 물건은 아래와 같다.

소주 1짜 20000, 쌀 30kg 63650, 음료수 1짜 14000, 김 1톤 4000원, 소독제
120개 4000, 후라이약 2개 6000, 밀가루 1000, 식용유 2700, 소고기 다시다
2700, 장갑 10000, 설탕 3800 소계 131850원

성주대천차비 2520, 근입시 18350, 조기 10000, 참깨 1000, 기타야채 2600
명동청과 5000(사과 2000, 배 3000)

내외타올 23000(타올15 15000, 양말7 7000, 장갑3 1000.

서천고무 8000(고무신 1 4000, 실내화1 4000)

돼지머리 5000,

온양방앗간 38500(고추5 35000, 소금2되 2500, 기름1 1000)

중양그릇 8500(렌지용 김치통3 1500, 렌지용뚜껑 4500, 볼 2500)

삼영상회 73000(부탄가스 2000, 향 초 3000, 약주 2 4000, 미원 2000,
사과5 9000, 배3 8000, 소지종이 10000, 포 1 3000, 건시 2 12000,

대추 3000, 밤 3500, 과자 5500, 컵3 3000, 약과 2000, 포 1 3000)
고사리 15000, 쪽파 2000, 마늘 4000, 무배추 6000, 대파 6000, 행주 2000,
식대 18000, 동태 1000, 백노지 600, 소머리 100000, 소고기 8000, 숙주나
물 1000, 양파 두부 5100, 담배 6000, 차비 7700. 방앗간은 별도.

음식이나 제물은 모두 당춧집에서 만드는데 이웃의 몇몇 아주머니들이 돕는
다.

당주가 결정되면 당춧집 대문 왼쪽에 마을 기를 세운다. 큰 대나무 끝에 소
나무 상순¹⁾과 대나무가지를 묶고 백지로 묶은 부분을 싼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를 단다. 기는 용의 모습으로 둘레를 굴곡 있게 하였으며 맨 밑에는 두 줄
을 길게 하였다. 용 부분은 청색이고 나머지는 백색이다. 기에는 農者天下之大
本이라고 썼다. 대문 위에는 금줄을 두르고 앞에는 양쪽으로 세 무더기씩의
황토를 놓는다. 1999년도 당춧집의 경우는 문이 양쪽에 있어 남쪽 문에 마을
기를 북쪽 문에 황토를 놓았다.

또한 산제당 앞을 깎고, 거리제 지내는 장소에 황토를 놓고 빨감을 준비한
다.

5. 산신제

젓날 저녁을 먹고 어둑어둑하면(6시 30분쯤) 당주, 축관, 1~2명의 남자와
3~4명의 여자들이 당춧집에 모인다. 제물을 함지에 담아 여자들이 이고, 남자
들은 소지종이, 축, 술, 주전자 등을 들고 산제당으로 향한다. 풍물은 치지 않
는다. 개울을 건너 산제당에 도착하면 남자들은 제물을 진설하고 여자들은 제
당 앞에 불을 놓는다. 제단 위에 종이를 깔고 촛불을 밝히고 제물을 진설한다.
익히지 않는 제물은 시장에서 가져온 채로 봉지에 담겨있는데 하나씩 뜯어 목
기로 된 제기에 담아 놓는다. 행주를 사와 제기를 깨끗이 닦아 올린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밥, 탕, 대추, 밤, 꽃감, 산자, 약과, 사과, 배, 사탕, 각
종과자, 무나물, 고사리 나물, 두부전, 밀가루전, 김, 조기, 술 등 일반 제사와
비슷하게 진설하는데 돼지머리의 입에 칼을 가로로 넣어둔다. 떡은 시루째 쓰
고 밥은 냄비째 쓴다.

1, 맨꼭대기에 위로 자라는 부분

제물의 진설이 끝나갈 무렵, 제상의 제물 일부를 나누어 산제당 왼쪽 밖에 손님상을 놓는다. 제물은 세 접시로 대추, 밤, 사과 등 손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몇 개씩만 놓았다. 제가 끝나도 종이를 펴고 올려놓는다.

제를 지내는 순서는 유교식 제사와 비슷하다. 당주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丙子年の 경우).

維歲次丙子年正月丙戌朔十三日戊戌

幼學鍾五敢昭告于

歲序遷易 丙子新年 大同民安

萬事亨通 所願成就 尊神其保佑

도無後難 謹以清酌 脯醢祇薦

于神 尙

饗

유학 ○○○는 敢히 告하나이다. 세월은 차례로 옮기고 바뀌어 병자년인 새 해에 온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고 萬事가 亨通하며 소원을 성취함을 존엄하신 神靈님이 保佑하사 다 후란이 없게 하시기를 삼가 清酌과 脯醢로써 공손히 받드오니 神靈이시어 歆饗 하소서. (朴丁淳 역)

축이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대동소지부터 올리는데 먼저 주소를 말하고 일 년 동안 아무 재앙이 없고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어서 당주의 소지를 올리고 장부에 적힌 돈 낸 사람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세 사람이 올리고 한 사람이 누구를 올릴 것인지 호명한다.

소지가 끝나면 돼지머리의 코를 자르고 밤, 대추 등 약간의 제물을 소지종이에 싸 제단의 왼쪽 구석에 놓는다. 이어서 산제당 아래의 불피운 곳에서 간단히 음복한다. 그리고 남은 제물은 당주집으로 옮긴다.

6.거리제

거리제는 백제골 입구 삼거리에서 지내는데, 이곳에는 미리 50여명의 남녀 노소 주민과 농악대가 나와 불을 피우고 농악을 치면서 기다린다. 제 지낼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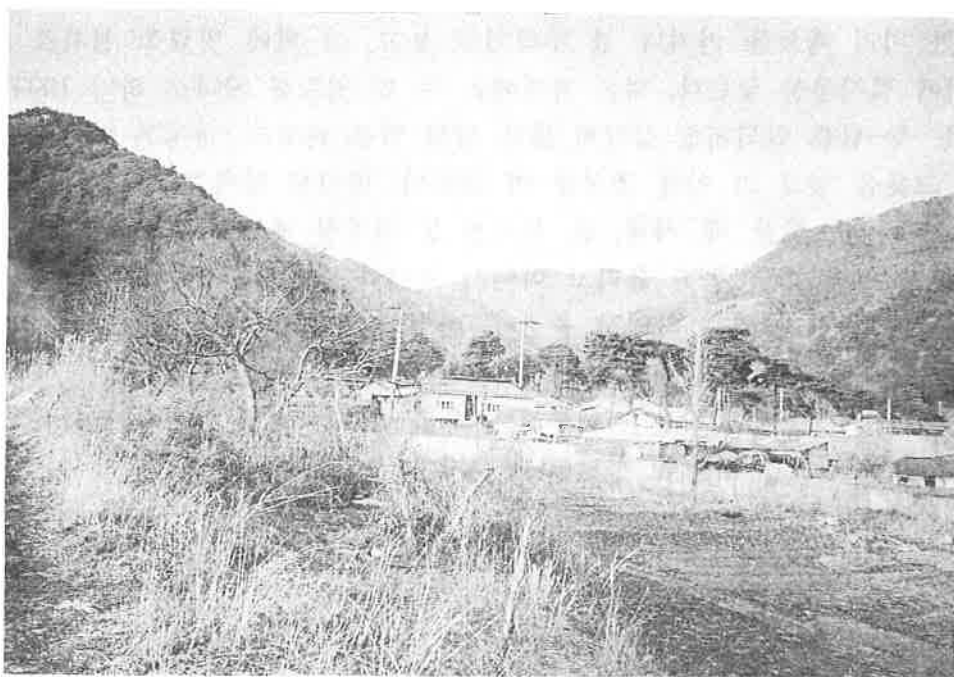
소에는 미리 황토를 가져다 한 무더기로 놓고, 그 위에 볏짚을 십자로 놓고 그 위에 떡시루를 놓는다. 떡은 과거에는 두 말 정도를 했다고 하나 1999년의 경우는 두 말은 안되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떡을 하였다. 떡시루 안에는 쌀을 담은 그릇을 놓고 그 안에 촛불을 켜 놓는다. 떡시루 앞에는 향불을 놓고 그 앞에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탕, 두부전 등 간략한 제물을 놓는다.

당주가 먼저 술을 한잔 올리고 이어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위한 축원을 하면서 올린다. 이어서 당주와 여러 주민들이 호명에 따라 집집마다 소지를 올린다. 다음은 음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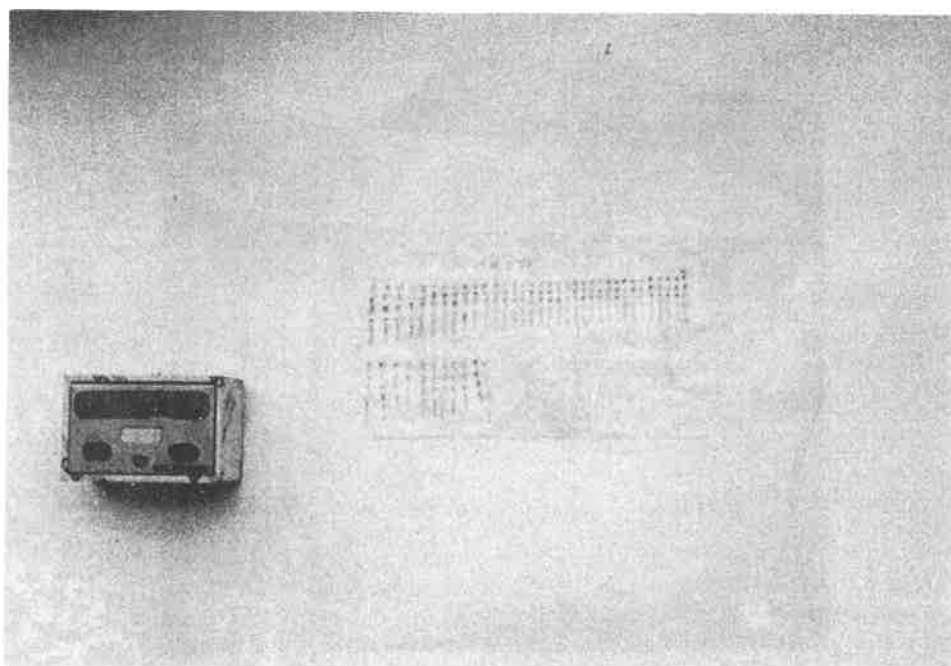
제를 마치면 준비된 작은 비닐봉지에 떡을 한 덩어리씩 담아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거리제는 음식을 사방에 뿌리지 않고 음복하고 주민에게 나누어주기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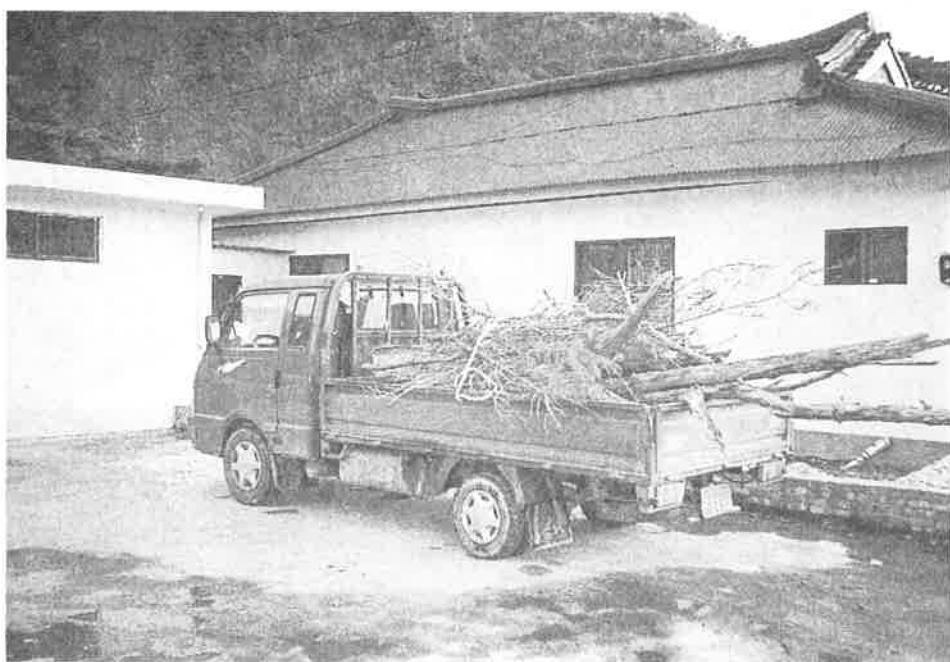
떡방 마을 대동기와 금줄(2000. 1. 7. 음)



떡방 마을 전경(2000. 1. 7. 음)



동제 걸립 내역 붙임(1999. 2. 22)



거리제 장작 준비(2000. 1. 7. 음)



산제당(2000. 1. 7.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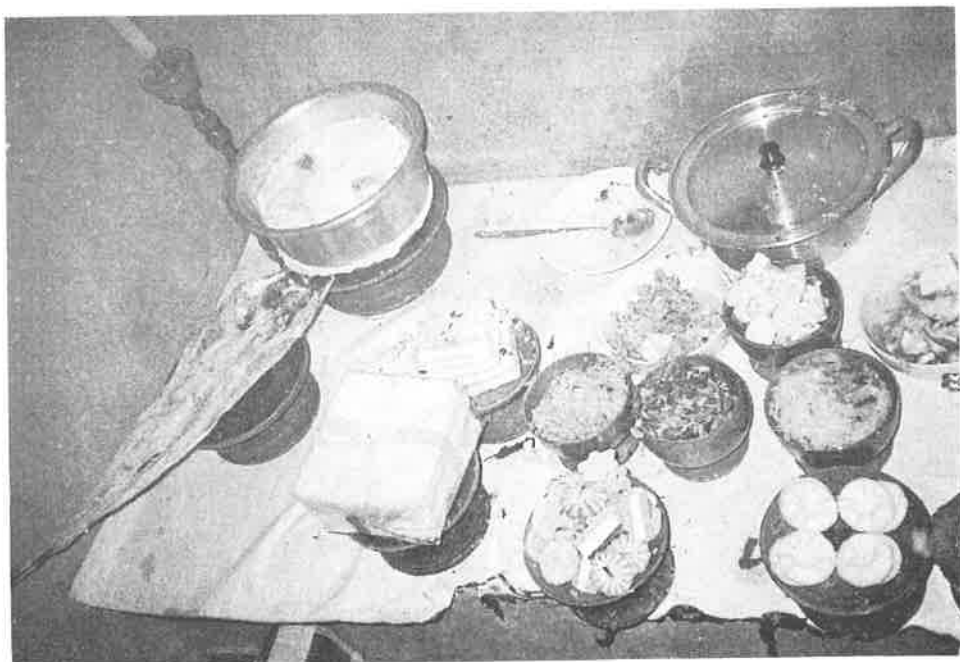
산제 제물의 운반(1999.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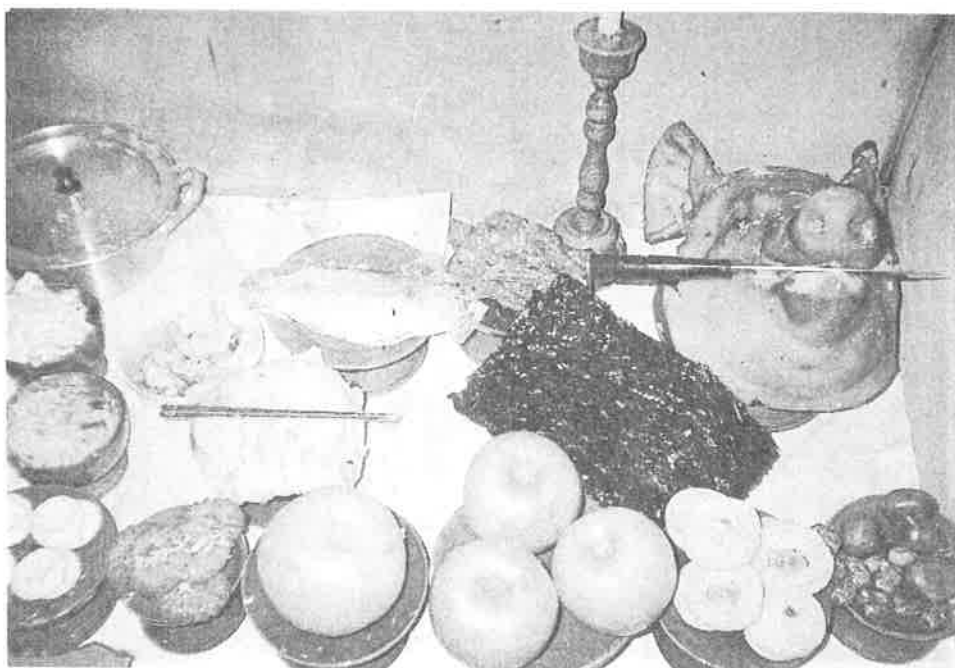
산제당 앞에 불 피운 모습(1999. 2. 22)



산신도(1999. 2. 22)



제상의 음식 차림-좌(1999.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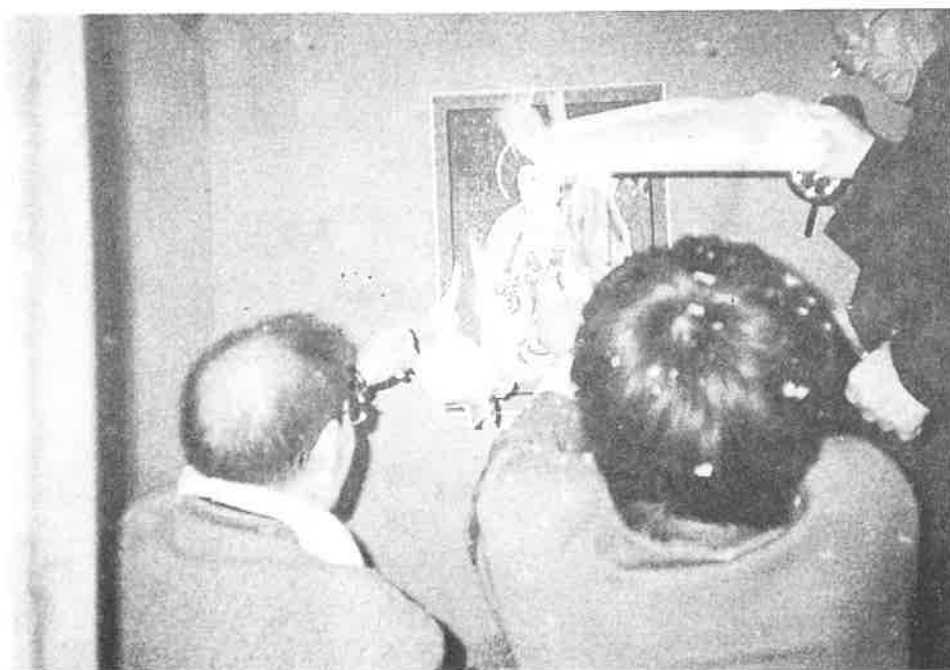
제상의 음식 차림-우(1999. 2. 22)



손님상(1999. 2. 22)



축 읽기(1999.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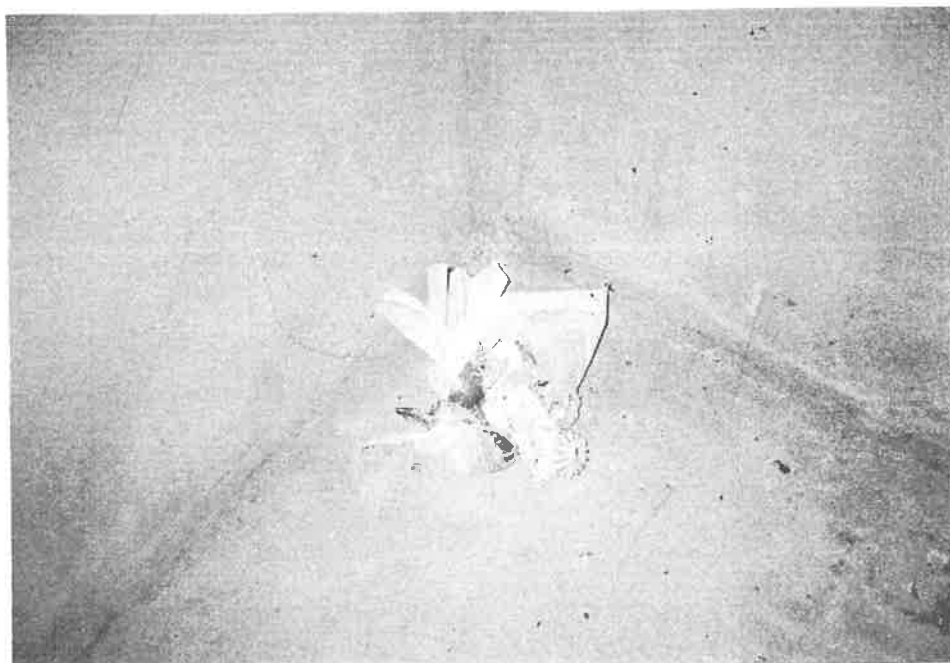
소지(1999. 2. 22)



손님상 음식(1999. 2. 22)



몇 가지 음식을 백지에 싸는 모습(1999. 2. 22)



산제당 구석에 백지에 쓴 음식을 놓은 모습(1999.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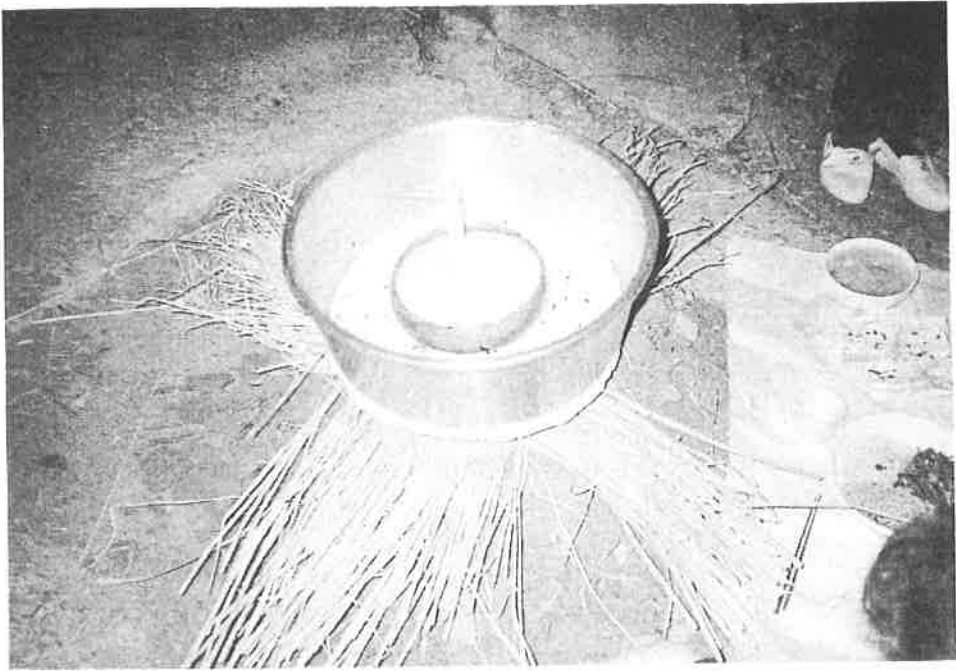
거리제 지내는 곳에 황토 놓은 모습(2000. 1. 7.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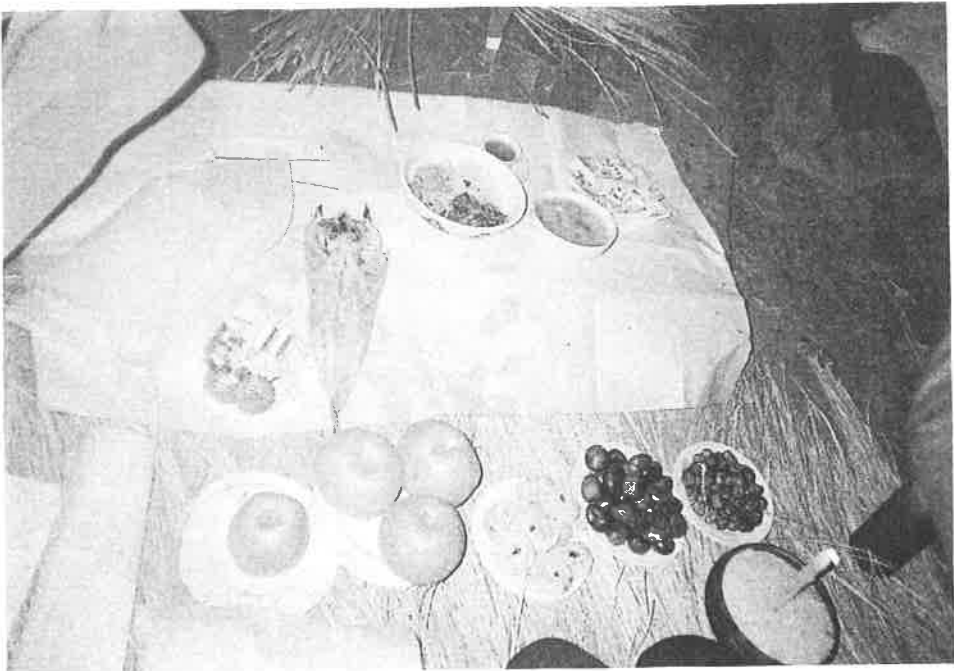
거리제에 불 피운 모습(2000. 1. 7.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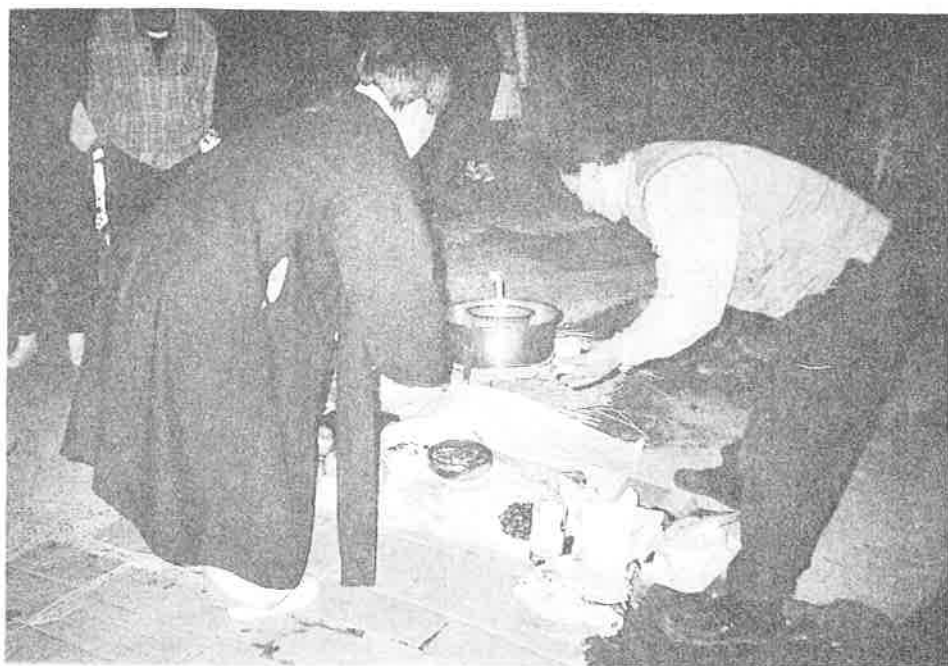
거리제 지내기 전 풍물치는 모습(1999. 2. 22)



거리제 제물-떡시루(1999. 2. 22)



거리제 제물(1999. 2. 22)



거리제 지내는 모습(1999. 2. 22)



거리제에서의 소지(1999. 2. 22)



거리제에서의 소지(1999. 2. 22)



거리제 떡의 나눔(1999. 2. 22)

12. 성주5리 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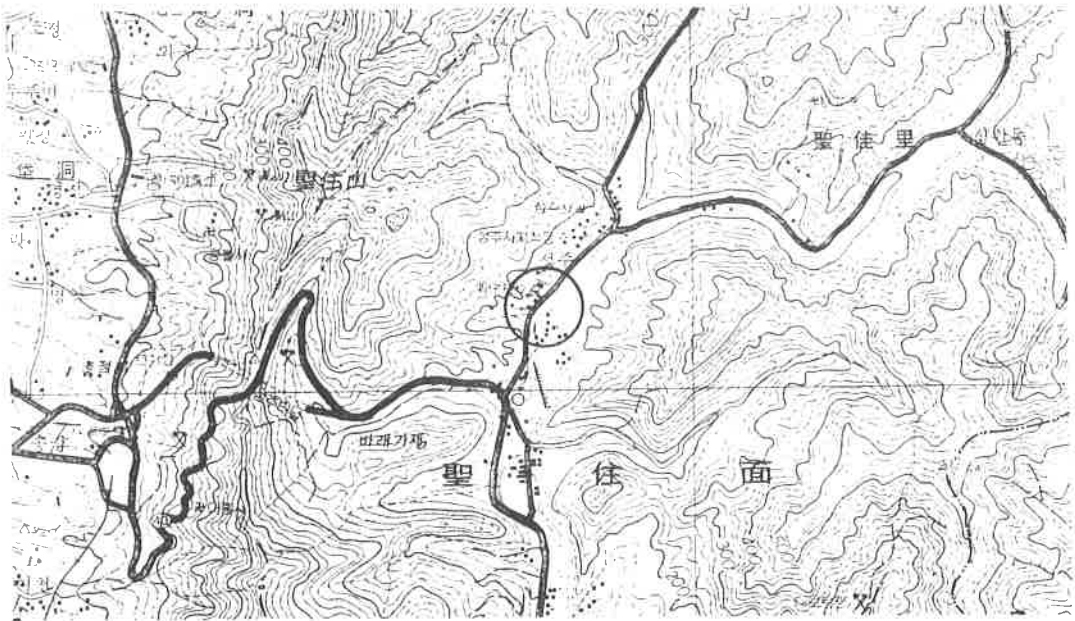
1.마을의 개관

성주 5리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지 주변 마을로 과거에는 바래기재를 넘어 대천으로 통하고, 개화리를 지나 부여, 웅천 방향으로 통한 산골짜기 마을이다. 해방 이후 석탄광산의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삼거리 지역이 도시화되어 성주면의 중심 마을이 되었으나 과거에는 성주 5리에 속한 벌뜸 마을이 성주면의 중심마을이었다. 또한 이 때에는 거주 인구가 적어 벌뜸, 탑동, 먹방, 심연동이 모두 한 마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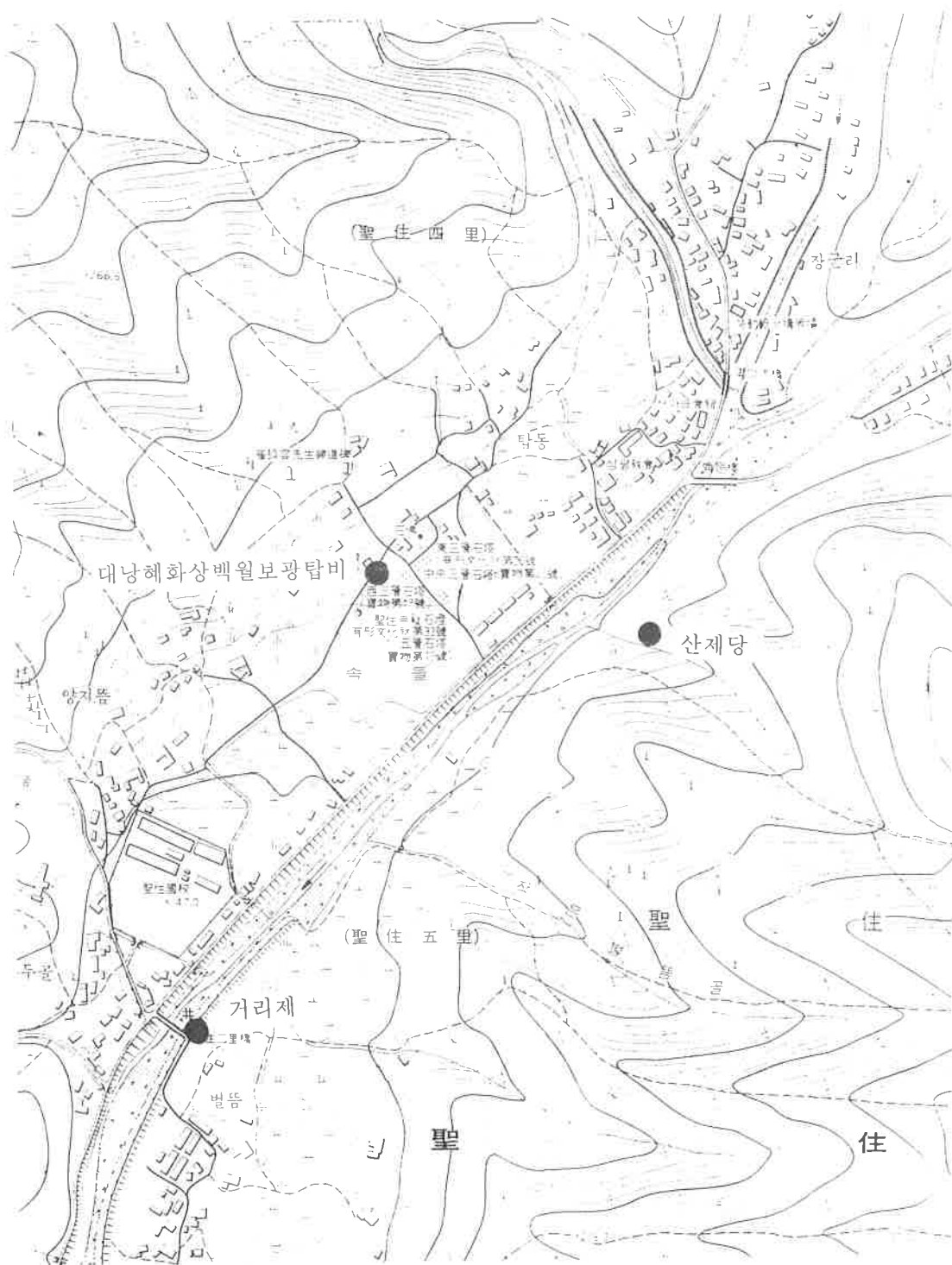
마을 주변은 중생대 퇴적암 지대로 500~600m의 높은 산지가 둘러싸고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 하천 주변에 좁은 논을 개간하였으나 홍수의 피해가 컸다.

옛날에는 작은 규모의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생활하였으며, 석탄 광산의 개발 이후에는 광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석탄 산업이 발달하였던 1960~1970년대에는 인구가 급증하여 마을이 분구(分區)되었고, 동제(洞祭)도 따로 지내게 되었다. 먹방, 성주 7리, 성주 8리 마을로 원래 성주 5리(벌뜸)와 함께 동제(洞祭)를 지내다가 분구되자 따로 지내게 되었다.



성주5리 지형도(1:50000)



성주5리 지형도(1:5000×0.82)

또한 마을 안에는 백제 시대에 세워지고 통일신라시대 무염국사에 의해 중창된 성주사지가 있다.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이 지은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8호)와 4기의 석탑, 석등 등이 남아있으나 1970년대 말까지 농경지로 이용되었었다.

마을의 주민들은 대개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극히 일부만이 석탄 광산 개발 이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2.제의 준비

성주 5리 즉, 벌뜸·양지편·탑동 마을이 정월 초아흐렛날 산신제와 거리제를 함께 지낸다.

산신당은 성주사지 동남쪽 산제당골의 바위 밑에 있다. 슬레이트 지붕 1칸 집인데 기둥이 크고 잘 지어진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기와로 지었다가 슬레이트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제당의 북벽에는 수염 난 노인, 달, 기러기, 호랑이가 그려진 산신도가 유리 액자에 담겨 놓여져 있고, 산신도 밑에는 시멘트로 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단의 앞에는 세 사람이 들어갈 정도 넓이의 공간이 있다. 대들보에는 龍 光緒六年庚辰十一月初一日酉時立柱上樑艮坐坤向 虎라고 써여 있어 1880년에 건립되었음을 말해준다.

산신제는 정월 초이틀부터 시작한다.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뽑고 걸립을 시작한다. 걸립은 이장이 주관하는데 풍물패와 함께 마을의 유지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한다. 옛날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풍물을 쳐주었다. 이것을 ‘지덕누른다’라고 하여 그 해에 운수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요즈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집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자신해서 내는 집을 들어가지 않고 지나친다.

걸립액은 현금으로 70여 만원 정도이다. 한집에서 2000원에서부터 30000원 정도까지 부담한다. 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경우도 강요하지는 않는다. 과거 광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220가구나 되었고 돈이 돌아 많은 돈이 걷혔으나 현재는 100여 가구밖에 안 되고 걸립액수도 7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정월 초이틀부터 당주와 제관, 축관은 외부 출입을 삼간 채 매일 묵욕재계 하였다. 당주는 부정 때문에 시장보러도 가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금기 사항이 약해진 경향이다. 그래도 당제 기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젓날을 연기하였다.

1999년의 경우 마을에 초상이 있어 정월 열사흘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당주는 늘 근신해야 했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옛날 어떤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제를 올리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 “이 씨부랄놈의 날 드럽게 춥네” 했더니 금새 입이 통통 부어 올랐다고 한다.

젯날이 가까워지면 제관과 축관이 대천장에 가서 제물을 산다. 해마다 자리와 솥을 새로 사는데 제에 사용하고 나면 당주한테 준다. 제 전날에는 마을 회관에서 돼지를 잡는다. 산신제에 쓸 돼지머리와 고기의 절반은 당굿집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제 다음날 회관에서 먹기 위해서 회관에 놓아둔다.

젯날이 되면 마을 사람 세 사람을 뽑아 품삯을 주고(1998년 각 5만원, 1999년 각 3만원) 제 준비를 시킨다. 이들은 먼저 산제당에 가서 진입로와 제당 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변의 낙엽을 모두 긁고, 불피울 나무를 준비하고 솥을 걸 수 있도록 돌로 아궁이를 만든다. 그리고 제당의 문 앞에 양쪽으로 3점씩 황토를 놓는다. 거리제 지낼 장소에 1짐 정도의 황토를 가져다 쌓아놓고 거리제 지내는 곳 주변에 통나무를 준비하며,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의 앞에도 황토를 놓는다.

젯날이 되면 당굿집에서 음식을 차린다. 산제에 쓰는 떡은 백무리로 3되 3홉을 하는데 당굿집에서 찌고, 노구메(밥)는 1되 3홉을 하는데 쌀만 씻어 산제당 앞에서 불을 때어 익힌다. 그리고 약간의 과일과 포, 감, 미역, 참기름을 준비한다.

3.산신제

젯날 오후 5시쯤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당주, 제관, 축관 세 사람뿐이다. 과거에는 지계에 제물을 지고 갔으나 1999년의 경우는 손수레를 밀고 갔다. 옛날에는 풍물꾼들이 제당에 오를 때까지 풍물을 쳐주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1999년의 경우는 풍물을 치지 않았다.

산제당에 도착하면 한 사람은 제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하며 한 사람은 노구메(밥)를 한다. 제물은 제단에 백지를 깔고 접시 없이 진설한다. 산신도 앞에 술잔과 젓가락을 놓고, 술잔 앞에는 작은 그릇에 참기름을 넣고 심지를 세운 후 불을 켜다. 그리고 떡을 시루째 놓고, 밥은 솥째 놓는다. 그 옆에 돼지머리를 놓고 대추, 밤, 꽃감, 과 등 약간의 과일을 놓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과 마른 미역을 놓는다. 그리고 맨 앞 단 아래에는 향을 피운다. 밥을 짓는 물을 당죽집에서 떠온다.

제의 순서는 먼저 당주가 분향 재배하고, 빈 잔에 술을 조금 부어 버리고 (강신) 이어서 술을 한 잔 올린다. 그리고 당주와 제관은 엎드리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山神祭 祝文(壬申年)

維

歲次壬申正月朔初九日戊午辛未生崔秉元敢昭告于 山王大神之位 伏以肇 開子闢丑 維山維靈 帳佐宜陰 應如顯響 茲以春正 敢暢微誠 潛心虔禱 庶幾感臨 瘟痘癘疫 攘之勿侵 鳥獸盜賊 一切呵噤 暢暢年登 五穀家家 日致千金 如是發願 感以來歆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번역문)

山王 大神靈님의 尊位에 告하나이다. 엎드리 헤아리건대 天地가 비로소 열리매 子방으로부터 열려 丑방으로 뻗으니 오직 산과 오직 神靈님이신지라 마땅히 그윽히 保佑하사 應護함이 顯響같이 하시기를 이 봄 上正에 감히 작은 정성을 창달하여 침묵한 마음으로 공손히 기도하오니 모든 것을 感臨하사 염병, 역병, 문등병, 홍역 등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침범치 못하게 하며, 鳥獸나 盜賊들을 一切 엄축하고 暢達한 年豐과 五穀이 집집마다 있으며 날로 千金을 이루고자 이같이 발원하오니 감동하사 枉臨하시기를 삼가 清酌과 脯醢로써 공손히 차려받으오니 흠향하소서 (朴丁淳 역)

축이 끝나면 모두 절을 두 번 하고 이어서 술을 2잔 더 올리고 절을 하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백지를 접어 불에 태우는 것인데 먼저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성주 5리 주민들이 일 년 내내 평안하고 소원성취 해 달라고 빈다. 이어서 장부에 적힌 걸립에 응한 사람들을 호명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주문을 외우면서 소지를 올린다. 많은 사람을 올리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소지가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는 것으로 산신제는 끝난다. 이어서 축관이 밤, 대추, 곶감 몇 개를 들고 나와 산제당 주변에 던지며 ‘고시레’한다. 그리고 제에 참석

한 사람이 간단한 음복을 하고 제물을 거두어 당굿집으로 향한다.

당굿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제 지낸 사람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거리제를 서두른다.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성주사지에 가서 간단하게 제를 올린다.

4.대낭혜화상백월보광탐비 제

산제당에서 내려오면 성주사지의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탐비에 제를 올린다. 아주 옛날부터 올려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올린다고 한다. 이곳에는 젓날 낮에 황토를 2곳씩 3줄로 놓아 잡인의 출입을 금했다. 이 제는 당주가 참석하지는 않고 아무한테나 의뢰하면 간단하게 올린다. 1999년의 경우는 제물이 소주 1병, 밤, 대추 몇 개, 명태포 1마리 등이었다. 주민 한 사람이 황토 사이에 백지를 펴고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올린 후 절을 두 번 한다. 그리고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는 소지를 올린다. 제를 마치면 제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내려온다. 이어서 거리제를 지낸다.

5.거리제

거리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작은 말뚝 다섯 개를 만들어 한쪽 면을 깎고 中央黃帝將軍, 東方靑帝將軍, 西方百帝將軍, 南方赤帝將軍, 北方黑帝將軍이라고 쓰고, 떡을 준비한다. 떡은 방앗간에서 맞추는데 많은 양을 해야 주민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네 말을 만들었다. 제물로는 대추, 밤, 꽃감, 배와 3가지 나물을 준비한다.

거리제 지내는 장소인 벌뜸 마을 입구¹⁾에는 낮에 황토 한 짐을 높이 쌓고, 주변에 네 무더기의 황토를 놓으며 불피울 통나무를 준비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풍물꾼이 나와 풍물을 치고 불을 놓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다. 1999년의 경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50여 명이 모였다.

당굿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많은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시를 함께 가져와 제물을 담는다. 제물의 진설은 다음과 같다.

황토무더기의 맨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팔떡을 한 시루 놓는다. 떡시루의 가운데에는 산신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작은 그릇(종재기)에 참기름을 담고

1) 벌뜸 마을에서 양지편으로 통하는 다리의 입구. 벌뜸 방향이다.

그 속에 다리가 세 개인 심지를 세우고 불을 켜 놓는다. 떡은 팔을 섞은 떡이다. 산신제는 백무리를 사용하지만 거리제는 팔을 섞은 떡이다. 이어서 동서남북 중앙에 준비한 말뚝을 꽂고 말뚝 앞에 탕 세 그릇, 대추, 밤, 꽃감, 배, 명태포. 술잔이 각각 담긴 접시를 놓는다. 이때까지는 농악을 올리지만 제가 시작되면 농악을 끝낸다.

이어서 당주가 향을 피우고 술잔을 모두 올린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는 중앙, 동, 서, 남, 북순이다. 그리고 당주는 옆드리고 축관이 노제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路祭祝文(癸酉年)

維

歲次癸酉正月甲辰朔初九日壬子幼學金天峯 敢昭告于 土地之神 之位伏以 大道如髮 百靈所處 上有喬嶽 傍臨寒泉 祈福攘災 其應昭昭 我禱久矣 所願惟何 百般崇幘 一切呵噤 虎狼蛇蝎 鳥雀猪豚 凡諸害人 這這迸逐 伏惟尊靈 感我微誠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는 감히 토지의 神位前에 告하나이다. 옆드려 헤아리건대 大道는 터럭과 같이 一百의 신령님이 처하시는 바라 위로는 높은 喬峰이 있고, 곁에는 清寒한 靈泉이라 옆드려 願하건대 복은 내려주시고 재앙은 물리치며 그 소명한 응호 주시기를 우리들이 오래 기도하며 願하는 바는 무엇인고 三災와 八亂을 모두 엄히 呵噤하고 범과 이리, 뱀과 전갈, 새와 참새, 멧돼지, 모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모두 먼 데로 迸逐 하옵소서. 伏望컨대 尊嚴하신 신령님이시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감응하시기를 삼가 清酌과 여러 가지 음식을 공손히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呵噤: 엄하게 꾸짖어 나무람

迸逐: 헤쳐 멀리 보냄 (朴丁淳 역)

축이 끝나면 모두 두 번 절하고 소지를 올린다. 먼저 축관이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다. 이어서 당주의 소지를 올리고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 모두가 달려들어 한 명씩 소지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자기 소지를 올리는지 주목하기도 하며 나중에 소지를 올리지 않았다고 항의하

기도 한다. 소지를 올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지루해지고 어린이들은 과일이 먹고 싶어 슬금슬금 가져가기도 하고, 어른들이 집어주기도 한다. 멀리 있는 제물부터 없어지고 당주 앞에 있는 제물이 가장 늦게 없어진다. 소지를 마치기 전에 과일과 포는 거의 없어졌다. 소지가 끝나면 당주와 제관 축관은 두 번씩 절하고 밤, 대추 등 남은 과일 몇 개를 주변에 던져 고시례를 한다. 이어서 떡을 나누어주라고 하면 마을의 여자들이 달려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준다. 서로가 가져가려고 해 순식간에 2말의 떡이 없어졌다. 나머지 2말의 떡은 당굿집으로 옮겨 그날 저녁 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다음날 회관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옛날에는 떡이 귀해서 1가마 정도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거리제를 마치면 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앞장서고, 당주, 축관, 제관과 이장 등 제를 주도한 사람들은 당굿집으로 향한다. 당굿집 앞 도로변에는 큰 상 몇 개를 펴놓고 술과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 1999년의 경우는 날씨가 춥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거실로 안내되었다.

6.제의 결산

제 다음 날은 마을회관에서 돼지고기, 술, 떡 등 음식을 먹고 마을 총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동제의 경비를 결산하고 당주와 제관의 수고비도 준다. 1998년 당주에게는 100,000원, 제관 축관에게는 5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

도움말 주신분

최병원(69) 성주리 141 별뚝(5리)

김유현(57) 성주리 97-2 양지뚝(5리)

손종국(58) 성주리 130-1 양지뚝(5리)



산제당(1996. 2)



산제당의 상량문(199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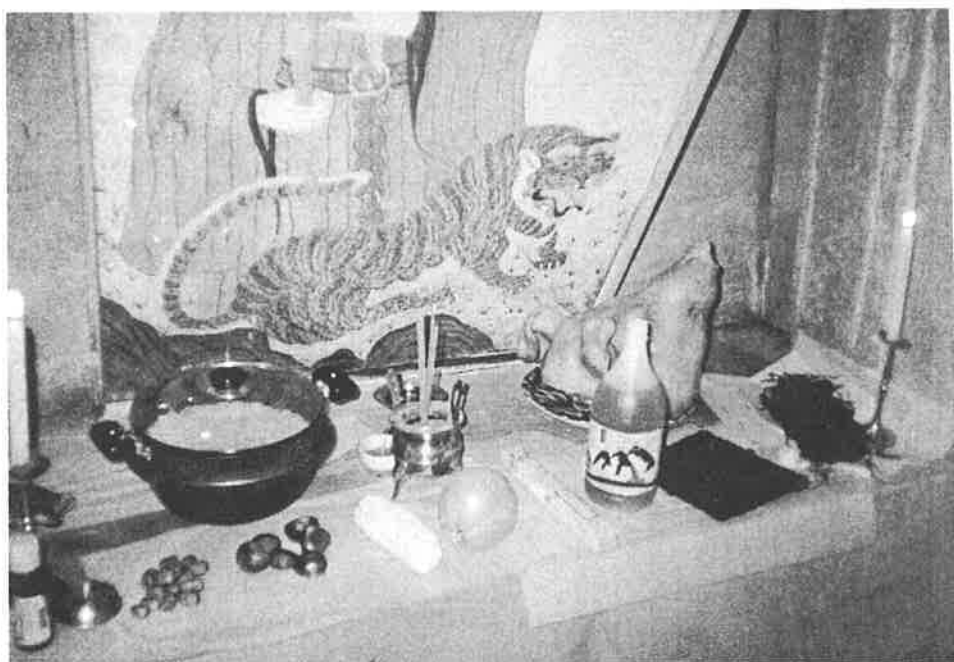
산신도(199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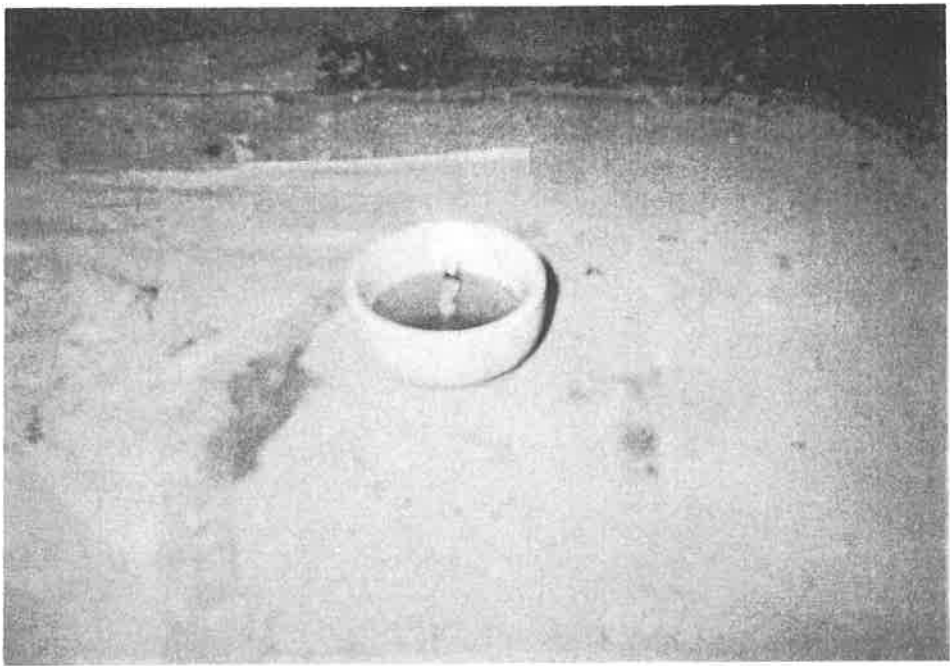
당죽집(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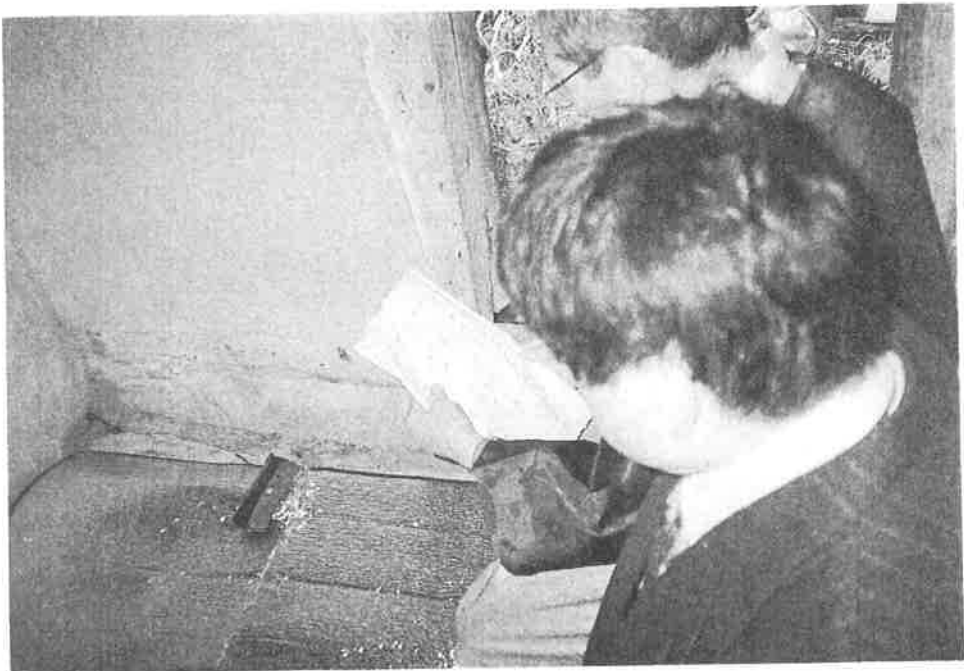
노구메(밥) 짓는 모습(1999. 2. 11)



산제당의 제물(1999. 2. 11)



산제에 사용된 등잔(1999. 2. 11)



축문 읽기(1999. 2. 11)



소지 올리기(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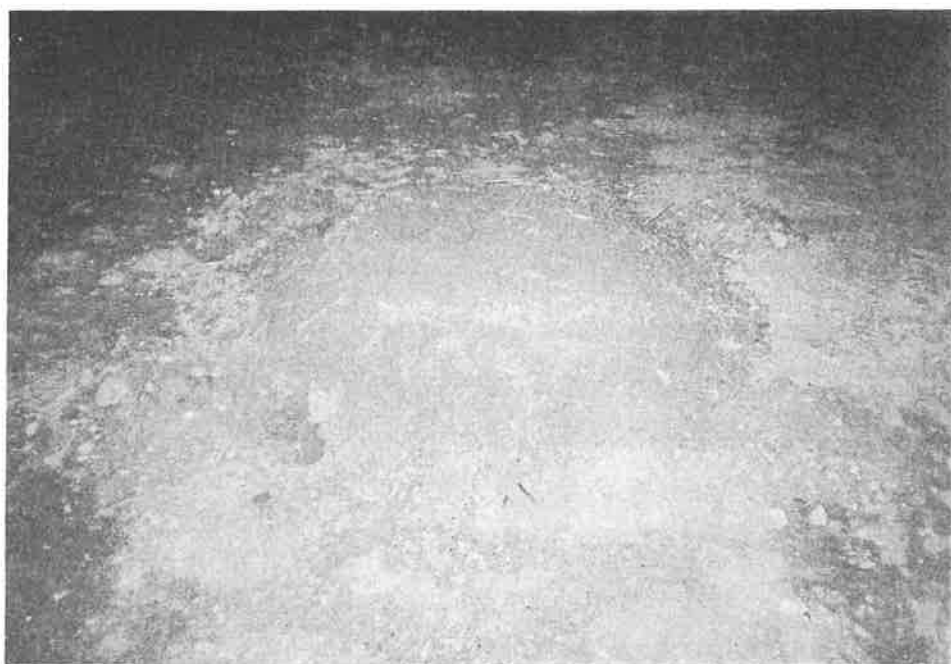
산제 후 고시레 한 모습(1999. 2. 11)



성주사지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서의 제(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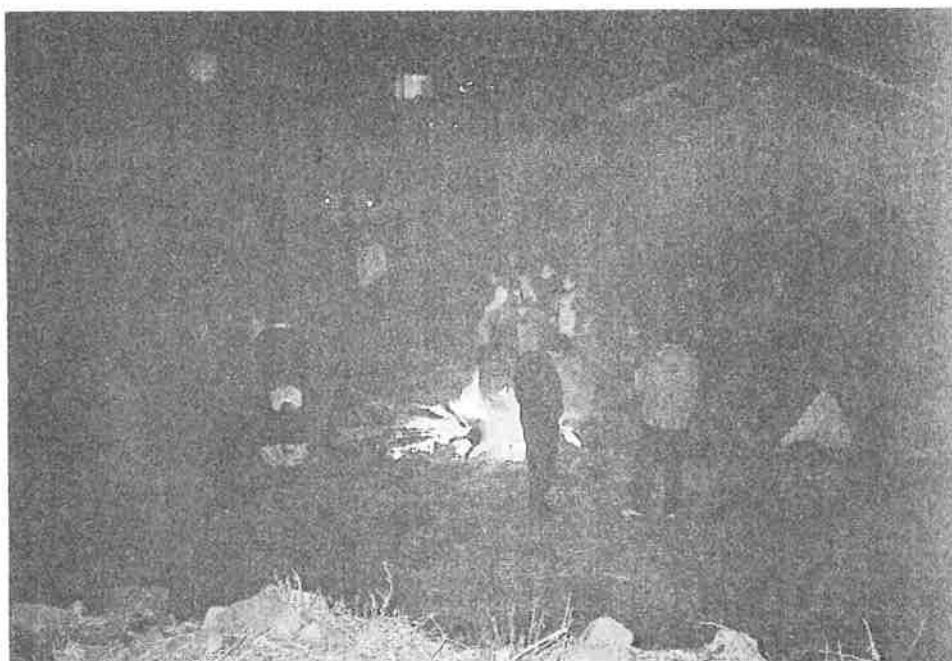
성주사지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서의 소지(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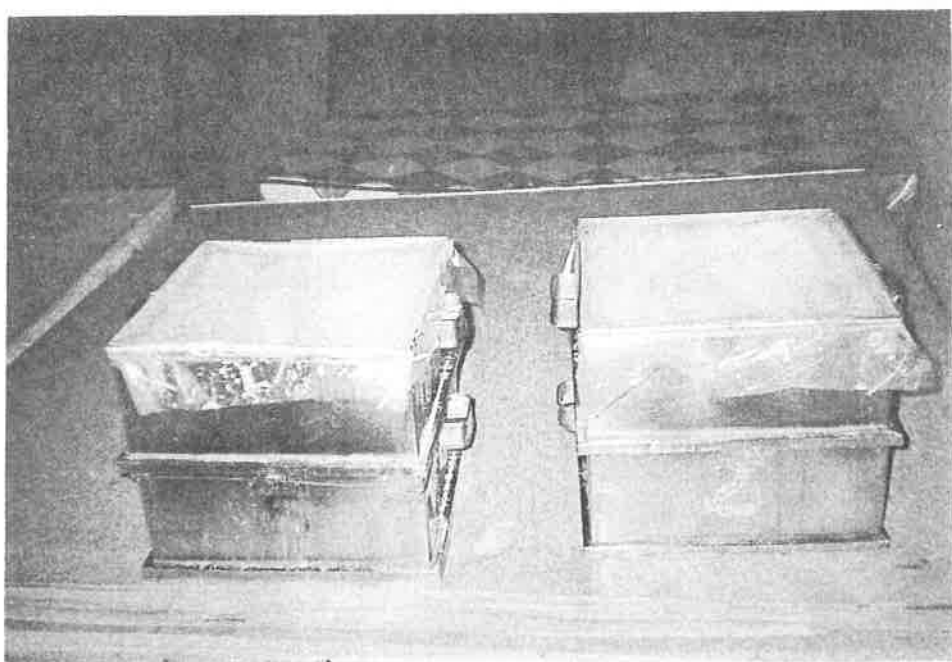
거리제를 위한 황토 무더기(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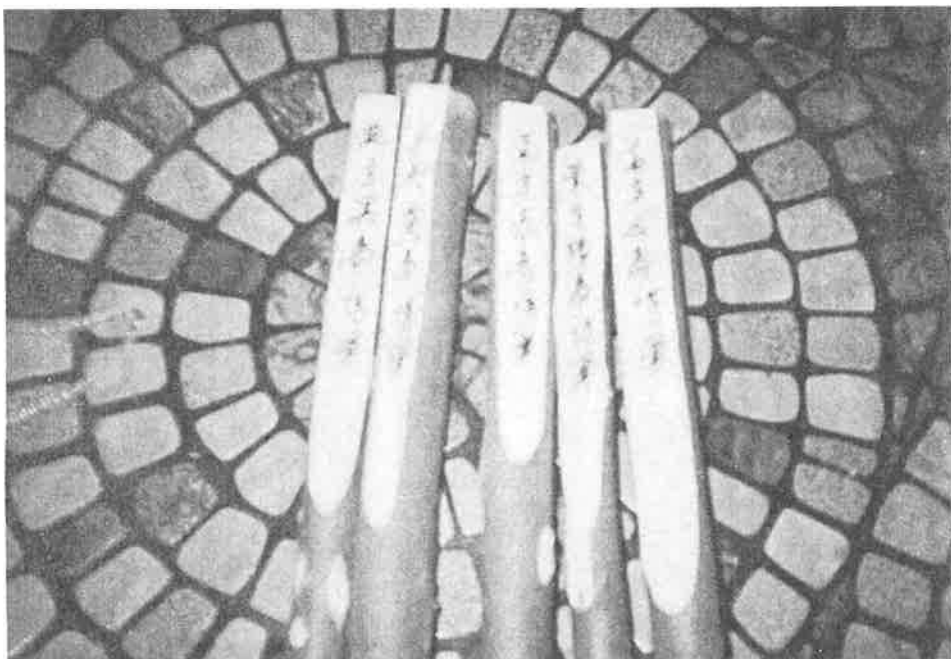
거리제에 나온 아이들이 깡통돌리는 모습(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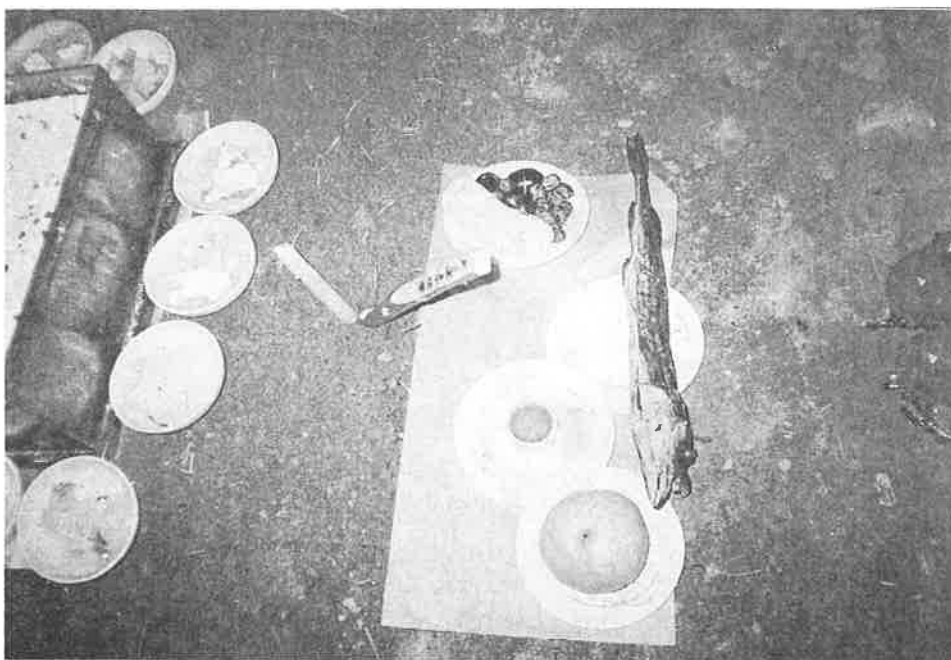
거리제 지내는 곳에 불 피운 모습(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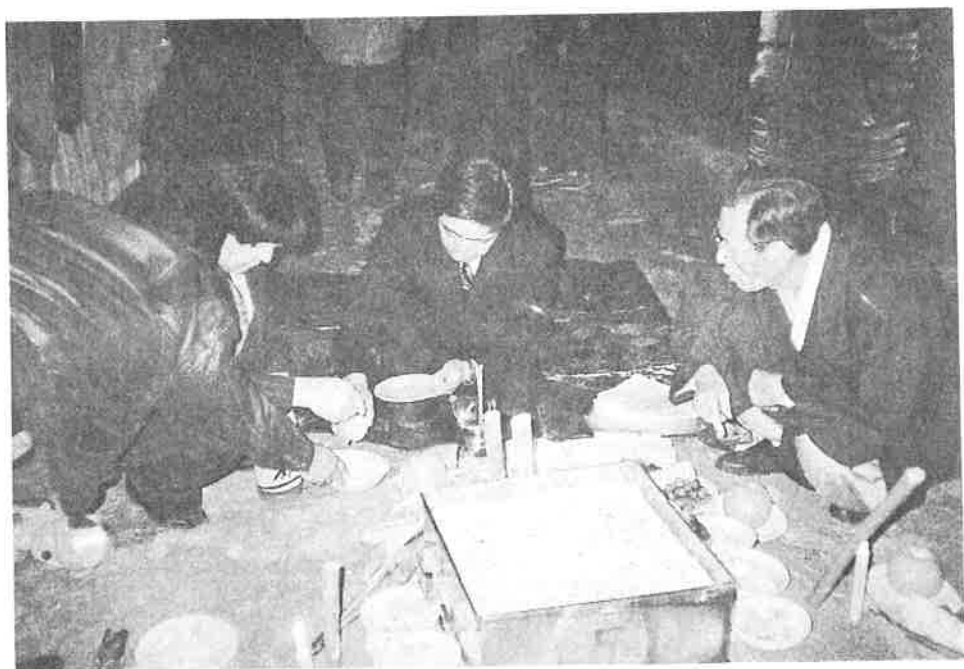
거리제에 사용될 떡(1999. 2. 11)



거리제에 사용될 오방지신 말뚝(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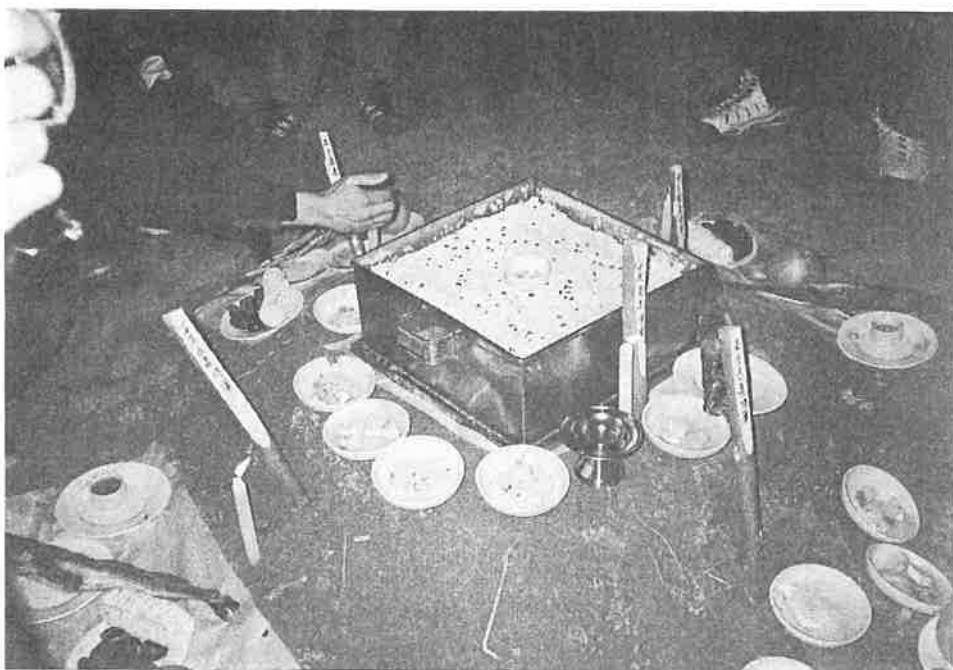
거리제의 제물(1999. 2. 11)



거리제(1999. 2. 11)



거리제(1999. 2. 11)



거리제(1999. 2. 11)



거리제 소지(1999.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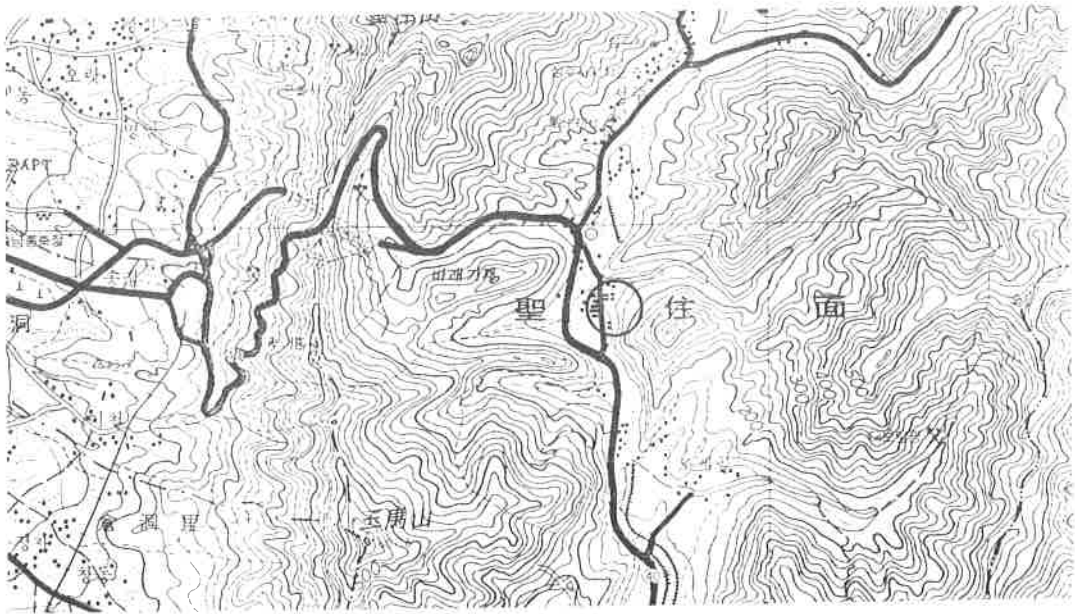
13. 성주7리 산제

1. 마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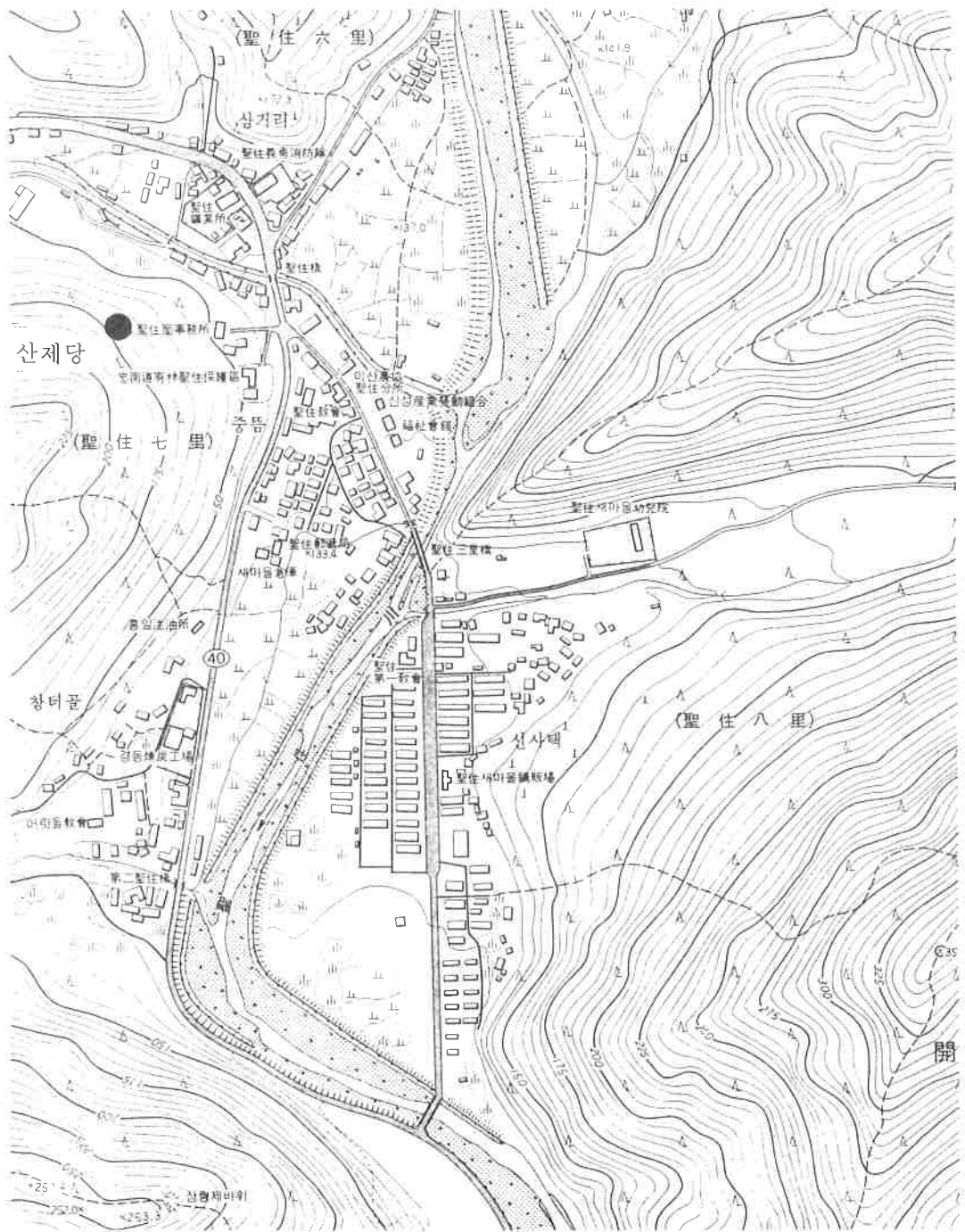
성주 7리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성주리는 과거에는 한 마을이었고, 성주사지 앞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제를 모셔왔으나 1960년대 석탄광산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8개의 행정리로 분구되었다. 이중 7리는 중뚝과 창터굴로 이루어지는 마을이다. 과거에는 6리와 같은 행정리였는데 분구되었다.

마을 남동쪽에는 성주천이 흐르고, 주민은 모두 석탄광산 때문에 1960~1970년대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1980년대 말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석탄광산은 모두 폐광되었고 인구도 감소하였다. 농경지는 거의 없고, 본 마을에 거주하면서 외지로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 성주터널이 완공된 뒤 대천 시내와 교통이 좋아져 대천의 변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51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집성을 이루는 성씨는 없다. 마을 안에 교회가 4곳 있다.



성주7리 지형도(1:50000)



성주7리 지형도(1:5000×0.82)

2. 산제의 유래

성주 7리 산제는 6리와 분구되기 전에도 현재의 산제당 있는 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본 마을은 석탄 개발로 생긴 마을이고, 1967년 이주해보니 벌써 산제를 지내고 있었다고 하므로¹⁾ 1960년대 초 광산 개발을 시작하면서 지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산제당

산제당은 성주면 예비군중대 뒤에 있다. 큰 바위 밑에 블록벽에 슬레이트 지붕의 1칸 건물이며 문은 쌍여닫이이다.

산제당 안의 출입구 맞은 쪽(바위 있는 쪽)에는 높이 40~50cm의 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중앙에 나무로 만든 위패가 놓여져 있다. 위패에는 ‘聖住山城隍之位’라고 써어있다.

산제당 뒤쪽에 있는 바위와 산제당 있는 곳은 무속인들의 기도처로 이용된다. 주민들은 이곳이 옛 절터라고 한다.

4. 걸립

정월보름 전에 풍물을 치고 다니며 걸립하여 제 비용을 마련하였다. 과거에는 쌀도 내고 돈도 냈는데, 쌀을 내는 집은 정성껏 상에 촛불을 켜고 내놓는 집도 있었고, 풍물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광산 사장들이 많은 돈을 내기도 하여 자금이 풍부하였다.

작년 2001년에는 풍물을 치지 않고 걸립하여 100만원 정도 자금을 마련하였다. 2000~3000원도 내고, 5000원, 10000원도 냈으며 사업을 하는 집은 50000원도 내었다. 모두 마을의 단합을 위해 낸다고 한다.

2002년에는 풍물을 치고 다녔는데 120가구가 협조하여 170만원을 걸립하였다. 마을의 단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교회 목사님도 두 분이 참여하였으며 장로님도 참여하였다. 본 마을 출신으로 계룡산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0만원을 내놓기도 하였다.

1) 현 7리 이장인 김동수(64) 증언

5. 산제

먼저 당주를 정한다. 당주는 음식을 장만하고 제를 올리는 대표이다. 운이 닿는 사람으로 정하는데 2002년에는 정축생(丁丑生 65세)인 사람이 좋아서 시켰다. 당주가 결정되면 당춧집 앞에 황토를 놓고 금줄을 친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백지, 술가지를 꿰은 것이다. 당주는 몸을 정갈하게 해야되고 당춧집에는 아무나 출입해서도 안 된다.

당주와 대동계장은 13일에 대천장에 가서 제물을 산다. 제물은 일반 유교식 제사와 비슷하게 과일, 포, 과자 등을 샀으며 초와 백지도 샀다. 해마다 13일에 돼지를 잡는데 머리는 살이 많이 붙게 잘라 산제에 사용한다. 금년에는 청년회에서 돼지 1마리를 내놓는다고 한다. 또한 13일에는 주민들이 산제당을 청소한다. 이때 산제당의 문 위와 처마 밑에는 금줄을 친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백지를 끼운 것이다.

2002년에는 산제 기간 중 마을에 초상이 있어 음력 1월 22일인 3월 5일로 연기하여 제를 올렸다.

제물의 준비는 당춧집에서 하는데 부녀회원들이 도와준다. 제는 밤 11시~01시 사이에 지냈는데 2002년의 경우는 저녁 7시에 지냈다.

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2002년의 경우 5명이었다(당주, 당주의 부인, 축관, 이장, 다른 한 사람).

제물은 삼색실과, 돼지머리(익혀서 사용), 쌀(초를 꽃아서), 떡(백무리-시루째 사용하는데 3되 3홉의 쌀로 함), 나물, 밥, 두부탕 등이다. 밥은 과거에는 산제당에서 지었으나 현재는 지어서 올라간다.

2002년의 경우 앞줄 왼쪽부터 대추, 밤(생으로 사용), 꽃감, 사과, 참외, 배, 산자, 과, 돼지머리, 가운데 줄 왼쪽부터 미역, 전, 나물, 두부 전, 뒷줄 왼쪽부터 국, 밥, 술잔, 국, 밥, 술잔, 탕, 떡시루이다. 돼지머리의 입에는 건립한 돈을 모두 물려 놓았다. 술은 양조장에서 제조한 약주를 사용하였다. 향은 상 앞에 피우지 않고 산제당 밖에 좌우로 피웠다.

1995년에는 밥을 한 그릇만 올리고 술도 한잔만 올렸으며 돼지머리를 상의 중간에 올려놓아 2002년과 차이가 있었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일반 유교식 제사와 비슷하게 분향하고 술을 두 잔 올리고 축을 읽는다. 일반 제사와 비슷하게 술을 두 잔 올리고 밥·국도 두 그

릿씩 올린다. 축문은 정해진 내용이 없고 그때그때 만들어 쓴다. 유교식 제사와 비슷하게 하는데 마을이 잘 되라고만 쓴다고 한다.

2002년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축 문

維 歲次 壬午正月十四日甲子朔 聖住七里 里長 김동수 敢昭告宇
聖住山 神靈님께 祈願하나이다. 壬午年에도 성주 7리 주민을 비롯하여 萬衆이
無故하며 뜻한 希望이 成就되게 하옵시고 今年 農事도 豐年되게 하여 주시옵
소서

이어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백지를 태우는 것으로 먼저 마을 대동소지를 올린다. 다음에 장부를 보면서 걸립에 참여한 마을 사람 모두의 소지를 올린다. 2002년의 경우는 미리 소지종이(백지를 잘라 A4 용지 2배의 크기로 만든 것) 한 장 한 장에 이름을 써 묶어와 한 장씩 떼어 올렸다. 축관이 한 장씩 떼어주면서 이름을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축원을 하면서 올린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서 잘되도록 축원을 하는 것이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며, 친구인 경우 고스톱이 잘되게 해달라는 경우도 많았다. 목사님의 경우 신도가 많게 해달라고 축원하였다. 목사님의 경우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냥 소지만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소지 후에는 제물의 일부를 떼어 산제당 주변에 사방으로 던진 후 일부 음복을 하고 하산한다. 2002년의 경우는 돼지 귀를 잘라 몇 토막 낸 후 사방에 던졌다. 제 음식은 회관으로 가져와 술 한잔씩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

6.제의 결산

정월 보름날 10시쯤 마을 회관에 모여 제 비용을 결산하고 돼지고기와 술을 먹고 하루종일 논다. 풍물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노는 것이다.

도움말 주신 분

김동수(64) 보령시 미산면 성주리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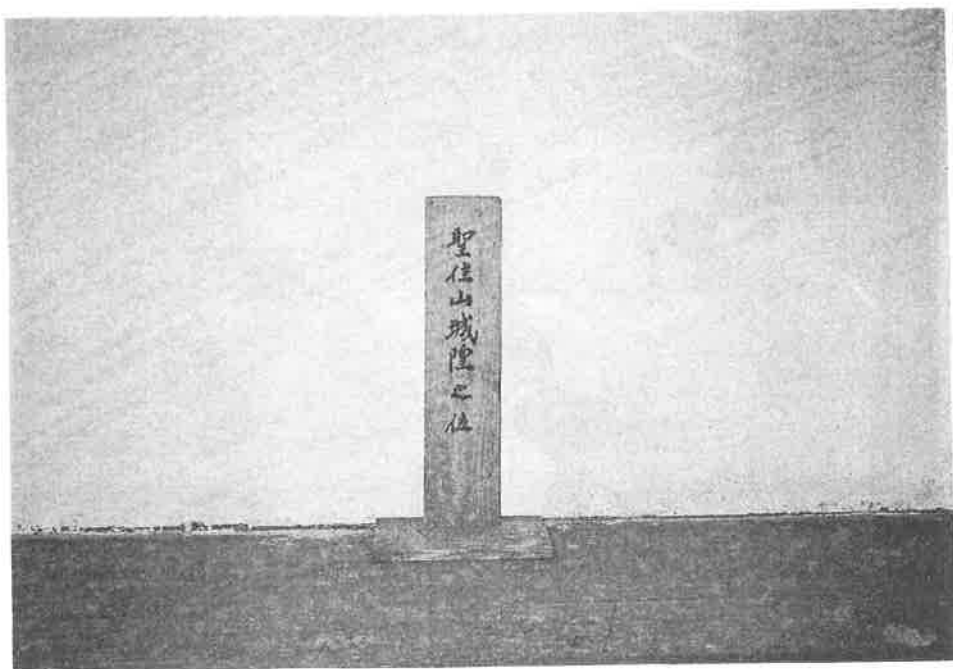
이길호(74) 보령시 미산면 성주리 2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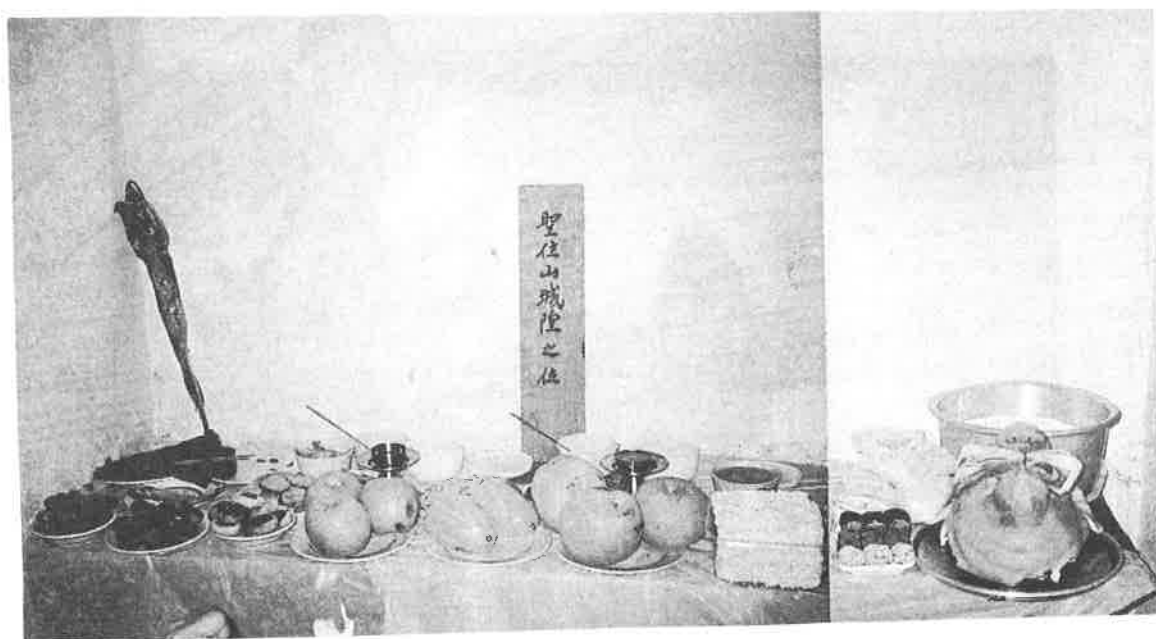
성주7리 산제당(2002. 2. 11)



산제당 뒤에 있는 바위(2002. 2. 11)



산제당 안의 위패(2002. 2. 11)



제상(2002. 3. 5)



산제(2002. 3. 5)



소지(1995. 2. 13)



산제당의 금줄, 소지(2002. 3. 5)



음복(2002. 3. 5)

14. 성주8리 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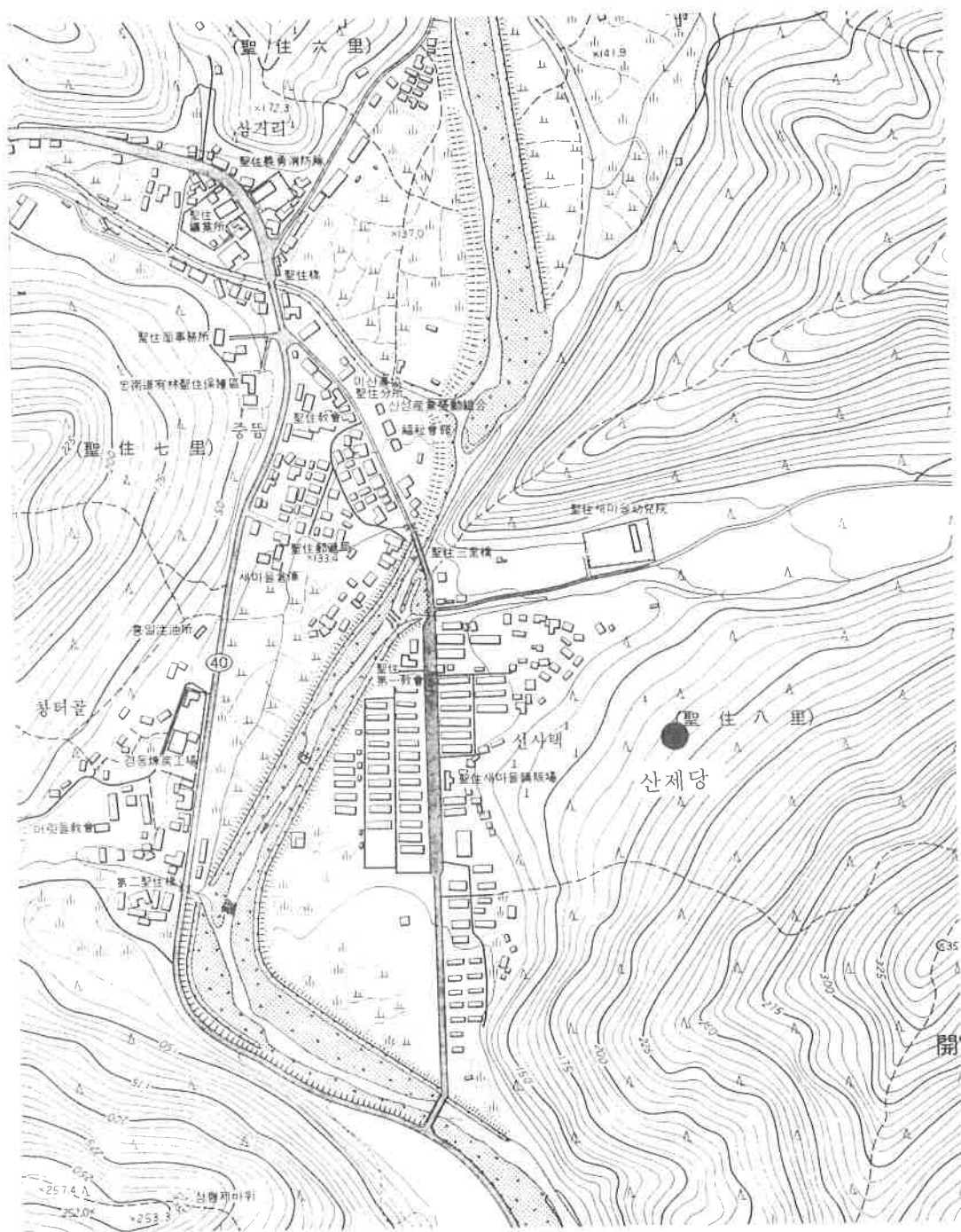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성주 8리는 성주면 성주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과거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 석탄광산의 개발과 함께 생긴 마을이다. 이곳은 소위 신사택으로 불리는 광산의 사택 건물이다. 처음에 대한탄광에서 짓기 시작하고 이어서 대한석탄공사로 이관되었다. 석탄광산 전성기에는 300여 가구가 거주하였고, 현재는 200여 가구가 거주한다. 주민은 모두 석탄 광산 때문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1980년대 말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모든 광산이 폐광되어 일부 주민은 이주하였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거주만 하고 외지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성주 터널이 완공된 뒤 대천시와의 교통이 좋아져 대천시의 변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성주8리 지형도(1:50000)



성주8리 지형도(1:5000×0.82)

2. 산신제의 유래

성주리 지역은 현재 별뜸 마을에서 지내는 동제의 역사가 가장 깊다. 과거 인구가 밀집되지 않아 마을이 분구되지 않았을 때는 성주리 사람 모두가 성주 사지 앞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제를 모시고 별뜸에서 거리제를 모셨다. 또한 성주 8리 남쪽에 있는 개화리 지계굴 마을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동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주변 마을이 모두 전통적인 동제를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광산의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자, 여러 리(里)로 분리되었고, 곧바로 따로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산신제의 시작은 성주 8리가 분리된 1960년대부터라고 보여진다. 1970년에 이곳으로 이주해 온 현 이장 장용만씨가 와 보니 산신제를 크게 지냈었다고 한다.

3. 산신제

산신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 동쪽 화장굴 계곡의 남쪽 산기슭이다. 이곳에 있는 큰 바위 밑에 시멘트와 가공된 석재를 이용하여 제단을 만들고 제를 올린다.

제일은 정월 열 나흘 밤이다. 정월 초, 닷새 이내에 마을의 유지 몇 명이 모여 당주를 결정한다. 당주가 결정되면 당춥집 앞에 금줄을 달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였다. 마을 기가 없어 기를 쫓지는 않았다. 이때부터 당주는 외부 출입을 삼가고 부정을 가려야 하였다. 요즈음은 금줄을 띠지 않고, 황토도 놓지 않는다. 다만 음식만 장만한다.

음식은 정월 열 나흘날 준비한다. 과거에는 걸립도 하고 회사도 받아 기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현재 마을에는 1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있고 마을에 초상이 날 때 들어오는 돈이 있어 마을 기금이 된다. 주민세나 적십자회비도 모두 마을 기금에서 낸다고 한다.

1970년대 광산 전성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 성대하게 지냈는데 요즈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 걸립하거나 많은 돈을 들일 수 없다. 요즈음도 가끔 소지 올려달라고 10000원쯤 회사하는 사람도 있다.

제물로 돼지를 잡는다. 열 나흘날 잡는데 산신제에 돼지 대가리가 필요하기

도 하지만 보름날 대동회의를 하면서 먹기 위해서 잡는다. 기타 제물은 삼색 실과, 작은 시루에 찐 백무리, 돼지머리, 과자, 북어포, 술(정종), 소지종이 정도이다. 모두 열 나흘날 당주와 지도자가 시장을 보는데 약 20만원 정도가 든다. 제물은 정해진 것이 없고 당주가 쓰고싶은 것으로 쓴다.

8시쯤 제물을 들고 조용히 산에 오르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따라간다. 200여 가구 중 10여 명만이 따라간다. 2002년에는 청년회에서도 참여하였다.

산신제 지내는 바위에 도착하면 제물을 진설한다. 2002년의 제물은 다음과 같다.

북어, 술, 돼지대갈, 떡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굴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다식(앞열은 모두 플라스틱 모조품)
--

술을 3잔 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올리는 사람이 절한다. 밥은 제물로 쓰지 않고 축도 읽지 않는다. 이어서 마을의 평안과 무사태평을 비는 대동소지를 올리고,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소지를 올린다.

다음에는 제물의 일부를 떼어 북어포와 함께 바위 밑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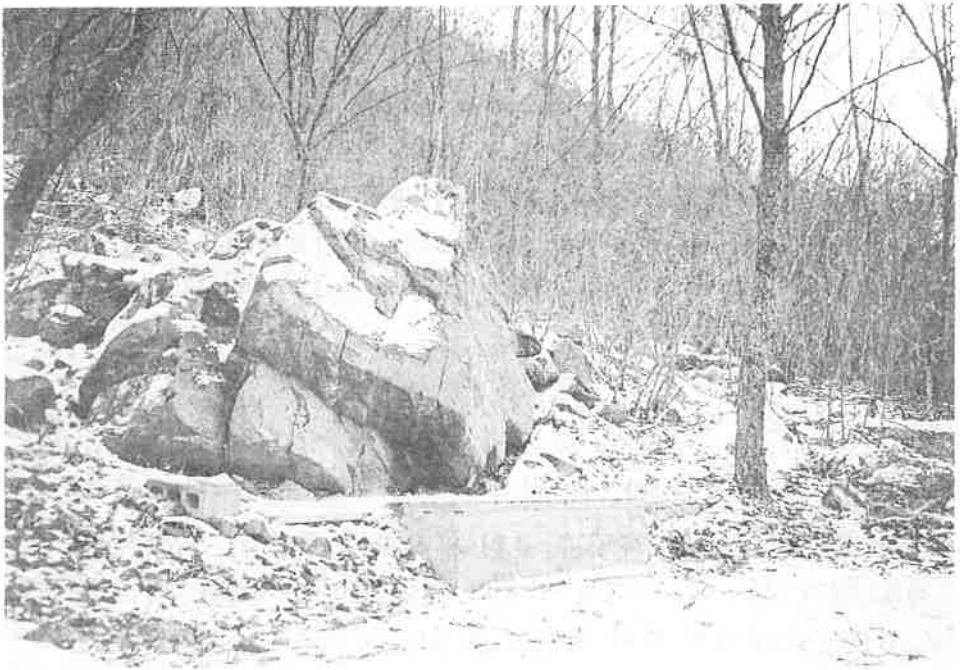
이어서 음복하고 하산하여 마을 회관으로 향한다. 마을 회관에서 약간의 음식을 먹고 헤어진다.

4.제의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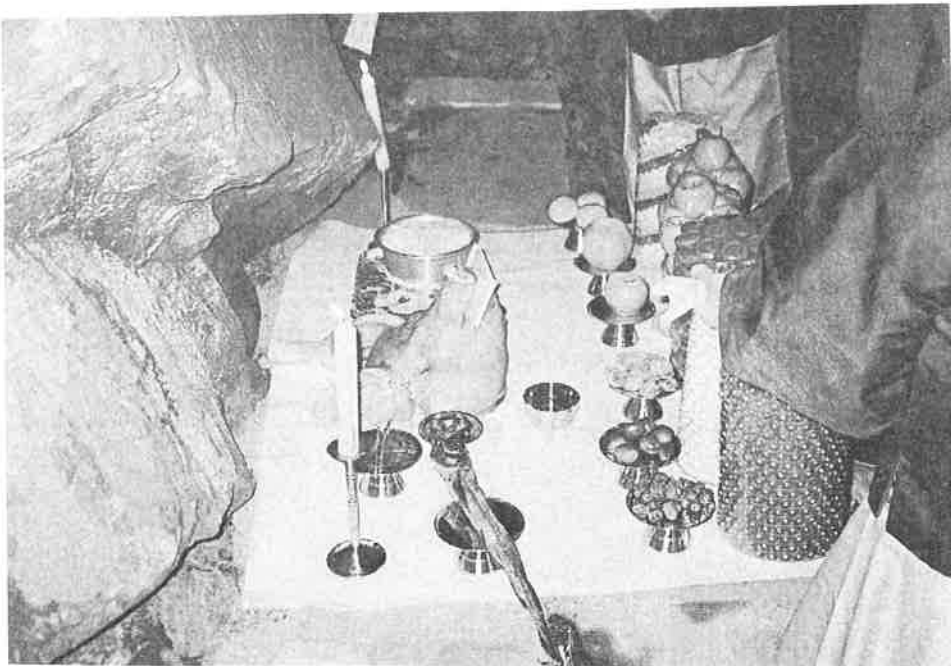
정월 보름날 11시쯤 회관에 모여 제의 결산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하루종일 논다. 과거에는 풍물을 치고 율을 놀곤 했는데 지금은 풍물은 치지 않는다. 음식은 부녀회에서 준비한다.

도움말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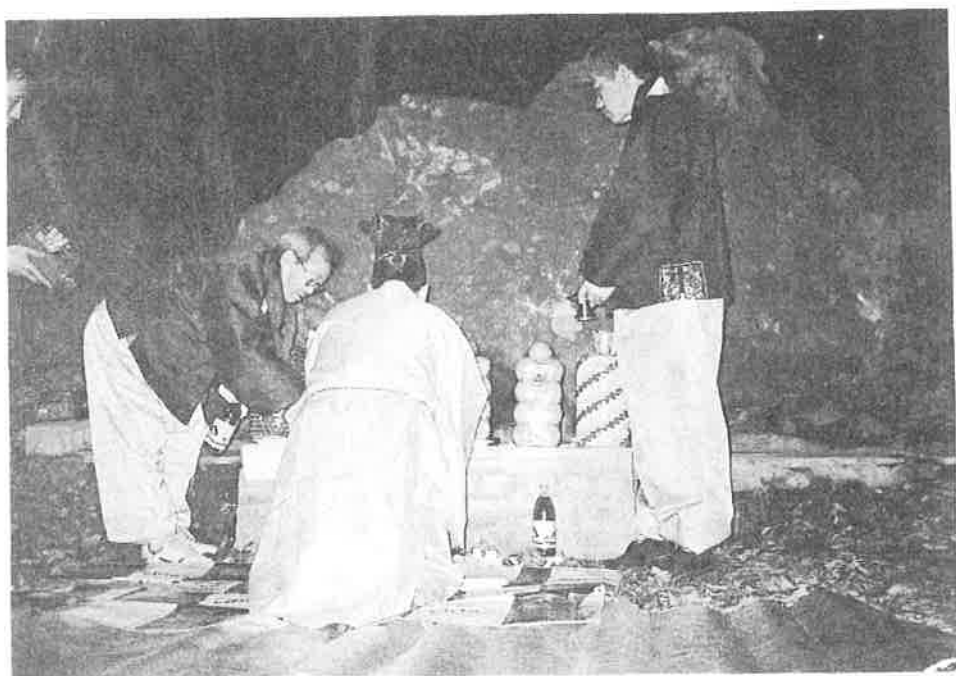
장용만(62) 성주면 성주리 265-71 933-5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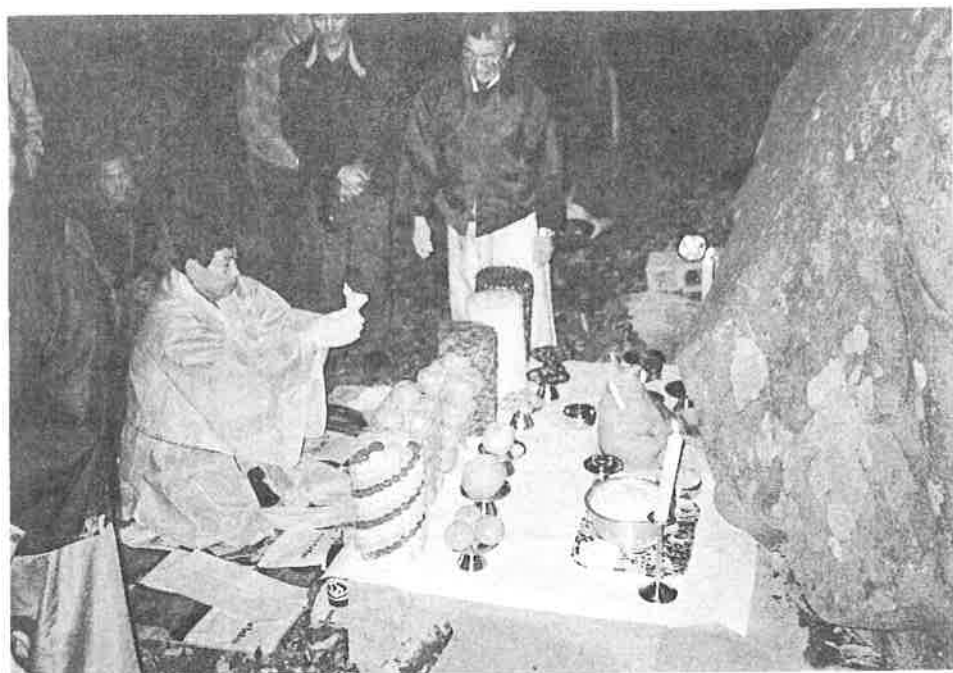
산제 지내는 바위(2002. 2. 11)



제물(2002. 2. 25)



산제(2002. 2. 25)



대동 소지(2002. 2. 25)



주민 소지(2002. 2. 25)



산제후 남겨놓은 제물(2002.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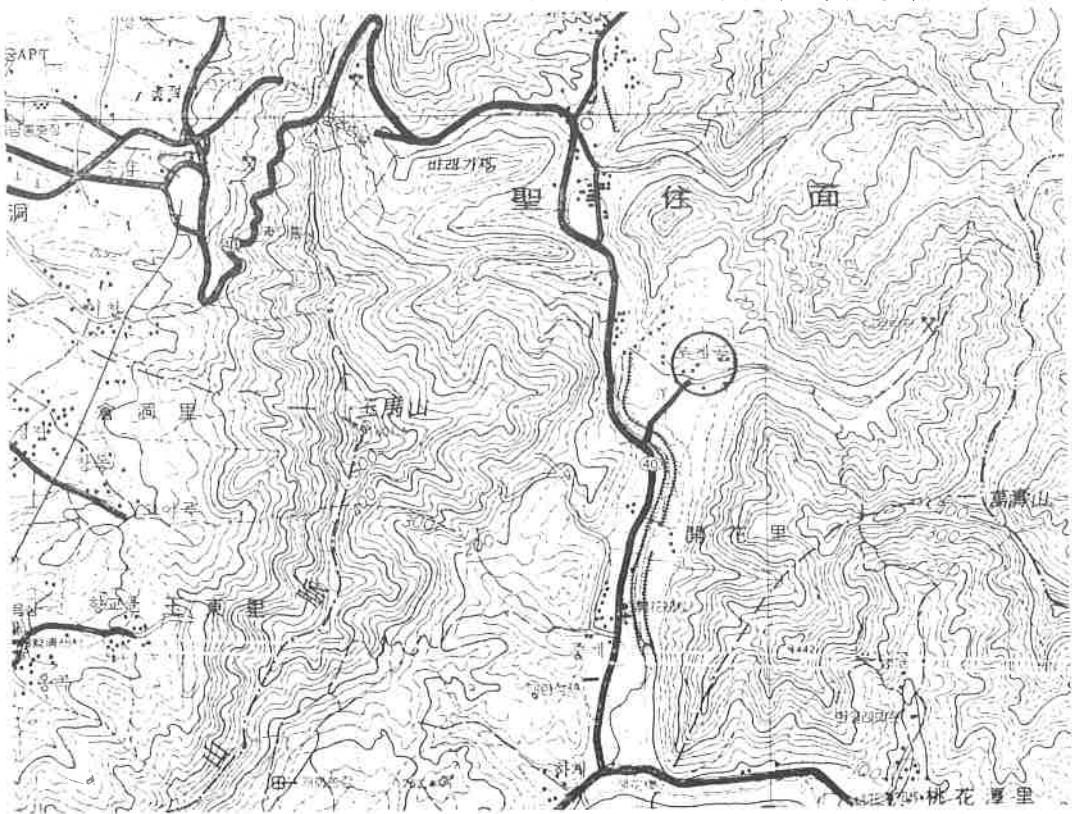
15. 지계굴 마을 동제(洞祭)

1. 마을의 개관

지계굴 마을은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석탄산업박물관 남동쪽에 있다. 마을 앞에는 성주천이 흐르고 마을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마을이다. 마을 앞의 성주천은 항상 많은 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 마을이 고립되었으나 근래 다리가 가설되었다.

마을 주변은 중생대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높은 산지이다. 석탄이 매장되어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석탄 광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30여 호가 농업을 하며 거주하였는데, 석탄 광산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조치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27가구가 거주한다.



지계굴 마을 지형도(1:50000)

과거에는 밀양 박씨 집성촌으로 30여 호 중 절반 가까이가 밀양 박씨였다. 밀양 박씨는 원래 예산군 운곡면 맛바위 마을에 거주하다가(제보자 박성의 씨의 7대조 이상) 광시면 소초정리로 이주하고(박성의 씨의 6대조) 다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박성의 씨의 5대조). 박성의 씨의 6대조는 아들을 3명 두었는데 한 아들은 현 개화 2리 개화내, 한 아들은 지계굴, 한 아들은 부여 임천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밀양 박씨가 이주해 온 지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아 오랜 집성촌은 아니다. 밀양 박씨가 들어오기 전에는 김해 김씨가 집성을 이루고 살았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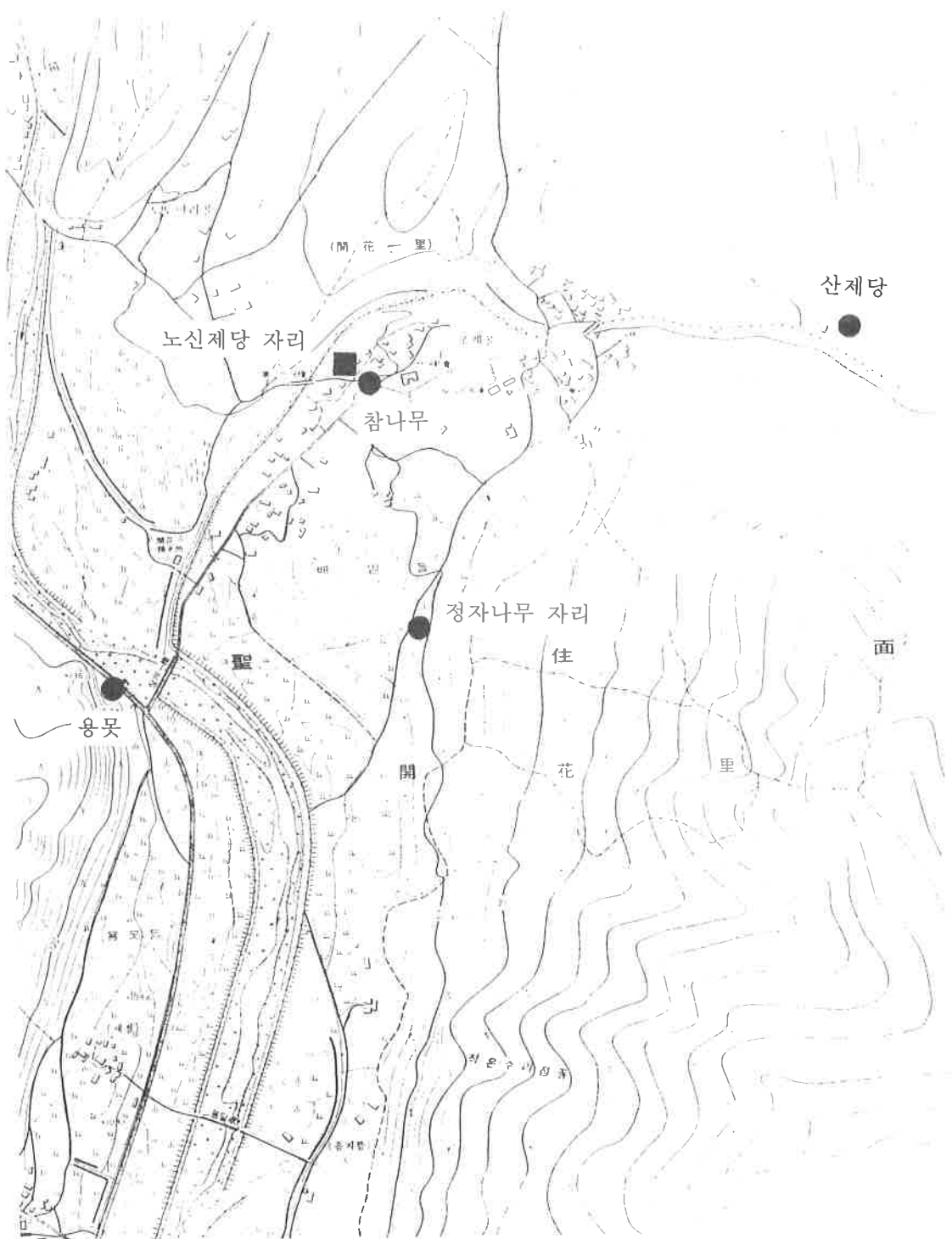
제보자인 박성의 씨의 家系와 墓 위치¹⁾

- 9대 朴來胄: 丁丑生(1577) 묘 충남 예산군 증곡리
- 8대 朴祉錫: 辛酉生(1621) 묘 충남 예산군 신양면 횡계리
- 7대 朴孝原: 庚子生(1660) 묘 충남 청양군 운곡면 원야광리
- 6대 朴宗台: 壬寅生(1722) 묘 충남 광시면 서초정리 고개동
- 5대 朴心煥: 戊戌生(1778) 묘 충남 보령시 성주면
- 4대 朴基學: 丙寅生(1806) 묘 충남 보령시 성주면
- 3대 朴壽鎭: 丙辰生(1856) 묘 충남 보령시 성주면
- 2대 朴永祿: 辛未生(1871) 묘 충남 보령시 성주면
- 1대 朴泰和: 辛亥生(1911)
- 본인 朴性儀: 戊寅生(1938)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127가구 대부분은 근래에 이주해 온 사람으로 여러 성씨가 섞여 있다. 또한 마을 안에는 교회가 있으며 교회에 다니는 가구는 약 30 가구이다.

마을의 토지는 23ha(논11ha, 밭 13ha)로 영세하며, 150여 마리의 소를 기른다.

1) 密陽朴氏奉禮公派譜에 의해 작성



지계굴 마을 지형도(1:5000×0.61)

2. 동제(洞祭)

1) 제의 준비

이 마을은 정월 보름날 낮에 동제를 올린다. 초사흘날 걸립을 하고 당주와 축관을 뽑는다. 옛날에는 걸립을 하면 상에 말을 올려놓고 쌀을 가득 담고 위에 촛불을 밝혀 놓았다가 내놓았다. 걸립꾼은 마당, 부엌, 장독대 등을 돌아다니며 풍물을 쳐 1년 동안의 안녕을 빈다. 이것을 ‘지덕누른다’라고 한다. 요즘은 풍물패가 마을을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돈으로 낸다. 걸립 액수는 약 100만원 정도 된다. 마을에 교회가 있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대개 걸립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사람은 ‘소지만 올리지 마라’고 부탁하고 걸립에 참여한다.

초사흘날 당주를 뽑으면 당주는 그날부터 목욕제계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당주네가 먹는 샘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금줄을 띠고 황토를 놓고 덮어놓았다. 그리고 당주는 매일 찬물로 목욕하였다. 제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갈 때는 대미보통²⁾에서 목욕하고 물건을 사올 때도 대미보통에서 목욕하였다. 요즘에는 샘에 금줄을 띠거나, 황토도 놓지 않고 목욕도 집에서 한다. 지금도 제관 축관은 매일 목욕한다. 초이레가 되면 술을 하는데 대략 5말 정도를 하였다. 옛날에는 술밥을 찼을 때, 술을 비벼넣을 때, 모두 샘을 품고 정성을 들이고 술독도 안방에 안치하였다. 일반인의 술 제조를 엄격히 금한 일제시대에도 당굿집에서 하는 술은 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요즘은 술은 하지 않는다. 또한 당주를 뽑기는 하지만 음식 준비는 마을 회관에서 한다. 대신 60세가 넘어 생리를 하지 않은 부인들 2명을 골라 품삷을 주고 음식 장만을 시킨다. 젊은 여자는 생리를 하여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에 필요한 물건은 제 며칠 전에 대천장에서 사온다. 걸립을 주관한 마을 이장 등 몇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당굿집에는 대문 앞에 마을 대동기를 꽂았다. 마을 대동기는 ‘農者天下之大本’³⁾기인데 기를 다는 대나무는 밑 직경이 15cm 정도, 높이가 10여m 된다. 깃대의 끝에는 꿩털로 만든 꿩장목을 꽂고 다음에 태극기, 그 다음에 마을 대동기를 꽂는다. 대동기는 모두 백색이다. 그리고 당굿집 앞에는 ‘禁’자가 새겨진 흰색의 작은 깃발을 세우고, 금줄을 띠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2) 마을 앞에 있는 보(深)

1998년까지는 당주집에 꽃았다고 하는데 1999년부터는 마을 회관에 대동기와 ‘禁’字기를 꽃는다. 대동기 등 기물의 보관도 과거에는 당췌집에서 하였으나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한다.

젯날 아침 10시쯤 되면 마을의 노인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이고, 풍물패도 마을 회관으로 모인다. 풍물은 젊은이들이 쳐야 하는데, 잘 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모두 노인들이 담당한다. 제에 사용될 음식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에서 지명된 아주머니 두 분이 준비한다. 3곳에 제를 지내기 때문에 음식을 3그릇에 담아 준비한다.

2) 남쪽 정자나무 자리에서의 거리제

맨 처음 마을의 남쪽, 옛날에 소나무가 있던 장승백이로 떠난다. 이곳에는 어른 세 아름쯤의 소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나무로 된 장승이 서 있었다. 소나무는 말라죽었고 장승도 35년 전부터 세우지 않아 없어졌으며 나무와 장승이 있던 자리는 현재 작은 논으로 변해 있다. 이곳은 마을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도로변으로 1998년 시멘트로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제를 지내는 장소는 더 넓게 돌출시켜 포장하였다.

옛날 장승은 정월 초에 소나무를 베어 나이가 가장 많은 총각을 시켜 깎았다. 장승을 깎으면 장가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장승의 얼굴을 만들려면 소나무 밑둥이 적당했기 때문에 밑둥이 장승의 얼굴로 되었다. 장승을 세우면 소나무를 거꾸로 세운 셈이다. 장승에는 ‘東南間逐鬼大將軍’이라고 썼다고 전한다. 미리 깎아 두었다가 정월 보름날 세우고 제를 올렸다고 한다. 장승 옆에는 길이 3m쯤 되는, 곧고 길게 자란 소나무를 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베어다 꽃았다고 한다.

1999년의 경우는 제물을 든 사람 3명이 먼저 떠나고, 풍물패를 앞세우고 제관과 축관이 따라가서 소나무가 서 있던 장소에 자리를 깔고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물은 맨 위쪽에 잔대와 잔 5개를 놓고, 다음 열에 두부와 쇠고기를 섞어 만든 탕 5그릇, 그 앞에는 두부 전 5접시,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귤감 각 한 접시를 놓는다. 제물이 진설되면 제관(당주)과 축관이 옆드리고 풍물은 그친다. 그리고 먼저 잔에 조금씩 술을 부어 가시어 버린다. 그리고 재배(再拜)하고 다음에는 잔에 가득 술을 부어 올리고 끓여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

세차기묘정월기해삭십오일기축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조계동
동부동남 도로지신왈 상하거인 감소고우
동부동남 상선촌리 일년사시 해원출근
유로탕원 불통원야 남녀로소 계존차로
조왕모귀 원유신명 묵우찬호 산마수요
함유사로 영래송거 이섭안행 문주불범
도사비유 풍도잠여 천음우습 유공객지
전도물침 전편구매 가금불상 위덕아흔
당도척사 축귀장군 천호만사 근이주과
피로자생 발고시회 운수무산 진사기사
상
향

維³⁾

歲次己卯正月己亥朔十五日己丑

忠淸南道 保寧市 聖住面 開花里 造溪洞
東部東南 道路之神曰 上下居人 敢昭告于
東部東南 上善村里 一年四時 解怨出勤
惟路蕩願 不通遠野 男女老少 繼存此路
朝往暮歸 願惟神明 默佑讚護 山魔水妖
咸有斯路 迎來送去 履攝安行 門住不犯
都事備留 風到潛與 天陰雨濕 有功客地
前道勿伋 轉便驅梅 苛禁不祥 위덕아흔
當到勅使 逐鬼將軍 千戶萬事 謹以酒果
被露自生 發臯時回 雲樹茂山 眞事祈祀
尙
響

3) 한글로 된 축문을 박정순 선생이 한자로 옮김

(번역문)

東部 西北方に 道路의 神靈이시어 上下 洞里 住民들은 敢히 밝혀 告하나이다. 東部 西北쪽 上善 마을이 一年 四時에 원망 없이 出勤함은 오직 이 길이 蕩原함이라. 原野에 不通이나 男女老少가 이어 이 길이 있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니 원컨대 오직 神明이시어 默祐하고 讚護하사 山魔와 水妖도 다 이 길이 있어 來者는 迎入하고 去者는 護送하야 길을 踐踏하고 편이 往來하며 門前에 住留하는 悲運은 犯치 못하게 하며 吉事가 갖추어 있게 하고 豊富함이 다같이 있게 하고 큰 雨露의 德이 훈훈하며 客地에도 功名이 있게 하여 前道에 침체됨이 없게 하며 모든 惡性을 遠方으로 驅逐하며 不祥事는 엄금케 하야 마땅히 貴客이 이르게 하고 逐鬼將軍은 千戶萬事를 영원히 保佑하시기를 삼가 酒果로써 훈감함이 스스로 나게 하고 好澤을 發하야 時時로 回施하고 樹木은 雲長하고 山色은 茂盛하기를 참으로 기도하오니 翕향하소서

上善: 가장 뛰어난 선

轉便驅梅: 모든 악성을 먼데로 구축함

苛禁不祥: 상스럽지 못한 것은 엄금함

蕩原: 넓고 견고함 (박정순 역)

축문은 원래 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한자를 읽기 어려워 한글로 써 읽다가 한자로 쓴 것을 잃어버려 한글로 된 것만 남아 있다.

축 읽는 것이 끝나면 두 번 절한다. 다음은 풍물꾼 중 징잡이가 징을 높이 쳐들고 힘차게 세 번 친다. 이어서 제관이 퇴주 그릇에 명태포의 대가리, 밤, 대추, 꽃감 몇 개를 담고 술을 몇 잔 부어 남쪽을 향해 뿌리면서 “객귀는 물러가라”고 소리친다. 다음에 제관과 주변에 있던 풍물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음복을 한다.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이어서 다음 제 지내는 곳으로 향한다.

3)마을 안 참나무 밑에서의 거리제

마을 남쪽 소나무와 장승이 있던 곳에서 제가 끝나면 풍물을 치면서 마을 가운데에 있는 참나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 참나무는 크기가 두 아름 되는 것으로 옛날에는 장승, 소나무 한 그루와 팽나무 한 그루도 함께 있었으나 소나무와 참나무는 도로를 넓히느라 뿌리를 끊어 죽어 없어졌다.

참나무는 가지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마을에 처음으로 이주한 밀양 박씨가 작대기로 알맞아 베어 쓰려다가 남겨 놓은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장승은 마을 남쪽의 정자나무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초(정월 12-13일)에 소나무를 베어 나이 많은 총각이 깎아 놓았다가 정월 보름날 제 지내기 전에 세웠다. 이곳의 장승은 西北間逐鬼大將軍이라고 써어 있었다고 전한다.⁴⁾ 장승은 2개였고 장승 옆에는 밋밋하게 자란 1길 반쯤 되는 소나무를 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세워 놓았다고 전한다.

이곳에도 마을 남쪽 소나무 있던 자리에서의 거리제와 똑같은 제물을 차리고 똑같이 제를 올린다. 축문도 똑 같은데 다만 東部東南 대신 東部西北이라고만 바꾸어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두 번 절하고 징잡이가 징을 크게 세 번 친다. 이때 마을의 노인이 돈 10000원을 과일 접시 밑에 넣고 절을 하여 기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전에는 제를 마친 후 명태 대가리와 대추, 밤, 꽃감 몇 개를 백지에 싸 참나무 가지 위에 올려놓았었다고 하는데 1999년에는 마을 남쪽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주그릇에 술과 섞어 서북쪽을 향해 뿌렸다. 제를 마치면 풍물패는 흥겹게 풍물을 친 후 산제당으로 향한다.

4) 산제

산제당에 도착하면 풍물꾼이 한바탕 풍물을 치고 이어서 제관과 축관이 제를 준비한다. 산제당은 제 전날 모두 청소를 해 놓는다.

산제당은 슬레이트 1칸의 집으로 1965년경 새로 지었다. 과거에는 마을 가운데 제를 지내는 참나무 옆(도로 북쪽으로 20여m에 돌로 쌓은 노신제당(路神祭堂)이 있었다. 이 노신제당(路神祭堂)은 2×2.5m쯤 되는 것으로 3방향을 돌로 쌓고(한 길 정도), 안에 제단을 무릎 높이로 만들었다. 제단의 방향은 마을 북동쪽에 있는 뽕죽한 산 정상이었다. 이 제당 주변은 하천 주변으로 '묵밭'으로 불리는 황무지였으나 광산 개발로 주택이 들어서 지저분하여 1965년 경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의 산제당 위치는 마을 동쪽 골짜기 입구의 양지바른 곳이다.

4. 37년전에 장승을 만든 한길희(67)씨 증언, 당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총각이었었다고 한다.(1999년 조사)

산제당의 동쪽(문의 맞은 쪽)에는 산신도가 그려져 있다. 10여 년 전에 그렸다고 한다. 시멘트 벽에 천을 붙이고, 천에 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다. 산신은 호랑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이다. 주변에는 학, 소나무 등 십장생과 동자(童子) 등이 그려져 있다. 산신도의 밑에는 시멘트로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앞에는 제 지내는 공간이다.

제단에 백지를 깔고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마을 안의 정자나무 있던 곳에서 지내던 것과 비슷한데 단지 돼지머리, 떡, 밥, 다시마, 김 등의 제물이 추가되었다. 떡은 3되 3홉을 하는데 백무리⁵⁾로 찢는다. 시루 안에 작은 그릇에 쌀을 담고 그 속에 등잔을 넣어 불을 켜다. 등잔은 종지에 참기름을 넣고, 심지를 세워 만든다. 밥은 1되 3홉을 한다. 떡, 밥 모두 옛날에는 당춥집에서 만들어 왔고,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만들어 온다.

이곳에서도 술잔 5개, 탕 5그릇, 두부전 5그릇이 사용되었다.

제는 제관과 축관이 참여하고 풍물꾼 등 주민은 산제당 밑에서 기다린다. 제의 순서는 먼저 분향하고 재배하며, 술잔에 술을 조금씩 부어 가시어 버리고 재배한다. 이어서 잔에 가득 술을 따르고 제관은 앞드리고 축관은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

세차병자정월경인삭십오일경자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조계동

상하거인 감소고우

오방토지지신왕 천하유 천하지오방 일국유 일국지오방

일읍지오방 일촌유 일촌지오방

유자동부 원유오방 동서남북 중앙지지신 차제강림 음차명리

북이동방청용 청제지지신

주춘삼삭 인갑묘을 손목왕생 물지기이 사차촌인 춘삼삭

태평안락언 남방수작적제지지신

주하삼삭 사병오정 곤과왕장 물지기이 사차촌인 하삼삭

왕하강영언 서방백호 백제지지신

5) 쌀가루로만 만든 흰색의 떡

주추삼삭 신경유신 건금왕생 물지기이 사차촌인 추삼삭
 풍양일예(성숙)언 북방현무 흑제지지신
 주동삼삭 해임자계 감수왕장 물지기이 사차촌인 동삼삭
 실처포난 중앙후토 황제지지신
 주사계 진술축미 곤간토왕 물지기이 검통사서 위육만물
 사차촌인 일년십이월 안락강영언
 인인장수 가가부요 무자자유자 무손자유손 병자험차
 수화도적 지액관재 구설지액
 동토장목 지액년액 월액일액 시액소멸 소제 신수농수재수대통이
 당상상황
 서왕지기 퇴청대풍 물침물범 산마수요 천음비괴 우습음사 횡사유혼
 동여염기 풍도전편 속참질구 보우일촌 기애가명 신뢰오방지지신
 지유사 근이청작 서수진 기 상
 향

維6)

歲次丙子正月庚寅朔十五日庚子
 忠淸南道 保寧郡 聖州面 開花里 造溪洞
 上下居人 敢昭告于
 五方土地之神曰 天下有 天下之五方 一國有 一國之五方
 一邑之五方 一村有 一村之五方
 惟自東部 元有五方 東西南北 中央地之神 此際降臨 陰此明里
 北以東方青龍 青帝地之神
 主春三朔 寅甲卯乙 巽木旺生 物地祇以 斯此村人 春三朔
 太平安樂焉 南方燧灼赤帝地之神
 主夏三朔 巳丙午丁 坤坡旺長 物地祇以 斯此村人 夏三朔
 旺下降靈焉 西方白虎 白帝地之神
 主秋三朔 申庚酉辛 乾金旺生 物地祇以 斯此村人 秋三朔
 豐糧일예(成熟)焉 北方玄武 黑帝地之神

6) 박정순 선생이 한자로 옮김

主冬三朔 亥壬子癸 坎水旺長 物地祇以 斯此村人 冬三朔

室處胞煖 中央后土 黃帝地之神

主四季 辰戌丑未 坤艮土旺 物地祇以 兼通四書 爲育萬物

斯此村人 一年十二月 安樂康寧焉

人人長壽 家家富饒 無子者有子 無孫者有孫 病者驗差 水火盜賊

地厄官災 口說之厄

動土長木 支厄年厄 月厄日厄 時厄消滅 消除 身數農數財數大通耳

堂上城皇

西王之氣 退請大風 勿沉勿犯 山魔水妖 川蔭非壤 雨濕陰事 橫事流昏

洞閭艷氣 風到箋便 速僭疾求 保佑一村 其愛嘉名 信賴五方地之神

地有司 謹以清酌 庶羞陳 祈 尙

饗

(번역문)

上下洞에 居住하는 洞民들은 감히 五方土地神靈에게 고하나이다.

天下는 天下의 五方이 있고 一國은 一國의 五方과 一邑의 五方이 있고 一村은 一村의 五方이 있음이라.

오직 東部로부터 五方이 있으니 東西南北과 中央의 신령이시어 此際에 降臨하사 그윽한 이 明里에 東方靑龍으로써 靑帝의 神靈은 春三月의 主이시니 寅甲卯乙이며 巽木이 旺生함이니 萬物之神과 土地之神이여 이 마을 주민들이 春三月에 太平安樂케 하소서.

南方에 燧灼이신 赤帝之神은 夏三月의 主이시니 巳丙午丁이며 坤坡旺生함이니 萬物之神과 土地之神이여 이 마을 住民들 夏三月의 幸運에 降靈하소서.

西方의 白虎이신 白帝之神은 秋三月에 主이시고 申庚酉辛이며 乾金이 旺生함이니 萬物之神과 土地之神이시여 이 마을 주민들이 秋三月에 豐糧成熟케 하소서

北方의 玄武이신 黑帝之神은 冬三月에 主이시고 亥壬子癸이며 坎水가 旺長함이니 萬物之神과 土地之神은 이 마을 주민들의 室處가 胞煖케 하소서

中央의 后土 黃帝之神이여 四季節의 主이시고 辰戌丑未며 坤艮土旺이니 萬物之神과 土地之神이여 四書를 兼通하고 萬物을 爲育하사 이 마을 주민들의 一年十二月에 安樂과 康寧케하시고 사람마다 長壽하고 집집마다 婦謠하며 無子者는 有子하고 無孫子는 有孫하며 病苦者는 快癒하며 水災 火災 盜賊 地厄

官災 口說之厄 動土厄 伐木厄 地厄 年厄 月厄 日厄 時厄을 消滅 消除하옵시고
 身數 農數 財數 大通하옵시고, 堂上과 城皇과 西王의 氣力으로 太風을 退請케
 하옵시고 勿沉 勿犯하며 山魔水妖가 川蔭하야 崩壞치 않게 하고 雨濕(장마)과
 陰事며 不吉한 일은 遠方에 流散케하고 洞里에 艷厭한 氣運은 風前에 紙葉과
 같이하고 僭疾을 속히 救濟하야 一村을 保佑하사 그 嘉名을 愛護하시고 五方
 之神을 信賴케 하시기를 地有司는 삼가 淸酌과 모든 飲食을 차려 비오니 homolog
 하소서

物地祇以: 만물지신과 토지지신

動土長木: 동토살과 벌목살

堂上: 당집에 모신 신령

城皇: 성황당

西王: 중국 고사에 있는 위력이 큰 령신

艷氣: 피부에 나타나는 유행병 즉 홍역과 손님(천연두) 따위

僭疾: 내부에 전염하는 유행병 즉 설사나 이질 따위

川陰: 천수가 범람함 (박정순 역)

축문은 원래 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한자를 읽기 어려워 한글로
 써 읽다가 한자로 쓴 것을 잃어버려 한글로 된 것만 남아있다.

독축이 끝나면 재배를 하고 대추, 밤, 꽃감, 명태대加里, 떡 조각을 백지에 싸
 서 산제당 옆 산에다 던진다.

이어서 산제당 안에서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제관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축원하는 말과 함께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마을 가가호호의 개인
 소지를 올린다. 개인 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한 사람이 명단을 불러주고 마
 을 주민들 몇 명이 더 들어와 소지를 올린다.

제를 지내기 위해 이동 중에는 언제나 풍물을 올리고 제 장소에 도착해서도
 흥겹게 풍물을 올린다. 제 도중에는 풍물을 그치고 제가 끝나면 다시 시작하
 다.

소지를 올린 후에는 음복을 하고 마을 회관으로 내려와 점심을 먹는다. 제
 는 10시쯤에 시작해서 12시 30분쯤 끝나는 셈이다.

5) 제의 끝냄

점심은 회관에서 준비하는데 마을에서 선출된 아주머니들이 준비한다. 1999년의 경우는 쇠머리를 사다 삶아 국밥을 준비하였다.

제 다음날 즉 정월 열 엿새날은 마을 회관에서 마을 총회를 하여 제 비용을 결산한다. 이때 남은 비용은 마을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

도움말 주신 분

박승만(65) 미산면 개화리 68

문무옥(66) 미산면 개화리 산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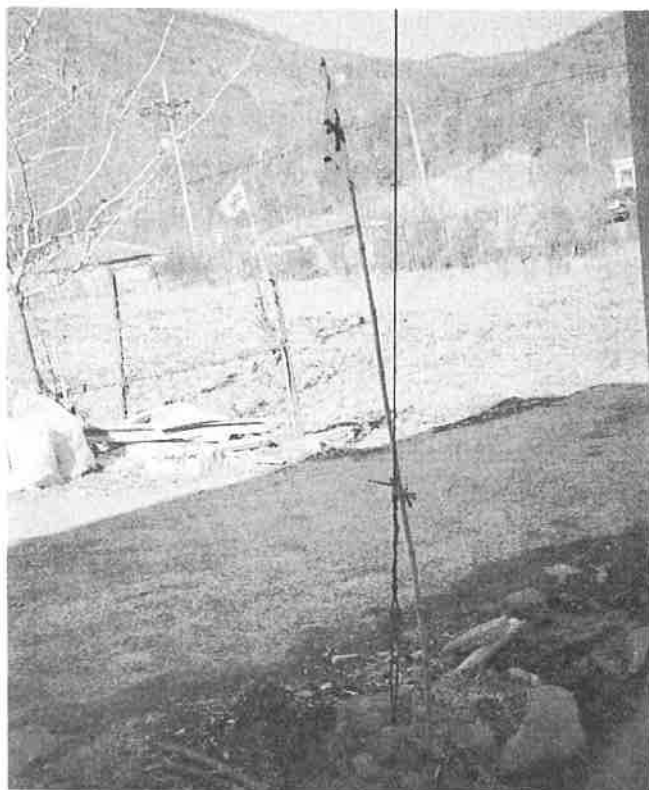
한길희(67) 미산면 개화리 52

유문식(76) 미산면 개화리 94

박성익(62) 미산면 개화리 39



마을 회관 앞에 대동기 세운 모습(1999. 3. 2)



마을 회관 입구에 '禁'字旗 세운 모습(1999.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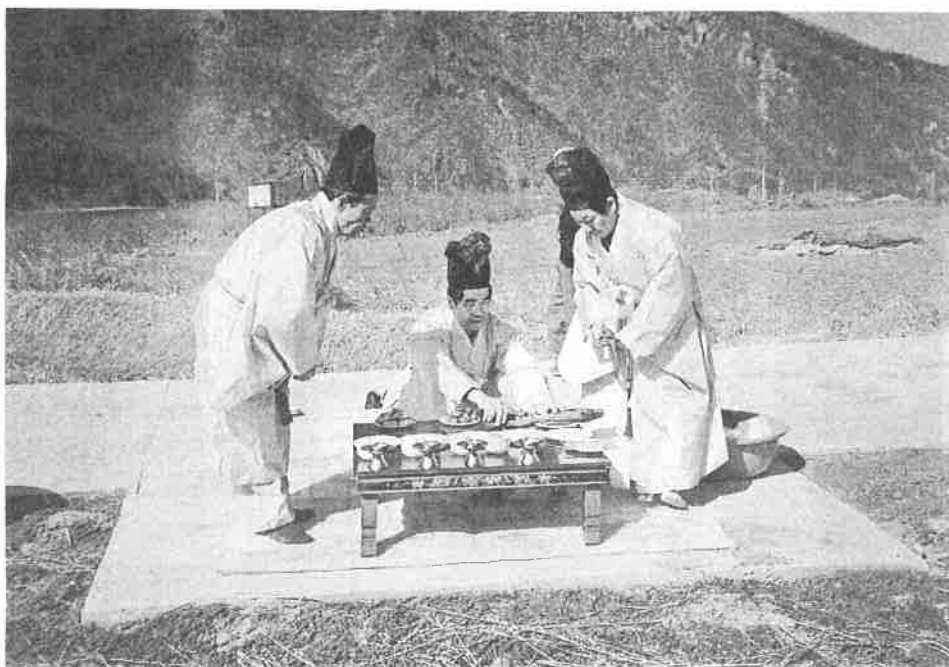
고깔 접는 모습(1999.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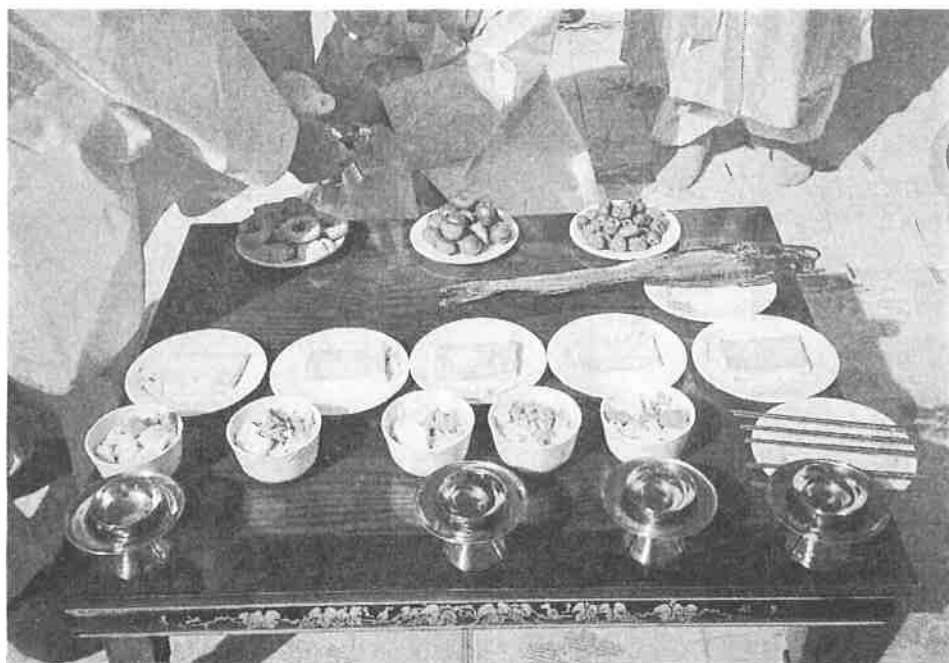
거리제 장소로 재물을 들고 가는 모습(1999. 3. 2)



거리제 장소로 행진하는 모습(1999.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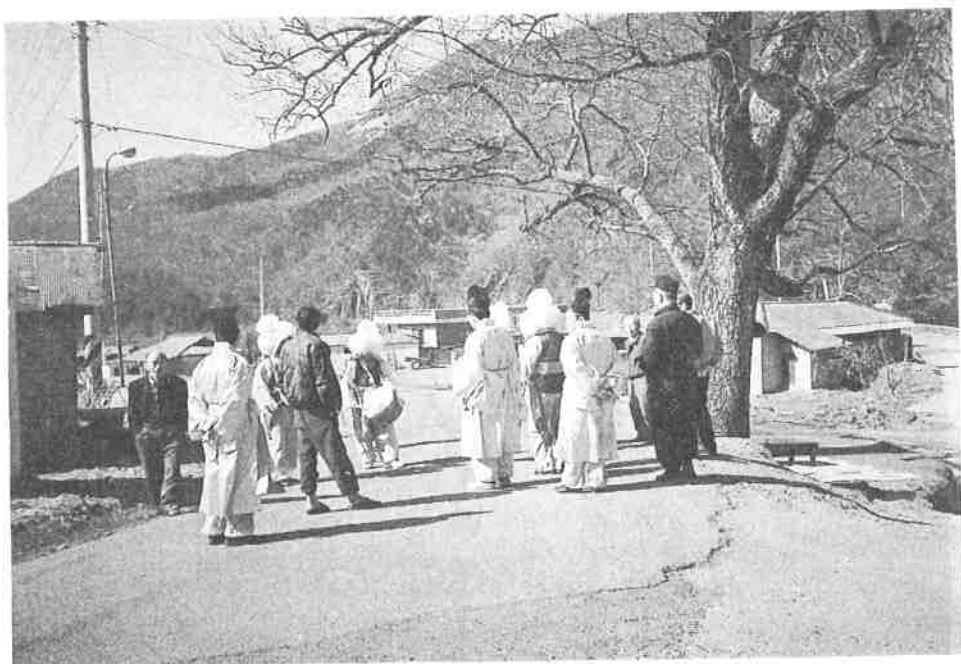
마을 남쪽 소나무 있던 곳에서 거리제 모습(1999. 3. 2)



거리제 제물의 모습(1999. 3. 2)



제를 마친 후 몇 가지 제물을 섞는 모습(1999.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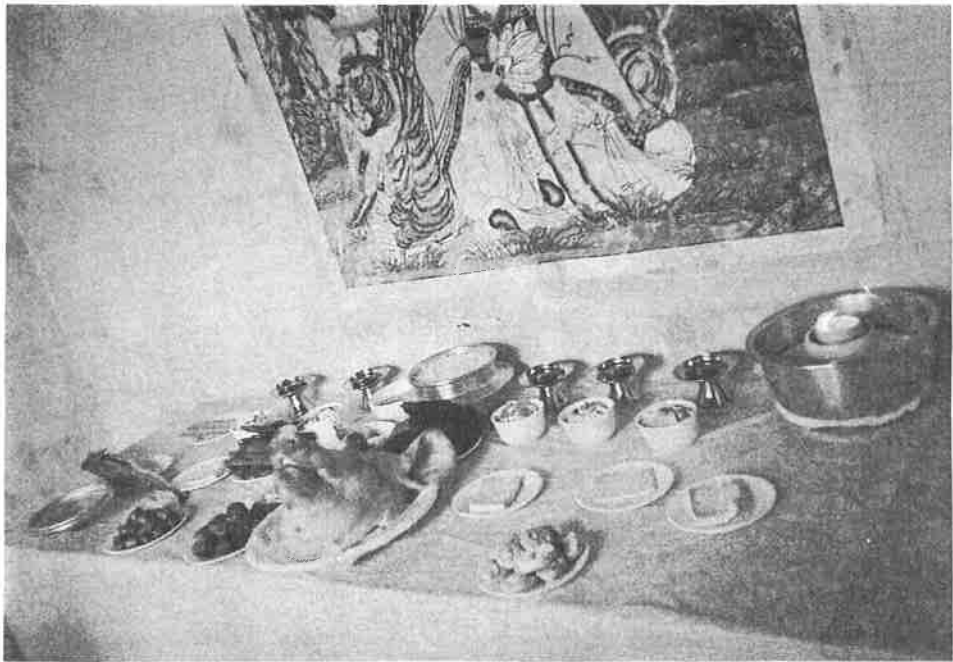
마을 가운데 참나무 있는 곳에서 제를 준비하는 모습(1999.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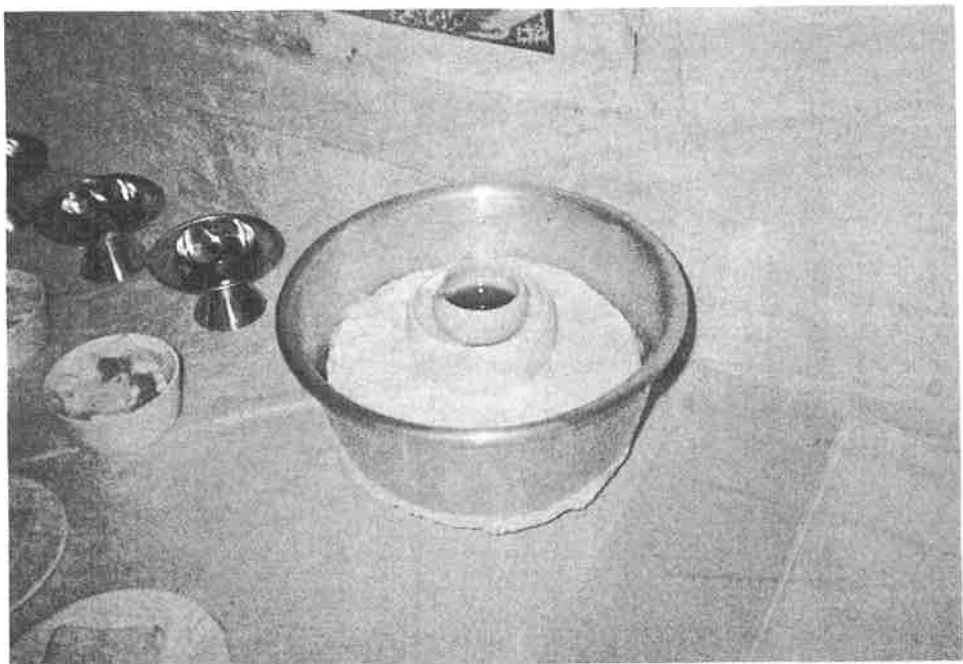
산제당(1999.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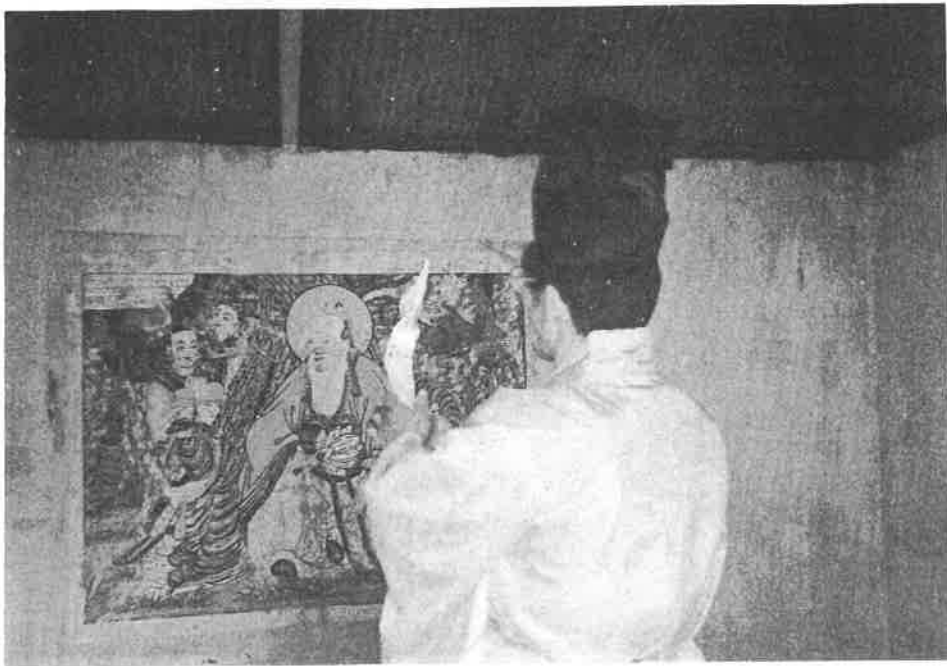
산제당에 걸려있는 산신도(1999. 3. 2)



산제당에 제물을 진설한 모습(1999. 3. 2)



떡시루 안의 등잔(1999. 3. 2)



산제당에서 소치올리는 모습(1999. 3. 2)



산제당에서 제를 알리는 징 치는 모습(1999. 3. 2)

16. 지석굴 마을 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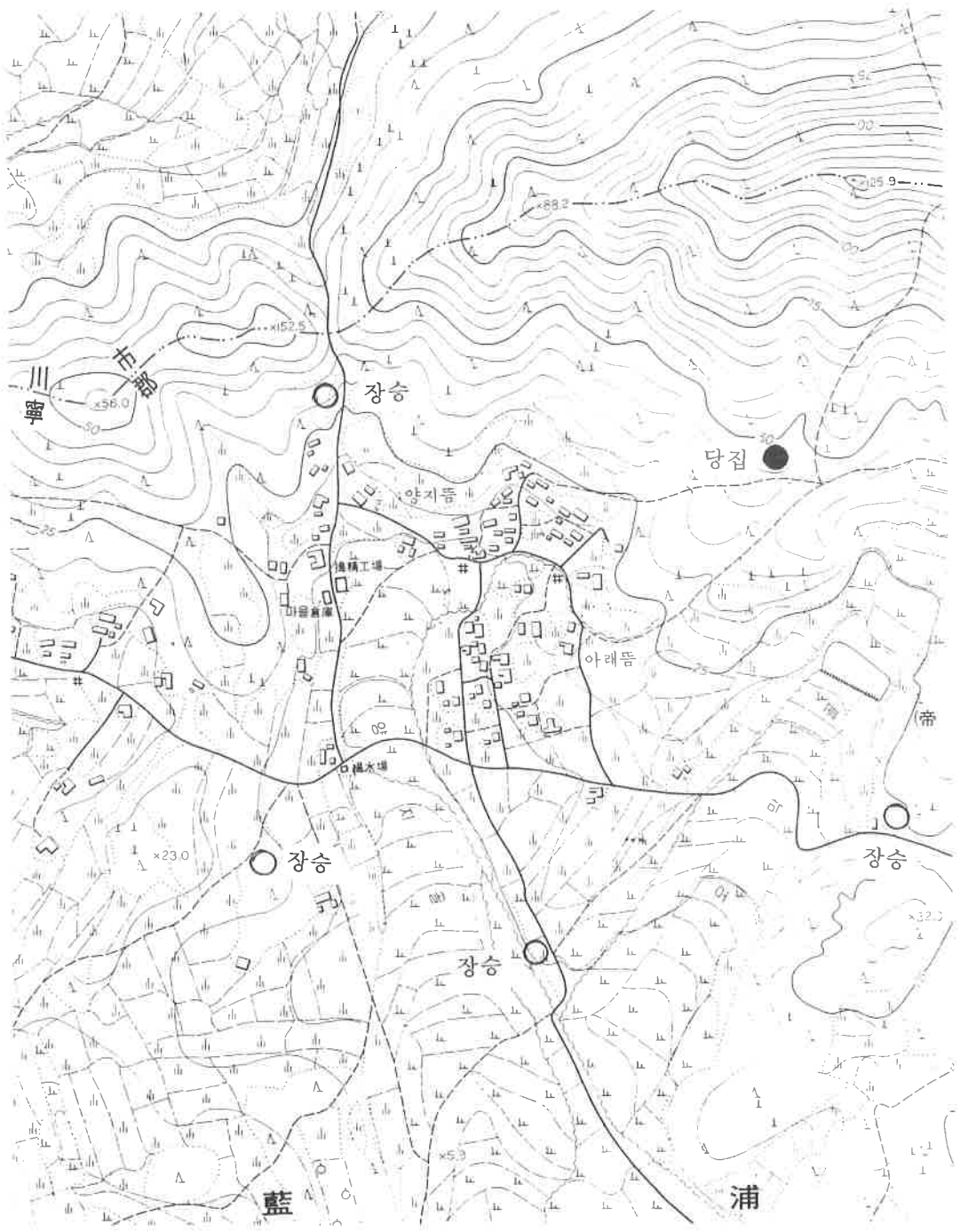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 마을은 대천해수욕장으로 통하는 36번 도로변 뒷굴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1km쯤 들어가면 나타나는 마을이다. 제석리의 맨 서쪽 부분에 있어 삼현리와 접경을 이룬다. 마을 주변은 비교적 넓은 계곡과 낮은 구릉이 있어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 왔다. 1968년경 삼현리 조잡과 밤섬을 잇는 제방이 완공된 뒤로는 마을 앞에 넓은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철도와 국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간척지로 둘러싸인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다.



지석굴 마을 지형도(1:50000)



지석굴 마을 지형도(1:5000×0.82)

현재 마을에는 62가구가 거주하는데 모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약 80%가 경주 정씨이다. 경주 정씨는 제보자인 정신훈씨의 13대조¹⁾ 할아버지가 300여 년 전 이곳에 정착했으며 묘도 이곳에 있다고 한다.

2. 동제의 유래²⁾

지석굴 마을에는 동제의 유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전설이 있다.

약 200여 년 전³⁾ 지석굴에 사는 金局西⁴⁾의 꿈에 상자가 나타났고, 바닷가에 독살 물보러 갔다가 떠밀린 상자를 발견하여⁵⁾ 집으로 가져왔다. 상자에는 경순왕의 위패, 왕기, 그릇 등이 들어있었다. 이것을 자기 집 사랑방에 모시고 단독으로 정월 보름날 정성껏 제를 모셨다.

상자에서 나온 유물을 모신 후 집안이 잘 되자 마을에서는 개인적으로 모시지 말고 마을에 당집을 짓고 위하자고 하여 마을 뒷산 7부 능선에 당집을 짓고 모시게 되었다.

처음의 당집은 1.5평 규모로 벽은 돌로 둥그렇게 쌓고, 지붕은 짚으로 이었으며 문은 쌍여닫이였다.

당집 안의 3벽에는 납작한 돌로 단을 만들어 위패를 모시고 제물을 진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신훈 씨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鄭信薰(1958년생)-東炫(1928년생)-順海(癸卯生)-達文()-敬琢(辛未生)-준성(戊戌生 묘 仰洞先塋局)-時雨(甲戌生 묘 帝釋里 仰洞)-德萬(丁酉生 묘 帝釋里 望洞)-貴榮(? 帝釋里 先塋)-立(묘 祖考階下)-承俊(묘 先考左岡)-支業(묘 帝釋里 仰洞)-大化(묘 藍浦面 三賢里 後洞)-濮(묘 龍仁 東面 屈岩)-邦정(묘 安城 靑龍)-欽(묘 ?)-之智(묘 陽川 齋宮洞)-吉祥(恭愍王 丁未 묘 陽川 齋宮洞)

2) 주민의 증언과

대천문화원, 1988, 愛鄉.

보령시, 1998, 保寧의 地名에서 정리

3) 주민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나 상자를 발견한 김국서의 아들 김정신이 1870년 생이므로 약 130년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金學文(1928년생)-金商根(광무6년=1902년생)-金正信(개국479년생=1870년생)-金局西(출생연대 미상): 김학문, 김상근, 김정신의 제적부에 의함, 일제시대 초 작성된 최초의 호주인 김정신의 주소는 보령군 남포면 제석리 614번지 임.

5) 「愛鄉」에서는 200여 년 전 옥마산에 있던 사당 건물이 유실될 때 같이 유실되어 떠밀린 것으로 추정

원래 위패는 3개 있었는데 가운데 벽에는 「山神國師神位」 왼쪽 벽에는 「金傳大王神位」라고 쓴 위패를 모셨으며 오른쪽 벽에는 「日月星辰」이라고 쓴 위패를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경순왕의 위패를 모신 후 마을이 부자 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며 소홀히 모시면 재앙이 뒤따른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1988년 당집을 헐고 그 자리에 보령시 예산 2600만원을 들여 5평의 기와지붕 건물과 담장을 완성하고 위패 등 유물을 봉안하였다. 당집의 규모는 커졌으나 예전과 같이 선반을 만들고 위패를 그대로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경순왕경모전(敬慕殿)이란 현판을 붙였다. 옮겨진 유물은 다음과 같다.⁶⁾

敬順王旗 1점(170여 년 전 추정)

敬順王 位牌(")

祭器 11점(조선시대 사기류)

王旗 保管 箱子(150여 년 전 추정)

현재 위패 3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민들은 원래 그대로라고 하나 위패의 상태가 아주 양호한 점, 위패의 글씨가 졸렬하게 씌어진 점, 위패의 받침대에 잘 쓴 붓글씨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언젠가 위패를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祭器 11점 중 1개만이 깨져 경모전 밖에 버려져 있고 10개가 보관되어 있다.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한다.

경순왕 왕기는 가로 2m 세로 4m로 상당히 낫았다. 위쪽에 가로로 「朝鮮國」 세로로 「湖西玉馬山金傳大王之旗」라고 씌어 있다. 이 왕기와 함께 있는 판자에는 「道光十二年壬寅九月初吉日金傳大王之旗改件 民國초길일노당너리게하라」라 기록하여 왕기가 道光 12년(1832) 개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로 깃발의 꼭대기에 달았던 꿩털 묶음과 방울이 그대로 남아있다.

6) 대천문화원, 1988, 愛鄉, P82.에 의함

3. 1930년대의 동제

1)당기 내리기

지석굴 마을의 동제는 노인들이 기억하는 것과 현재의 모습이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따라서 1930년대의 동제와 근래의 동제로 나누어 기술한다.

1930년대에는 정월 초삼일 기 내려오는 것부터 제 의식이 시작되었다. 정월 초에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뽑았다. 당주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양태인 씨라고 한다. 그는 시조를 잘 했고 한문을 잘 알았으며 부인도 정성껏 당을 모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정월 초사흘이 되면 마을 남자들 30여 명이 큰 대나무를 떼고 풍물을 치면서, 물과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당집에 올라가 청소를 말끔히 한다. 이어서 위패 앞에 술을 한 잔씩 부어 올린다. 그리고 당기(金傳大王旗)와 방울, 평털을 꺼내 대나무에 달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내려와 당굿집에 쫓는다(이 당기를 서낭님이라고도 함). 대나무와 당기가 너무 커 광목으로 여러 줄을 매어 당겨 묶고 밑에는 두꺼운 판자를 받쳐놓았다.

당굿집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았으며 젊은 여자들은 생리의 부정 때문에 얼씬도 못하고 마을의 남자 노인들이 매일 상주하여 당기를 지켰으며, 당주는 매일 당샘에 가서 목욕하고 일체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마을에서는 개인적으로 떡을 해다 당기 앞에 놓고 집안이 잘되게 해달라고 위하기도 했다. 당굿집에는 마을의 어른들이 언제나 상주하기 때문에 술이 끊어지지 않았고 언제나 불을 켜 놓았다고 한다. 또한 당주는 일년 동안 마을에 초상이 나도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정월 초사흘 안에 초상이 나서 부정하면 당기 내리는 날을 연기하였으며 일단 내려온 뒤에 초상이 나면 그대로 진행하였다.

2)결립

이어서 결립에 들어가는데 결립할 때에는 당기를 마을 가운데 대동샘 옆에 있는 마을 소유의 공터인 「거리청8」에 세워놓고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면서

7) 20여년전 75세로 사망

8) 마을 대동샘 옆에 있는 공터로 지금도 마을 소유임

걸립하였다. 이때 거리청에는 큰 채알⁹⁾을 쳐놓았다. 풍물패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면 어떤 집은 술과 먹을 것을 내어주고 상 위에 쌀을 올려놓고 촛불을 켜 「불바지쌀」을 내어놓았다. 쌀을 2~3말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벼를 내놓는 사람도 있었으며 돈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부잣집에서는 풍물을 더 치고 흥을 돋우면 많은 쌀을 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2~3일 걸립을 하면 쌀로 5~6가마 모을 수가 있었다.

3)당제 지내는 날 잡기

거리청에서 당기(서낭님이라고도 함)를 세우고 풍물을 쳐 당기가 올라가는 날을 잡았다. 장정이 당기를 세워 잡고 풍물패가 흥겹게 풍물을 치면 당기가 흔들리는데 “이렛날 올라갈까요” 하고 풍물을 쳐 당기가 응답하면(흔들리면) 이렛날 올라가고 “열 나흔날 올라갈까요” 하고 쳐 응답하면(흔들리면) 열 나흔날 올라갔다. 대개는 열 나흔날 저녁에 올라갔다. 당기가 오르는 날이 바로 당제 지내는 날이다.

4)당제 준비

당제 전날이 되면 거리청에서 소를 잡았었으나¹⁰⁾ 1940년대부터는 돼지를 잡았다. 그리고 당굿집에 마을의 부인들이 모여서 모든 제물을 장만하였다. 술은 미리 여러 항아리에 담가 놓았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밥상을 모아 제물을 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상 위의 제물은 백지에 글씨를 써 썼으며¹¹⁾ 상이 바뀌지 말라고 바닥에 주인 이름을 썼다.

5)오방돌기

오방돌기는 풍물을 치면서 당기를 들고 당제에 쓸 제물이 놓여진 상을 머리

9) 차일을 보령 지방에서는 채알이라고 부름

10) 도움말 주신 김영래(81)씨는 소잡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그의 부인 김영주(75)씨는 55년 전에 시집왔으나 소잡는 것은 보지 못하고 돼지 잡는 것만 보았다고 함. 따라서 1930년 대에는 소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됨.

11) 당집에서 제를 올릴 때 여러 상을 차렸으므로 어떤 제물인지를 표시하기 위함으로 보임.

에 이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다. 쇠머리와 네 다리, 간, 처넙 등을 백지에 싸고 떡시루 등 일체의 제물도 백지에 싸서 상에 올려놓은 채 머리에 이고 당기를 따라 마을을 도는 것이다. 상을 머리 위에 인 행렬이 20여 명 되어 장관을 이루었다. 먼저 당굿집을 출발하여 대동샘을 한 바퀴 돌고, 거리청에서 한참 논 다음, 4군데의 장승(장서낭, 도둑재, 상구집께¹²⁾, 망굴재)과 당샘을 거쳐 당집으로 오르는 것이다. 60여 년 전 장승이 없어진 뒤로는 대동샘과 당샘만 돌아왔다.

오방돌기가 없어진 것은 20여 년 전이다.

6)당제

오방돌기가 끝나면 밤 10시쯤 당집에 도착한다. 풍물패와 함께 당집에 도착하면 먼저 당집 앞에 당기를 세우고, 불을 피우며 제물을 만든다. 당시에는 녹음(밥), 탕 등 제물을 당집에서 익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어서 제물을 진설하는데 제물을 진설하는 곳은 당집의 문 앞, 당집 안의 문 맞은편, 당집 안의 좌측, 당집 안의 우측, 당집 밖 바위 있는 곳이다. 제물을 진설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물이 필요하였고 섞이지 않도록 백지에 싸고 글씨를 써 가져왔다.

이때 쇠머리는 가운데 「山神國師 神位」 앞에 놓고, 다리는 두 개씩 「金傳大王神位」와 「日月星辰」 위패 앞에 놓았다. 쇠머리, 쇠다리, 처넙, 간 등은 모두 생으로 사용하였다.

술잔은 각 상마다 1개씩 놓았으며 3배를 올렸다고 한다.

이어서 현재처럼 소지를 올리고 음복을 하고 내려왔는데 마을에 내려오면 새벽 3~4시쯤 되었다고 한다.

7)장승제

지석굴 마을에는 장서낭 밑, 도둑재, 상구집께, 망굴재 등 4군데에 장승이 있었다.

장서낭은 지석굴에서 요암동을 통하여 대천시장으로 가는 고개 위에 있는데

12) 상여집 옆이다. 상여집을 상구집이라고 불렀다.

큰 바위와 아름드리 소나무와 팽나무가 현재도 있다. 돌무더기도 크게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 때 도로공사에 사용되었다. 장승은 장서낭의 안쪽 즉, 마을 쪽 30여m 지점에 있었다.

도둑재 장승은 삼현리 조잡으로 통하는 낮은 언덕인 도둑재 안쪽에 있었다. 현재의 소나무숲 옆이다.

상구집계 장승은 현재도 있는 상엿집 옆에 있었는데 마을 쪽으로 세워 상여집이 장승의 밖에 위치하게 하였다.

망굴재 장승은 망굴재의 안쪽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장승이 고개의 ‘안팎’에 있었다고 표현한다.

장승제는 「당골」이라고 부르는 무속인이 주관하였고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무속인 부부가 살아 마을일을 많이 하였으며 마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제상은 삼색실과, 고기, 떡 등을 사용하였으며 풍물패와 함께 제를 지냈고 마을 어린이들이 제 음식을 먹으려고 모였었다. 제의 끝에는 소지를 올렸다.

81세 된 김영래 할아버지도 장승을 세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검게 변색된 장승에 제를 올리는 것만 보았다고 한다. 시집은 지 55년 되는 김영주 할머니가 장승과 장승제를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장승은 일제시대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8)유왕제

유왕제는 제물을 특별히 준비하지는 않고 풍물패와 당기가 대동샘을 도는 것으로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마을 대동샘에 제를 올리고 김밥을 싸서 넣는 경우도 있었다. 대동샘에는 「샘임자」라고 불리는 큰 뱀장어가 몇 마리 있어 비오기 전에 떠오른다고 한다.

4.근래의 동제

1)동제의 단절과 계승

20여 년 전 마을의 노인들이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인데 무슨 당제냐’고 이야기하여 1년 동안 제를 올리지 않았다. 제를 올리지 않는 해에 마을에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났다. 정월 초사흘부터 마을에 불이 나는가 하면, 여러 사람이 죽어 상을 모신 집이 5~6집이나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김영주(75) 할머니가 자주 다니던 왕대산 왕대사에 가 스님과 상의하였다. 스님이 술값을 뽑아 거꾸로 들고 점을 쳐보더니 ‘당제를 지내지 않아 운수 나쁜 사람부터 재앙이 닥칠 것이니 빨리 메라도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제를 다시 올리게 되었다.

2)결립

전에는 정월 14일에 결립하였다. 풍물패와 함께 집집마다 들어가 마당, 장독대 등에서 풍물을 치면 마당에 상을 놓고 상 위에 촛불을 켜고 쌀그릇을 내놓는다. 집집마다 다르지만 약 5되쯤 되었다. 돈을 내는 집에서는 5000원 또는 10000원을 내었다.

한편 일부의 마을 사람들은 나래를 엮어 당집에 올라가 지붕을 새로 하고, 제당을 청소하고, 대동샘 옆 거리청에서 돼지를 잡는다. 당제에 돼지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돼지 잡는 것은 필수이다.

요즈음도 풍물을 치고 결립을 하는데 돈으로 10000원쯤 낸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결립에 참여하지도 돈을 내지도 않는다.

당주는 정월 초에 정한다. 제관은 마을의 최고 고령자가 되지만 당주는 아기를 낳거나 상중이 아닌 적당한 사람을 골라 정한다. 당짓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한다. 당짓집 문 앞에는 황토를 놓고 금줄을 치고 대나무 깃발을 꽂아놓는데 깃발은 마을 대동기가 아니고, 빨강, 흰색, 파란색 천을 매단 것이다. 대나무의 끝에는 가지를 그대로 두고 천을 매달았다. 김부대왕기가 남아 쓰지 못하게 된 뒤로 기를 새로 만들지 않았다.

제물은 정월 14일에 사는데 대천장에서 산다. 일반 제사와 비슷하게 삼색실과, 생선 등을 산다. 떡과 밥은 당짓집에서 하는데 모두 익혀서 당집으로 가져간다.

요즈음은 마을 회관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풍물패와 함께 제물을 이고 지고 당집으로 오른다. 당집에 도착하면 제물을 진설하고 일반 제사처럼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이장소지, 대동소지, 개인소지, 기타 특별히 부탁한 사

람의 소지를 올린다. 특별히 아들 소지를 부탁하고 10000원 또는 20000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 군대에 가거나 학교 입학 앞둔 경우가 많다. 소지를 마치면 풍물을 치고 내려오는데 12시가 넘는다.

요즈음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이 적어 뜻 있는 아주머니들이 주동이 되어 제를 진행한다. 대략 7~8년 전부터인데, 이장과 관심 있는 남자들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음식준비 등 여러 가지를 부녀회에서 주도한다. 부녀회원이 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 제 비용을 마을 재정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한다.

7~8년 전부터 제는 여자 무속인이 진행한다. 마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전에 읽던 축문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를 마치면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복어포 하나를 놓고 내려온다. 풍물을 치고 내려와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먹고 결산하고 헤어진다.

거리제나 유왕제는 지내지 않는다.

3) 2002년의 경우

2002년에는 음력 1월 13일 낮으로 날을 잡아 지냈다. 걸림하지 않고 마을 기금을 사용하였다. 음식의 준비와 제의 주관은 모두 마을 부녀회가 하였다. 부녀회에서는 웅천 대창리 접동굴에서 모셔온 무속인 할머니와 마을의 남자 무속인을 시켜 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제물은 모두 마을 회관에서 만들어 경운기로 운반하였고 마을 사람들 중 비교적 젊은 4사람(여자 3명, 남자 1명)이 풍물을 치면서 회관을 출발하여 당샘을 거쳐 당집으로 올랐다. 당제를 지내러 올라온 사람은 모두 여자이고 남자는 이장, 무속인 1명, 기타 1~2명뿐이었다.

당집에 올라오면 우선 불을 피우고 당집을 청소하며 밥을 한다. 그릇을 꺼내 닦고, 경순왕 왕기를 꺼내 소나무에 걸어 말린다. 옛날에는 왕기를 마을로 내려갔으나 요즈음은 내려가지 않고, 2002년에는 삼색 천을 매단 대나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어서 제물을 진설하는데 제물은 경순왕 경모전의 삼문, 경모전의 계단 위, 경모전 오른쪽 언덕 위, 경모전 안에 3곳 등 모두 6곳에 진설하였다. 경모전 건물 양쪽에 향을 피우고 약간의 제물도 마련하였다.

당집 안에는 모두 3곳에 진설하는데 위패는 정문 맞은 쪽에만 3개가 있다. 따라서 당집의 동쪽 벽과 서쪽 벽에는 위패 없이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경모전 계단 위의 상은 대감상이라고 하였다. 각 상의 제물은 다음과 같다.

①삼문

물, 떡, 막걸리
사과 · 배, 떡, 산자 · 꽃감, 밤 · 대추, 두부.

②경모전 계단 위(대감상)

물, 북어, 떡.
쌀(초를 낫은 채로), 술.
밤 · 대추, 사과 · 배, 두부
소금, 돼지머리, 막걸리, 향

③경모전 안의 중앙

金傳大王神位, 山神國師神位, 日月星辰
초, 떡, 초, 초, 초, 술, 초. 초
북어, 술, 밤 · 대추, 떡, 꽃감 · 산자, 술, 북어
무나물, 두부, 배 · 사과, 밤 · 대추, 무나물, 밤 · 대추, 떡, 산자
산자 · 꽃감, 양, 물, 향, 사과 · 배.

④경모전 안의 서쪽

초, 물, 술, 산자 · 꽃감, 술, 떡, 북어, 초, 무나물
두부탕, 북어, 떡, 밤 · 대추, 사과 · 배, 쌀(향), 대추 · 밤, 술, 떡

⑤경모전 안의 동쪽

초, 산자·꽃감, 탕, 두부, 떡시루(백무리), 물, 초
밤·대추, 쌀(향), 사과·배, 두부, 미역·김

⑥경모전 밖 동북쪽

쌀·초, 술, 북어
쌀·돈, 떡, 밤·대추, 사과

그밖에 경모전 앞 좌우에 술, 떡, 밤·대추를 놓았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제를 올리는데 경모전 안에서는 마을 사람인 남자 무속인이 밖에서는 웅천에서 모셔온 여자 무속인이 주관하였다.

경모전 안에서는 우선 동쪽 제상 앞에 앉아 징을 두드리며 축원하고 이어서 가운데 제상 앞에서 축원하며 마지막으로 서쪽 제상 앞에서 축원하였다. 축원하는 도중에도 마을 사람 일부는 제당에 들어와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리고 개인적으로 절을 올렸다.

경모전 밖 대감상 앞에서는 여자 무속인이 축원하는데 축원 도중 돼지머리에 칼을 꽂아 소금그릇 위에 세워놓기도 하였다. 신이 자리를 함께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축원 후에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올렸다. 부녀회장이 명단을 가지고 옆에서 불러주고 무속인이 축원을 하며 소지를 올렸는데 대추(가장)부터 올리자는 의견과 적혀있는 순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였다.

경모전 밖 동북쪽 소나무 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축원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쌀그릇에 촛불을 켜 놓고 축원하기도하고 소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소지를 마친 뒤 음복을 하고 음식은 마을 회관으로 운반하였다.

도움말 주신 분

김영래(81) 남포면 제석리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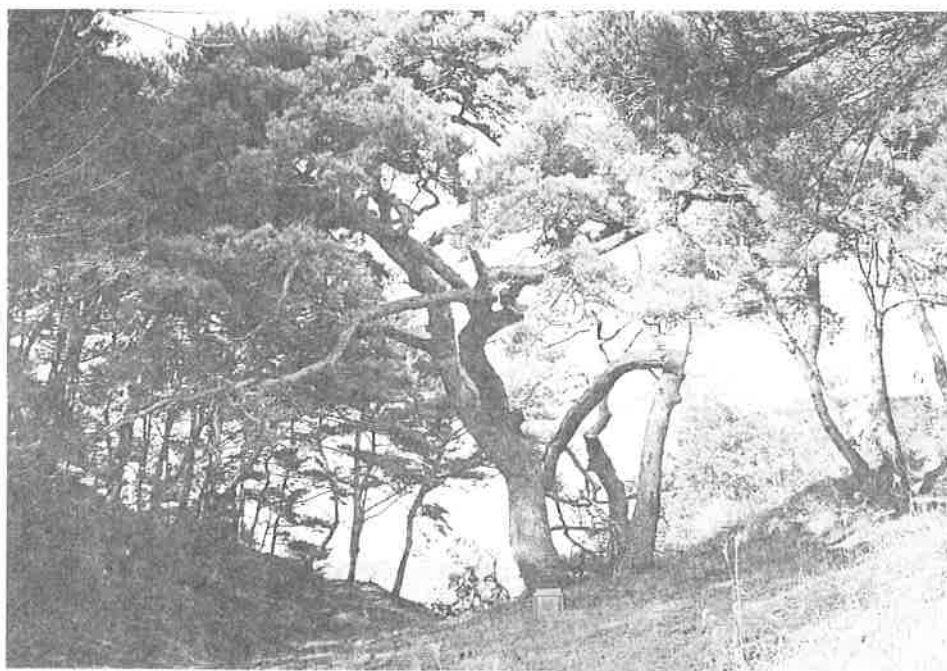
김영주(75) 남포면 제석리 548

이종례(76) 남포면 제석리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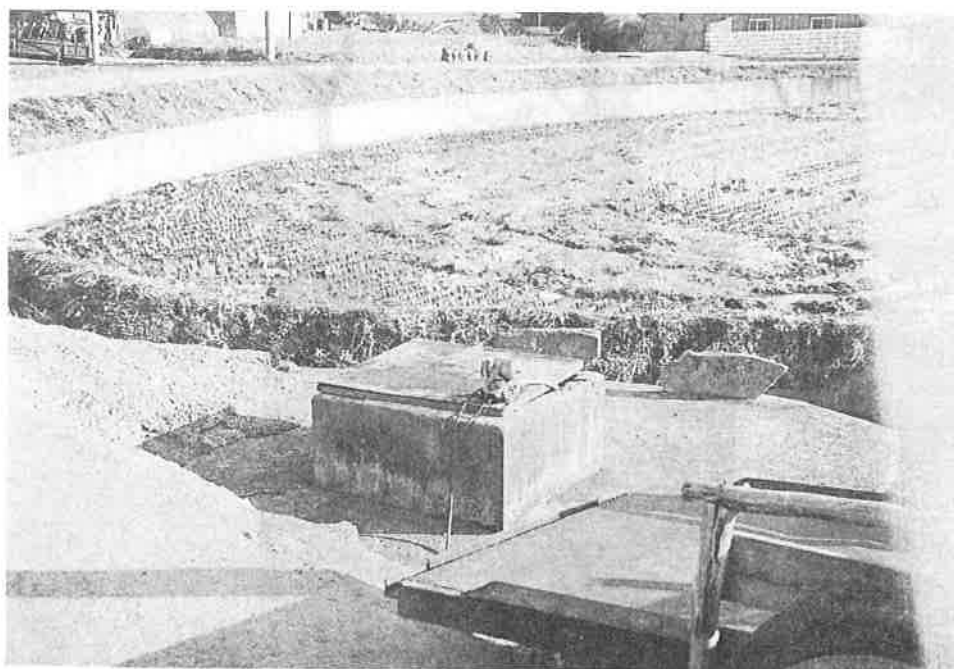
정신훈(46) 남포면 제석리 579-1



당집(1987)



장서낭(2002. 2)



대동샘(2002. 2. 24)



풍물패(2002. 2. 24)



당샘(200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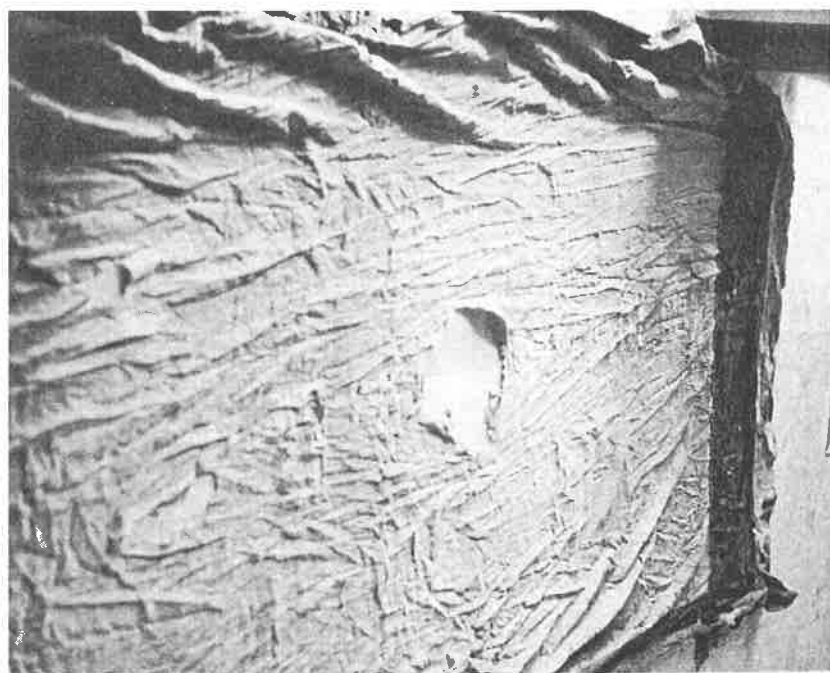
당집(경순왕 경모전)으로 오르는 모습(2002. 2. 24)



불 피우고 밥하는 모습(2002. 2. 24)



金傳大王旗(1987, 김인환 사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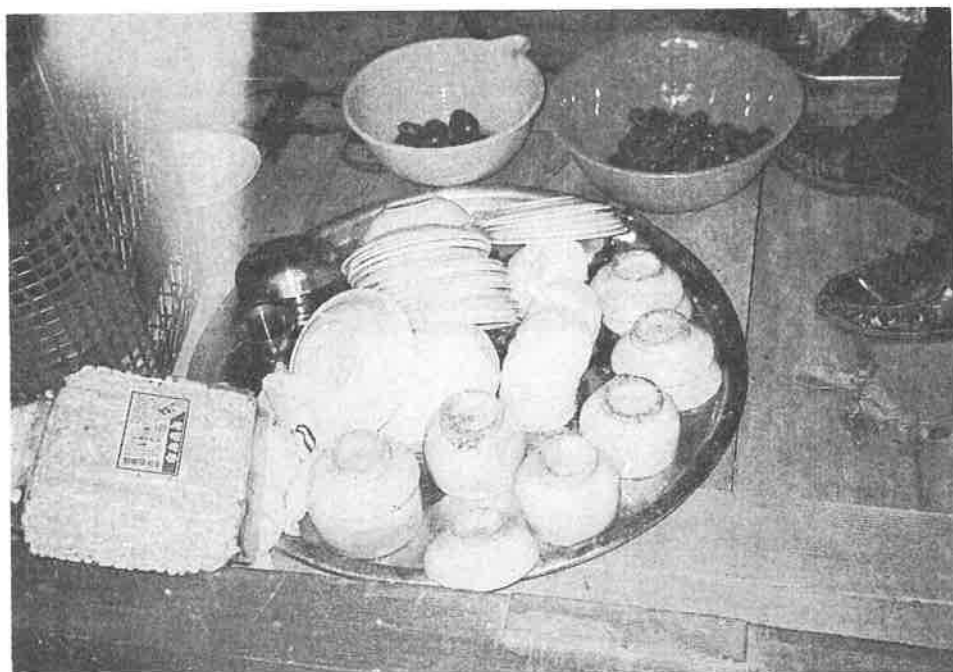
金傳大王旗(199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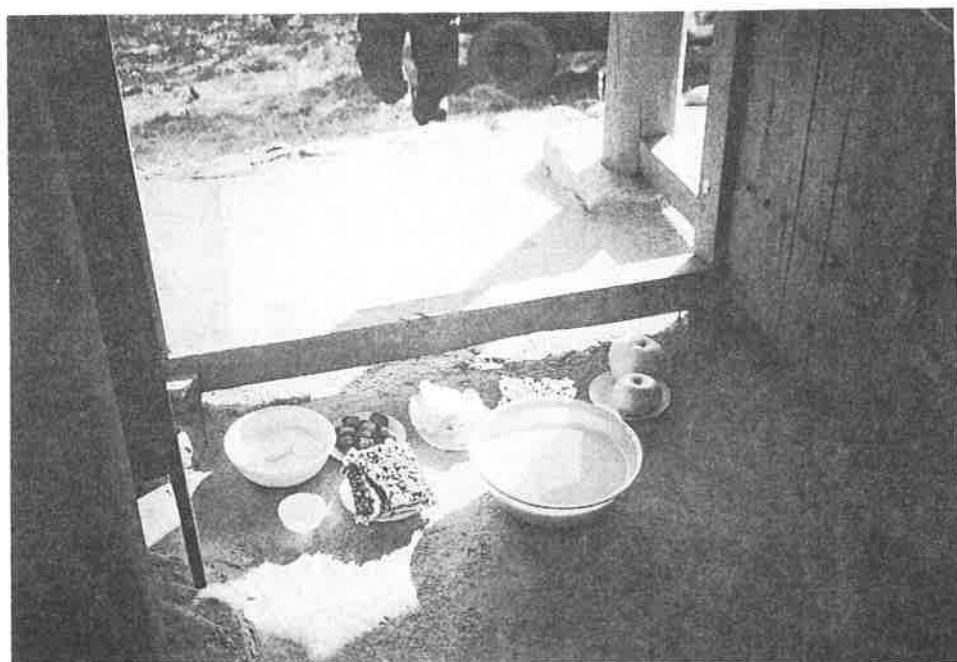
金傳大王旗(2002. 2. 24)



상자, 평털, 방울(200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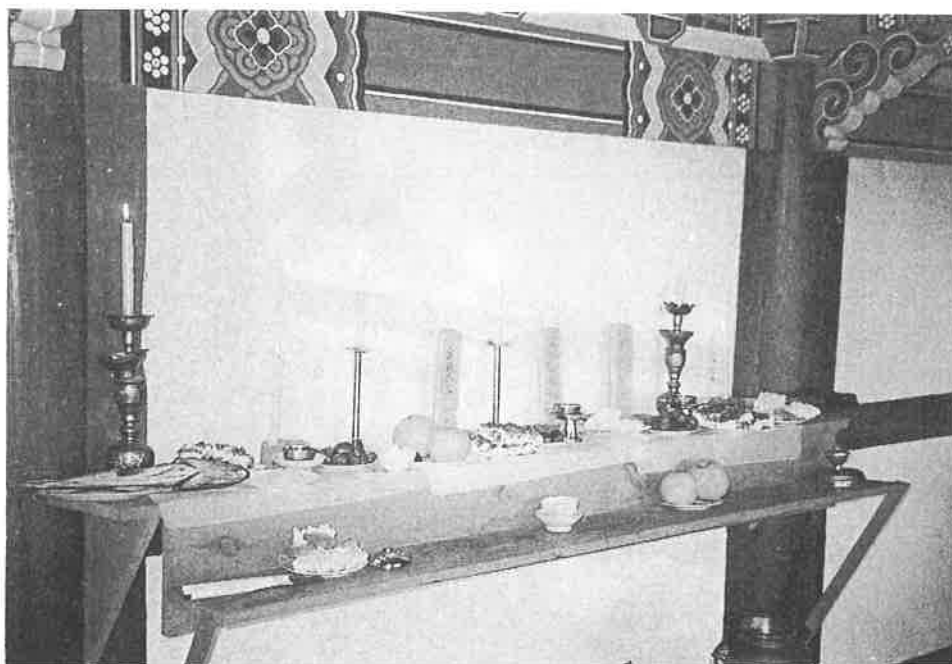
그릇-오른쪽의 10개가 옛 그릇임(200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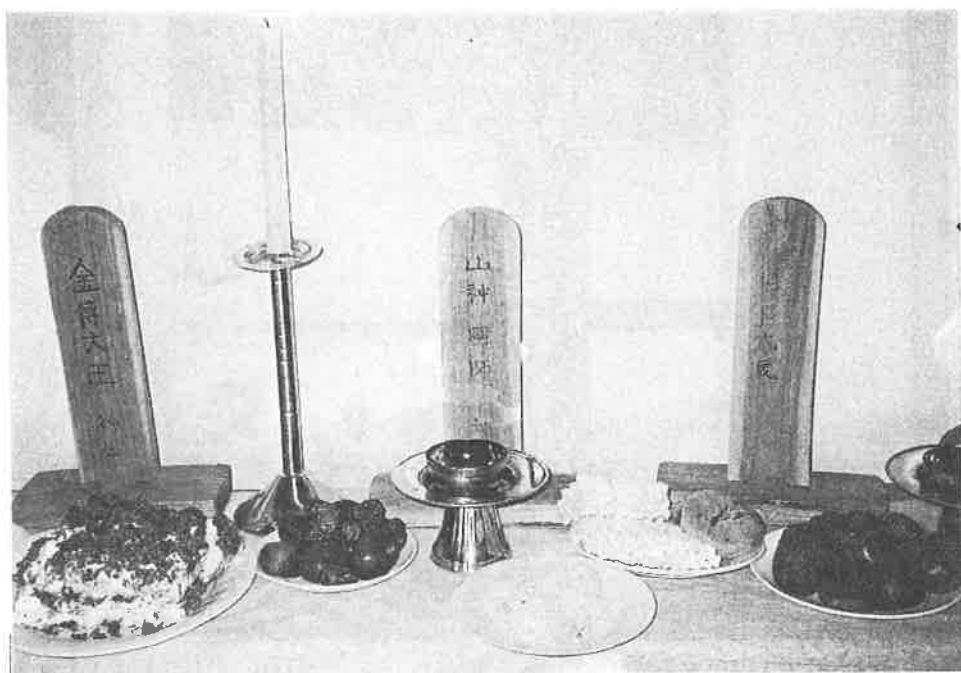
三門의 제물(200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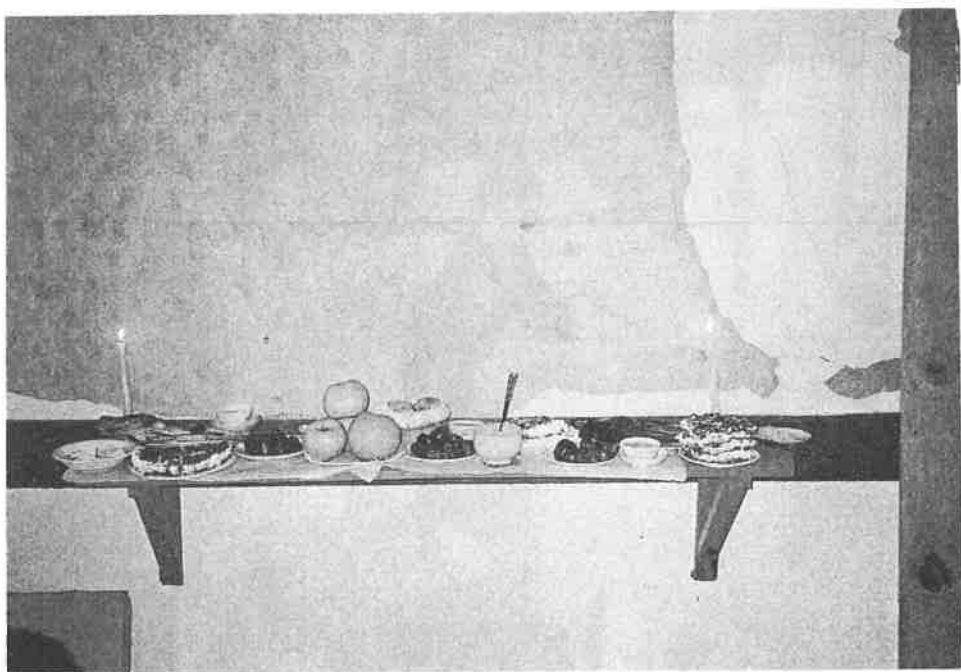
경모전 안의 동쪽에 올리는 제(200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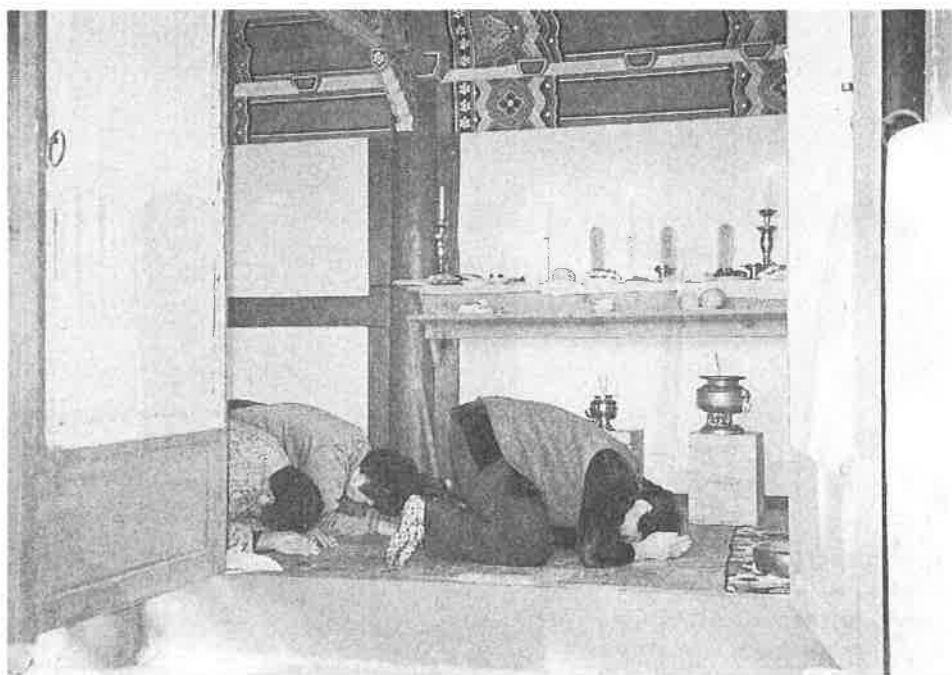
경모전 안의 중앙 제상(2002. 2. 24)



위패(2002. 2. 24)



경모전 안의 서쪽 제상(200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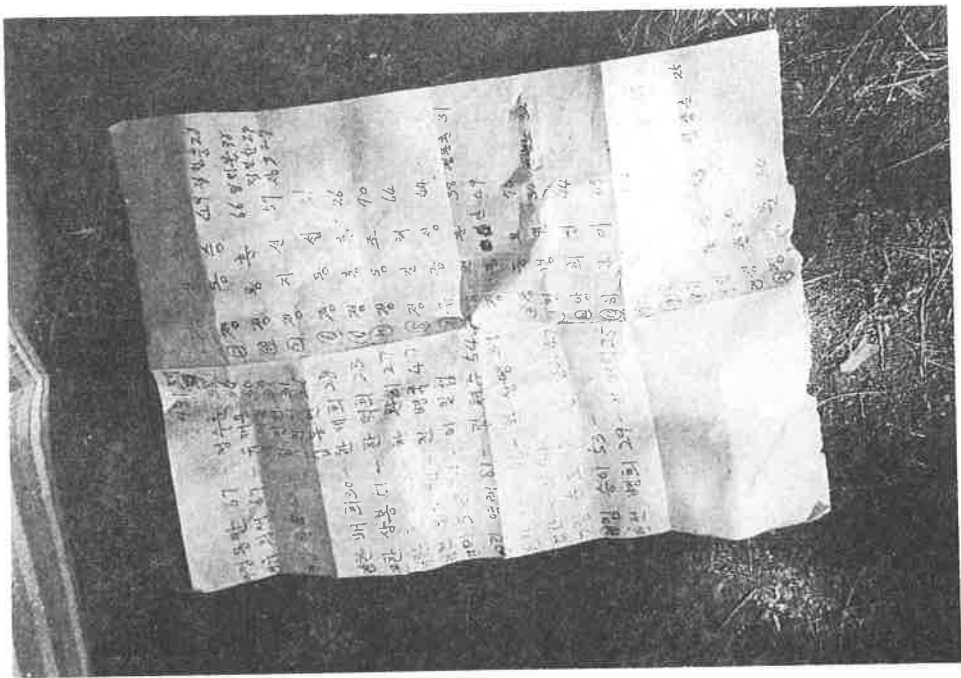
경모전 안에서 절하는 모습(200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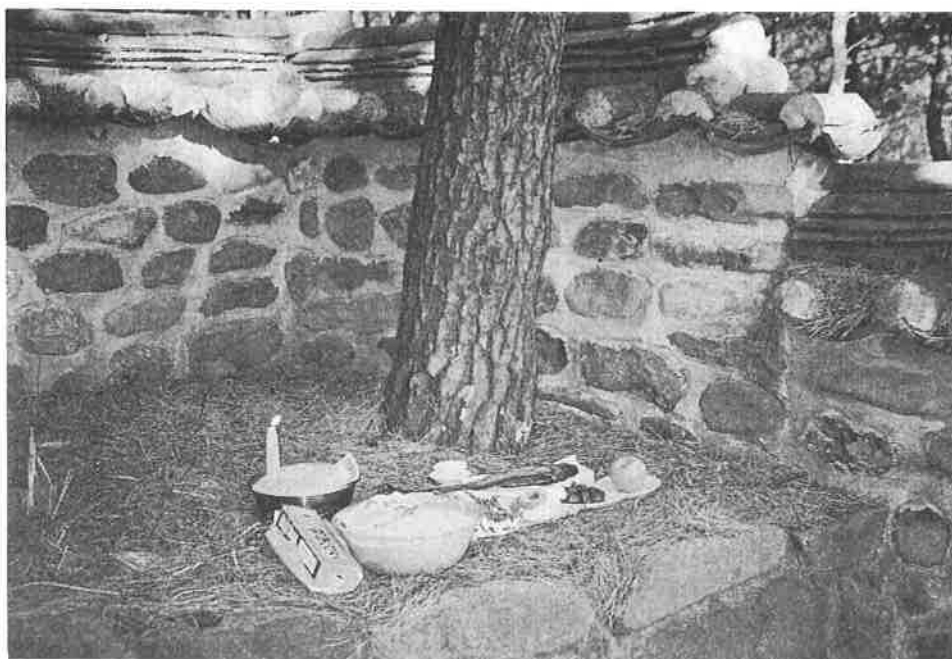
경모전 앞의 대감상에 올리는 제(2002. 2. 24)



대감상 앞에서의 소지 모습(2002. 2. 24)



소지 대상자 명단(2002. 2. 24)



경모전 밖 동북쪽 제단(2002. 2. 24)



경모전 밖 동북쪽 제단의 축원 모습(2002. 2. 24)

17. 조잠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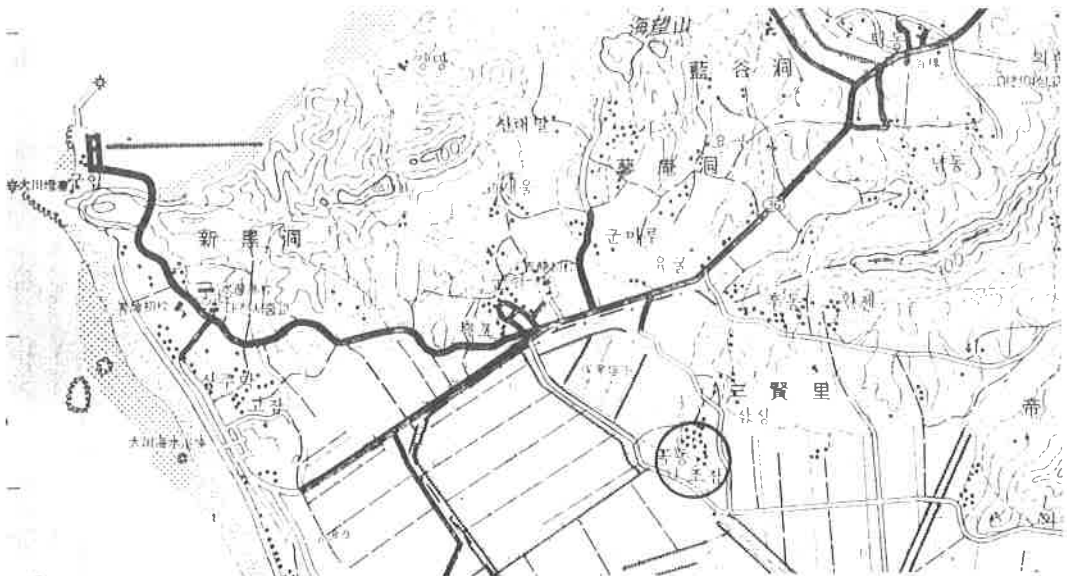
남포면 삼현리 조잠 마을은 대천해수욕장으로 통하는 36번 국도의 거먹개(흑포)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km쯤 들어오는 마을이다.

과거 간척사업 이전에는 바다로 돌출한 반도의 끝에 위치한 포구〔造尺浦〕 마을이었다. 마을 앞은 넓은 바다였고, 대천해수욕장을 이루는 반도, 대섬(竹島), 밤섬(栗島)이 앞에 있어 파도를 막아주는 천혜의 포구였다. 이때는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하였으며, 먼 거리까지 출어하는 ‘중선배’도 여럿이었다. 이때는 전라도 경상도 배들로 정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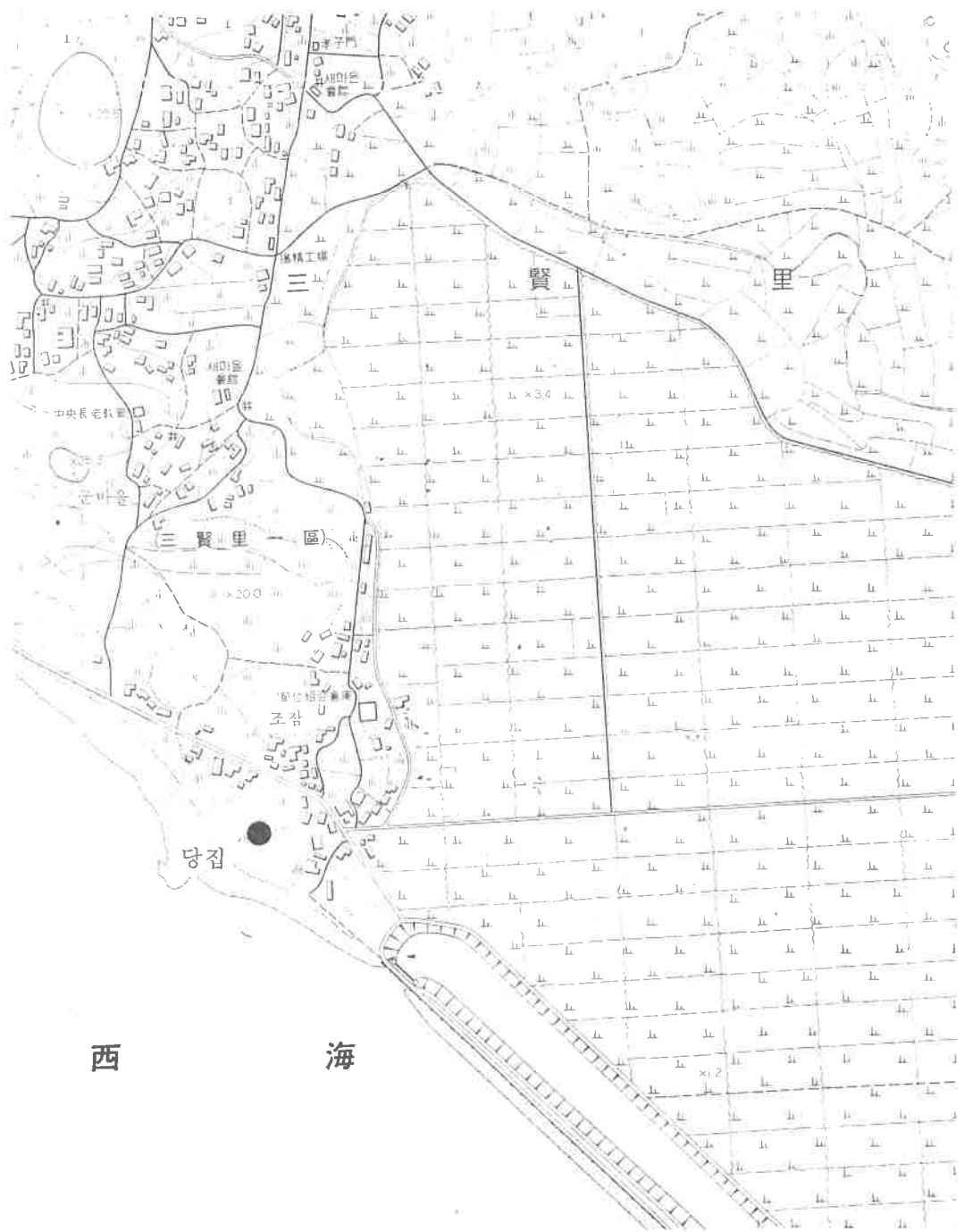
1968년쯤 조잠 마을과 밤섬 사이에 제방이 축조되어 포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남포방조제가 축조되어 마을은 바다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내륙이지만 아직도 10여 가구가 배를 소유하고 있고, 배는 대섬에 정박한다.

마을 주민은 약 50여 호로 특정한 성이 집성(集姓)을 이루지 않는다. 간척지 때문에 근래 이주한 주민이 많다.



조잠 마을 지형도(1:50000)



조감마을 지형도(1:5000×0.82)

2.제의 준비

과거에는 음력설 안에 걸립을 하였다. 걸립은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돌아 쌀을 거두는 것이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가마니를 들고 다니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마당, 장독대 등 집안을 돌며 풍물을 친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쌀을 몇 되씩 내어준다. 쌀은 첫 번째 방아찼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내놓는다. 밥상에 쌀을 담은 그릇과 찬물을 함께 올려놓는데 이때 쌀그릇에는 촛불을 켜 놓는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제석리 등 다른 마을의 선주(船主) 집에도 다녔다. 조잡 마을에 배를 정박시키는 선주네 집은 다른 마을이라도 모두 방문하여 걸립한 것이다.

현재는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걸립하지 않고 마을 대동(大洞) 돈을 쓴다.

제물은 선달 그믐날 대천장에서 샀다. 제물을 살 때는 깎지 않고 사는데 흠집이 없는 것으로 산다. 특히 북어는 눈이 빠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물을 사올 때는 부정 때문에 옛날에는 걸어서 왔고 현재는 택시를 타고 곧장 온다. 버스를 타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물은 당집 안에 두는데 문을 열어두어도 쥐, 고양이 등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술도 당집에 해 두었는데 하루만 지나도 잘 익었다.

당주는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골랐다. 선달 그믐날 당주가 결정되면 당굿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백지와 숯을 매단 것이었고 황토를 두 줄로 놓았다. 금줄과 황토는 당굿집의 문마다 놓았다. 당주도 외부 출입을 않고 목욕재계하며 근신하였다. 제를 마쳐도 일 년 동안 근신하였다.

현재의 농협창고 앞에 대동샘이 있었는데 샘에도 포장을 덮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 당제를 지내기 전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도에는 대천 시장에서 제물을 사다가 마을 회관에 놓았다가 당집 앞으로 가져와 제 준비를 하였다.

3. 당집

마을의 남쪽 끝 바닷가 언덕 위에 당집이 있다. 당집은 목조 기와 한 칸으로 대들보 상량문에 ‘崇禎紀元後丙申捌月二十六日辰時立柱上樑壬坐原甲寅成造’라고 써어 있다¹⁾. 당집이 있는 곳의 토지는 260평으로 마을 공동소유로 마을회관에 팔려있다. 원래 소유는 조잡 마을 것이나 현재의 행정구역이 삼현1리이기 때문에 삼현1리에서 관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당집에 당할머니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평상시에도 여자들의 생활용품인 바늘, 실, 꽃 등을 놓아둔다. 20여 년 전 해풍에 무너져 다시 지었다고 한다. 이때 원래보다 축소하여 지었기 때문에 남은 기와가 있어 당집 뒤에 놓았다고 한다. 대들보는 그대로 사용하여 옛 상량문이 남아있다. 당집이 무너졌을 때 섬사람들이 당할머니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당집 옆에는 수백 년 된 팽나무가 신수로 서있다. 간척사업 때 당집 주변의 흙을 파 사용하여 낮아졌으나 당집과 신수 주변은 그대로 남아있다. 당집 옆 바닷가에는 꼴뚜기바위 또는 만리성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는데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과거에는 정월 초이틀이나 초사흘에 택일해서 지냈으나 요즘은 정월 보름날 11시쯤 지낸다. 언제나 물이 들어올 때 지내는데 11시쯤이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제를 지내는 시간이 되면 마을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 4~5명이 풍물패와 함께 물을 떠가지고 당집으로 오른다. 당집 안에는 당주만 들어가 제물을 진설하고, 일부는 밖에서 밥을 하고, 탕국을 끓이며 산적을 굽는다. 밖에서 하는 것인데도 밥도 잘되고 산적도 잘 익는다.

제물은 밤, 대추, 귤감, 북어포, 소의 생간, 소의 처넛, 메, 탕국(무우와 고기 넣고 끓인 것, 간을 하지 않음), 쇠고기 산적으로 절대 간장, 소금을 쓰지 않으며 양념도 하지 않는다. 떡은 올리지 않는다.

제상은 당집 출입문의 맞은 쪽 선반, 바다 쪽 선반, 바다 쪽 바닥, 당집 밖 등 4곳에 차린다. 2002년의 제상은 다음과 같다.

1) 이것으로 보아 1656년에 건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①출입문 맞은 쪽

색실, 바늘, 분병, 꽃, 미역, 초

초

모두 여자가 사용하는 것들이다, 분 병에는 화장용 분이 들어있다. 이곳에 있는 제물은 당제가 끝나도 그대로 둔다. 이 선반의 밑에는 쌀그릇에 향을 꽂아 분향하였다.

②바다 쪽 선반

처넛 · 간, 소고기산적, 두부산적, 처넛 · 간, 처넛 · 간, 처넛 · 간, 처넛 · 간

처넛과 간은 한 접시에 함께 놓았는데 모두 다섯 접시를 놓았고, 소고기 산적과 두부 산적은 한 접시씩 놓았다. 산적은 모두 당집 앞에서 만들어 익힌 것이고 처넛과 간은 모두 익히지 않은 것이다.

③바다 쪽 바닥

탕 · 밥,	탕 · 밥,	탕 · 밥,	탕 · 밥,	탕 · 밥
밤 · 대추 · 꽃감,	밤 · 대추 · 꽃감,	밤 · 대추 · 꽃감,	밤 · 대추 · 꽃감,	밤 · 대추 · 꽃감
술 · 명태	술 · 명태	술 · 명태	술 · 명태	술 · 명태

메(밥)와 탕은 당집 앞에서 익힌 것이고 밤 · 대추 · 꽃감은 그릇에 담지 않고 함께 놓았다.

④당집 밖

탕,	탕,	탕
밤 · 대추 · 꽃감,	밤 · 대추 · 꽃감,	밤 · 대추 · 꽃감
처넛 · 간,	처넛 · 간,	처넛 · 간
명태,	명태,	소고기산적, 두부산적, 명태

이 제물은 배를 가진 사람을 위한 상이라고 한다. 삼현 1리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13명인데 이날 제 지내러 온 사람은 모두 3명이기 때문에 당집 밖

에 상을 차려 놓았다. 옛날에는 이곳에 사용된 명태를 들고 달려가 뱃고사를 지냈으나 2002년에는 그냥 치우고 말았다.

이곳 외에 마을 쪽으로 좀 떨어진 대나무에 명태 1마리를 백지로 묶어 놓았다. 의미는 모르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

술은 바다 쪽 바닥에만 한 잔씩 따르고 당주가 두 번 절하고 축을 읽었으나 20여 년 전 해풍에 무너질 때 축문 등이 씌어있는 두꺼운 책을 잃어버려 요즈음은 축을 읽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축원을 외운다.

“당할머니 이 부락이 1년 열 두 달 아무 일없이 해주십시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할머니가 가르쳐 주십시오. 지성껏 모시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올라가면 말문이 터져 잘하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소지를 올린다. 먼저 마을 대동 소지, 당주 소지, 제에 참석한 사람, 다음에 가가호호의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백지로 북어를 싸서 당집 안과 밖에 매달아 둔다.

이어서 제관이 술로 음복하고 당집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불 주위에 모여 탕에 간을 맞추어 음복을 더하고 제물을 회관으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먹고 논다.

당집 안에는 사기로 된 술잔, 잔대, 밥그릇·국그릇 등이 있었는데 20여 년 전 무너질 때 모두 없어졌고 현재는 마을 회관의 그릇을 사용한다.

4. 뱃고사

당제가 끝나면 선주들에게 북어 1마리씩을 백지로 싸서 나누어준다. 준비했다가 나누어주는데 서로가 먼저 가져가려고 경쟁한다. 북어를 받은 선주는 배로 뛰어가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는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으로 떡 등 제물을 준비했다가 북어가 도착하면 제를 지내는 것이다.

제를 지낸 배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여러 색으로 된 천을 매단 대나무를 세운다. 이 대나무는 끝 부분의 작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 그 밑에 천을 단다.

최근까지 배하는 사람에게는 북어 한 마리씩을 백지로 묶어 주었다고 하는데 2002년에는 주지 않았다.

5. 용왕제

당제가 끝나면 풍물패와 함께 당집 밑 바닷가로 온다. 바닷가에 당집에서 가져온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따르고 당주가 두 번 절한다. 다음에는 바가지에 물을 넣고 제물을 조금씩 잘라 넣어 맨손으로 저어 바다에 던지면서 “용왕님 우리 마을에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해주십시오”하고 빈다. 축을 읽지도 않았고 소지도 올리지 않았다. 용왕제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6. 거리제

이어서 마을 가운데 큰 돌 두 쪽으로 놓은 다리²⁾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제물은 용왕제에서 가져온 것으로 놓고 술을 따라 올린 후 당주가 절을 두 번 하고 물바가지에 제물의 일부를 떼어놓고 맨손으로 저어 사방에 뿌리면서 “일년 동안 우리 마을에 아무 일 없이 해주십시오.”하고 축원한다. 이때 막대기나 장갑 낀 손으로 저으면 안되고 반드시 맨손으로 저어야 한다.

거리제도 요즈음은 지내지 않는다.

7.제의 결산

거리제가 끝나면 당굿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제를 결산하고 하루종일 풍물을 치며 논다. 현재는 당집에서 음복하고 남은 음식을 회관으로 가져와 먹고 결산한다. 풍물은 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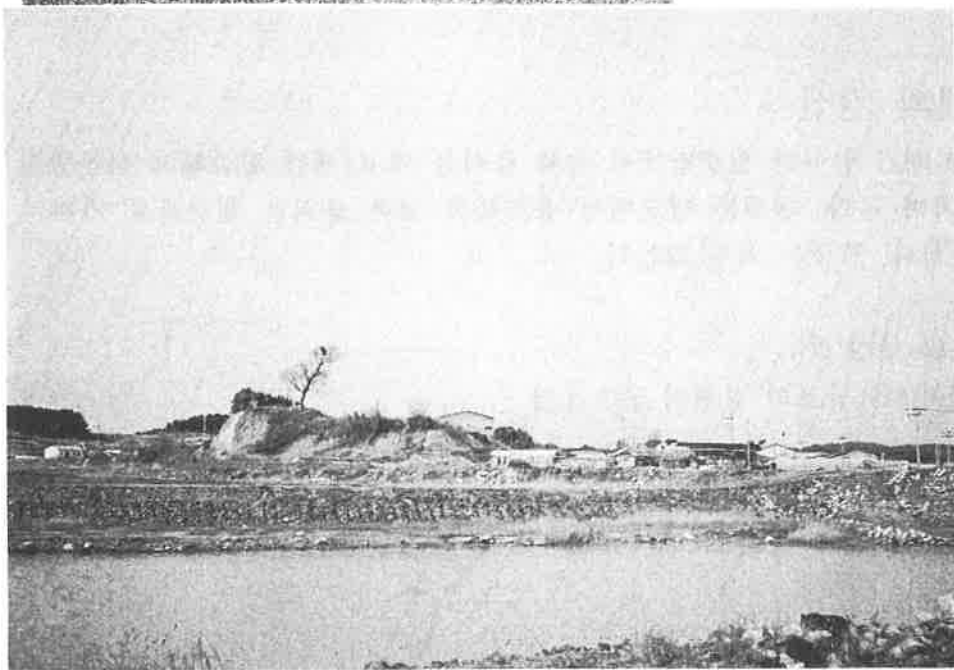
도움말 주신 분

김영희(61) 남포면 삼현리 590 조갑

2) 현재 농협창고 앞



당집과 신수-팽나무
(199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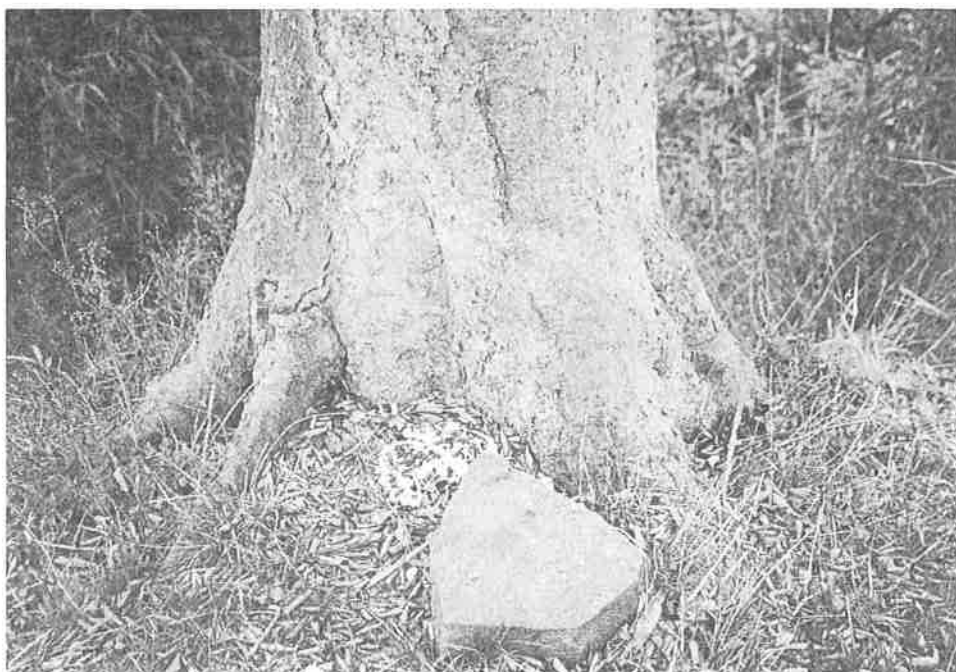
당집이 있는 언덕(1996. 3)



당집(1996. 2)



당집 대들보의 상량문(1996. 2)



개인적으로 놓은 신수 밑의 제물(2002.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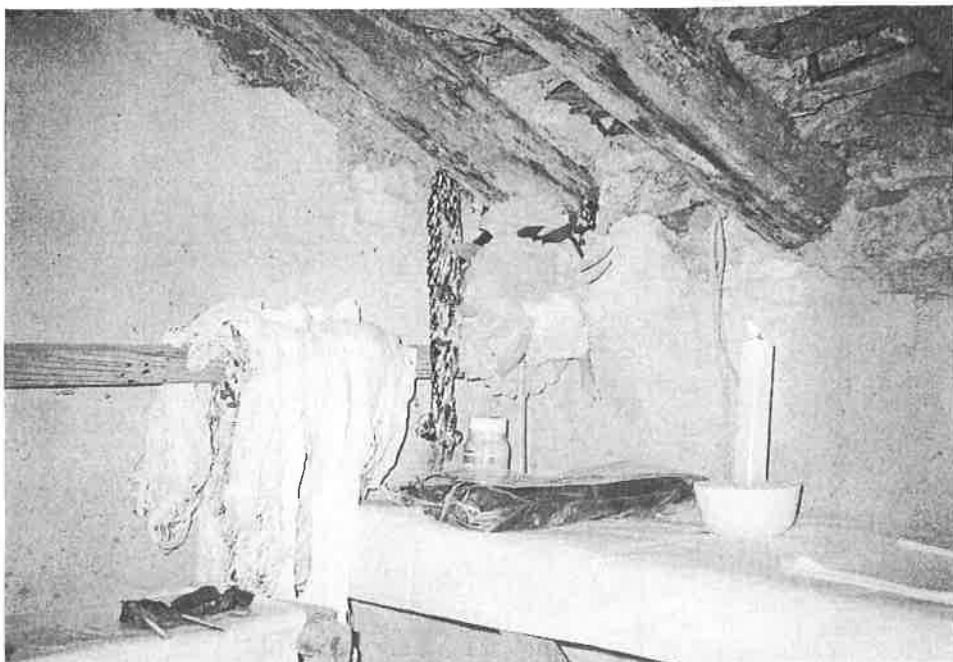
당제의 준비(2002.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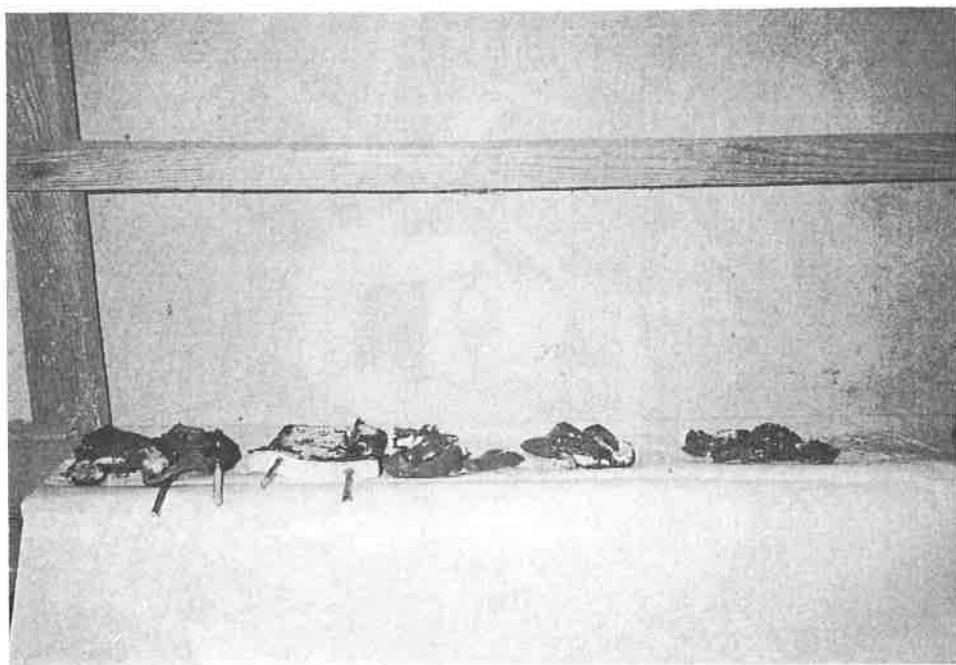
당제의 준비-쇠간 썰기(2002. 2. 26)



제물-두부산적(2002.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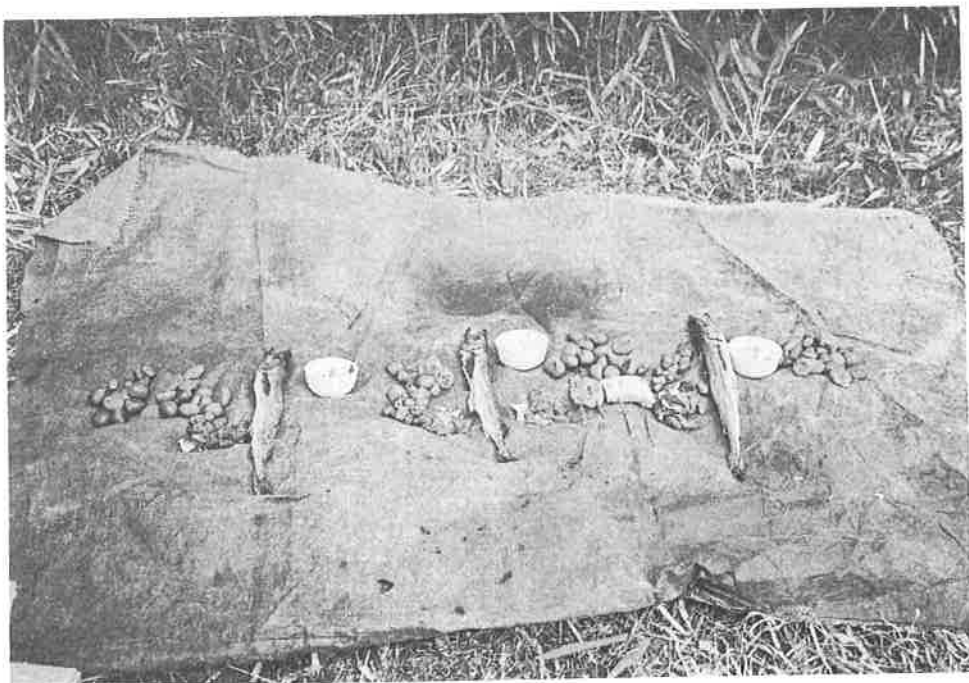
당집 안의 출입문 맞은쪽 선반-병은 粉(2002. 2. 26)



당집 안 바다 쪽 선반 제물(2002.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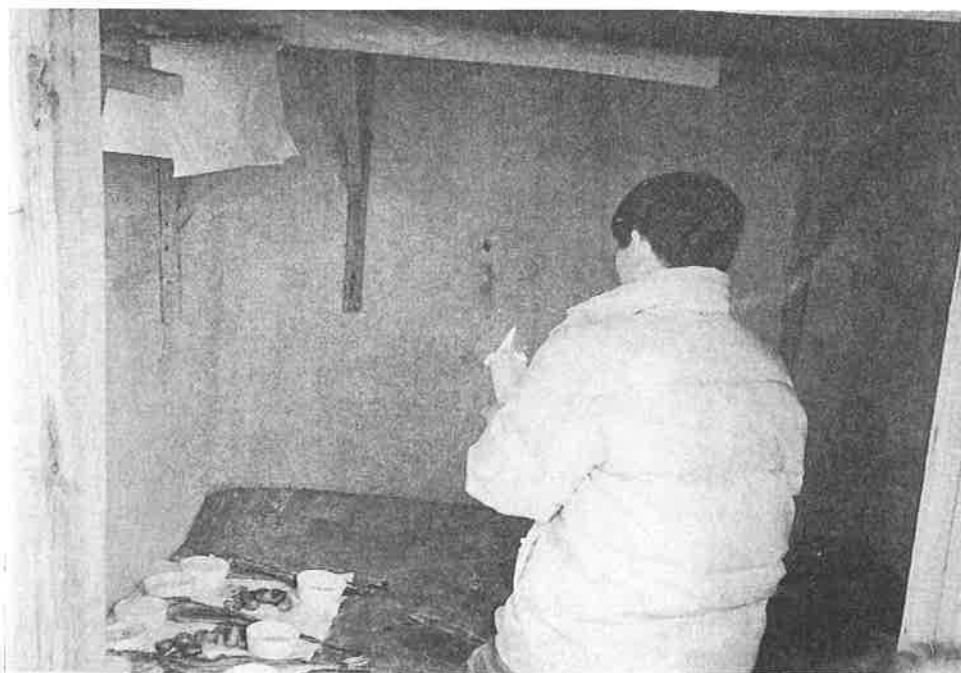
당집 안 바다 쪽 바닥 제물(2002. 2. 26)



당집 밖 제물-뱃고사(2002. 2. 26)



당집 밖 대나무에 매단 명태(2002. 2. 26)



소지(2002.2.26)



재물을 섞어 뿌리는 모습(2002. 2. 26)



음복(2002.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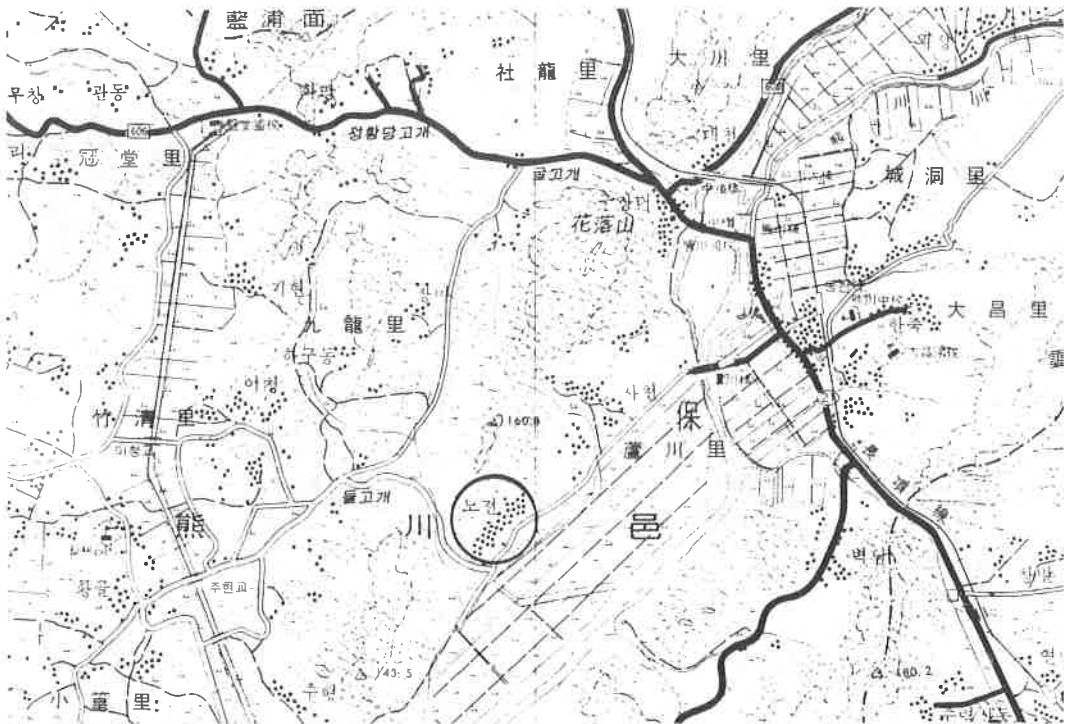
18. 가라티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1) 자연 환경과 간척 과정

가라티 마을은 웅천읍 노천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입지한 곳은 해발 10~30m 정도의 완경사지로 해안단구를 이루는 곳이다. 마을 북쪽으로는 160.8m의 산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곰내라고 불리는 작은 냇물이 흐르며, 동쪽에도 정굴냇갈이라고 부르는 작은 냇가 흐른다. 마을 앞은 평균해수면보다 2~3m 높은 갯벌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간척되었다.

간척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웅천천의 물을 끌어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2.5km 떨어진 웅천면 대천리에 노전보라고 부르는 큰 보(洑)를 막아 물을 돌려 마을 앞 간척지에 물을 대었다. 마을 동쪽 용못 밑에도 보를 만들어 물을 대었으나 사리 때 만조가 되면 해수가 들어오는 곳이라 완전하지 못하였다.



가라티 마을 지형도(1:50000)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용못도라에서부터 시작하여 5-6번 간척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3번의 간척뿐이다.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간척지가 안간사지로 심참봉(심의종), 박치규(주산 사람) 등이 1900년경에 막았다고 한다. 이때는 순수 인력으로 막았기 때문에 독이 약했고, 터지는 대로 보수하여 굴곡이 심했다고 한다. 안간사지의 논은 대천 흑포 사람 전용구의 소유였고 마을 사람들은 소작을 했다고 전한다. 그 후에 막은 것이 원간사지로 1931년경 일본인 田中이 막았다고 전한다. 이 때까지의 간척지 제방은 부실하여 자주 터지곤 하였다. 간척지 독의 관리는 보주(湫主)가 하였다. 보주는 홍수가 나거나 해일이 일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독을 감시하다가 징을 쳐 신호하였고, 징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모두 달려 나와 제방의 붕괴를 막았다. 이런 불완전한 제방을 돌로 쌓아 정비한 것이 1948년이였다.¹⁾

대천리에 있는 보와 대천리에서 노천리까지 2.5km에 이르는 보도랑의 관리는 보주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출력으로 하였다. 보의 보수는 삼월 삼짇날이 지나면 시작하였다. 우선 노전보에 가서 가래질을 하여 보를 만들고 대천리 작은보는 돌과 가마니를 이용하여 쌓았으며, 보도랑도 모두 정비하여 물이 잘 흐르도록 하였다. 보의 정비를 마친 후 각자의 논갈이에 들어갔다. 이 후에도 홍수가 나 보가 망가지면 출력해 다시 쌓곤 하였다. 최근에는 봇물도 이용하지만 용못 밑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냇물을 양수해서 사용한다.

2) 慶州 金씨의 정착 과정

가라티 마을은 경주 김씨 집성촌이다. 1960년대에는 80여 호 중 타성이 7-8호밖에 안되어 경주 김씨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70여 호 중 타성이 1/3쯤 된다.

경주 김씨의 집단적인 거주는 간척사업과 함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은 간척으로 인한 토지 증가 때문이고 간척사업은 경주 김씨가 주도적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김씨 족보에 의해 입향 과정을 살펴보았다.²⁾

가라티 마을에 거주하는 경주 김씨는 모두 양주목사파(楊州牧使派)로 양

1.공사는 동아건설에서 시행하였다.

2.慶州金氏楊州公派譜所, 1996, 慶州金氏楊州公派世譜 .

주목사 김대(金玳)는 중시조 김인관(金仁琯)의 8세손으로 묘가 충북 음성군 원서면 조촌 삼성동(忠北 陰城郡 遠西面 助村 三聖洞)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전(失傳)되고, 그의 손자 10세손 김한(金漢)이 단종 때 낙향하여 남포현에 정착하였다. 묘는 가라티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죽청리 양청말에 있다.

김한(金漢)의 아들 자돈(子惇, 11세손)의 묘가 웅천면 두룡리 용와리(龍臥里)에 있고, 손자 5명이 각각 노전파(가라티의 한자표기가 蘆田), 죽청파, 사천파, 홍산파, 서천파를 이루었다. 이들 5손자의 생몰연대가 김윤보(金允輔, ?), 김윤희(金允衡, 1441-1490), 김윤충(金允忠, 1444-1510), 김윤상(金允祥, 1446-1521), 김윤신(金允愼, 1448-?)이므로 15C 후반에 경주 김씨가 가라티 마을에 집단적으로 정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김자돈(金子惇, 11세손)의 장자 김윤보(金允輔, 12세손)의 묘가 웅천읍 노천리 동록(東麓)에 있고, 그의 삼자(三子) 김취용(金就鎔, 노전파)의 묘가 동강(同岡)에 있다는 기록과 일자(一子) 김취서(金就서, 임천파)의 묘가 남포 신안 은치(藍浦 新安 銀峙), 이자(二子) 김취련(金就鍊, 정산파)의 묘가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長坪面 芝川里)에 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가라티 마을의 작은 토지가 김취용(金就鎔)으로 상속되지 않았나 한다. 다른 아들들은 토지의 협소함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취용(金就鎔, 14세)의 아들 김인수(金仁壽, 15세)와 그의 다섯 아들의 묘가 가라티 마을 주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라티 마을에서 경주 김씨 소유 토지의 비약적인 확대는 김인수(金仁壽, 15세, 1546~1635)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인수(金仁壽)의 다섯 아들의 생몰 연대는 해(濬, 1578~1671, 묘 사현치 봉대하--沙峴峙 烽臺下), 발(潑, 1590~1689, 묘 웅천 노천리 남록--蘆田里 南麓), 제(濟, 1592~1654, 묘 사근동--沙斤洞), 숙(潏, 1595~?, 묘 노천리 전록--蘆田里 前麓), 준(濬, ?, 묘 주산면 연암--燕岩)이다. 따라서 가라티 마을에 경주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초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가라티 마을의 경주 김씨는 15세기초에 10세 김한(金漢)의 낙향을 시작으로 16세기말 15세 김인수(金仁壽, 1546~1635)대에 상당한 토지를 형성하며 17세기초부터 집단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동제(洞祭)

1) 제의 준비

가라티 주민들은 2년에 한 번씩 동제를 지낸다. 정월 초사흘날에 동회장(이장과 다름)이 주관하여 5-6명의 노인들이 사랑방에 모여 젓날을 잡고 당주(제관을 겸함)를 정한다. 젓날은 대개 초닷새에서 열흘 사이이다. 당주는 젓날의 일진과 나이를 보아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한다. 당주는 뿔을 때도 거절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지만 결정되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날부터 마을 밖 출입을 금하고 부부간에 각방 쓰며 매일 산제삼을 품어내고, 그 물로 목욕재계한다. 1999년의 경우는 매일 새벽, 낮, 저녁 3번씩 삼을 품어내고 목욕하였다.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주네 집에 농기를 꽂아놓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양쪽으로 3줄 놓는다. 금줄은 원새끼줄에 백지, 숯, 고추를 끼운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 기(旗)인데 옛날 것은 200년쯤 되었으나 너무 낡아 태워버리고 근래 새로 만들었다. 과거에는 깃대의 끝에 평장목을 달았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평상시 기의 보관은 동회장이 한다. 산제삼에도 금줄을 띠고 황토를 양쪽으로 3줄 놓는다. 금줄은 삼의 입구에 나무를 꽂고 한 쪽은 생나무에 걸어놓는다.

옛날에는 동제를 지내는 동안 외지에서 손님이 오는 것도 꺼렸다. 1999년의 경우도 금기를 잘 지키는 한 할머니는 딸이 온다고 하자 역전에 나가 당제 기간이니 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2) 걸립

초사흘부터 걸립에 들어간다. 걸립은 집집마다 들러 돈이나 쌀을 거두는 것이다. 이때 마당, 장독대 등 집안 곳곳을 다니며 풍물을 쳐주는데 이것을 “지덕누른다”라고 한다. 걸립에 참여하는 사람은 풍물꾼 4명, 동회장, 당주, 주민 등 10여 명이다. 돈으로 5000원, 10000원을 내기도 하고 쌀 몇 되 또는 1말을 내기도 한다. 1999년의 경우는 대개 10000원씩을 내고, 쌀로 1말을 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쌀도 내고 돈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걸립 액수는 돈으로 100만원 정도, 쌀로 1가마 정도였다.

주민들은 걸립패가 들어와 풍장을 쳐야 그 해에 운수가 좋다고 믿는다. 1999년의 경우 걸립의 편의상 미리 돈을 낸 몇 집을 빼놓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대화의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아주머니, “아 이웃집은 다행이고 왜 우리집은 빼놔유”

또 다른 아주머니(상쇠잡이의 남편)가 남편에게, “ 이보슈 남의 집은 다 다니고 우리집은 오지도 않으면서 뭐허러 깽맥이는 들고다녀”

어떤 집에서는 쌀을 정성껏 내놓는데, 상 위에 말을 놓고 말에 가득 쌀을 담고 그 위에 촛불을 켜 놓는다. 이 쌀을 ‘불바지쌀’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는 말 밑에 돈을 끼워놓은 경우도 있었다. 또 몇몇 집에서는 걸립패가 들어오면 마당에 상을 차려놓고 술이나, 감주 등을 대접하였다. 이장 댁에서는 점심을 대접하였다.

3) 당제(堂祭)

제(祭) 음식의 장만은 먼저 조라술 담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주네 집에서 술을 담그는데 대개 쌀 5-6되 또는 1말 정도를 한다.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쉬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다른 제물은 동회장과 그를 도와주는 몇 사람이 웅천장에서 산다. 제물은 쇠머리, 삼색실과, 포(명태), 백지(1권), 초, 술, 막걸리·소주(과젯날 먹을 것) 등이다. 쇠머리는 대천장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 제물을 살 때에는 깎지 않았다고 전한다. 또한 제사에 쓰는 접시 등 그릇과 상, 자리도 산다. 이것은 나중에 당주가 가진다.

젯날 오전에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당주 집에 모여 당집³⁾을 만들러 간다. 집은 당샘(큰샘) 위 30여m 떨어진 곳으로, 매년 당제를 지내기 때문에 평평하게 터가 닳여져 있다. 과거에 당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비용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곳은 과거에 소나무가 울창하였으나 벌목하여 풀이 무성하다. 이곳에 풀을 깎고 마을 천막을 치고 천막의 3면을 비닐 포장으로 치고, 바닥도 비닐로 깐다. 당집이 완성되면 하산하여 당주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젯날이 되면 저녁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당주집으로 모인다. 그러면 당주가 제에 참여할 사람을 지명한다. 1999년의 경우 사람이 모자라 몇 집에 전화를 하여 참여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지명받은 사람은 두 사람씩 당샘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린다. 11시 30분쯤 되면 당기를 든 사람, 당주, 부당주(측관), 풍물치는 사람 4명, 제물을 진 사람 1명, 기타 약간 명 해서 10여 명이 풍물을 치며 산제당으로 오른다. 당주와 부당주는 한복을 차려 입고 관을 쓰며, 농악대는 한복에 고깔을 쓴다. 당주 측관

3.산제당이라고도 한다.

농악대의 제복은 1999년 구입하였다. 여자들은 일체 산에 오르지 않는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일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모두 마스크를 쓰고 흰 장갑을 낀다.

산에 오르는 순서는 당기, 당주, 축관, 농악대, 짐꾼, 마을 사람순이다. 먼저 당샘에 도착하면 한바탕 풍물을 친다.

이어서 제당에 도착하면 당기를 왼쪽 천막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피운다. 나무는 제당을 만들 때 준비하는데 1999년의 경우는 마을 공장에서 나오는 종이통으로 하였다. 풍물은 불을 피우고 한바탕 치다가 제가 시작되면 그친다. 제는 제관과 축관만 산제당에 들어가 준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0m 떨어진 곳에 불을 놓고 몸을 녹이면서 기다린다. 이 때는 큰소리를 내거나 욕을 하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말한다.

제관과 축관은 자리를 깔고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한다. 우선 새로 산 밥상을 제당의 북쪽에 놓고 흰 종이를 깔고 제일 북쪽에 술잔, 수저, 가운데에 떡시루(세되 세 홉으로 만듦), 떡시루 양쪽에 촛대를 놓는다. 상의 왼쪽에는 쟁반에 담은 쇠머리를 놓는다. 쇠머리는 생으로 쓰며 한가운데에 칼을 꽂아 놓는다. 상의 오른쪽에는 바가지에 담은 밥과 국을 놓는다. 미역국은 소금도 넣지 않고 미역과 물로만 끓인 국이다. 제상 앞에는 쌀을 담은 사발에 향을 꽂고 대추, 밤, 사과, 배, 꽃감을 접시에 담아 놓는다.

제는 일반 유교식 제사와 비슷하게 먼저 잔에 술을 조금 부어 술잔을 가시고 당주가 절을 두 번 올리며 이어서 술잔 가득히 술을 따라 올린다. 당주는 옆드리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己卯正月己亥朔九日丁未○○敢昭告于

維山惟靈 逮仁不流 膏潤風雨

其德孔仁 佑我洞人 造化陰陽

六畜繁殖 有廩有困 快樂年豐

百穀湧成 無災無害 咸希到泰

補空伊何 文以處高 清酌潔饗

愼祈饗之⁴⁾

廩: 네모난 창고

困: 둥근 창고

4. 불분명한 곳은 보령시 화산동 朴丁淳 선생이 보완

(번역문)

해는 차례로 이어 己卯年 正月己亥朔九日丁未에 幼學 某는 敢히 昭에 계신 참된 山神靈님께 告하나이다. 仁에 미쳐 떠나지 안하사 風雨를 고루 윤택케 하시니 그 德이 孔子의 仁이라. 우리 洞人들을 도우사 陰陽을 고루 化하시어 六畜을 번식케 하고 廩이 있게 하고 困을 두게 하며 快樂한 豐年으로 百穀이 솟아나 이루도록 하고 災殃이 없고 禍害도 없이 해야 다같이 淸에 이루도록 희망하오니 모든 빈자리를 保佑하시고 文章으로써 높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기를 淸酌과 潔餐으로 삼가 받드오니 이에 喜향하소서.

(박정순 역)

제의 전 과정은 상당히 엄숙하여 제당 안에서나 밖에서 불을 쬐는 사람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어서 당주와 축관이 절을 두 번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당주가 올리는데 먼저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다.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1리 마을 금년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농사 잘되고 농기계 사고 없도록 해주십시오.’하면서 소지종이를 태우는데 마을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축원한다. 다음에는 당주, 부당주(축관)와 제에 참여한 사람을 연장자순으로 올린다. 1999년의 경우 순서는 아래와 같다.

- ①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1리 대동계 1동
- ②본동 신미생 김형기
- ③본동 기묘생 양태섭
- ④본동 신미생 김요집
- ⑤본동 병자생 김예기
- ⑥본동 병자생 김효집
- ⑦본동 무인생 김명재
- ⑧본동 경진생 김명집
- ⑨본동 을유생 김기춘
- ⑩본동 무자생 김병원
- ⑪본동 임진생 김유집
- ⑫본동 무술행 김혁집
- ⑬대천 죽정동 계사생 황의호(필자)

소지가 끝나면 당주와 부당주(축관)는 꿇어 엎드려 꿈쩍도 하지 않고 기

다린다. 옛날에는 새벽닭이 우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새벽 3시쯤까지 기다린다. 1999년의 경우는 2시 30분까지 엎드려 기다렸다. 제 시작이 11시 50분쯤이었으므로 2시간 40분 동안 제를 올린 셈이다. 시간이 되면 일어나 절을 두 번 하고 농악대는 농악을 쳐 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이때까지 마을의 모든 집은 불을 끄지 않고 기다렸다가 각 가정에서 위하는 곳에 떡을 놓고 치성을 드린다.

이어서 간단하게 당주가 술만 음복하고 제물을 거두어 지계에 올려 하산 시킨다. 쇠머리를 빨리 내려보내 삶아야 낮에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풍물을 치면서 하산하여 오방을 돈다. 먼저 당기, 풍물꾼, 당주, 부당주, 포대에 제물 든 사람이 따라간다. 이 때 당주는 제상을 들고 부당주는 자리를 들고 간다.

4) 오방 돌기

산에서 내려와 마을의 중요한 장소를 다니면서 간단하게 제를 올린다. 이때는 계속 풍물을 치면서 다니고 제를 올릴 때만 풍물을 치지 않는다. 먼저 당샘으로 내려와 자리를 깔고 제상을 놓고 위에 접시 5개를 놓고 술잔을 놓는다. 한 접시에는 젓가락을 놓고 다른 접시에는 포(마른 명태 1마리), 대추·밤, 꽃감, 사과 1개를 놓아 간단한 제상을 차린다. 그리고 당주가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두 번 하면 재빨리 상을 거두어 바구니에 담는다. 제에 사용하지 않은 제물은 포대에 담고 일단 사용한 제물은 바구니에 담아 섞이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제를 올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오방 돈다고 하는데 1999년의 경우 14곳이었다. 이것은 옛날 저녁 당주집에 모여 상의해서 결정한다. 1999년에 오방돌면서 제를 지낸 곳과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큰샘 : 당샘이다. 옛날부터 마을의 서쪽 사람들이 먹던 큰 샘이다. 이 샘물을 이용하여 마을 가운데에 방화용 방죽도 만들었다

2) 작은샘 : 당샘 동쪽 골짜기에 있는 샘이다. 예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 예부터 제를 올렸다.

3) 왕소나무자리 : 경주 김씨의 오래된 묘 위에 장정 3-4아름 되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일제 시대에 죽었다. 이 나무를 이용하여 정창호 씨가 배를 만들어 마을 앞 간척지를 만들 때 돌을 실어 날랐다고 전한다. 현재도 그

자리에서 제를 올린다.

4) 상수도 물탱크 : 마을의 서쪽에 지하수를 개발, 물탱크를 만들어 각 가정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다. 마을의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를 올린다.

5) 상수도 기계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탱크로 보내는 기계실이다. 마을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를 올린다.

6) 새터샘: 새터 마을에 있던 우물이다. 옛날에는 여러 집이 사용했다. 현재는 양수기를 놓아 한 집에서만 사용하나 지금도 제를 올린다.

7) 노전교: 마을로 통하는 큰 다리이다. 사고가 없으라는 의미로 제를 올린다.

8)다리: 마을에서 간척지로 통하는 다리이다. 가끔 경운기 사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사람이 다치지 않는었다. 경운기 사고가 없으라는 뜻으로 제를 올린다.

9)마을 회관 앞: 마을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를 올린다.

10)정자나무: 마을 앞에 있는 오래된 팽나무이다. 옛날에는 팽나무 옆에 큰 공터가 있어 마을의 모든 행사를 하였는데 요즘은 집이 3채 들어서 있다. 예부터 제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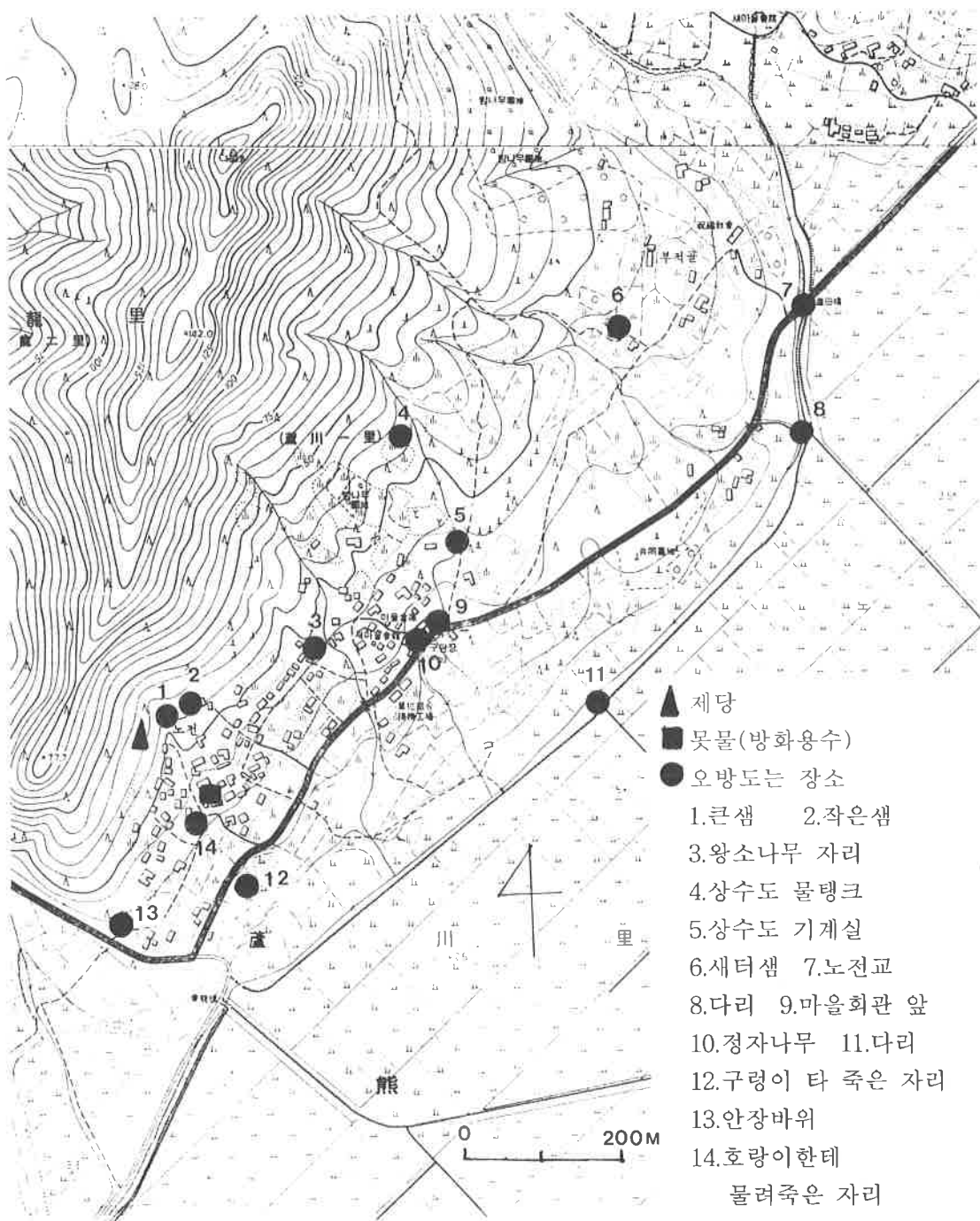
11)다리: 마을에서 들로 통하는 다리이다. 경운기 사고를 방지해 달라는 의미로 지낸다. 다리 위에서 지낸다.

12)구렁이 타 죽은 자리: 이곳은 옛날 정자나무가 있던 자리이고 부근에는 솟대도 있었다. 정자나무 밑에 솔가지 누리가 있었는데, 마을의 한 어린이가 불장난을 하여 솔가지 누리 속에서 큰 구렁이가 타 죽었다. 그 뒤 마을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제를 지내면서부터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밭 가운데이지만 그 장소에서 해마다 제를 올린다.

13)안장바위: 마을 서쪽 밭에 있는 바위이다. 말의 안장처럼 생긴 바위인데 그 안장에 장군 신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여 해마다 제를 올린다. 주변의 토질로 보아 다른 곳에서 옮겨다 놓은 바위로 보인다.

14)호랑이한테 물려죽은 자리: 이곳에 제를 지내는 이유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 하나는 옛날 호랑이가 어린 아이를 물어다 이곳에 놓고 솔가루를 덮어놓아 살렸다는 전설이고, 다른 하나는 옛날 호랑이가 어린아이를 물어다가 이곳에 놓고 뜯어먹었다는 전설이다. 옛날부터 제를 지낸 장소이다. 현재는 공장의 창고 자리이지만 지금도 제를 지낸다.

5.보릿짚 누리라는 설도 있음.



가라티 마을 지형도-제당, 오방도는 장소(1:5000×0.82)

옛날에는 마을 서쪽 곰내 옆에 있는 곰내샘에도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샘이 없어져 지내지 않는다.

오방돌기는 새벽 4시까지 이어진다 제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물을 놓을 때도 재빠르게 한다. 당주와 부당주가 상과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제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이다.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풍물을 치고, 이동은 당기의 인도로 이루어진다.

오방돌기가 끝나면 당주집으로 돌아와 당기를 다시 세워놓고 한바탕 풍물을 치고 방에 들어가 간단한 음식을 먹는다. 음복을 하는 셈이다. 오방 도는 동안에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술도 모두 땅에 붓는다.

당주네 집에 도착하면 밥과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쉰다.

5)제의 결산

파젯날 집에서 아침을 먹고 10시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당주네 집으로 모인다. 이때 당제에 들어간 비용을 결산한다. 당주네 집에서는 쇠머리를 삶아 국밥을 만들고 음식과 술을 준비한다. 준비는 이웃에 사는 여자들이 도와준다. 온 종일 마을사람들이 풍물을 치고 놀고 당기를 내린다. 점심은 당주네 집에서 먹고 저녁에 돌아온다.

과거에 제를 지내지 않아 선달 그믐날 마을 사람이 죽은 후로 다시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움말 주신 분

유인희(73) 노천리 32번지

김문환(76) 노천리 324-14

김요집(68) 노천리 335번지

김한제(83) 노천리 459번지

김형기(69) 1999년 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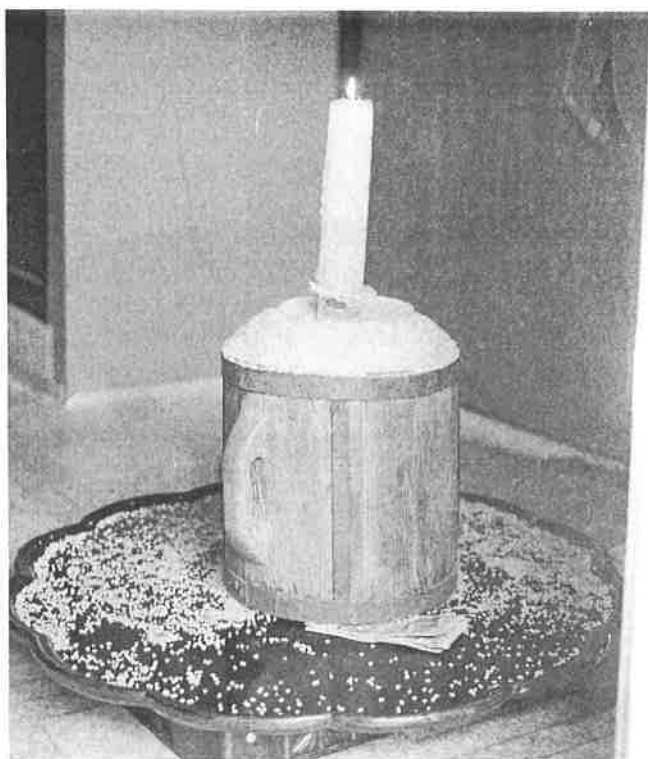
양태성(60) 1999년 축관



당주집의 동기(洞旗)(99. 2. 23)



걸림(99.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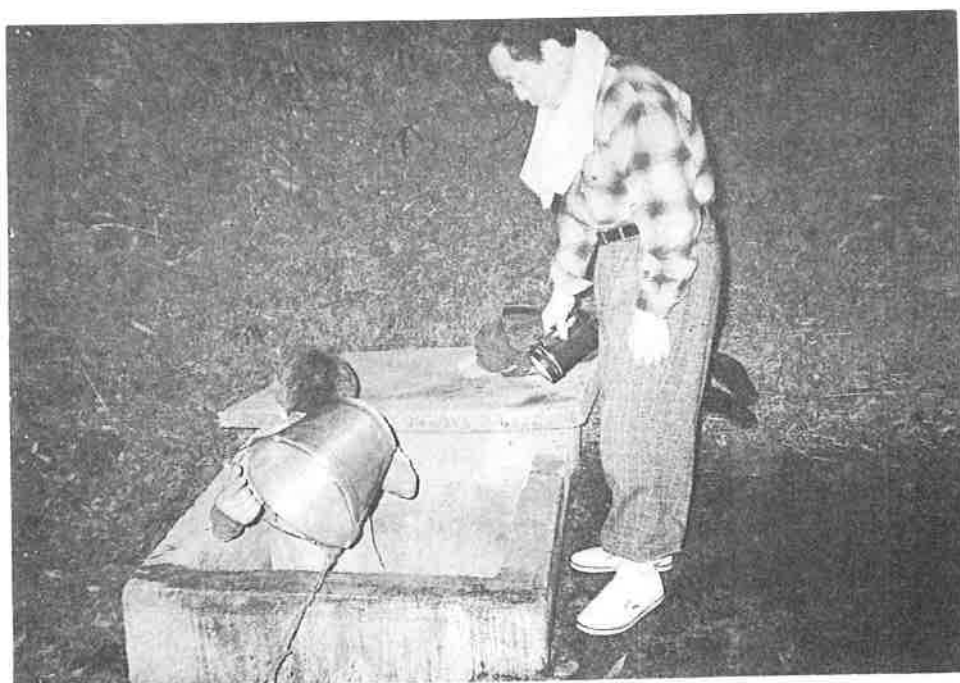
불바지쌀(99.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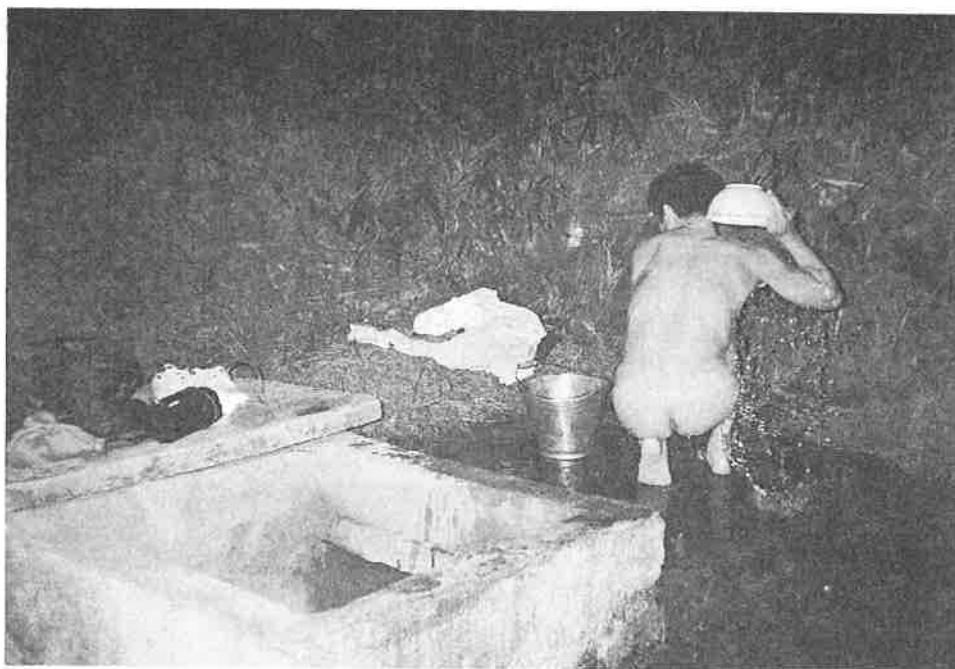
당샘(큰샘)과 금줄(99. 2. 23)



제당(99. 2. 23)



당샘품기(99. 2. 23)



당샘에서의 목욕(99. 2. 23)



제당으로 오르는 모습(99.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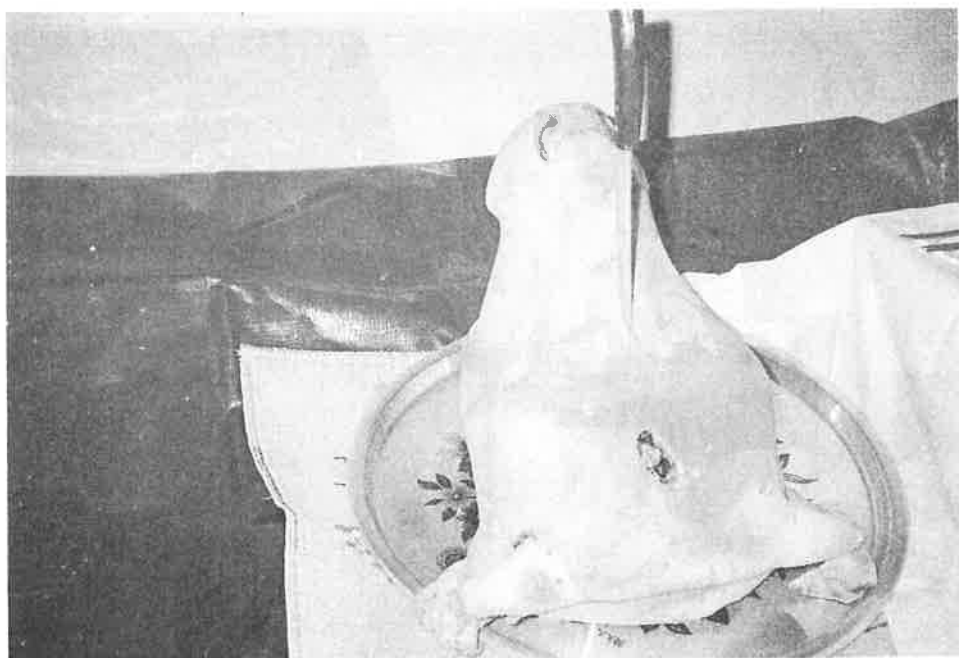
당제(99.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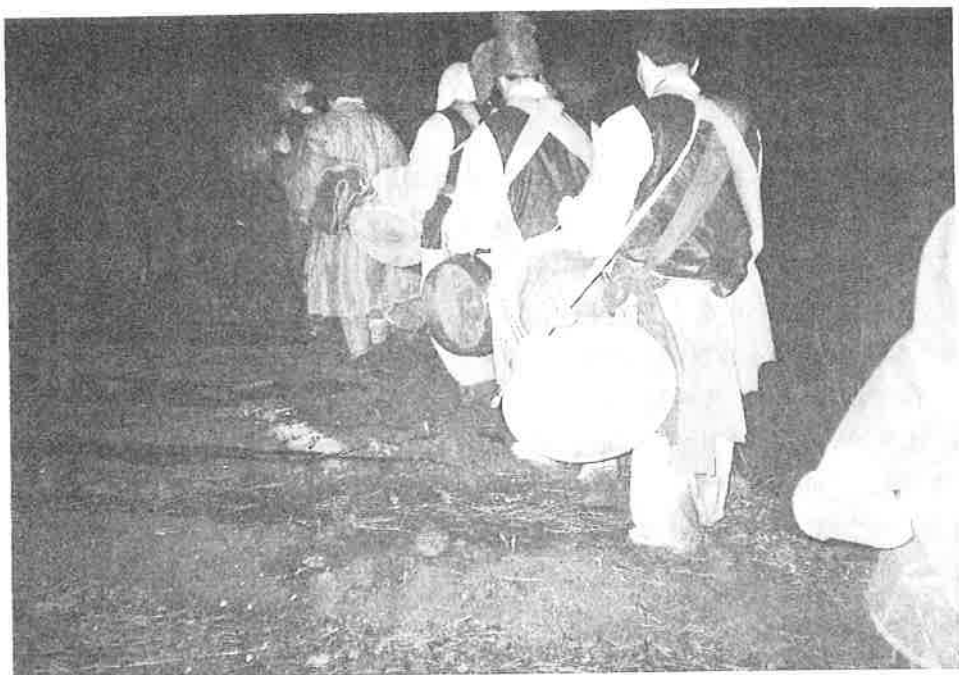
소지(99.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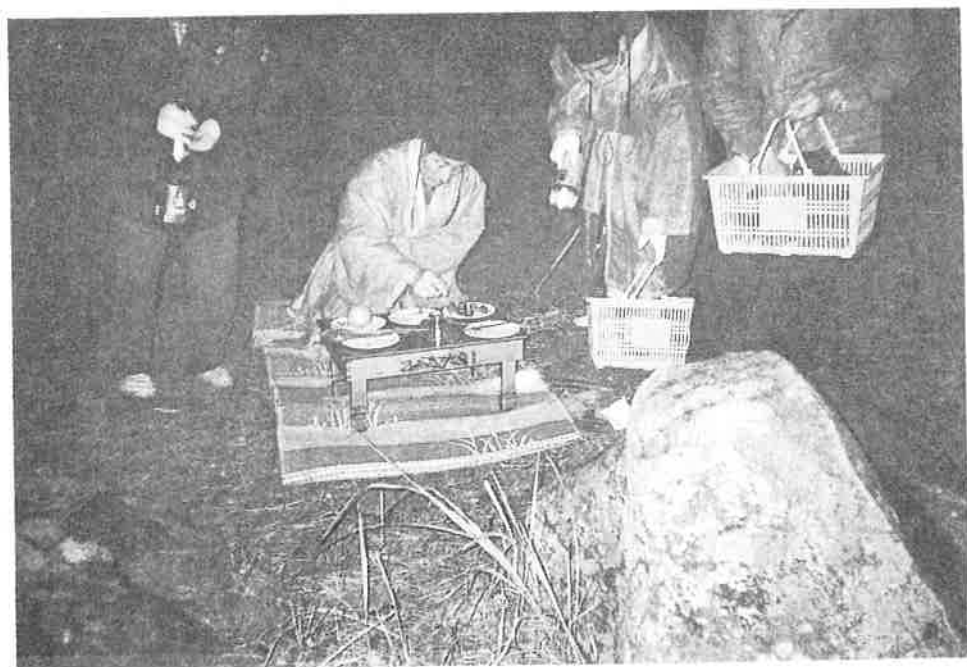
제물-밥과 국(99. 2. 23)



제물-쇠머리(99. 2. 23)



오방돌기(99.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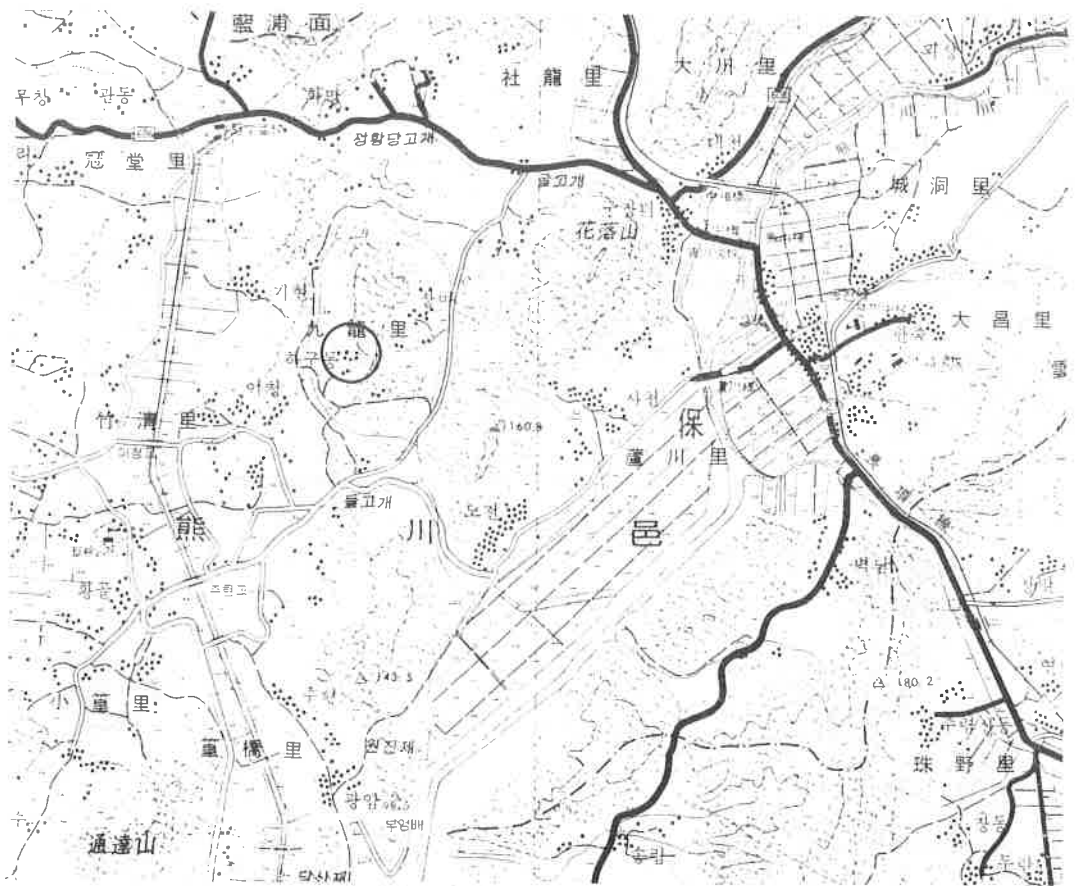
오방돌기(99. 2. 24)

19. 마차울 마을 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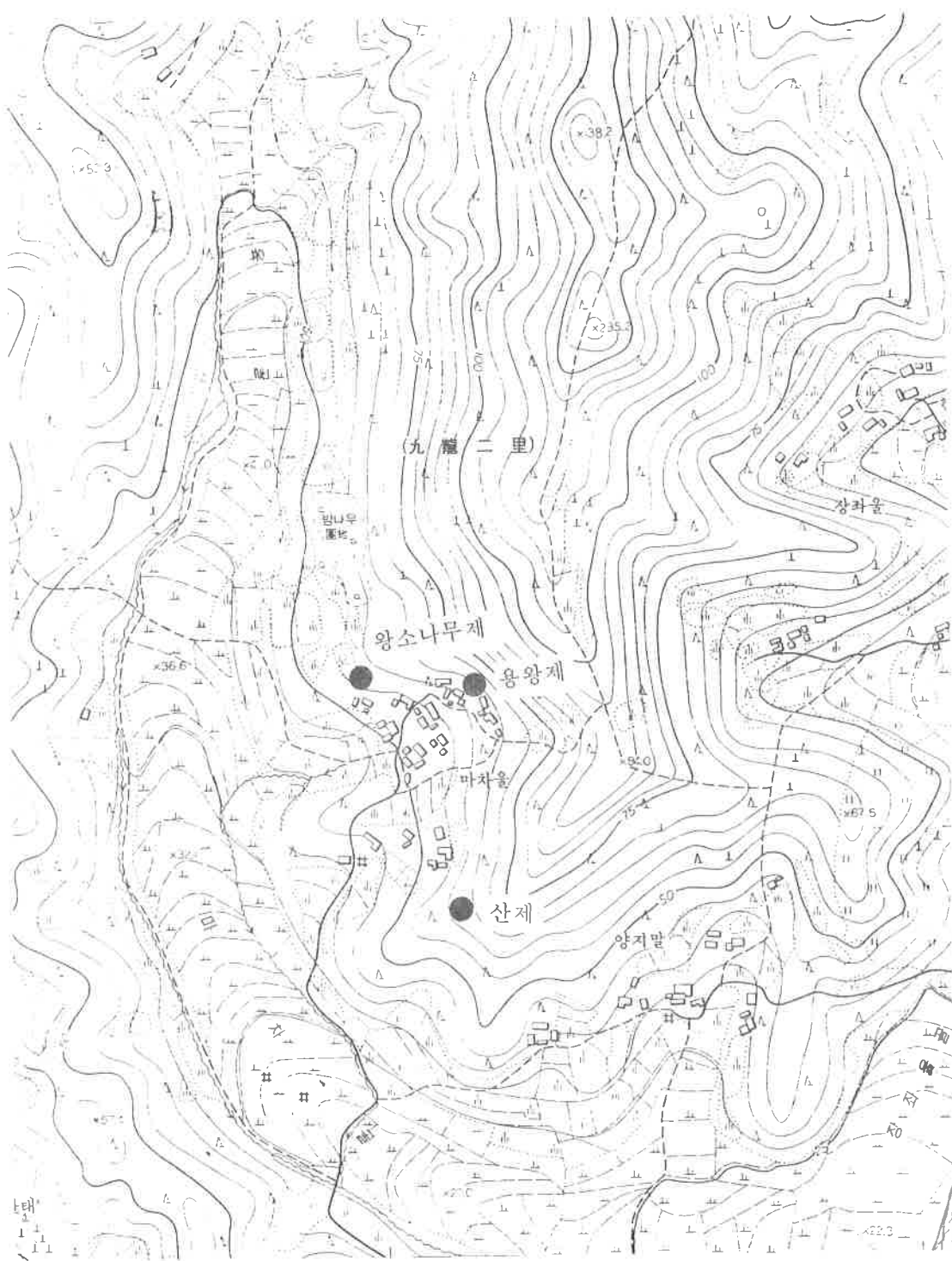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마차울 마을은 웅천읍 구룡리 남쪽 부분이다. 웅천읍 소재지인 대창리에서 황교리 공군사격장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있는 독고개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작은 길을 통하여 들어간다. 마을 안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한다.

마을 주변은 낮은 구룡성 산지로 둘러싸이고 마을 앞에는 긴 계곡을 따라 논이 개간되어 있다. 자연 마을인 마차울, 양청말, 독고개가 모두 한 마을이라(같은 반) 함께 제를 올린다. 모두 30여 가구가 사는데 남포 백씨가 절반이 넘는다. 남포 백씨는 제보자인 백남선 씨의 16대조 묘가 웅천면 구룡리 고뿌래 마을에 있고, 마차울 마을 주변에 11대조의 묘가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차울 마을 지형도(1:50000)



마차울 마을 지형도(1:5000×0.82)

2.제의 유래

마차울 마을의 동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마을에 거주하는 남포 백씨가 수 백년 전부터 살아왔고 제를 올리는 소나무가 어른 두 아름으로 수백 년 된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존해 있는 노인들의 기억으로는 옛날부터 마을 뒷산의 바위 있는 곳에서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언제인가 산제를 한번 지내지 않았더니 마을에 호열자(콜레라)가 들어와 장정 7~8명이 한꺼번에 죽어 다시 지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낸다고 한다.

3.제의 준비

마차울 마을에서는 칠월칠석날 제를 지낸다. 칠석날이 가까워지면 마을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 당주로 위촉한다. 당주로 위촉되면 2~3일은 목욕재계하고 외출을 삼가며 근신한다고 한다.

제물은 간단하게 준비하는데 술, 과일, 포, 돼지고기 정도이다. 술은 옛날에는 막걸리를 준비하였으나 현재는 약주나 정종을 쓴다. 제물을 사는 데 10여 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마을 기금을 쓴다. 마을에는 예전부터 논이 몇 마지기 있었는데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4마지기를 팔아 사용하고 현재는 3마지기에서 1년에 쌀 2가마를 받아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근래에는 마을에서 축산업하는 사람이 돼지 1마리씩을 내놓아 제에 사용하고 나누어 먹곤 하였다.

음식 준비는 당주네 집에서 하는데 음식을 많이 장만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한다.

칠월 초엿새날 오후나 칠석날 식전¹⁾이 되면 산제당에 오르는 길을 깎고 산제당 주변을 청소하고 마을 샘을 모두 품고 주변을 청결히 한다.

4.산제

옛날에는 당제라고 했는데 현재는 산제라고 한다고 한다. 마을 뒤쪽 산의 바위 있는 곳에서 지낸다. 바위 앞에는 「山神之位」라고 쓴 비를 세웠고 비 앞에는 작은 상석(床石)을 마련하였다.

젯날 아침 10시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당굿집에 모여 풍물을 치면서 산제 지내는 곳으로 향한다. 네 사람이 북, 장구, 썰과리, 징을 들고 앞서 올라가고 몇

1) 아침 식사 전

사람이 자리와 제물을 들고 따른다. 산제 지내는 곳에 도착하면 자리를 펴고 상석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2000년의 경우 상어포, 수박, 돼지고기, 술이었다. 풍물을 치다가 그치고 당주가 술 한잔을 올리고 절하는 것으로 제는 끝이다. 축은 읽지 않는다. 옛날에도 없었다고 한다. 이어서 음복을 하고 풍물을 치면서 내려온다.

5. 용왕제

용왕제는 마을 뒤 대동샘에서 지낸다. 이 샘은 과거에는 마차울 15가구 전 주민이 먹었으나 현재는 두 가구만 먹는다. 식전에 깨끗하게 청소한 샘에 풍물패와 함께 도착하면 샘을 돌면서 풍물을 치고 샘 바닥에 산제당에서 가져온 제물을 진설하고 한 잔 술을 올리고 당주가 두 번 절한다. 술은 샘가에 버리고 왕소나무 있는 곳으로 향한다.

6. 왕소나무제

마을의 서북쪽 끝에는 큰 왕소나무 두 그루가 붙어있다. 하나의 크기가 장정 두 아름씩으로 수백 년은 됨직하다. 최근에 한 그루가 죽어 현재 한쪽 나무는 말라있고 북쪽의 것은 건강하다. 풍물을 치고 이곳에 도착하면 쟁반 위에 포, 돼지고기, 과일을 놓고 술 한 잔을 따라 올리고 두 번 절한다. 절이 끝나면 술을 주변에 버리고 상을 물려 나누어 먹는다. 소나무 밑에는 옛날부터 마을 주민의 쉼터였고 현재도 쉴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산제 지내는 곳에는 오지 않지만 이곳 왕소나무 밑으로 나오는 주민이 많다.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고 논다. 풍물을 치고 술도 먹고 노는 것이다. 옛날에는 막걸리를 몇 말 사서 제에도 사용하고 먹고 놀았다. 요즘에는 소주를 산다. 요즘에는 가구 수도 줄어들고 관심도 적어져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7. 마을 돌기

왕소나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끝나면 풍물패가 마차울, 독고개, 양청말 등 마을 전역을 돈다. 모든 집을 방문하여 풍물을 치며 소위 지덕을 눌러준다. 이때 우물이 있으면 모든 우물을 둘러 풍물을 쳐준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대개 ‘불바지쌀’이라고 해서 그릇에 쌀을 담고 촛불을 켜고 물과 함께 상에 올려 놓는다. 이 불바지쌀을 모두 모으면 2~3말이 되는데 마을의 경비로 쓴다. 또 어떤 집에서는 술상을 내오기도 한다.



당주집에서의 풍물놀이(음 2000. 7. 7)



산신제 제상 모습(음 2000.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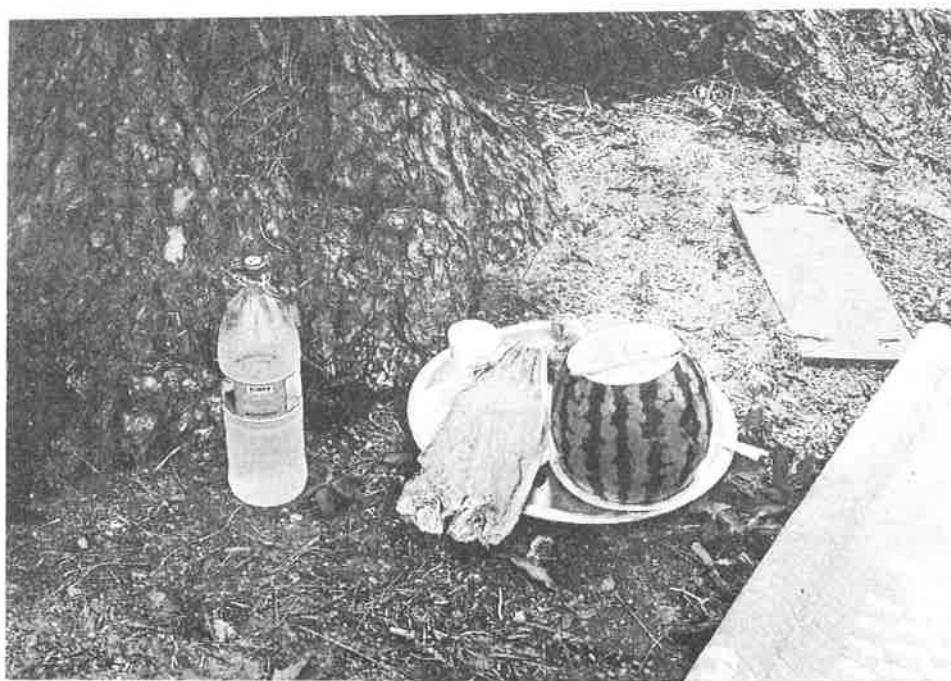
산신제 모습(음 2000. 7. 7)



용왕제 모습(음 2000. 7. 7)



왕소나무(음 2000. 7. 7)



왕소나무제 제물(음 2000.7.7)



왕소나무제 모습(음 2000. 7. 7)



왕소나무 밑에서의 회식 모습(음 2000.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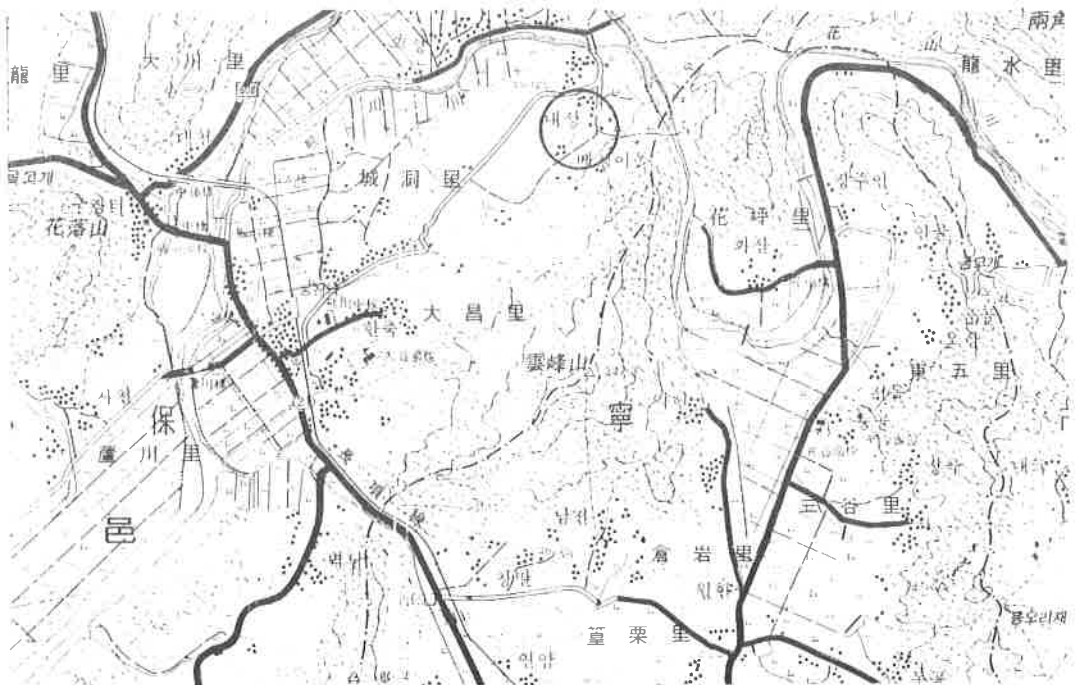
20. 안성굴 마을 동제

1.마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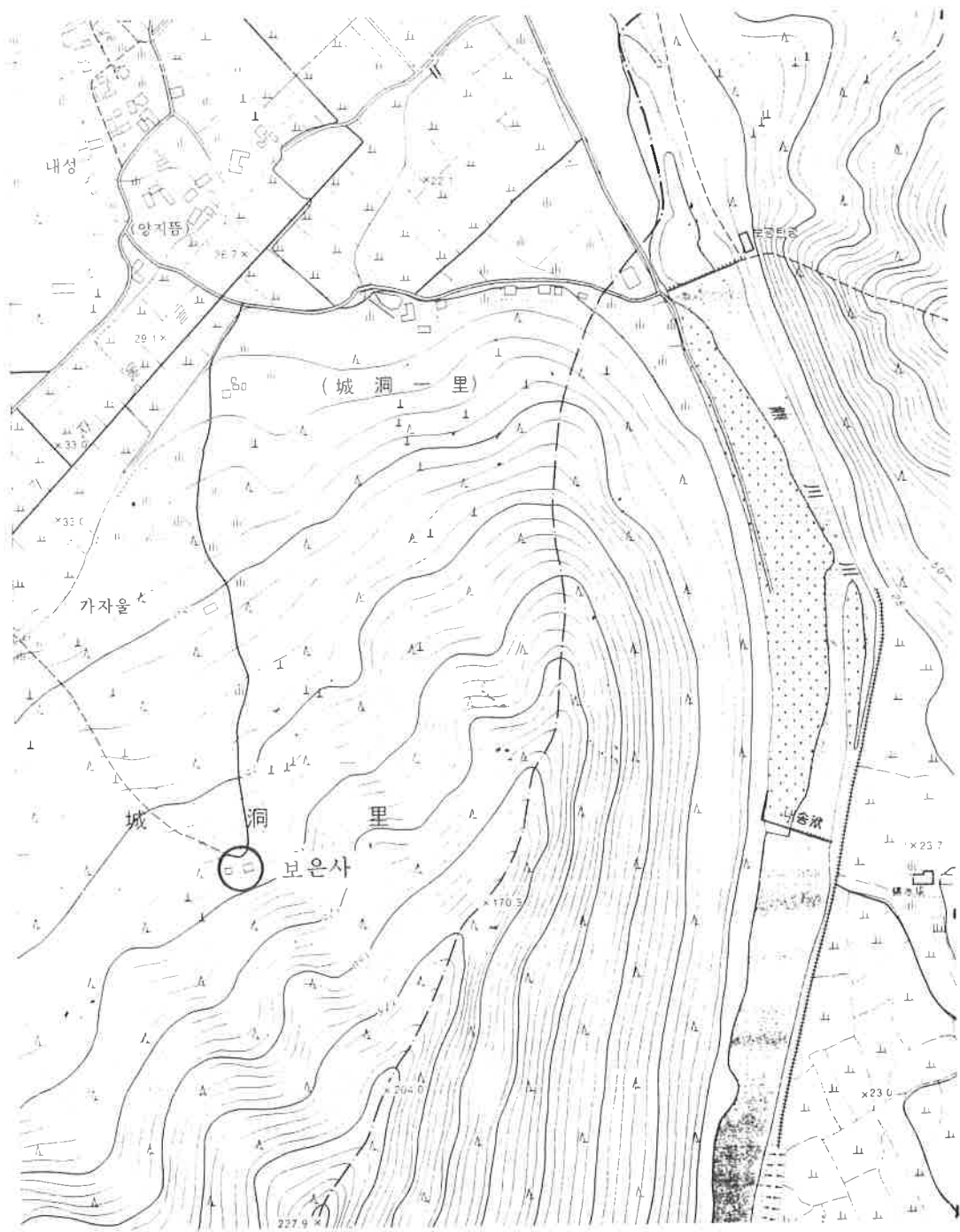
웅천읍 성동리 안성굴 마을은 운봉산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남쪽은 해발 337m의 운봉산이고, 북쪽은 웅천천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운봉산에는 포곡식(包谷式) 석성이 있어 「성굴」로 불렸으나 마을이 커지면서 웅천천 주변 하중도(河中島)에 있는 마을을 「맞성굴」 운봉산 밑에 있는 본 마을을 「안성굴」로 부르게 되었다.

마을에는 예부터 보성 오씨, 풍천 임씨가 많이 거주하였으며 현재 40여 호가 거주한다.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20여 가구가 마을에 있는 절에 다니고 10여 가구는 교회에 다니며 10여 가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안성굴 마을 지형도(1:50000)



안성굴 마을 지형도(1:5000×0.82)

2. 동제의 기원

안성굴 마을에는 옛날에는 산제당이나 당집이 없었고 제도 지내지 않았다. 다만 웅천읍 소재지 시장으로 통하는 고개에 성황당이 있어 예부터 성황제를 지냈지만 마을 대동에서 지낸 것은 아니었다. 정월 초나 보름에 개인적으로 위했을 뿐이다.

70여 년 전 마을에 사는 오면규씨 어머니가 자기 산에 산신당을 짓고 기도를 하였다. 그분은 마을에서 ‘보살’로 불릴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 이때까지는 마을 대동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올린 것이다. 이렇게 40여 년을 내려오다가 1970년대 전국의 암자를 정리할 때 정리 대상이 되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하고 이름을 「報恩寺」라 하였다. 이후 조계종에서 스님을 파견하였고 현재는 비구니승 한 분이 계시다. 그래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산제당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15년 전쯤 마을의 40~50대 젊은 사람들이 급사(急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남편을 여윈 어느 부인이 법사한테 물어보니 “이 마을의 산세를 보니 산신을 모셔야 된다”고 하였다. 처음에 법사가 일러준 산은 안산, 왕봉, 또는 대화산으로 불리는 마을 동쪽에 있는 경사가 급한 바위산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1~2년 동안 산제를 지내지 않자 또 젊은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을 보은사 스님과 상의하자 산신은 아무산에서나 모셔도 되고 절에서 모셔도 된다고 하여 보은사에서 모시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보은사를 산제당으로 부르고 있는 터라 자연스럽게 보은사에서 모시게 되었다. 산신제를 지낸 뒤 마을은 무사하게 되었고 도시로 나간 젊은 사람들도 무사하게 되었다.

제는 정월보름 巳時(10시)에 올리기로 하였다.

3. 걸립

처음 1~2년 동안은 마을 전체에서 걸립하여 제를 올렸다. 마을 부녀회에서 풍물을 치고 다니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까지 모두 걸립하였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미신이라고 협조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희망하는 사람만이 걸립하여 지내게 되었다.

요즈음은 풍물은 치지 않고 ‘알음알음해서¹⁾’ 거두고 부녀회장에게 가져오라고 전화하기도 한다. 액수는 현금 5000원, 쌀 1~2되 정도이다. 2001년의 경우 돈으로 15만원 정도와 쌀 40kg 정도가 걸립되어 제에 사용되는 쌀을 제외하고 일부를 팔아 제 비용에 보태었다.

4.제의 준비

제물은 정월 열 나흘날 응천장에서 산다. 일반 제사와 비슷하게 삼색실과, 과자, 7가지 나물, 떡 등을 준비한다. 절에서 지내기 때문에 고기나 돼지머리 등은 준비하지 않는다.

정월 보름날 낮 10시쯤 되면 모든 제물을 준비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녀회원 모두가 절에 올라간다. 전날 산 제물이나 밥을 하고, 떡 두 시루를 찌 가며 일곱 가지 나물을 준비해 간다.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무, 시래기 등이다. 숙주나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5.석가모니 부처님전의 제

절에 도착하면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 상에 약간의 과일과 떡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님이 거처하는 방 왼쪽 방에 모셔져 있다. 모든 기도는 스님이 불교식으로 진행하고 불경을 함께 읽기도 한다.

6.신장전의 제

이어서 신장상 앞에 약간의 제물을 놓고 제를 올린다. 신장상은 석가모니 부처님 왼쪽 벽면에 붙어있다.

7.산신제

다음으로 산신각으로 간다. 산신각은 절의 남서쪽 위에 있는 1칸의 건물인데 기와 지붕이다. 건물 안에는 산신도가 붙여져 있다. 산신은 호랑이 옆에 있는 모습인데 호랑이 눈에서 광채가 나도록 그려져 있다.

산신도의 아래에는 「報恩寺 佛紀 二千五百二十八年四月四 奉安 證明 朴大輪

1) 주민들 표현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걷는 것을 말함

全魚 김종천 住持 吳冕圭 功德主 田弼秀 保寧郡 大川邑 木場里」라고 써어있어 산신도가 서기 1962년에 만들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²⁾

산신각에는 삼색과일, 밥, 떡시루 외에 생 미나리와 생 오이, 호두, 밤을 날로 쓴다. 이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물도 풍성하게 쓴다. 이곳에서도 스님이 불경을 외우고 제를 주관한다. 이어서 유왕제를 지낸다.

5. 용왕제

용왕제는 보은사의 샘에서 지낸다. 샘에 배, 사과, 굴 등 간단한 과일과 쌀을 담고 초를 쫓은 그릇을 놓고 제를 올린다. 이때도 역시 스님이 주도한다.

이때 샘 위에 있는 미륵부처님께도 약간의 제물과 촛불을 켜고 함께 제를 올린다. 함께 제를 지내기 때문에 절도 2배로 한다.

용왕제는 12시쯤 끝난다. 용왕제가 끝나면 올라간 부녀회원과 특별히 관심이 있어 올라온 주민(남자)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내려온다. 절이라 술이나 고기는 없다.

안성굴 마을에서는 옛날에는 용왕제를 지내지 않았고 20여 년 전 여름 배챙이에서 용왕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는 무창포해수욕장에서 보령군이 주관하여 지냈던 축문을 참고로 하여 만든 축문까지 읽어가면서 마을 대동에서 지냈는데 한 번 제사로 끝냈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서는 설날 그믐께나 칠월칠석 전에 샘을 품고 샘에 떡, 밥 등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마을 대동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샘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샘을 청소하고 하는 것이었다. 2002년 2월 3일(음 12월 22일)에도 안성굴³⁾ 마을 4집이 사용하는 공동샘을 품고 청소하고 떡을 올렸다. 이것도 마을에서는 용왕제라고 한다.

도움말 주신 분

이정우(58)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72

오종철(68)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78

報恩寺 스님: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산 13번지

2) 일본 불교 기원으로 계산하였다. 朝鮮 불교 기원으로 계산하면 서기 1501년이 되어 부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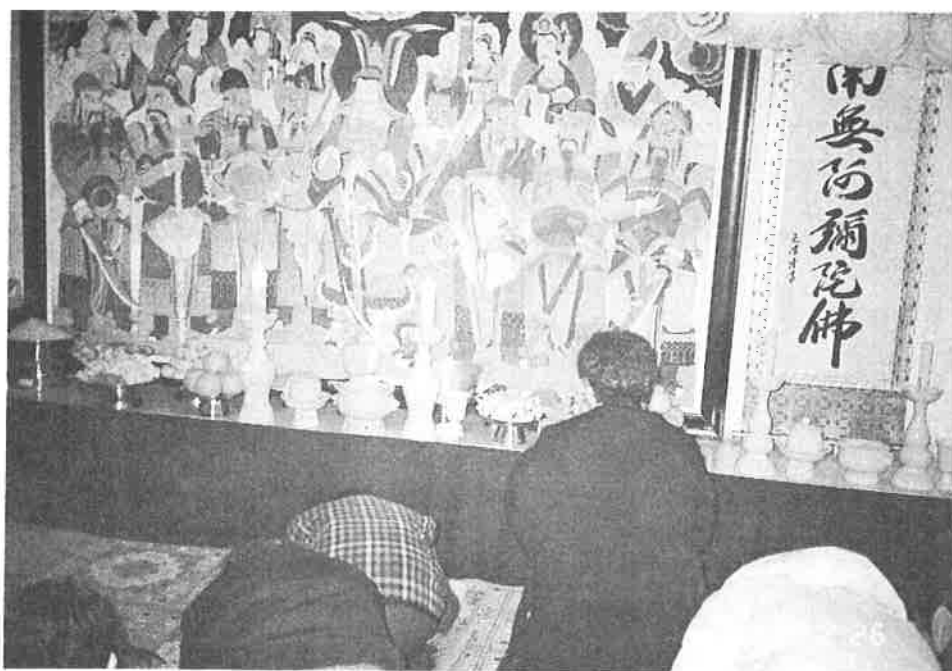
3) 안성굴 마을 안에 있는 소지명. 성이 있는 골짜기 밑에 있는 작은 마을.



보은사 모습(2002. 2. 26)



석가모니 부처님전의 제(2002. 2. 26)



신장전의 제(2002. 2. 26)



산신당(2002. 2. 26)



산신도와 제물(2002. 2. 26)



산신제(2002. 2. 26)



제에 참여한 마을 주민(2002.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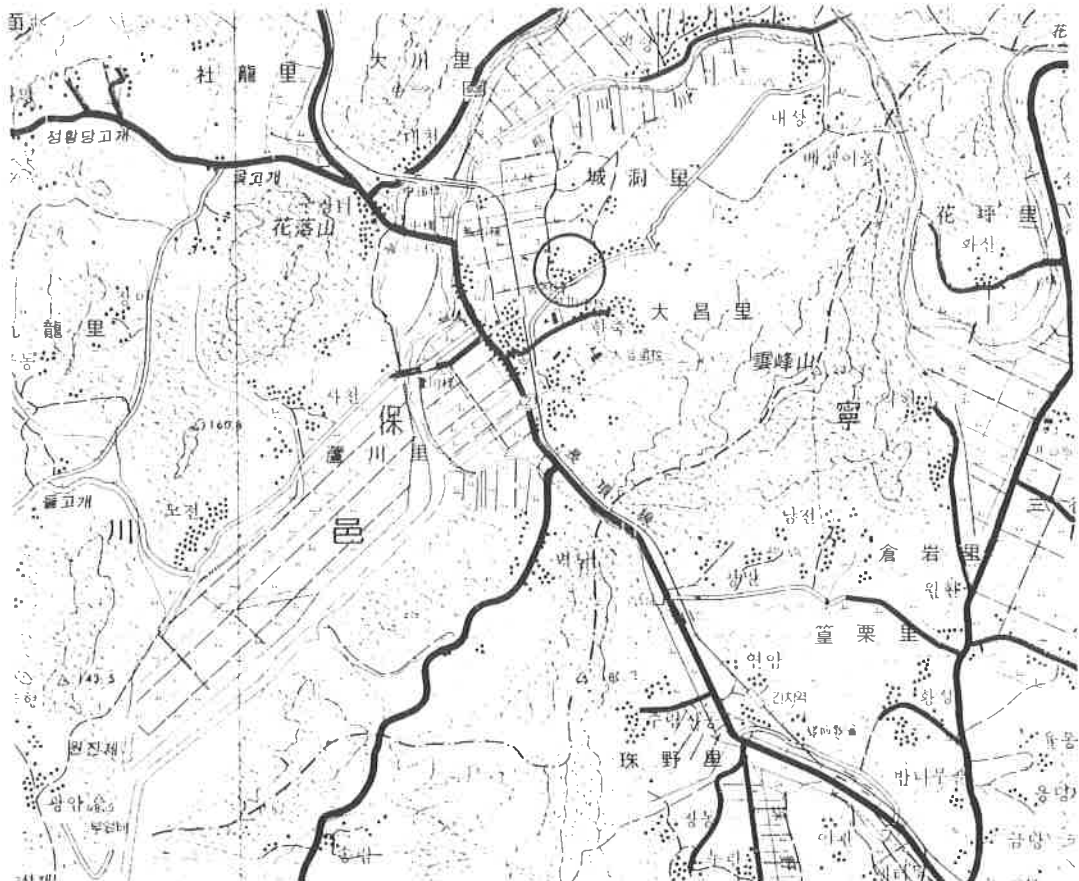
미륵부처님께 올리는 제와 용왕제(2002. 2. 26)

21. 한내 마을 동제

1. 마을의 개관

한내 마을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웅천중학교 북쪽 마을이다. 마을의 동쪽은 해발 337m의 운봉산이 자리하고, 서쪽과 남쪽에는 웅천천이 만들어놓은 넓은 평야가 있다. 마을의 서쪽은 웅천읍 시가지이지만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한내 마을과 방죽굴, 남태이 마을만이 있었다.

한내 마을에는 집성을 이루는 성씨는 없고 서씨, 노씨, 장씨, 황씨 등이 몇 가구씩 살았다. 근래에 아파트가 들어서 100여 가구가 거주한다.



한내 마을 지형도(1:50000)



한내 마을 지형도(1:5000×0.82)

2. 동제의 유래

한내 마을은 옛날부터 산제당이 없었다. 다만 방죽굴로 통하는 언덕 위에 서낭당이 있었다. 이곳에는 아릅드리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이곳을 지날 때마다 돌을 세 개씩 던져 큰 돌무더기를 이루었다. 정월 초나 보름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떡을 해놓고 위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웅천중학교가 들어서고부터 위하지 않았고 돌무더기도 없어졌다.

이후 마을에서 위하는 곳은 없었다. 그러자 마을 젊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는 사람도 여럿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가, 부정한 상여가 정주나무 밑에서 꼭 쉬어가고, 노제(路祭)를 지내고 하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상여가 쉬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주나무 있는 곳에 제를 지내고, 마을로 상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를 지낸 지 꼭 20년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여를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여가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과 2001년은 제를 지내지 않았으나, 2002년은 그래도 지내자고 하여 제를 올렸다.

3. 걸립

정월 초가 되면 날을 잡는다. 보름 안에 잡는데 9일, 10일도 되고 14일도 된다. 날이 잡히면 걸립을 한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다녔으나 근래에는 회관으로 가져오라고 한다. 1999년에는 50가구가 3000원씩 일률적으로 내고 쌀 1되씩 내는 사람도 있었다. 60여 가구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총 150,000원의 돈과 한두 말의 쌀이 모아졌다.

제 전날이 되면 웅천장에 가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삼색실과 돼지대가리 두 개, 북어포 등이다. 물건을 살 때는 값을 깎지 않고 흠집이 없는 것으로 산다.

제의 음식 준비는 옛날에는 정주나무 밑에 있는 집에서 하였으나 근래에는 마을 회관에서 한다.

4.마을 회관제

제일 먼저 마을 회관에서 제를 올린다. 마을 회관의 큰 방에 서향으로 상을 놓고 그 위에 삼색실과, 포, 무나물을 놓고,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고 막걸리를 한 잔 따라 올린다. 이어서 비선¹⁾이 절을 두 번 한다. 제의 준비는 마을 노인들이 하지만 제를 올리는 사람은 비선이다. 마을에는 현재 비선이 두 명이다. 절이 끝나면 비선이 마을 대동소지를 올리고 끝낸다. 개인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2002년의 제물은 다음과 같다.

떡시루, 쌀(초를 꽃아서),물, 두부탕, 명태,
굴, 무나물, 밤, 대추
사과, 배, 산자, 사탕

5.유왕제

마을 회관 제를 마치면 마을 회관의 수돗가에서 유왕제를 지낸다. 유왕제는 수돗가에서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수도 밑에 상을 놓고 마을 회관제와 같은 제물을 차린 후 비선이 제를 올리고 마을 대동 소지를 올린다. 이어서 정주나 무로 향한다. 2002년의 제물은 다음과 같다.

떡시루(파로 놓음)
쌀(초를 꽃아서), 배, 굴, 감, 사과, 밤, 대추, 산자, 무나물, 사탕(둥근 상에 놓음)

1) 마을의 무속인을 비선이라고 부름

6. 정주나무제

정주나무에는 제 3일 전부터 황토를 3군데 놓고 깃대를 묶어 놓는다. 깃대는 대나무로 끝의 가지는 그대로 둔 채 빨강, 노랑, 흰색의 천을 3자 3치씩 잘라 묶어 세운다.

유왕제를 마치면 마을의 젊은 부인들이 풍물을 치면서 정주나무 밑으로 이동하고, 할머니들은 짚을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곳에는 삼색실과, 북어포, 무나물, 탕국(무와 북어를 넣고 끓인 것), 떡시루, 돼지머리를 놓는다. 옛날에는 떡을 한 말씩 하여 놓았으나 요즈음은 시루 밑 깔릴 정도로 조금씩 한다. 이곳에서도 비선이 제를 주관하는데 옆의 은행나무에도 똑같은 제물을 차리고 동시에 진행한다. 술은 1잔 올리고 두 번 절하고 대동소지를 올린다. 이어서 걸립에 참여한 모두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마치면 제물의 일부를 떼어 사방에 뿌리고 약간의 음복을 하고 음식을 가지고 회관으로 온다. 2002년의 제물은 아래와 같다.

떡시루, 돼지머리, 쌀(초를 꽃아서) 사탕, 산자, 술, 탕, 무나물, 명태 과자, 꿀, 감, 배, 사과, 대추,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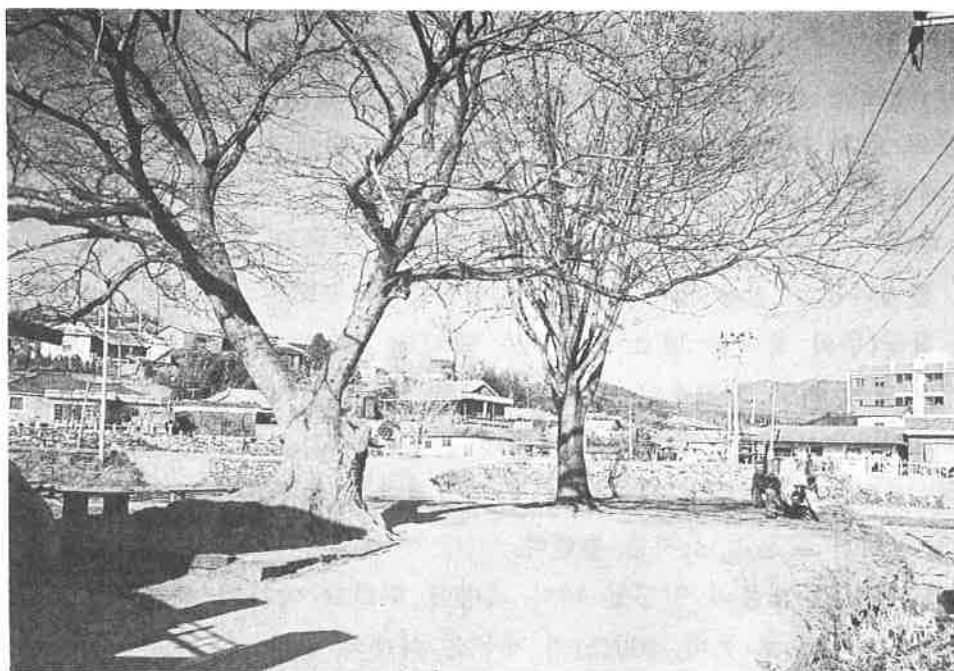
7. 제의 결산

회관에서는 밥을 하고 찌개를 끓여 나누어 먹는다. 제는 12시 안에 끝나게 되고 점심 먹기 알맞은 시간이 된다. 점심을 먹으면서 제의 비용을 결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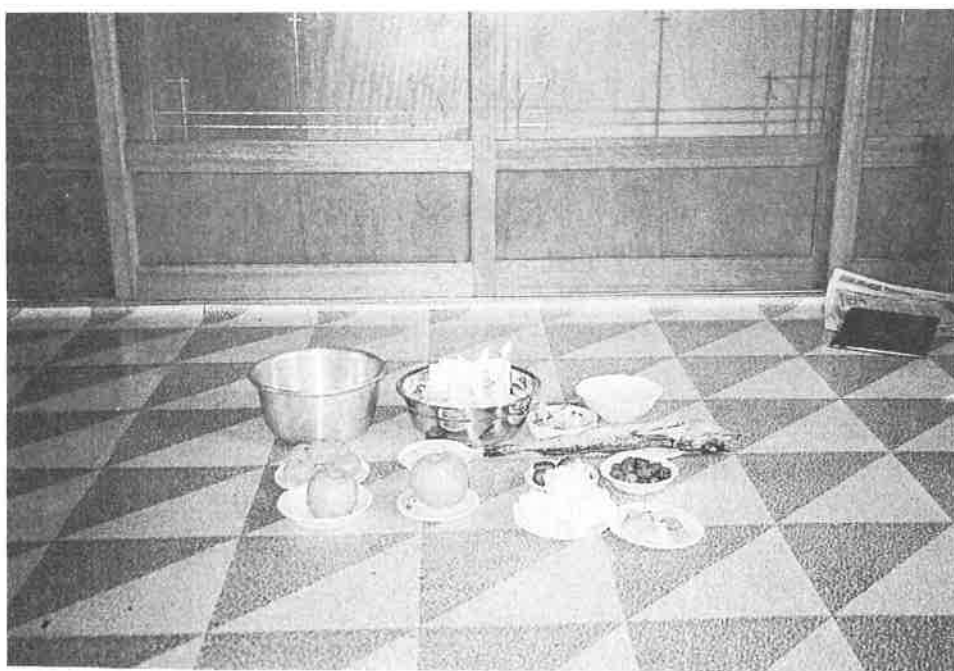
도움말 주신 분

이향우(75)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5리) 72

이향우(75)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5리) 518



한내 마을과 정주나무(2002. 2)



마을회관 방안의 제물(2002 .2. 22)



유왕제상(2002. 2. 22)



정주나무제 제상(2002. 2. 22)



정주나무제(2002. 2. 22)



정주나무제(2002. 2. 22)

22. 청석다리 마을 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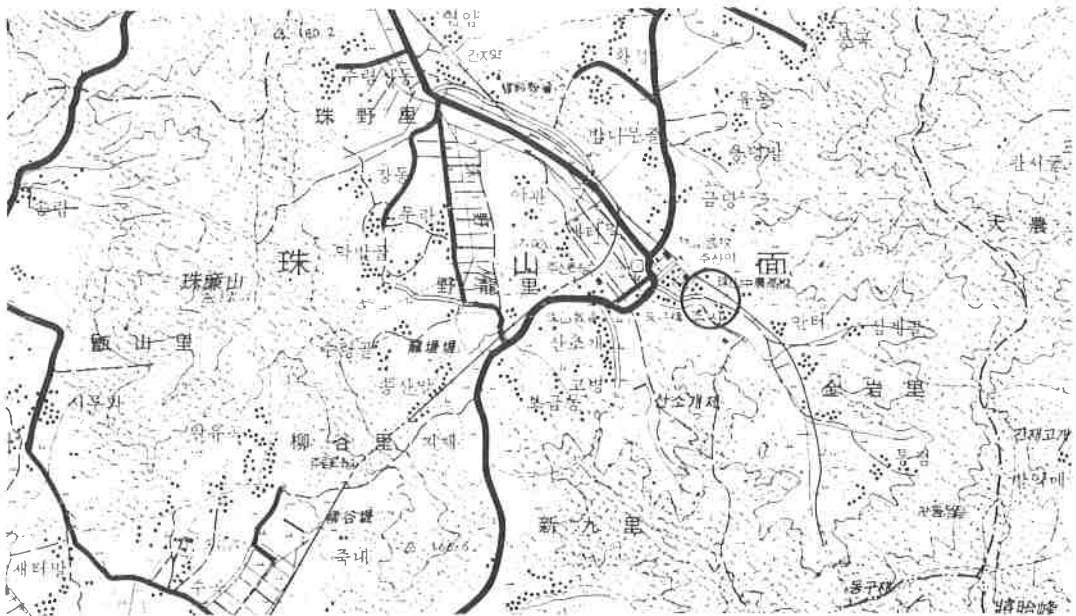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주산면 금암리 청석다리 마을은 주산산업고등학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과거에는 주산면 소재지 시장 마을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근래 분구(分區)되어 도로 동쪽 마을만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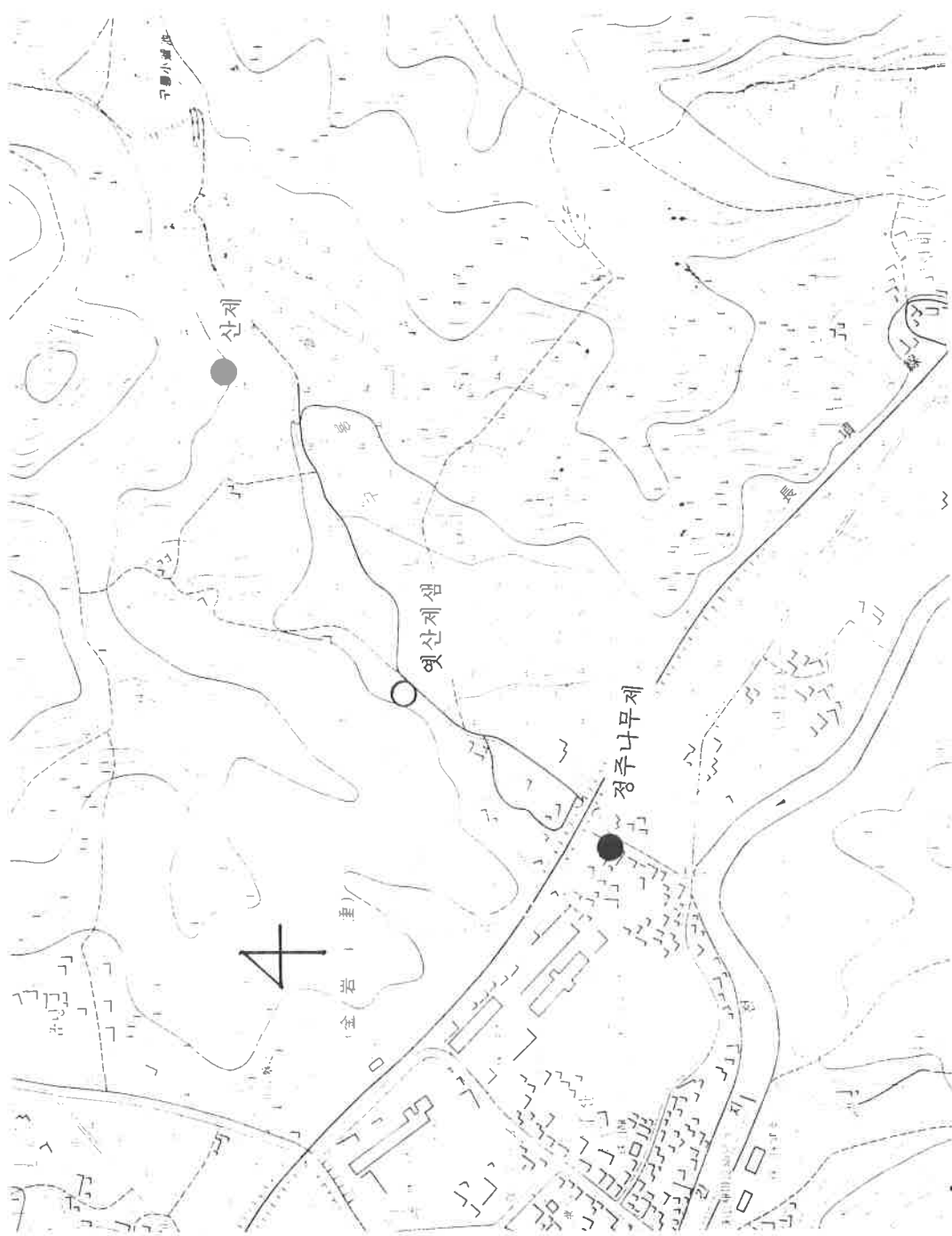
마을은 하천 주변에 형성된 비교적 넓은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주산초등학교와 주산산업고등학교가 들어서 마을의 절반 정도가 학교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이 번창하여 주산면, 미산면, 비인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차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였으나 현재는 기차역이 폐쇄되었고 시장도 쇠퇴하였다.

주산면의 중심 지역이라 집성촌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풍천 입씨가 비교적 많이 거주한다.



청석다리 마을 지형도(1:50000)



청석다리 마을 지형도(1:5000×0.82)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일부는 상업에 종사한다. 인구의 감소가 심한 농촌이라 근래에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거의가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이다.

2. 산제

청석다리 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에 마을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제를 올린다. 산제는 구령목에 있는 산제당에서 지낸다. 마을에서는 산제 지내는 것을 ‘산제 잡숫는다’고 한다. 산제당은 현재 블록 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다. 그러나 약 20년 전까지는 흙벽에 ‘청석’을 지붕에 얹었다. 청석¹⁾은 푸른빛을 띠는 암석으로 두께가 얇고 평평하다. 청석은 아무 곳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의 보령댐 근처인 동맥이(웅천면 평리)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마을 청년들은 지붕을 얹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가서 청석을 가져왔다. 금암리에서 보령댐이 있는 산까지 약 15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저녁때쯤 마을로 돌아왔다고 한다.

산제당 내부 정면에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신위가 모셔져 있다. 신위는 가로 40cm, 세로 80cm 정도 크기이며, 여닫이문이 양쪽으로 달려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后土之神’이라고 쓴 위패를 모셔 놓았다. 신위 위쪽 벽면에는 얇은 판에 61명의 방명(芳名)을 기록하여 걸어 놓았다. 방명록은 “檀紀四二八七年(1954년) 一월 日 艮峙山祭堂 改築功勞者”이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그리고 성명 아래에 최고 2000圓에서 최저 100圓에 이르는 액수를 기재하였다. 그 내용을 표로써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번호, 성명, 액수로 구분하여 가로쓰기를 하였다.

천장의 대들보는 과거 청석 지붕 건물일 때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글자가 적혀있다.

龍 檀紀四千二百八十六年癸巳十二月十一日豎柱午時上樑伏願之後
一洞過安 百穀吉豐 虎龍護衛 東袍聖德 北拱聖州
萬歲無窮 五福兼全 災害消滅 西挹珠簾 南拒月明 虎

1) 청석은 보령 동부 지역의 중생대 퇴적암 지역에서 나오는 점판암으로 검푸른 빛을 띠며 얇고 평평하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산제당 개축 공로자 芳名

番號	姓名	額數	番號	姓名	額數
1	全尙煥	二千圓	32	南宮鍾	三百圓
2	尹柱模	二千圓	33	金基鎬	三百圓
3	任魯淳	二千圓	34	金容德	三百圓
4	任世準	一千圓	35	金汀得	三百圓
5	任榮淳	一千圓	36	任鳳淳	三百圓
6	朴性鶴	一千圓	37	任漢鎬	三百圓
7	任元宰	一千圓	38	金煥圭	三百圓
8	任象淳	八百五十圓	39	張明寬	二百五十圓
9	白樂興	七百圓	40	任鎭圭	二百五十圓
10	白樂成	七百圓	41	任世宰	二百五十圓
11	尹聖鍾	六百五十圓	42	申鉉甲	二百十圓
12	尹哲熙	六百圓	43	崔相振	一百圓
13	任贊宰	五百五十圓	44	任汀淳	一百圓
14	任宣宰	五百圓	45	任丁宰	一百圓
15	任甲宰	五百圓	46	金甲奉	一百圓
16	百樂淳	五百圓	47	任道宰	一百圓
17	尹聖五	五百圓	48	姜辰周	一百圓
18	朴性道	五百圓	49	姜永陪	一百圓
19	申智秀	五百圓	50	秋明倫	一百五十圓
20	金達淵	五百圓	51	梁燾鎭	一百五十圓
21	金斗元	五百圓	52	任理宰	一百圓
22	李聖龍	四百六十圓	53	李殷哲	一百圓
23	秋錫浩	四百五十圓	54	尹聖男	一百圓
24	白樂龍	四百五十圓	55	金商一	一百圓
25	任貞宰	四百五十圓	56	任石淳	一百圓
26	沈昌雲	四百圓	57	李石千	一百圓
27	朴性春	四百圓	58	姜信哲	一百圓
28	崔錫俊	三百圓	59	沈甲求	一百圓
29	姜善甲	三百圓	60	金寬圭	一百圓
30	任乙允	三百圓	61	金在鳳	一百圓
31	李圭舜	三百圓			

금암리 청석다리 마을에서는 동계장이 제의를 주관할 제관을 지명한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에게 제관을 부탁한다. 만일 제관의 임무를 부탁받은 사람이 사정이 있어 말지 못하겠다고 하면 동계장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사흘동안 목욕재계를 하며 외출을 삼간다. 설날 조상에게 차례는 지내지만 세배도 다니지 않는다. 이외에 축관, 당주, 집사 등을 선정한다. 당주는 65세 정도의 여자가 맡으며, 제물을 마련한다. 당굿집은 부정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야 한다. 마을에서는 대개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당주 역할을 맡긴다. 당주로 선정되면 목욕재계를 하며 외출을 삼간다. 집사는 제관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2002년부터 마을 회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관들도 마을 회관에서 잔다. 음식 준비는 마을 아주머니 몇 분(2002년의 경우 3명)이 하는데 결산할 때 약간의 보수를 지급한다.

마을에 초상이나 출산, 심지어 개가 새끼를 낳아도 부정하다고 하여 제의를 일주일 정도 연기한다.

설날 그믐날 제의를 앞두고 제관의 주관 하에 마을 사람들이 산제당, 샘, 정주나무 주변, 산제당 올라가는 길 등을 청소한다. 청소가 끝나면 산제당, 제관집, 당주집, 집사집, 정주나무, 샘 등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양쪽으로 3무더기씩 놓는다. 다만 마을 입구에는 금줄만 친다. 금줄은 원새끼를 꼬며, 중간에 길지를 끼운다. 이때 벚집의 아랫부분을 길게 내밀게 하여 새끼줄에 뽕죽한 침이 나오게 한다. 금줄을 풀 때는 침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담갔다가 사용한다. 샘은 산제당과 마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금줄을 치면 다른 사람들은 제의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황토는 깨끗한 산에 가서 파온다. 특별히 방향을 보지 않는다.

2002년의 경우는 정주나무에 접근하는 3방향의 길에 모두 금줄을 쳤고, 굴다리를 제외한 두 방향의 길에 황토를 놓았다. 그리고 마을 회관의 문에 금줄을 달았다. 당굿집을 대신한 것이다. 샘은 정월 그믐날 매년 냇가에 파서 사용하였는데 10여 년 전부터 파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부정을 철저하게 가리는데 2002년의 경우 저녁 늦게 마을 주민이 회관으로 찾아와 초상집에 다녀와서 제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소지나 올려달라고 돈을 내었으나 부정하다고 받지 않았다.

2002년의 경우 산제당을 청소하고 금줄을 치는데 4~5명이 작업하였다.

제비(祭費)는 산제논에서 얻은 도조(賭租)와 다른 마을로 이사간 사람들이 보내오는 소짓돈으로 충당한다. 마을에는 두 마지기의 산제논이 있는데, 이를 임차한 사람은 쌀 한 가마를 납부한다. 또한 보내온 소짓돈의 액수에 따라서 각 가정을 돌며 부족한 비용을 마련한다.

제물은 동계장이 새벽에 주산장에 가서 구입해 온다. 이때 물건값을 깎지 않으며, 흠집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구입한다. 제물은 메, 백무리(작은 시루에 한 시루), 삼색실과, 돼지머리, 나물(고사리, 무, 숙주), 3탕(어탕, 육탕, 소탕) 막걸리, 쇠고기 산적, 명태포, 불바지쌀 등을 올린다. 나물, 탕, 산적은 양념을 쓰지 않는다.

한편 정주나무에 지내는 제물은 산제당과 별도로 동일하게 준비하는데 양념을 하며 특히 떡은 팔을 섞어 한 말 준비한다. 과거에는 두 말을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재수 좋다고 모두 가져가기 때문이다.

제관 일행은 초이튿날 밤에 당죽집에 모여서 함께 잠을 잔다. 2002년의 경우는 마을 회관에서 함께 잤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제물을 가지고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새벽에 올라가는 것은 ‘남들이 안 볼 때’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2002년의 경우는 3시 30분에 올라가 4시에 제를 시작하여 4시 40분쯤 끝났다.

산제당에 도착한 제관 일행은 먼저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기제사와 다르게 순서를 거꾸로 하여 차린다. 가령 기제사에는 제주(祭主)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홍동백서(紅東白西)의 순서로 놓는데, 산제에서는 동쪽에서부터 홍동백서의 순서로 놓는다. 또한 포를 놓을 때 동두서미(東頭西尾)라 하여 머리를 동쪽으로 놓는데, 산제에서는 머리를 서쪽으로 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2002년의 제물은 아래와 같다.

수저, 밥, 국, 떡 물, 나물, 나물, 술, 나물 돼지머리, 산적, 명태포 초,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산자, 초 향(쌀그릇에)
--

제의는 제관이 헌작(獻爵)을 하고 재배(再拜)를 하면 축관이 독축(讀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02년의 경우 잔을 가시어 붓고 제주가 1번 절하고, 술을 1잔 가득 붓고 일동이 절하였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祝文

維歲次 ○○正月 ○○朔 初三日○○○

幼學 ○○○ 敢昭告于

明山之神 維此孟春 若時昭事

一里康吉 百穀豐穰 冀賴神休

菲禮將誠 惟神顧歆 永尊厥居

尙 饗

(번역문)

幼學 ○○○는 敢히 明山神靈님께 告하나이다. 이어가는 이 孟春에 때때로 모든 일을 밝히사 우리 한마을 住民들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平吉하며 百穀이 豐年되어 잘 여물고 願하는 것은 神靈님의 넉넉한 善을 힘입사 菲미한 차림이나 받들어 정성드리오니 오직 神靈님이시어 돌보시고 길이 貴尊한 그 자리에 居하사 翕향하소서(박정순 역)

독축이 끝나면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燒紙)는 먼저 대동소지를 올리고 다음에 개인 소지를 올린다. 개인 소지는 마을에 따라 나이 순서대로 정리된 명단을 보고 올린다. 과거 논을 장만할 때부터 만든 명부가 있어서 명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올리는 것이다. 만약 대주(大主)가 사망하였으면 그 안사람의 소지를 올리고 안사람도 없으면 자식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올린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지 올리기를 원하면 올려준다. 소지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돈을 낸 사람은 특별히 올려준다. 소지문은 다음과 같다.

소지문

이소지는 간치부락 일동의 소지입니다.
동민전원이 심신제계 하옵고 명산신령님 전에
고백하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부락에 아무런 재난이 없게 하여 주
시옵고 안락한 생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옵기를
동민 일동이 일심으로 비옵고 축원드리옵니다
신사년 정월 초삼일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고침)

한 사람이 소지 명단을 부르면 그 옆에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모두 올리면 간단하게 음복(飮福) 한다. 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산제 축문을 태우고 소지 종이에 명태포, 돼지 코, 떡을 조금 싸서 산제당 대들보 위에 끼워 놓는다. 이것은 제사를 지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것을 먹으면 ‘재수 있다’고 한다.

3.정주나무제

제관 일행이 산제를 마치고 제물을 가지고 당죽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당주는 정주나무에 올릴 메를 짓고 떡을 찐다. 새벽 여섯 시경에 제관 일행이 다시 제물을 가지고 정주나무로 가서 거리제를 지낸다. 제일 먼저 정주나무 옆에 불을 놓는다. 제물은 산제당에 올리는 것과 동일하나 떡은 팔떡으로 많이 하고 음식은 양념을 한다. 마을에서는 ‘정주나무제’ 또는 거리제라고 부른다. 정주나무의 수종(樹種)은 느티나무이며, 예전에는 여러 그루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베어졌으며, 몇 그루는 고사(枯死)하였다. 지금 정성을 드리는 정주나무는 세 번째 심은 것인데, 마을 분들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확히 모르며, 다만 마을 근처의 산에서 가져왔다고 하였다.

한편 정주나무는 봄에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차례 차례로 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제관 일행이 정주나무 앞에 제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2002년의 제물 진설은 다음과 같다.

쌀(향을 콧아서), 떡	
명태포, 나물, 나물, 돼지머리, 밥, 산적	
초	초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산자,	

제관이 헌작하고 재배한 후 대동소지를 올린다. 대동소지는 앞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정주나무에는 축문을 읽지 않는다. 대동소지를 올린 다음에 개별소지를 올린다. 이때 개인적으로 나와서 거리제를 구경하고, 자신의 소지를 올리는 사람도 있다. 거리제를 지낸 후에 떡과 명태포, 돼지코를 소지종이에 조금 싸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그리고 금줄을 모두 거두어 정주나무에 감아둔다. 이 금줄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둔다.

제의가 모두 끝나면 제물은 당췌집에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정주나무 근처에서 먹든지 아니면 가까운 집에 들어가서 먹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당췌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산제 비용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다.

2002년의 경우는 마을 회관으로 제물을 운반하였고 마을 회관에서 음복을 하였다.

금암리 청석다리 주민들은 동제에 대한 애착과 믿음이 남다르다. 6.25 전쟁에도 산제를 거르지 않고 지냈다. 그 덕분에 군대에 가서 다친 사람도 없었으며, 인근 마을은 전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금암리 청석다리 마을은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충청매장문화연구원·철도청중부건설사업소, 2001, 장항선 제5공구 노반개량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에 실려있는 이필영의 마을 신앙 내용을 참고)

답사일

2002년 1월 22일, 27일 2002년 2월 11일, 13일, 14일

도움말 주신 분

임옥제(74) 주산면 금암리 550

임익순(64) 주산면 금암리 419

김신원(76) 주산면 금암리 178번지



산제당(2002. 2. 1)



산제당의 신위(2002. 2. 11)



산제당 개축 공로자 방명(2002. 2. 11)



산제당 청소(2002. 2. 11)



금줄 만들기(2002. 2. 11)



금줄 달기(2002. 2. 11)



황토 놓기(2002.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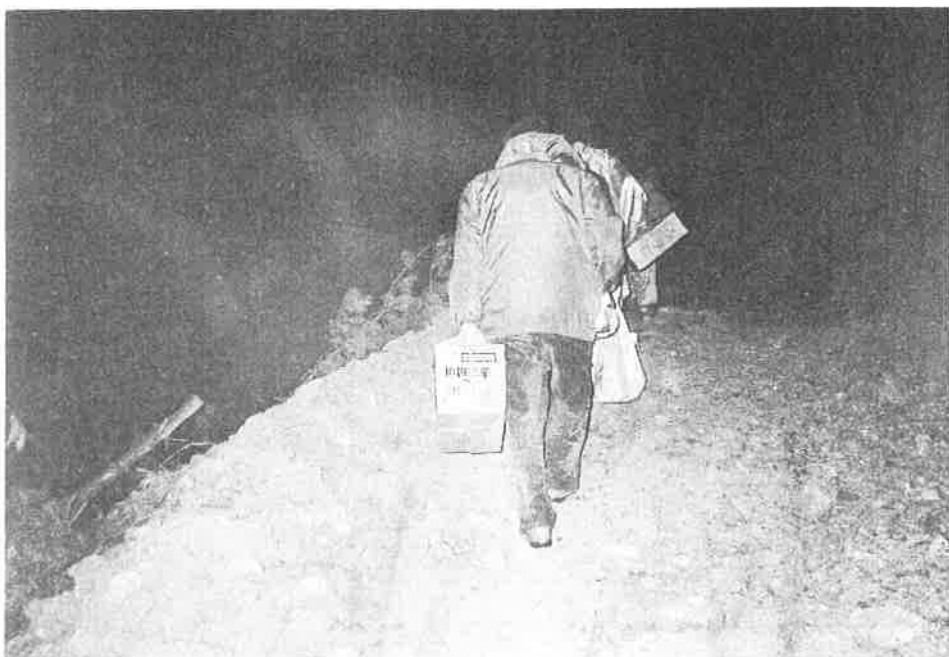
마을회관 앞의 금줄과 황토(2002. 2. 11)



동제 음식의 준비(2002. 2. 13)



제기함(2002. 2. 13)



산제 지내기 위해 오르는 모습(2002.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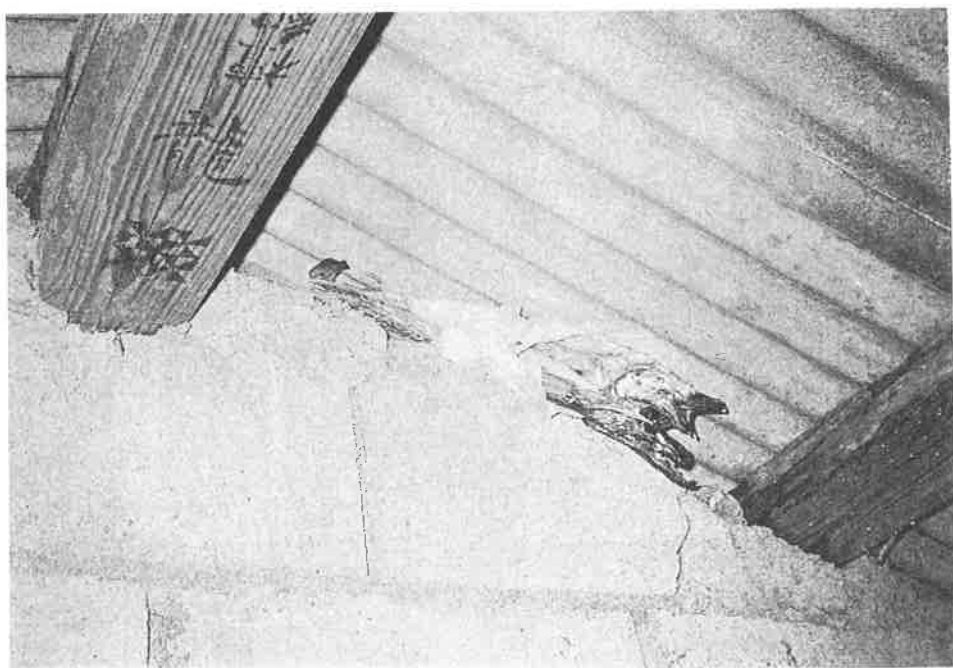
산제의 제상(2002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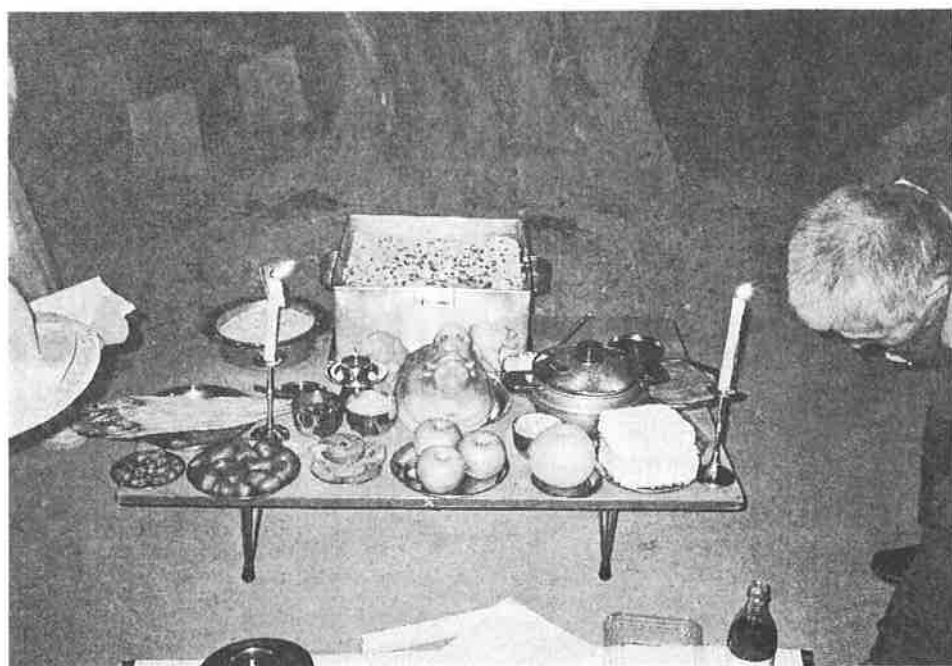
산제 모습(2002.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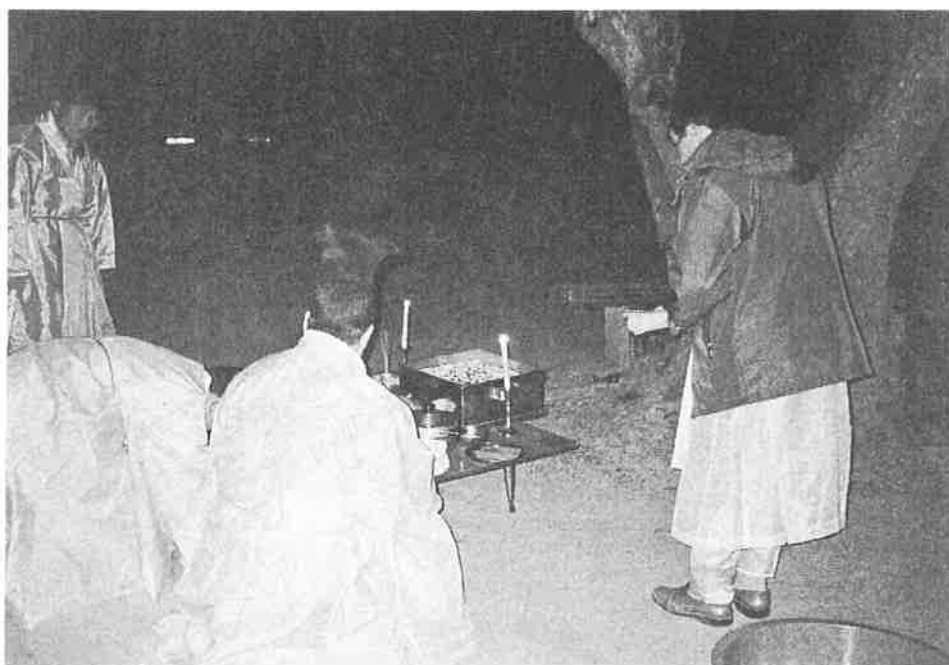
산제당에서의 소지 모습(2002. 2. 14)



산제당 천장에 매단 명태(2002. 2. 14)



정주나무제 제상(2002. 2. 14)



정주나무제(2002. 2. 14)



정주나무제 소지(2002. 2. 14)

23. 삿갓재 마을 단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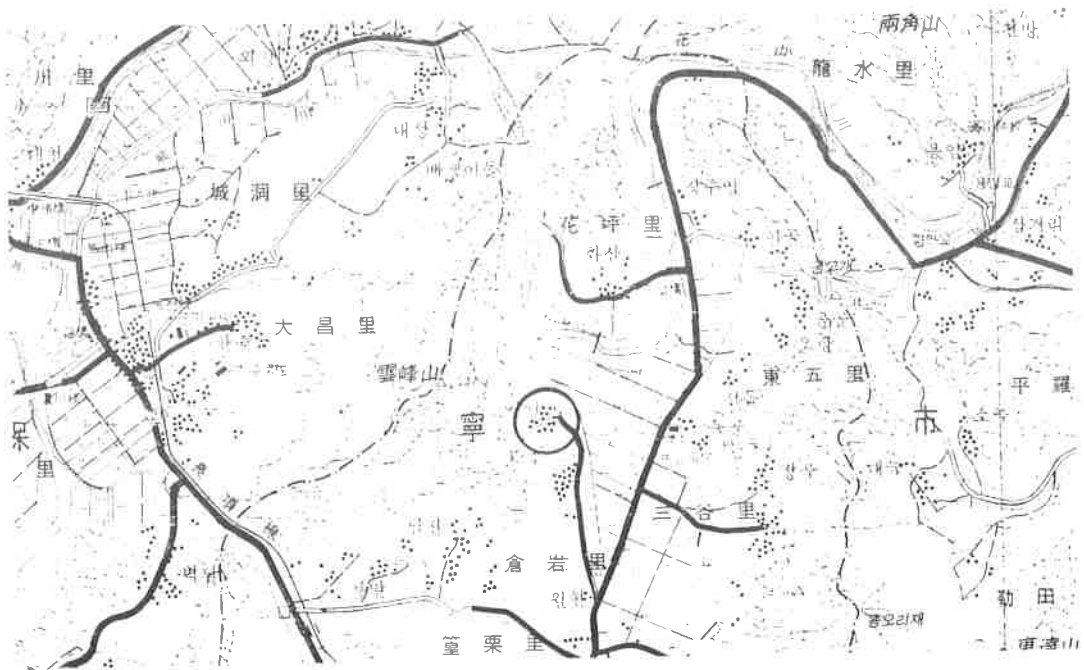
1. 마을의 개관

삿갓재 마을은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남쪽 마을이다. 주산면 소재지인 금암리에서 보령댐으로 통하는 도로변인 다리티(월현) 마을에서 운봉산 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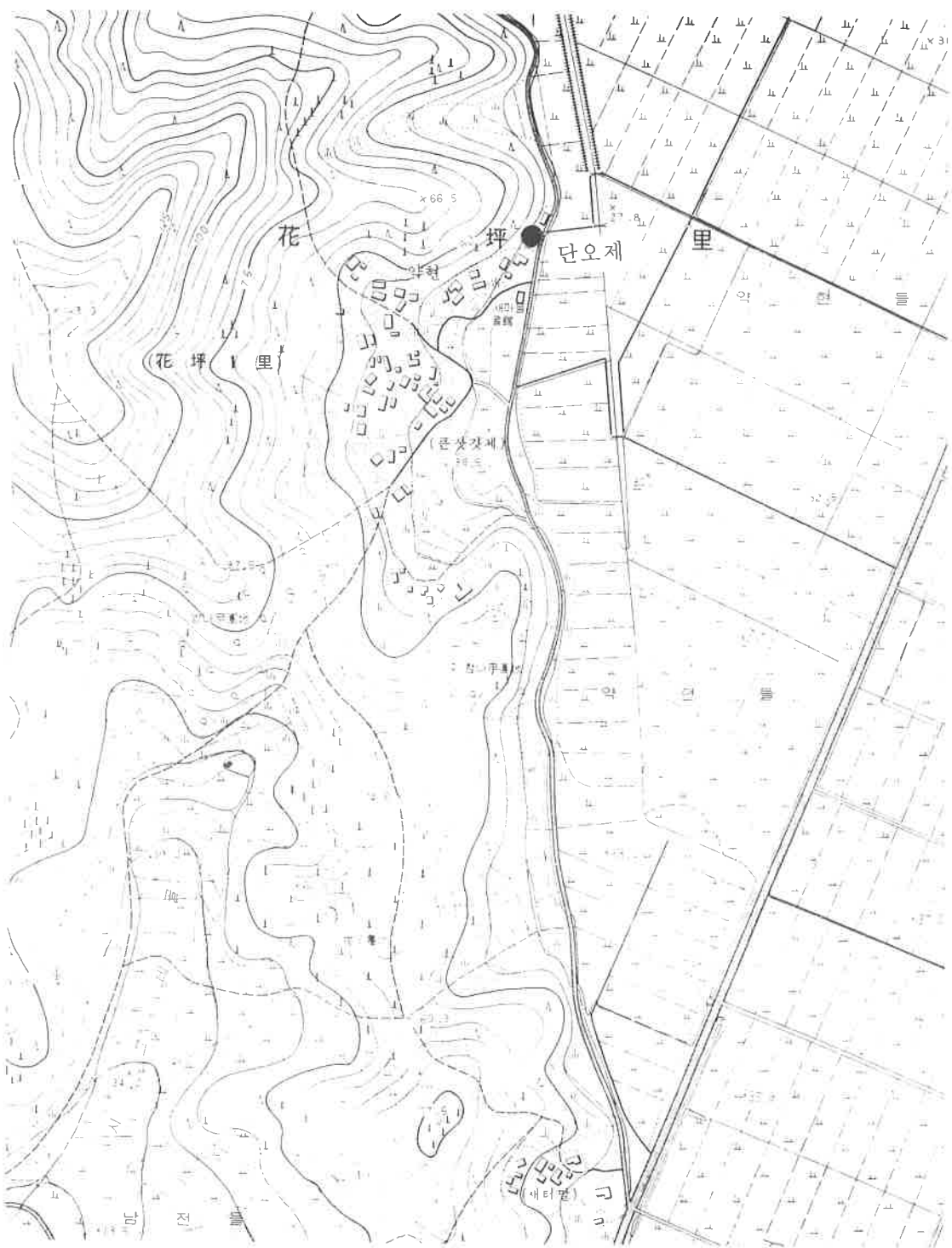
마을은 큰 삿갓재와 작은 삿갓재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에 있는 큰 삿갓재에 25가구, 북쪽에 있는 작은 삿갓재에 15가구가 거주한다. 옛날에는 남포 백씨가 집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현재는 경주 김씨 8가구, 경주 이씨 7~8가구, 남포 백씨 5~6가구가 거주한다.

마을 서쪽은 낮은 산지, 북쪽은 높은 산지(운봉산)이고 동쪽은 넓은 들을 이룬다. 이 들에는 웅천천에 대규모 보(淤)를 축조하여 동오리들, 삼곡리들과 함께 물을 낸다.

마을 안에는 몇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여 오래 전부터 주민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근처에는 토성이 있고 창암리로 통하는 고개에는 성황당이 그대로 남아있다.



삿갓재 마을 지형도(1:50000)



쌍갓재 마을 지형도(1:5000×0.82)

2. 단오제의 기원

삿갓재 마을에 단오제가 생긴 지는 5~6년밖에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정월 초에 집집마다 낱을 잡아 정자나무 밑 동자상에 제를 올렸다. 대개는 정월 초 사흘, 초이레, 열 나흘에 올렸는데 열 나흘 밤이 가장 많았다. 정자나무는 큰 참나무이고 그 밑에는 넓직한 바위가 두 개 있고 바위 안쪽으로 동자상 2개와 문인상 2개가 옛날부터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이 동자상에 소원을 빌었다. 마을 단위의 산제나 당제는 없었다고 한다.

단옷날에는 젊은이들이 마을 회관 옆 큰 팽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고 띄고 놀았다.

5~6년 전 마을 어른들이 단옷날 동자상에 제를 올리자고 발의하여 단옷날 아침 제를 올리고 그네를 매고 놀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동자상이 파괴되어 1999년쯤 동자상을 새로 교체하였다.

3. 단오제

단오 전날 마을 기금을 가지고 제물을 마련한다. 제물은 밤, 대추, 꽃감, 수박, 참외 등 약간의 과일과 떡, 술이다. 제물과 마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마을 부녀회원들이 회관에서 준비한다.

젓날 식전에 마을 사람들이 예취기를 가지고 나와 마을로 통하는 길의 풀을 베고 정자나무 밑을 청소한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나와 10시쯤 제를 올린다. 먼저 동자상 앞에 촛불 2개를 쬔은 쌀 한 그릇을 놓고, 물 한 그릇을 놓는다. 그 앞에는 넓은 상을 놓고 상 위에는 팔을 섞은 떡 1시루(떡집에서 만들어 온 것임), 수박 두 통, 참외, 밤, 대추, 꽃감 등을 놓는다. 그 앞에는 향을 피운다. 술은 정종을 사용하였다(1999년).

마을의 원로 중 한 사람이 제관을 한다. 일반 유교식 제사처럼 잔을 올리고 축을 읽는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 김홍제 씨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維歲次 己卯 五月庚午朔 五日辛丑 幼學白永錫 敢昭告于
애기佛像之神

○○珠山面 花平里蕓峴洞

家家戶戶 無病長壽 富貴榮華 太平聖代祈願

謹以清酌 脯醢 疏薦于神 神其佑之 尙

饗

(번역문)

해는 차례로 이어 己卯年五月庚午朔五日辛丑에 幼學 某는 감히 昭에 계신 애
기부처 神靈님께 告하나이다. 우리 주산면 화평리 약현동에 家家와 戶戶마다
無病하고 壽命은 長壽하며 富貴하고 榮華로우며 太平聖代케 하옵시기를 기원
하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안주로써 소홀히 차렸으나 신령님께 받드오니 신령
님이시어 이를 도우시고 흠향 하옵소서.(박정순 역)

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때 돈을 상 위
에 올려놓기도 한다. 제는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지내지만 여자들도 나와서 절
을 하였다.

제를 마치면 제물의 일부를 떼어 동자상과 문인상에 놓는다. 특히 문인상에
는 먹으라는 의미로 입 밑에 놓는다.

이어서 제물을 회관으로 운반하고 마을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장만한다. 대
형 술과 통에 음식을 끓여내고 돼지고기, 술 등을 차려 먹는다.

4.그네매기

단옷날 마을 젊은이들이 그네를 맨다. 그네를 매기 위해서는 짚 5~6단이
필요한데 아무네 짚이나 손쉬운 대로 가져다가 만든다. 먼저 동아줄을 만드는데
동아줄은 한사람이 끝을 돌리고, 한 사람이 짚을 먹여나간다. 돌리는 사람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돌려야 틀어지지 않고 줄이 만들어진다. 긴
외줄이 만들어지면 잡아당긴 상태로 절반으로 접어 한 사람이 동아줄을 만들
어 나가고 한 사람은 줄을 넘긴다. 이때 한쪽 끝은 나무에 묶어놓고 하기 때
문에 2사람이면 동아줄을 만들 수 있다. 세 접으로 만드는 동아줄은 1/3씩 갈
라 트는데 그네에 사용되는 것은 보통 두 접으로 만든 것이다. 동아줄을 틀을
때 손잡이 부근에는 광목 천으로 고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그네를 잡을
때 손목에 감으라는 것으로, 그네 탈 때 손을 놓치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

는 안전장치이다.

그네는 회관 옆 팽나무에 맨다. 정자나무는 그네 밑 나뭇가지가 마땅하지 않고, 팽나무에는 그네 밑 적당한 나뭇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5. 단오제의 쇄퇴

2000년과 2001년에는 단오제를 지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오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제 비용을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100%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네도 매지 않는데 만들 사람도 없지만 탈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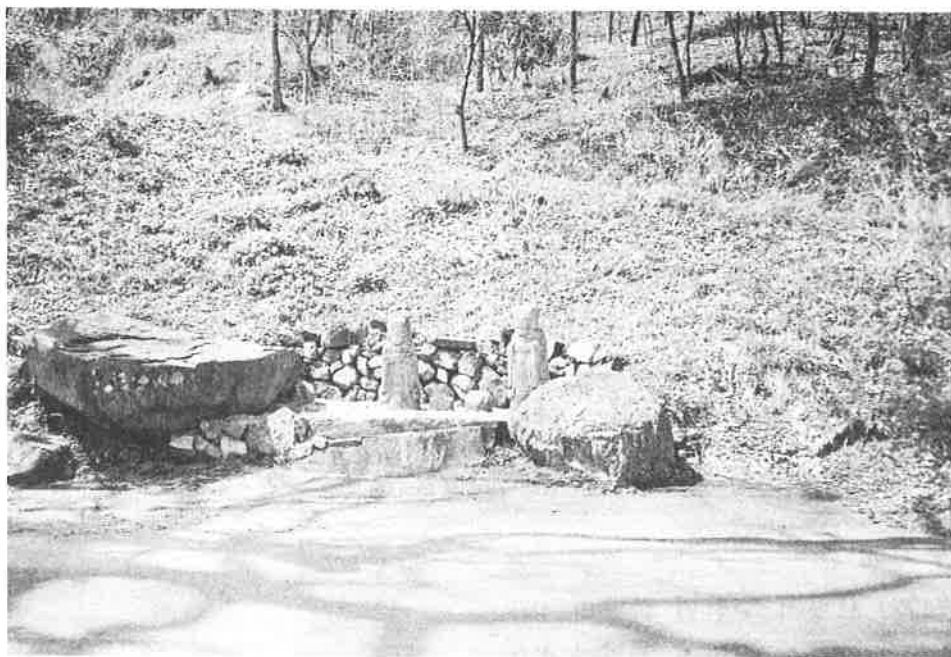
도움말 주신 분

김주홍(72)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30

김준홍(65)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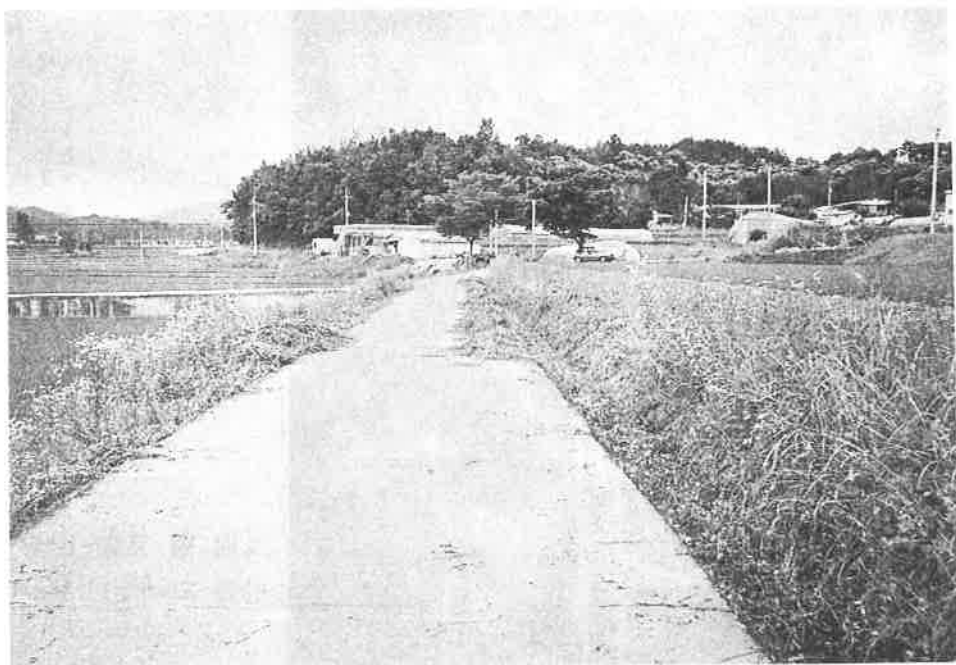
삿갓재 마을 팽나무와 정자나무(1996. 5. 19)



정자나무 밑의 바위와 동자상(199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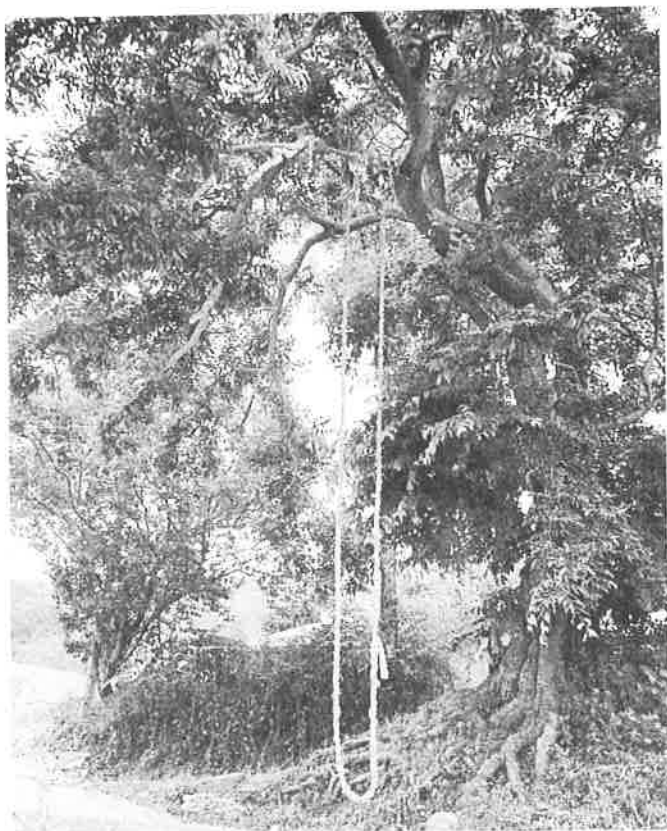
단오제 후 음식 놓은 모습(1996. 6)



단오제 전 마을길 닭기(1999. 6)



단오제(1999. 6)



그네 맨 모습-1998년에
만든 그네임(1999. 6)



단오제(1999. 6)



그네에 광목 고리 맨 모습-1998년에 만든 그네임(1999. 6)



회식(1999. 6)

참고 문헌

- 대천문화원, 1988, 「愛鄉」
- 대천시지편찬위원회, 1994, 대천시지.
- 민속학회, 1998,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 密陽朴氏奉禮公派譜所, 1988, 密陽朴氏奉禮公派譜.
- 보령군지편찬위원회, 1991, 보령군지.
- 보령시, 1998, 「보령의 지명」 상·하.
- 이필영, 1994, 「마을 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 이필영, 1999, 충남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 -외연도를 중심으로
- 최인학·최재옥·임재해, 1994,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 충청남도, 1991, 충남지방의 장승 솟대 신앙.
- 충청남도·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 1997, 「島嶼誌」.
- (재)충청매장문화연구원·철도청중부건설사업소, 2001, 장항선 제5공구 노반개량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황의호, 1999, 보령 지방 마을 신앙의 실태. 「考古와 民俗」 제2집, 한남대학교 박물관.
- 황의호, 2000, 가라티 마을 동제. 「考古와 民俗」 제3집, 한남대학교 박물관.
- 황의호, 2001, 지게굴 마을 동제, 「保寧文化 10집」

편집 후기

「보령의 지명」 조사 관계로 보령시 관내의 모든 마을을 조사하던 중 마을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동제(洞祭)가 있었다는 것과 대부분의 마을에는 동제가 없어지고 ‘산제당곡’ 같은 지명만 남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도 동제가 엄숙하게 지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동제를 주도하는 계층은 모두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동제의 급격한 변화와 쇠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보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조사 가능한 동제라도 조사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7~8년 전부터 동제가 행해지는 마을을 조사하고, 동제에 직접 참여하여 자료를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가 대천문화원에서 「보령의 동제」라는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필자는 전문 민속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걱정이 다. 다만 이런 마을에 이런 동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전문학자들이 좀 더 연구하여 보령 지역 동제의 실체와 특성을 밝혀주기 바란다.

끝으로 본 조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여러 마을의 어른들과, 축문을 번역하여 주신 박정순 선생님, 책이 나오도록 힘써주신 대천문화원과 보령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2년 12월 함의호

저자 소개

황의호(黃義虎)

○경력

- 보령시 죽정동 현대아파트 102-710 935-8559
-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고뿌래 샘골 출생(1953)
- 웅천초 · 웅천중 · 주산농고 · 공주대 지리교육과 졸업. 同 교육대학원 수료.
- 대천여중 · 대천고 · 보령중 · 청라중 · 한내여중 교사, 웅천중, 대천여고 교감(현)
- 보령문화연구회 회원, 국편사료조사위원. 보령시 환경 · 지명 · 문화재보호위원

○논문

- 가라티 마을 동제
- 금강암 미륵불
- 보령 석공업의 기원과 발전
- 보령 지방의 마을 신앙
- 여지도서에 기록된 보령지방의 지명
- 한내돌다리 연구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토정 이지함에 관하여
- 지계굴 마을 동제
- 과거의 가뭄 극복
- 보령 벼루공업의 기원과 발전
- 보령 지방의 고인돌 분포
- 보령현 治所의 이동에 관하여
- 토진곶 목장성 연구
- 항일투사 김주석

○저서

- 保寧의 地名(상 · 하)
- 보령의 고인돌
- 大川市誌(편저)

보령의 洞祭

인쇄일/ 2001년 12월 25일

발행일/ 2001년 12월 30일

저자/ 황의호, 교정/ 이안석 · 김경희

발행/ 대천문화원장 윤병배

주소/ 보령시 동대동 983-16

인쇄/ 명문당인쇄소(935-2850)

비매품: 이 책은 대천문화원 예산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표지글씨: 임기석(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전 보령문화연구회장)

